

2016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신 종 각

이 주 현

오 세 미

김 주 희

KEIS

| 이용자 안내 |

- 본 보고서는 교육·노동시장간 이동에 관한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및 인력수급불일치 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이 2015년 대졸자에 대해 2016년 조사한 2015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결과를 개괄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에서 사용된 산업분류는 통계청에서 표준화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이며, 직업분류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개발한 「한국고용직업분류 (KECO)」입니다.
-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추가적인 자료정제(data cleaning) 과정을 통해 통계수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통계치는 모두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이며, 분석에서 무응답값은 제외한 수치입니다.
- 보고서에 수록된 통계표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자료 출처와 발간 시기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보고서의 전문은 <http://survey.keis.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와 관련한 문의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패널조사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발간사

한국고용정보원은 2006년 이후 매년 전국의 전문대학 및 대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학과 층화별로 표본을 선정하여 졸업 후 약 1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경제활동상태, 일자리 경험, 교육 및 취업준비, 학교생활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를 실시해오고 있다. 2013년 이전까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는 대학 졸업자의 경력개발 및 직업이동경로를 추적 조사하는 장단기 패널조사로 시행해왔으나 2012년(2011GOMS) 이후에는 졸업이후 조사시점까지 활동상황을 1회 조사하는 횡단면 조사로 변경되어 실시되고 있다. 패널조사가 갖는 제반 장점이 있으나 추적조사가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조사결과의 신속한 활용을 위해 횡단면 조사로 결정되었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는 교육노동시장간의 인력수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학교 및 전공별 세부 노동시장 성과를 학부모와 수험생에게 제공하여 대학 및 전공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매년 새로운 졸업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본 조사는 대학 졸업자들의 노동시장 안착 및 이동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노동시장의 시그널을 교육시장에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14년 8월 및 2015년 2월 대졸자를 대상으로 2016년 9월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에 대한 기초통계분석 내용을 담고 있다. 대졸자들이 졸업 후 18개월간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로 구성된다.

본 보고서가 정책담당자는 물론 연구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 본 보고서를 집필하느라 수고한 담당연구진들의 노고에 치하를 보낸다.

2017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이 재 흥

Ⅱ

제1장 조사개요	1
1. 조사목적	1
2. 조사연혁	2
3. 조사내용	3
4. 표본설계	5
5.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	8
6. 가중치 부여	13
제2장 졸업자의 특성	17
1. 사회인구학적 특성	17
2. 가구특성 및 가구배경	21
제3장 현재 일자리	24
1. 입직 경로	26
2. 일자리 특성	29
3.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 근로소득	36
4. 일자리 만족도 및 업무수준	48
제4장 첫 일자리	56
1. 입직 소요기간	57
2. 첫 일자리 특성	61
3. 고용형태 및 근로소득, 근로시간	69

4. 일자리 만족도 및 업무수준	79
5. 일자리 적응 및 그만둔 이유	84
제5장 학교생활, 훈련 및 자격	89
1. 출신 대학교	89
2. 현재 재학 중인 학교	100
3. 졸업 전 취업목표	103
4.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106
5. 취득 자격증	113
제6장 청년층 현재 일자리	119
1. 일자리 특성	121
2. 고용형태 및 근로소득, 근로시간	130
제7장 청년층 첫 일자리	141
1. 입직 소요기간	142
2. 첫 일자리 특성	145
3.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 근로소득	154
부표1. 년도별 주요 표	164
부표2. 표준직업분류 기준 직종별 일자리 분포	194
부록. 2016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5GOMS) 설문지	203

Ⅱ

〈표Ⅰ-1〉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1차 년도 주요 조사내용	4
〈표Ⅰ-2〉 목표모집단의 구성	5
〈표Ⅰ-3〉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의 구성	6
〈표Ⅰ-4〉 2015GOMS의 목표상대표준오차 조정 방안	6
〈표Ⅰ-5〉 표본추출 결과	7
〈표Ⅰ-6〉 표본명부에 포함된 변수	8
〈표Ⅰ-7〉 표본명부 확인결과	9
〈표Ⅰ-8〉 조사대상자 CATI 접촉결과 : 유형별 분류	10
〈표Ⅰ-9〉 연도별 CATI 접촉결과	11
〈표Ⅰ-10〉 조사응답자 분포	12
〈표Ⅰ-11〉 권역별, 학교유형별, 성별 평균 가중치	15
〈표Ⅰ-12〉 월평균 소득의 표준오차	16
〈표Ⅱ-1〉 연도별 인구학적 특성별 졸업자 분포	18
〈표Ⅱ-2〉 학교유형별 졸업자 분포	19
〈표Ⅱ-3〉 연령별 학교유형별 성별 졸업자 분포	20
〈표Ⅱ-4〉 혼인상태별 학교유형별 성별 졸업자 분포	20
〈표Ⅱ-5〉 성별 부모님과과의 동거여부 및 가구주와의 관계	21
〈표Ⅱ-6〉 학교유형별 부모님 최종학력 분포	22
〈표Ⅱ-7〉 학교유형별 대학 입학당시 부모님 직업 분포	23
〈표Ⅲ-1〉 2015년도 대졸자의 경제활동상태	25
〈표Ⅲ-2〉 성별, 졸업대학 특성별 고용률	26
〈표Ⅲ-3〉 성별, 학교유형별 입직경로	27

〈표Ⅲ-4〉 전공계열별 입직경로	28
〈표Ⅲ-5〉 현재 일자리 진출분야(산업)	29
〈표Ⅲ-6〉 학교유형별 현재 일자리 진출분야(산업)	30
〈표Ⅲ-7〉 전공계열별 현재 일자리 진출분야(산업)	31
〈표Ⅲ-8〉 현재 일자리 진출분야(직업)	32
〈표Ⅲ-9〉 학교유형별 현재 일자리 진출분야(직업)	33
〈표Ⅲ-10〉 전공계열별 현재 일자리 진출분야(직업)	33
〈표Ⅲ-11〉 현재 일자리 사업체 규모	34
〈표Ⅲ-12〉 성별, 졸업대학 특성별 사업체 규모	35
〈표Ⅲ-13〉 성별, 졸업대학 특성별 종사상 지위	37
〈표Ⅲ-14〉 산업 및 직업,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 비율	39
〈표Ⅲ-15〉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41
〈표Ⅲ-16〉 산업 및 직업, 사업체 규모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42
〈표Ⅲ-17〉 종사상 지위별 월평균 근로소득	44
〈표Ⅲ-18〉 산업 및 직업,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근로소득	45
〈표Ⅲ-19〉 성별, 졸업대학 특성별 사회보험 가입률	46
〈표Ⅲ-20〉 성별, 졸업대학 특성별 부가급여 수혜율	48
〈표Ⅲ-21〉 현재 일자리 만족도	49
〈표Ⅲ-22〉 현재 일자리 업무-교육 수준 일치도	50
〈표Ⅲ-23〉 현재 일자리 업무-기술 수준 일치도	51
〈표Ⅲ-24〉 현재 일자리 업무내용-전공 일치도	52
〈표Ⅲ-25〉 대학 전공 지식의 업무 수행 도움 정도	53
〈표Ⅲ-26〉 대학 재학시 배웠으면 업무에 도움이 되었을 능력	54
〈표Ⅲ-27〉 현재 일자리 적응의 어려운 점	55
〈표Ⅳ-1〉 졸업 후 일자리 경험 여부	57
〈표Ⅳ-2〉 첫 일자리 입직 소요기간별 분포	58
〈표Ⅳ-3〉 일자리 유지여부별 첫 일자리 입직 소요기간	59
〈표Ⅳ-4〉 졸업대학 특성별 첫 일자리 입직 소요기간	60
〈표Ⅳ-5〉 첫 일자리 진출분야(산업대분류)	61

〈표Ⅳ-6〉 학교유형별 첫 일자리 진출분야(산업)	62
〈표Ⅳ-7〉 전공계열별 첫 일자리 진출분야(산업)	63
〈표Ⅳ-8〉 첫 일자리 진출분야(직업 중분류)	64
〈표Ⅳ-9〉 학교유형별 첫 일자리 진출분야(직업)	65
〈표Ⅳ-10〉 전공계열별 첫 일자리 진출분야(직업)	66
〈표Ⅳ-11〉 첫 일자리 사업체 규모	67
〈표Ⅳ-12〉 학교유형별 사업체 규모	68
〈표Ⅳ-13〉 전공계열별 사업체 규모	69
〈표Ⅳ-14〉 성별, 졸업대학 특성별 종사상 지위	70
〈표Ⅳ-15〉 첫 일자리 유지여부별 종사상 지위	71
〈표Ⅳ-16〉 산업 및 직업,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 비율	73
〈표Ⅳ-17〉 첫 일자리 유지여부별 정규직 비율	73
〈표Ⅳ-18〉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75
〈표Ⅳ-19〉 산업 및 직업, 사업체 규모별 주당평균 근로시간	76
〈표Ⅳ-20〉 종사상 지위별 근로소득	78
〈표Ⅳ-21〉 산업 및 직업, 사업체 규모별 근로소득	79
〈표Ⅳ-22〉 첫 일자리 만족도	80
〈표Ⅳ-23〉 첫 일자리 업무-교육 수준 일치도	81
〈표Ⅳ-24〉 첫 일자리 업무-기술 수준 일치도	82
〈표Ⅳ-25〉 첫 일자리 업무내용-전공 일치도	83
〈표Ⅳ-26〉 첫 일자리 적응의 어려운 점	85
〈표Ⅳ-27〉 첫 일자리 유지여부별 첫 일자리 적응의 어려운 점	86
〈표Ⅳ-28〉 성별 및 학교유형별 첫 일자리 그만둔 이유	87
〈표Ⅳ-29〉 전공계열별 첫 일자리 그만둔 이유	88
〈표Ⅴ-1〉 졸업 대학 선택 이유	90
〈표Ⅴ-2〉 전공 선택 이유	92
〈표Ⅴ-3〉 취업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 참여 경험	93
〈표Ⅴ-4〉 휴학 이유	96
〈표Ⅴ-5〉 졸업유예 이유	98

〈표 V-6〉 대학교육 만족도	99
〈표 V-7〉 대학(원) 진학의 주된 이유	102
〈표 V-8〉 취업을 희망하는 사업체 유형 분포	105
〈표 V-9〉 의중임금(연봉)	106
〈표 V-10〉 교육 및 훈련 경험률	107
〈표 V-11〉 교육 및 훈련 경험 횟수	108
〈표 V-12〉 성 및 학교유형별 교육·훈련 분야	109
〈표 V-13〉 전공계열별 교육 및 훈련 분야	110
〈표 V-14〉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목적 분포	111
〈표 V-15〉 교육 및 훈련의 도움정도	113
〈표 V-16〉 자격증 보유 여부	114
〈표 V-17〉 자격증 보유 개수	115
〈표 V-18〉 자격증 취득 목적 분포	116
〈표 V-19〉 자격증 취득의 도움정도	118
〈표 VI-1〉 대졸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	120
〈표 VI-2〉 졸업대학 특성별 고용률	121
〈표 VI-3〉 현재 일자리 진출분야(산업 대분류)	122
〈표 VI-4〉 학교유형별 현재 일자리 진출분야(산업)	123
〈표 VI-5〉 전공계열별 현재 일자리 진출분야(산업)	124
〈표 VI-6〉 학교소재권역별 현재 일자리 진출분야(산업)	124
〈표 VI-7〉 일자리 진출분야(직업 중분류)	125
〈표 VI-8〉 학교유형별 현재 일자리 진출분야(직업)	126
〈표 VI-9〉 전공계열별 현재 일자리 진출분야(직업)	127
〈표 VI-10〉 학교소재권역별 현재 일자리 진출분야(직업)	127
〈표 VI-11〉 현재 일자리 사업체규모	128
〈표 VI-12〉 학교유형별 사업체 규모	129
〈표 VI-13〉 전공계열별 사업체 규모	130
〈표 VI-14〉 성별, 졸업대학 특성별 종사상 지위	131
〈표 VI-15〉 졸업대학 특성별 정규직 비율	132

〈표Ⅵ-16〉 산업 및 직업,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 비율	134
〈표Ⅵ-17〉 졸업대학 특성별 주당평균 근로시간	135
〈표Ⅵ-18〉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136
〈표Ⅵ-19〉 산업 및 직업, 사업체 규모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136
〈표Ⅵ-20〉 졸업대학 특성별 월평균 근로소득	138
〈표Ⅵ-21〉 종사상 지위별 월평균 근로소득	139
〈표Ⅵ-22〉 산업 및 직업,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근로소득	140
〈표Ⅶ-1〉 졸업 후 일자리 경험 여부	142
〈표Ⅶ-2〉 첫 일자리 입직 소요기간별 분포	143
〈표Ⅶ-3〉 졸업대학 특성별 첫 일자리 입직 소요기간	144
〈표Ⅶ-4〉 일자리 유지여부별 첫 일자리 입직 소요기간	145
〈표Ⅶ-5〉 첫 일자리 진출분야(산업 대분류)	146
〈표Ⅶ-6〉 학교유형별 첫 일자리 진출분야(산업)	147
〈표Ⅶ-7〉 전공계열별 첫 일자리 진출분야(산업)	148
〈표Ⅶ-8〉 학교소재권역별 첫 일자리 진출분야(산업)	148
〈표Ⅶ-9〉 첫 일자리 진출분야(직업 중분류)	149
〈표Ⅶ-10〉 학교유형별 첫 일자리 진출분야(직업)	150
〈표Ⅶ-11〉 전공계열별 첫 일자리 진출분야(직업)	151
〈표Ⅶ-12〉 학교소재권역별 첫 일자리 진출분야(직업)	151
〈표Ⅶ-13〉 첫 일자리 사업체 규모	152
〈표Ⅶ-14〉 학교유형별 사업체 규모	153
〈표Ⅶ-15〉 전공계열별 사업체 규모	153
〈표Ⅶ-16〉 학교소재권역별 사업체 규모	154
〈표Ⅶ-17〉 성별, 졸업대학 특성별 종사상 지위	155
〈표Ⅶ-18〉 첫 일자리 유지여부별 종사상 지위	156
〈표Ⅶ-19〉 졸업대학 특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157
〈표Ⅶ-20〉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157
〈표Ⅶ-21〉 산업 및 직업, 사업체 규모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158
〈표Ⅶ-22〉 첫 일자리 유지여부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159

〈표VII-23〉 졸업대학 특성별 근로소득	160
〈표VII-24〉 종사상 지위별 근로소득	160
〈표VII-25〉 산업 및 직업, 사업체 규모별 근로소득	161
〈표VII-26〉 첫 일자리 유지여부별 근로소득	162
〈표VII-27〉 졸업대학 특성별 의중임금과 첫 직장에서의 연평균 소득	163

Ⅱ

[그림 I -1] GOMS 조사설계	3
[그림 I -2] 조사 진행 과정	9
[그림Ⅲ-1] 현재 일자리 정규직 비율	38
[그림Ⅲ-2] 현재 일자리 주당 평균 근로시간	40
[그림Ⅲ-3] 현재 일자리 월평균 근로소득	43
[그림Ⅳ-1] 첫 일자리 정규직 비율	72
[그림Ⅳ-2] 첫 일자리 주당 평균 근로시간	74
[그림Ⅳ-3] 첫 일자리 월평균 소득	77
[그림 V -1] 휴학경험	95
[그림 V -2] 졸업유예 경험	97
[그림 V -3] 대학(원) 추가진학 여부	100
[그림 V -4] 취업목표 설정 여부	103

제1장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 GOMS)는 전국의 전문대학 및 대학교 졸업자의 3~4%를 선정하여 대학졸업자의 경력개발 및 직업(직장) 이동경로를 조사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졸업 후 18개월 시점의 경제활동 상태, 대학 졸업 후 일자리 이동,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이다. 본 조사는 교육·노동시장간 신뢰성 있는 인력수급정보제공 및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별 학교 및 전공별 세부 노동시장 성과를 학부모와 수험생에게 제공하여 대학 및 전공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대학 졸업자들의 노동시장 안착 및 이동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노동시장의 시그널을 교육시장에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조사연혁

본 사업의 시작년도인 2006년에는 2004년 8월 및 2005년 2월 대학졸업자 502,764명의 약 5%에 해당하는 26,000명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1차 조사 결과 총 26,544명의 원표본이 구축되었다. 2005년 졸업자에 대한 조사는 2008년 3차 조사를 마치고 마무리 되었다. 처음 2005년 대졸자에 대한 조사는 8년간 추적조사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2년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를 중단하였는데 특정년도의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패널조사가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결정되었다.

장기 패널조사를 중단하는 대신, 2009년도에 횡단면 조사로 시행되던 조사 대상을 2년 후 1회 추적 조사하는 단기패널조사로 설계를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매년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성별, 학교유형별, 학과(전공)별, 지역별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성과 등을 파악하고, 2년이 경과한 후의 직업이동경로 등 노동이동에 대한 동태적 정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만, 조사설계 변경과정에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2006년 졸업생에 대한 조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또한, 2007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부터 조사기준일을 9월 1일로 정하여, 이전 일주일일 기준으로 모든 문항을 응답하게 하였다. 이는 2005년 대졸자 조사가 응답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한 것과 다른 점으로 매년 조사결과에 대해 일정 기준시점으로 비교가능하게 되었다.

2013년에는 단기패널조사에서 횡단면 조사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던 2011년 졸업자에 대한 간이조사부터 추적조사는 중단되었다. 정리하면 2005년 졸업자 조사는 패널, 2007년부터 2010년 졸업자에 대한 조사는 단기패널, 2011년 졸업자 조사부터는 횡단면 조사이다.

그간 조사된 표본수를 살펴보면 장기패널조사로 기획되었던 2006년 (2005GOMS) 조사는 26,544명이었으며, 단기패널조사로 변경된 이후에는 해마다 18,000명 이상의 표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8년 조사 이후 각 코호트별로 구축된 표본수는 [그림1-1]과 같다.

[그림 I -1] GOMS 조사설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표본수
2005년 졸업생	●	◎	◎									26,544
2006년 졸업생												
2007년 졸업생			●	○	◎							18,050
2008년 졸업생				●	○	◎						18,066
2009년 졸업생					●	○	◎					18,011
2010년 졸업생						●	○	◎				18,078
2011년 졸업생							●					18,299
2012년 졸업생								●				18,250
2013년 졸업생									●			18,160
2014년 졸업생										●		18,056
2015년 졸업생											●	18,082
●	1차조사			◎	추적조사			○	패널유지			

3. 조사내용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는 대졸자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약 18개월 후에 조사를 실시한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주요 조사내용은 대졸자들의 노동시장 진입 현황 및 경제활동, 직업이동, 학교생활 및 자격증, 교육훈련 등 취업준비에 관한 내용 등이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노동시장 진입에 초점을 맞추어 설문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조사문항은 조사 시점이 졸업 후 약 18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졸업 후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에 대학 생활, 어학연수, 일자리 경험 및 구직활동, 훈련 및 자격에 관한 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 -1〉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1차 년도 주요 조사내용

조사항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경제활동상황	경제활동상황 판별	●	●	●	●	●	●
현직장 일자리	일자리 성격, 산업 및 직업	●	●	●	●	●	●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	●	●	●	●	●	●
	비정규 고용	●	●	●	●	●	●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 근로소득	●	●	●	●	●	●
	만족도 및 직무수준	●	●	●	●	●	●
	사회보험 등 부가급여	●	●	●	●	●	●
	노동조합	●	●	●	●	●	●
	동시일자리	●	●	●	●	●	●
첫직장 일자리	일자리 성격, 산업 및 직업	●	●	●	●	●	●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	●	●	●	●	●	●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 근로소득	●	●	●	●	●	●
	만족도 및 직무수준	●	●	●	●	●	●
	사회보험 등 복지 및 부가급여	●	●	●	●	●	●
	노동조합	●	●	●	●	●	●
	일자리 진입 및 적응, 그만둔 이유	●	●	●	●	●	●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근무기간	●	●	●	●	●	●
	직업 및 산업, 사업체 형태	●	●	●	●	●	●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	●	●	●	●	●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 근로소득	●	●	●	●	●	●
	그만둔 이유	●	●	●	●	●	●
학교생활	출신 고등학교	●	●	●	●	●	●
	출신 대학교	●	●	●	●	●	●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경험	×	×	×	●	●	●
	이전 학교	●	●	●	●	●	●
재학 중 경험한 일자리	현재 재학 중인 학교	●	●	●	●	●	●
	경험여부 및 일자리 개수	●	●	●	●	●	●
	근무 기간	●	●	●	●	●	●
	일자리 내용	●	●	●	●	●	●
취업 준비	졸업 전 취업 목표	●	●	●	●	●	●
	졸업 전후 취업 준비	●	●	●	●	●	●
	취업준비 및 기타사항(열정페이 등)	×	×	×	×	●	●
	어학연수	●	●	●	●	●	●
취업 관련 교육 및 훈련	직업관련 교육·훈련	●	●	●	●	●	●
	취득 자격증	●	●	●	●	●	●
	시험준비	●	●	●	●	●	●
	청년고용대책	●	●	●	●	●	●
향후 진로	현재 구직활동	●	●	●	●	●	●
	향후 진로계획	×	×	×	×	×	×
인적사항	인적사항, 가족학력 및 직업, 소득 등	●	●	●	●	●	●

4. 표본설계

1) 모집단

본 조사의 목표모집단은 2014년 8월과 2015년 2월에 전문대 및 대학을 졸업한 졸업자이다. 조사모집단은 목표모집단 가운데 한국교육개발원이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전년도(2014년 8월 및 2015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각 대학별로 학과를 고려하지 않고 30%씩 랜덤하게 추출하여 수집된 자료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동 자료를 정제 과정을 거친 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표본틀로 제공하고 있다. 조사대상 학교는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그리고 교육대학이며, 4년제 대학은 산업대학을 포함한다. 학점은행제 등 각종학교는 제외되며, 조사대상자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제외된다. 2015년 2월 기준 해당 졸업자수는 총 515,320명이다.

〈표 I -2〉 목표모집단의 구성

(단위: 명)

구 분		2~3년제	4년제	교육대	전체
전 체		181,549	329,414	4,357	515,320
성	남성	79,256	167,775	1,384	248,415
	여성	102,293	161,639	2,973	266,905
전공계열	인문계열	6,412	41,114	-	47,526
	사회계열	51,550	94,893	-	146,443
	교육계열	9,939	15,945	4,357	30,241
	공학계열	41,565	79,698	-	121,263
	자연계열	13,970	39,691	-	53,661
	의약계열	27,352	20,748	-	48,100
	예체능계열	30,761	37,325	-	68,086

목표모집단 515,320명 중 조사가 가능한 조사모집단으로 수집된 졸업생은 207,937명으로,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의 학교유형별 분포와 성별 분포가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I -3>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의 구성

(단위: 명)

구분	목표모집단				조사모집단			
	계	남 성 졸업자	여 성 졸업자	%	계	남 성 졸업자	여 성 졸업자	%
2~3년제	181,549	79,256	102,293	56.3	70,676	31,366	39,310	55.6
4년제	329,414	167,775	161,639	49.1	135,254	67,886	67,368	49.8
교육대	4,357	1,384	2,973	68.2	2,007	661	1,346	67.1
전체	515,320	248,415	266,905	51.8	207,937	99,913	108,024	52.0

2) 표본추출

표본수는 학과단위를 기준으로 비례배분, 제곱근 비례배분, 2015GOMS 자료의 취업률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를 이용한 배분을 활용하여 결정하였다. 먼저 비례배분과 제곱근 배분을 절충한 후, 절충된 표본크기와 2015GOMS 자료의 상대표준오차 배분을 통한 표본크기를 다시 절충하여 최종으로 각 학과별 표본수를 결정하였다.

할당의 기본원칙으로 학과단위별 표본크기가 30명 이상이 되도록 배정하고, 30명 미만이 배정되는 경우에는 과대표집하여 30명이 배정되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모집단의 크기가 학과단위별로 30명 미만인 경우는 전수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표 I -4> 2015GOMS의 목표상대표준오차 조정 방안

2015년 상대표준오차	2016년 목표 상대표준오차	학과단위 수
$0.0 \leq CV < 0.10$	2015년 수준	157
$0.10 \leq CV < 0.20$	0.1	40
$0.20 \leq CV$	0.2	5
전 체	202개 학과 조정	202

배분된 최종 표본 크기는 18,026명이다. 배정된 각 층화단위별 표본은 확률비례에 의한 계통추출로 추출된다. 즉 학과소분류별로 “권역>지역>학교유형>대학>학과(세분류)>성별”로 정렬한 후 학과소분류별 졸업생수 크기에 확률비례하는 계통추출로 표본을 추출한다. 학과(세분류)를 정렬 기준으로 사용한 것은 동일 대학 내에 동일한 학과단위(소분류)로 분류되는 둘 이상의 학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과(세분류)를 정렬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본 조사의 조사대상이 대학 졸업자이며, 학과단위로 취업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대학별 학과단위(202개 소분류)를 1차 층화단위로 하며, 전국단위의 관점에서는 5개 권역, 3개 대학 유형, 성별의 통계가 생산되도록 표본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추출 결과를 성과 학교유형, 전공계열에 따라 분석해 보면 <표 I -5>와 같다. 목표모집단의 계층별 분포와 비교하면,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고, 학교유형으로는 교육대가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추출되었다. 전공계열별로는 사회계열과 의약계열이 낮게 추출된 반면 인문과 교육, 자연계열은 비교적 높게 추출되었다.

<표 I -5> 표본추출 결과

(단위: 명, %)

구분		목표모집단 사례수 (%)		조사모집단 사례수 (%)		목표표본 사례수 (%)	
전체		515,320	(100.0)	207,937	(100.0)	18,026	(100.0)
성별	남성	248,415	(48.2)	99,913	(48.0)	8,792	(48.8)
	여성	266,905	(51.8)	108,024	(52.0)	9,234	(51.2)
학교 유형	2~3년제	181,549	(35.2)	70,676	(34.0)	11,701	(64.9)
	4년제	329,414	(63.9)	135,254	(65.0)	405	(2.2)
	교육대	4,357	(0.8)	2,007	(1.0)	5,920	(32.8)
전공 계열	인문	47,526	(9.2)	20,190	(9.7)	2,042	(11.3)
	사회	146,443	(28.4)	55,469	(26.7)	3,736	(20.7)
	교육	30,241	(5.9)	13,485	(6.5)	1,363	(7.6)
	공학	121,263	(23.5)	47,944	(23.1)	4,673	(25.9)
	자연	53,661	(10.4)	23,170	(11.1)	2,345	(13.0)
	의약	48,100	(9.3)	18,573	(8.9)	1,324	(7.3)
	예체능	68,086	(13.2)	29,106	(14.0)	2,543	(14.1)

5.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

2015GOMS 실사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받은 조사모집단에서 표본추출결과 생성된 표본명부에 대해 사전에 전화조사(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CATI)를 통해 조사 참여를 확인한 후 조사 참여 의향자를 면접원이 방문하였다. 방문조사는 대면면접조사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진행하였으며, 실사는 9월에서 11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1) 표본명부 확인

2015GOMS 조사의 표본명부는 예비표본을 포함하여 총 7개의 명부 집단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명부 집단은 총 4회에 걸쳐 조사수행업체에 제공되었다. 표본명부에 포함된 변수는 <표 I -6>과 같다.

<표 I -6> 표본명부에 포함된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학교명 · 본/분교 · 학과코드 · 전공계열 · 학과명(소분류) · 학과명(세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야간 · 집 주소 · 집 전화번호 · 휴대폰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취업구분 · 학교소재지
---	---

조사수행업체는 제공받은 표본명부의 표본수와 총화변인 기준 표본수의 일치여부, 명부 중복여부, 연락처 및 성명 정보 누락 여부, 외국인 포함 여부, 이름과 학교, 학과, 연락처 등 주요정보의 오탈자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였다.

표본명부 확인결과 제공된 최초명부 표본수 132,290명 가운데 연락처가 누락된 표본수는 522명으로, 최종적으로 CATI 접촉에 이용할 수 있었던 표본수는 131,768명이었다.

〈표 I -7〉 표본명부 확인결과

(단위: 명)

구분	최초 명부 표본수(A)	비활용명부(B) ¹⁾	최종명부 확인결과 ²⁾ (A-B)
계	132,290	522	131,768
1차	18,026	70	17,956
2차	51,904	197	51,707
3차	32,303	131	32,172
4차	30,057	124	29,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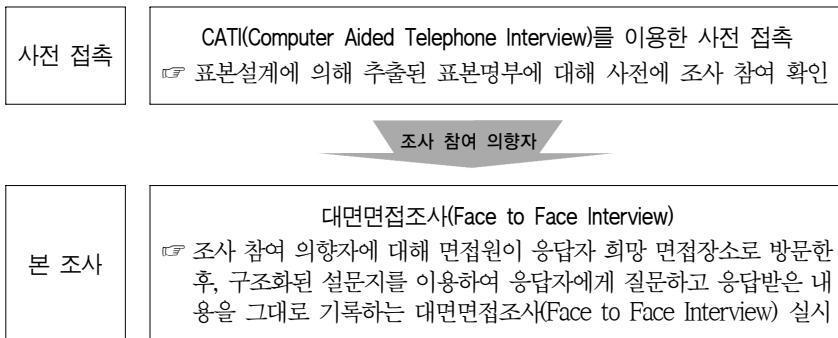
주 : 1) 비활용명부 : 유선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 모두 없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및 응답하지 않는 경우 포함

2) 최종명부 정제결과 : CATI 접촉에 사용된 명부 수를 의미함

2) 조사대상자 사전접촉(CATI)

확인된 명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대한 소개와 함께 조사 대상자의 이름, 연락처, 학교, 졸업년도, 주소, 조사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CATI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와 사전 접촉 시 확인하는 내용은 조사 대상자 연락처의 정확성과 본인 일치여부, 성별 및 졸업년도 일치여부, 조사 참여 여부와 조사 거절 이유, 방문 주소 등이다.

[그림 I -2] 조사 진행 과정



CATI 면접원은 우수면접원을 우선 선발하여 수행하였으며, 모든 리스트에 대해 시간대, 주중 및 주말을 달리하여 최소 5회 이상의 전화접촉을 시도하였다. 조사거절 사유별로 시나리오를 스크립트¹⁾로 작성하여 각 상황별로 대처함으로써 조사협조 성공률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4GOMS부터는 CATI 접촉 시 전화의 수신률 향상을 위하여 스팸방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였다. 수신 전 발신 대상과 발신 목적을 알려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 안내 내용을 사전 등록하여 수신자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신뢰감을 주려고 노력하였다.

CATI 접촉 시도 조사대상자 131,768명 중에서 접촉 불가(전화를 받지 않음)가 39,663명(30.1%)이었으며, 전화통화가 된 경우는 69.9%에 해당하는 92,105명이다. CATI 접촉결과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표 I -8>과 같다. CATI 접촉 시도에서 전화 통화가 된 92,105명 중 조사불가자는 5,277명(5.7%), 연락처 제공 자체를 거부하거나 전화진행거부, 조사협조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는 44,548명(48.4%)이었으며, 조사협조 의사를 밝힌 경우는 42,280명(45.9%)이었다.

<표 I -8> 조사대상자 CATI 접촉결과 : 유형별 분류

(단위: 명, %)

구분	CATI 접촉시도	조사대상자 전화 안받음			조사대상자 전화 받음				
		소계	틀린 전화 번호	대답 없음 ¹⁾	소계	조사 불가 ²⁾	통화 진행 거부 ³⁾	조사 협조 거절 ⁴⁾	조사 협조 성공 ⁵⁾
계	131,768	39,663 (100.0)	8,851 (22.3)	30,812 (77.7)	92,105 (100.0)	5,277 (5.7)	14,162 (15.4)	30,386 (33.0)	42,280 (45.9)
1차	17,956	4,421	1,341	3,080	13,535	876	1,573	3,922	7,164
2차	51,707	12,940	3,028	9,912	38,767	2,114	5,651	12,884	18,118
3차	32,172	10,185	2,314	7,871	21,987	1,281	3,405	7,024	10,277
4차	29,933	12,117	2,168	9,949	17,816	1,006	3,533	6,556	6,721

주 : 1) 대답없음: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2) 조사불가: 성, 대학, 학과, 졸업연도가 안 맞거나, 조사대상자가 군입대 및 유학 등으로 조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3) 통화진행거부: 응답자가 전화를 받았으나, 통화진행을 거절하는 경우

4) 조사협조거절: 응답자가 전화를 받았으며 본인 확인이 완료되었으나, 조사 참여를 거절하는 경우

5) 조사협조성공: 응답자가 전화를 받았으며, 성·대학·학과·졸업년월 정보 모두 일치하며, 조사 참여 허락한 경우

- 1) 예를 들어, 1차 거절인 경우 “저희가 보내드리는 안내문과 공문을 한번 보시고 난 후에 한번 더 생각해보시고 거절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라고 질문 후 조사대상자의 거절 강도를 판별하여 추가 진행함

조사대상자 CATI 접촉결과를 지난 조사들과 비교하여 보면, 접촉 시도 대비 조사대상자와 전화접촉에 성공한 비율은 69.9%로 낮게 나타났다. 조사협조 성공 비율은 32.1%로 2012GOMS이후 유사한 비율을 보이나, 조사협조거절 비율이 2014GOMS 이후로 증가하였고, CATI 조사 협조비율과 최종 성공 비율간 차이가 커 이에 대한 실사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I -9> 연도별 CATI 접촉결과

(단위: 명, %)

구분	접촉 시도 건수	조사 대상자 전화 안받음			조사 대상자 전화 받음					
			틀린 전화번호	대답 없음		조사 불가	통화 진행거절	조사 협조거절	조사 협조성공	최종성공
2009 GOMS	94,735 (100.0)	42,983 (45.4)	28,883 (30.5)	14,100 (14.9)	51,753 (54.6)	1,608 (1.7)	12,593 (13.3)	9,848 (10.4)	27,704 (29.2)	18,011 (19.0)
2010 GOMS	149,826 (100.0)	50,936 (34.0)	19,631 (13.1)	31,305 (20.9)	98,890 (66.0)	4,026 (2.7)	4,725 (3.2)	57,423 (38.3)	32,716 (21.8)	18,078 (12.1)
2011 GOMS	152,390 (100.0)	62,409 (41.0)	28,841 (18.9)	33,568 (22.0)	89,981 (59.0)	3,461 (2.3)	6,012 (3.9)	39,680 (26.0)	40,828 (26.8)	18,299 (12.0)
2012 GOMS	104,615 (100.0)	22,593 (21.6)	17,064 (16.3)	5,529 (5.3)	82,022 (78.4)	9,833 (9.4)	36,482 (34.9)		35,707 (34.1)	18,250 (17.4)
2013 GOMS	116,570 (100.0)	32,860 (28.2)	11,515 (9.9)	21,345 (18.3)	83,710 (71.8)	5,971 (7.1)	21,303 (18.3)	18,966 (16.3)	37,470 (32.1)	18,160 (15.6)
2014 GOMS	117,387 (100.0)	30,763 (26.2)	6,142 (5.2)	24,621 (21.0)	86,624 (73.8)	5,341 (4.6)	15,873 (13.5)	26,392 (22.5)	39,018 (33.2)	18,057 (15.4)
2015 GOMS	131,768 (100.0)	39,663 (30.1)	8,851 (6.7)	30,812 (23.4)	92,105 (69.9)	5,277 (4.0)	14,162 (10.7)	30,386 (23.1)	42,280 (32.1)	18,082 (13.7)

주 : 2012GOMS는 통화 진행거절과 조사 협조거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통화 진행 거부로 묶어서 집계함.

3) 본 조사

최종적으로 CATI에서 협조 의사를 밝힌 42,28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식은 면접원이 조사대상자를 방문하여 질문하고 그 응답을 면접원이 기록하는 면접타계식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 완료된 2015GOMS의 조사응답자를 주요 층화변인별로 살펴보면 <표 I -10>과 같다. 2014년 8월과 2015년 2월 대졸자 515,320명 중 18,082명이 최종 조사되었으며, 남성이 9,450명으로 52.3%, 여성 8,632명으로 47.7%였다. 학

교유형별로는 2~3년제 대학 4,875명(27.0%), 4년제 대학 12,797명(70.8%), 교육 대학 410명(2.3%)이 조사되었다.

<표 I -10> 조사응답자 분포

(단위: 명, %)

구분		목표 모집단 (A)	조사 모집단 (B)	목표 표본 (C)	최종 표본 (D)	최종 표본 구성비	표본구 축비율 (D/C)	표본 비율 (D/A)
전체		515,320	207,937	18,026	18,082	100.0	100.3	3.5
성별	남성	248,415	99,913	8,792	9,450	52.3	107.5	3.8
	여성	266,905	108,024	9,234	8,632	47.7	93.5	3.2
학교 유형	2~3년제	181,549	70,676	5,920	4,875	27.0	82.3	2.7
	4년제	329,414	135,254	11,701	12,797	70.8	109.4	3.9
	교육대	4,357	2,007	405	410	2.3	101.2	9.4
권역	서울권	97,305	37,251	3,379	3,519	19.5	104.1	3.6
	경기·강원권	130,745	52,201	4,471	4,199	23.2	93.9	3.2
	충청권	87,485	36,469	3,158	3,287	18.2	104.1	3.8
	경상권	136,523	55,388	4,715	4,666	25.8	99.0	3.4
	전라·제주권	63,262	26,628	2,303	2,411	13.3	104.7	3.8
전공 계열	인문	47,526	20,190	2,042	1,896	10.5	92.9	4.0
	사회	146,443	55,469	3,736	3,714	20.5	99.4	2.5
	교육	30,241	13,485	1,363	1,376	7.6	101.0	4.6
	공학	121,263	47,944	4,673	5,177	28.6	110.8	4.3
	자연	53,661	23,170	2,345	2,543	14.1	108.4	4.7
	의약	48,100	18,573	1,324	1,236	6.8	93.4	2.6
	예체능	68,086	29,106	2,543	2,140	11.8	84.2	3.1

권역별로는 서울권 3,519명(19.5%), 경기·강원권이 4,199명(23.2%), 충청권 3,287명(18.2%), 경상권 4,666명(25.8%), 전라·제주권 2,411명(13.3%)이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 1,896명(10.5%), 사회 3,714명(20.5%), 교육 1,376명(7.6%), 공학 5,177명(28.6%), 자연 2,543명(14.1%), 의약 1,236명(6.8%), 예체능 2,140명(11.8%)으로 공학계열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목표표본에 대비하여 성별로는 남성(107.5%)이, 학교유형별로는 4년제 대학교(109.4%)가, 권역별로는 전라·제주권(104.7%)이, 전공계열별로는 공학계열(110.8%)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조사표본이 확보되었다. 목표모집단 대비 최종 표본의 비율은 각 특성별로 2.5%~9.4% 수준으로 나타났다.

6. 가중치 부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표본이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2015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자료를 토대로 가중치를 산출하고 있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가중치는 목표모집단에서 조사모집단으로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중치와 조사모집단에서 표본으로의 가중치로 나눌 수 있으며, 초기 가중치는 양자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조사모집단은 학교단위로, 표본은 학과단위로 추출되므로, 추출계층의 차이로 인해 전체 목표모집단과 초기 가중치의 합은 불일치한다. 따라서 초기 가중치를 목표모집단의 성, 권역, 학교유형, 전공계열, 학과에 대한 사후가중작업을 통해 최종 가중치를 도출하게 된다.

가중치 산정을 위해 사용될 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학과 : $h = 1, 2, \dots, L$
- 학교 : $i = 1, 2, \dots, I$
- 학생 : $j = 1, 2, \dots, J$
- M : 목표모집단 크기
- N : 조사모집단 크기
- n : 표본 크기
- r : 응답표본 크기

① 조사모집단 가중치

조사모집단은 목표모집단에서 학교단위로 추출되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별(i) 추출확률을 계산한다.

$$w_{ij}^{(1)} = \frac{M_i}{N_i} = \frac{\sum_j M_{ij}}{\sum_j N_{ij}}$$

② 추출 가중치

목표표본은 조사모집단에서 학과단위(h)로 표본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추출 확률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계산한다.

$$w_{hj}^{(2)} = \frac{N_h}{n_h} = \frac{\sum_j N_{hj}}{\sum_j n_{hj}}$$

③ 무응답 보정

최초 표본단위가 단위무응답인 경우 무응답 표본단위를 보정하기 위한 가중치로 최초 목표 표본크기를 유효 표본크기로 나누어 조정한다. 최초 표본단위를 대체표본으로 교체(substitution)하는 경우 무응답 보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항목 무응답은 대체(imputation)하여 추정한다.

$$w_{hj}^{(3)} = \frac{n_h}{r_h} = \frac{\sum_j n_{hj}}{\sum_j r_{hj}}$$

④ 사후층화 변인

$$p^{(1)} = \text{학교유형 (3)} \times \text{성 (2)} \times \text{권역 (5)} \times \text{전공계열 (7)}$$

$$p^{(2)} = \text{학과 (205)}$$

위의 ①, ②, ③ 과정을 이용하여 초기 가중치($w_j = w_{ij}^{(1)} \times w_{hj}^{(2)} \times w_{hj}^{(3)}$)를 구하고, 사후층화 변인(④)을 고려한 반복적인 수렴과정을 걸쳐 최종적으로 사후조정가중치($w_j^p = w_j \times (p^{(1)}, p^{(2)})$)를 생산한다.

최종 가중치는 사후조정 변인에 대해 반복적인 가중치 조정을 함으로써 수행된다. 반복적인 조정절차 과정 중에 한쪽 변인은 100% 목표모집단과 일치하게 되고, 나머지 변인은 다소 차이가 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양 변인에 번갈아 가며 발생한다. 조정과정은 한쪽의 차이가 소수점 반올림에 의해 100% 일치할 때까지 반복되어 최종적으로는 양쪽 변인을 정확히 일치시키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상 가중치(outlier)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최종 가중치를 부여한 후 지나치게 큰 가중치를 갖는 이상 가중치는 가중치의 절단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는 지나치게 큰 가중치를 갖는 표본단위는 모

수 추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표 I -11> 권역별, 학교유형별, 성별 평균 가중치¹⁾

(단위: 명)

지역권역	학교유형	성별	목표모집단	최종응답인원	가중치
서울권	2~3년제	남	5,350	167	32.04
		여	11,155	312	35.76
	4년제	남	38,056	1,520	25.04
		여	42,335	1,482	28.57
	교육대	남	77	6	12.84
		여	332	32	10.38
경기권	2~3년제	남	30,266	819	36.96
		여	38,415	877	43.81
	4년제	남	32,444	1,347	24.09
		여	28,533	1,074	26.57
	교육대	남	345	24	14.38
		여	742	58	12.80
충청권	2~3년제	남	9,892	355	27.80
		여	11,359	280	40.57
	4년제	남	33,739	1,484	22.74
		여	31,694	1,110	28.56
	교육대	남	258	15	17.20
		여	543	43	12.63
경상권	2~3년제	남	23,113	711	32.51
		여	27,566	648	42.54
	4년제	남	44,562	1,738	25.64
		여	39,981	1,444	27.69
	교육대	남	427	36	11.86
		여	874	89	9.82
전라권	2~3년제	남	10,635	344	30.79
		여	13,798	362	38.12
	4년제	남	18,974	859	22.09
		여	19,096	739	25.84
	교육대	남	277	25	11.08
		여	482	82	5.88
전체			515,320	18,082	28.50

주 : 1) 계열*성*학교유형*권역을 기준으로 하는 가중치 부여단위 중 교육계열*남자*전문대*충청권과 교육계열*남자*전문대*전라권 셀이 실사과정에서 조사가 되지 않아 이에 해당되는 표본을 전체 표본에 나눠서 가중치를 부여함.

2015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추정값의 표본추출오차(sampling error)를 살펴보기 위해 취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항목 중 핵심적인 변수인 월평균 근로소득에 대해 추정오차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상대표준오차가 1% 미만으로 상당히 정도(精度)높은 통계가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 -12> 월평균 소득의 표준오차

(단위: 명, 만원, %)

		평균	평균의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전체	전체	207.6	0.166	0.080
	남	231.5	0.279	0.121
	여	184.8	0.170	0.092
서울권	전체	230.3	0.426	0.185
	남	259.8	0.687	0.265
	여	205.3	0.492	0.240
경기권	전체	200.0	0.301	0.151
	남	222.9	0.512	0.230
	여	178.7	0.303	0.170
충청권	전체	199.6	0.338	0.169
	남	218.0	0.525	0.241
	여	180.7	0.396	0.219
영남권	전체	206.8	0.308	0.149
	남	231.7	0.517	0.223
	여	181.4	0.290	0.160
호남권	전체	202.6	0.588	0.290
	남	229.1	1.079	0.471
	여	178.1	0.480	0.270

제2장

졸업자의 특성

1. 사회인구학적 특성

2016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5GOMS)는 2014년 8월과 2015년 2월에 2~3년제 이상의 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자 515,320명을 모집단으로 하며, 그 중 남성졸업자가 248,383명(48.2%), 여성졸업자가 266,937명(51.8%)이다. 혼인상태는 미혼이 93.8%로 가장 많으며, 평균 가구원수는 2.9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5~30세 미만의 연령이 52.0%, 25세 미만이 40.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 졸업생은 2014년 대학 졸업자와 비교하여 남성(48.2%)의 비율이 약간 증가하고 여성(51.8%)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미혼의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5년 졸업자의 경우 전년도 졸업자보다 1.5%p 증가한 93.8%를 나타내었다. 연령별로는 2014년 대학 졸업자와 비교하여 25~30세 미만의 비율은 증가한 반면 다른 연령대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2015년 대졸자 평균 가구원수는 2.9명으로 이전 조사와 동일하였다.

<표 II -1> 연도별 인구학적 특성별 졸업자 분포

(단위: 명, %)

구 분		2011GOMS	2012GOMS	2013GOMS	2014GOMS	2015GOMS
전체		476,992 (100.0)	502,886 (100.0)	491,765 (100.0)	494,324 (100.0)	515,320 (100.0)
성	남성	231,288 (48.5)	244,257 (48.6)	236,894 (48.2)	236,578 (47.9)	248,383 (48.2)
	여성	245,704 (51.5)	258,629 (51.4)	254,871 (51.8)	257,746 (52.1)	266,937 (51.8)
혼 인 상 태	미혼	418,998 (87.8)	449,754 (89.4)	448,285 (91.2)	456,119 (92.3)	483,258 (93.8)
	기혼유배우	55,948 (11.7)	51,876 (10.3)	42,160 (8.6)	37,078 (7.5)	30,651 (5.9)
	기혼무배우	2,047 (0.4)	1,257 (0.2)	1,321 (0.3)	1,127 (0.2)	1,411 (0.3)
연 령	25세 미만	125,509 (26.3)	164,047 (32.6)	194,782 (39.6)	203,759 (41.2)	210,313 (40.8)
	25-30세 미만	284,838 (59.7)	279,124 (55.5)	250,285 (50.9)	249,653 (50.5)	267,779 (52.0)
	30-35세 미만	31,656 (6.6)	27,797 (5.5)	19,318 (3.9)	17,855 (3.6)	17,096 (3.3)
	35-40세 미만	7,894 (1.7)	6,750 (1.3)	5,824 (1.2)	5,075 (1.0)	5,119 (1.0)
	40-50세 미만	16,336 (3.4)	15,259 (3.0)	12,503 (2.5)	9,985 (2.0)	8,256 (1.6)
	50세 이상	10,759 (2.3)	9,909 (2.0)	9,052 (1.8)	7,997 (1.6)	6,757 (1.3)
평균 가구원수		3.0	3.1	3.0	2.9	2.9

2015년 전체 졸업자 중 2~3년제 대학 졸업자는 181,499명(35.2%), 4년제 대학 졸업자는 329,462명(63.9%), 교육대 졸업자는 4,359명(0.8%)이다. 2~3년제 졸업자의 여성 비율은 56.4%로 4년제 졸업자 49.1%보다 7.3%p 높으며, 교육대의 경우 여성 졸업자의 비율이 68.2%로 매우 높다. 권역별 졸업자의 분포는 경상권(26.5%)과 경기·강원권(25.4%)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2~3년제 대학은 경기·강원권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고, 4년제 대학은 경상권과 서울권이, 교육대는 경상권과 경기·강원권의 비율이 높다. 전공계열별로는 사회계열(28.4%)과 공학계열(23.5%)의 비율이 높다.

〈표Ⅱ-2〉 학교유형별 졸업자 분포

(단위: 명, %)

구 분		2~3년제	4년제	교육대	전체
전체		181,499 (100.0)	329,462 (100.0)	4,359 (100.0)	515,320 (100.0)
성	남성	79,197 (43.6)	167,801 (50.9)	1,384 (31.8)	248,383 (48.2)
	여성	102,302 (56.4)	161,661 (49.1)	2,974 (68.2)	266,937 (51.8)
권역	서울권	16,507 (9.1)	80,402 (24.4)	409 (9.4)	97,318 (18.9)
	경기·강원권	68,687 (37.8)	60,986 (18.5)	1,087 (24.9)	130,761 (25.4)
	충청권	21,228 (11.7)	65,443 (19.9)	801 (18.4)	87,472 (17.0)
	경상권	50,684 (27.9)	84,555 (25.7)	1,301 (29.9)	136,541 (26.5)
	전라·제주권	24,393 (13.4)	38,076 (11.6)	759 (17.4)	63,228 (12.3)
전공 계열	인문	6,413 (3.5)	41,120 (12.5)	-	47,533 (9.2)
	사회	51,554 (28.4)	94,903 (28.8)	-	146,457 (28.4)
	교육	9,872 (5.4)	15,948 (4.8)	4,359 (100.0)	30,178 (5.9)
	공학	41,570 (22.9)	79,712 (24.2)	-	121,282 (23.5)
	자연	13,972 (7.7)	39,699 (12.0)	-	53,671 (10.4)
	의약	27,354 (15.1)	20,750 (6.3)	-	48,105 (9.3)
	예체능	30,764 (16.9)	37,330 (11.3)	-	68,094 (13.2)

학교유형에 따른 연령을 살펴보면 전체 졸업자의 92.8%가 29세 이하로 나타났다으며, 학교유형별로는 2~3년제의 경우 90.3%, 4년제 대학은 94.2%, 교육대 졸업자는 94.6%를 차지하고 있다. 35세 이상 연령층의 비율은 2~3년제가 7.8%로 가장 높고, 4년제와 교육대가 각각 1.9%, 1.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2~3년제의 경우 40대 이상의 여성 비율이 7.6%로 남성 4.4%에 비해 3.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 -3> 연령별 학교유형별 성별 졸업자 분포

(단위: 명, %)

구 분	전체	2~3년제			4년제			교육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515,320 (100.0)	181,499 (100.0)	79,197 (100.0)	102,302 (100.0)	329,462 (100.0)	167,801 (100.0)	161,661 (100.0)	4,359 (100.0)	1,384 (100.0)	2,974 (100.0)
25세 미만	210,313 (40.8)	122,259 (67.4)	39,376 (49.7)	82,883 (81.0)	85,188 (25.9)	10,225 (6.1)	74,963 (46.4)	2,866 (65.7)	698 (50.4)	2,168 (72.9)
25~29세	267,779 (52.0)	41,634 (22.9)	32,390 (40.9)	9,244 (9.0)	224,884 (68.3)	143,360 (85.4)	81,524 (50.4)	1,260 (28.9)	541 (39.1)	720 (24.2)
30~34세	17,096 (3.3)	3,508 (1.9)	2,604 (3.3)	905 (0.9)	13,399 (4.1)	11,012 (6.6)	2,387 (1.5)	189 (4.3)	146 (10.5)	43 (1.5)
35~39세	5,119 (1.0)	2,849 (1.6)	1,364 (1.7)	1,485 (1.5)	2,227 (0.7)	1,481 (0.9)	746 (0.5)	44 (1.0)	-	44 (1.5)
40~49세	8,256 (1.6)	6,024 (3.3)	1,578 (2.0)	4,446 (4.3)	2,232 (0.7)	997 (0.6)	1,235 (0.8)	-	-	-
50세 이상	6,757 (1.3)	5,224 (2.9)	1,885 (2.4)	3,340 (3.3)	1,533 (0.5)	727 (0.4)	806 (0.5)	-	-	-

2015년 조사 당시 졸업자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졸업 후 약 1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졸업자들의 93.8%가 미혼이었으며, 5.9%는 기혼 유배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미혼 비율이 94.2%, 여성 미혼 비율은 93.3%로 남성이 0.9%p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2~3년제 대학의 기혼 유배우자 비중이 8.4%로 4년제(4.6%)와 교육대(2.6%)와 비교하여 크게 높았다. 특히 2~3년제 대학 여성의 기혼유배우 비율이 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 -4> 혼인상태별 학교유형별 성별 졸업자 분포

(단위: 명, %)

구 분	전체			2~3년제			4년제			교육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미혼	483,258 (93.8)	234,074 (94.2)	249,185 (93.3)	165,172 (91.0)	73,298 (92.6)	91,874 (89.8)	313,841 (95.3)	159,422 (95.0)	154,418 (95.5)	4,246 (97.4)	1,353 (97.8)	2,892 (97.3)
기혼 유배우	30,651 (5.9)	13,873 (5.6)	16,777 (6.3)	15,259 (8.4)	5,610 (7.1)	9,649 (9.4)	15,279 (4.6)	8,233 (4.9)	7,047 (4.4)	113 (2.6)	31 (2.2)	82 (2.7)
이혼	942 (0.2)	400 (0.2)	543 (0.2)	663 (0.4)	289 (0.4)	374 (0.4)	279 (0.1)	110 (0.1)	169 (0.1)	-	-	-
사별	469 (0.1)	36 (0.0)	433 (0.2)	406 (0.2)	-	406 (0.4)	63 (0.0)	36 (0.0)	27 (0.0)	-	-	-

2. 가구특성 및 가구배경

다음 <표Ⅱ-5>는 부모님과 동거여부 및 가구주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현 거주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60.3%였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부모님과 동거 비율이 더 높았다.

가구주²⁾와의 관계가 자녀인 경우(즉, 부모가 가구주인 경우)가 절반 이상(62.1%)이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가구주의 자녀인 비율이 66.9%로 매우 높았다. 본인이 가구주인 경우는 31.1%를 차지했고,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가구주 본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39.5%로 여성 23.2%에 비해 높았다. 여성의 경우는 가구주의 배우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로 남성 0.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Ⅱ-5> 성별 부모님과 동거여부 및 가구주와의 관계

(단위: 명, %)

구 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515,320 (100.0)	248,383 (100.0)	266,937 (100.0)
부모님과 동거여부	부모님과 동거	310,957 (60.3)	136,989 (55.2)	173,969 (65.2)
	부모님과 비동거	204,363 (39.7)	111,394 (44.8)	92,969 (34.8)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본인	159,953 (31.1)	98,025 (39.5)	61,928 (23.2)
	가구주의 배우자	16,309 (3.2)	379 (0.2)	15,930 (6.0)
	가구주의 자녀(또는 가구주 자녀의 배우자)	319,891 (62.1)	141,332 (57.0)	178,559 (66.9)
	가구주의 형제자매(또는 가구주 형제자매의 배우자)	9,518 (1.8)	3,941 (1.6)	5,577 (2.1)
	가구주의 기타 친인척	3,372 (0.7)	1,268 (0.5)	2,104 (0.8)
	인척관계 아닌 동거인	5,459 (1.1)	2,944 (1.2)	2,516 (0.9)
	기타	291 (0.1)	161 (0.1)	130 (0.05)

2015년 대졸자의 학교유형별 부모님의 교육수준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님 모두 학력이 고졸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각각 45.6%, 58.1%).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비교하여 보면 어머니의 경우 고졸 이하의 비율(71.9%)이 아버지(58.0%)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아버지의 경우 2~3

2) 가구주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해당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며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사람을 말함.

년제 졸업 이상 학력의 비율이 어머니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어머니 보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대학졸업자의 학교 유형에 따른 부모님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2~3년제 대학 < 4년제 대학 < 교육대학교의 순서로 부모님의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육대 졸업자 아버지의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의 비율이 62.4%에 달한다.

<표Ⅱ-6> 학교유형별 부모님 최종학력 분포

(단위: 명, %)

학력	전체		2~3년제		4년제		교육대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전체	492,550 (100.0)	494,942 (100.0)	170,309 (100.0)	172,165 (100.0)	317,964 (100.0)	318,489 (100.0)	4,276 (100.0)	4,288 (100.0)
무학	1,782 (0.4)	3,042 (0.6)	1,268 (0.7)	2,323 (1.3)	513 (0.2)	718 (0.2)	-	-
초졸 이하	23,683 (4.8)	21,840 (4.4)	11,209 (6.6)	10,627 (6.2)	12,369 (3.9)	11,117 (3.5)	105 (2.4)	95 (2.2)
중졸	35,590 (7.2)	43,350 (8.8)	16,581 (9.7)	18,437 (10.7)	18,820 (5.9)	24,700 (7.8)	189 (4.4)	213 (5.0)
고졸	224,502 (45.6)	287,580 (58.1)	91,491 (53.7)	108,112 (62.8)	131,969 (41.5)	177,620 (55.8)	1,042 (24.4)	1,849 (43.1)
2~3년제졸	29,478 (6.0)	26,161 (5.3)	10,388 (6.1)	8,531 (5.0)	18,818 (5.9)	17,440 (5.5)	272 (6.4)	190 (4.4)
대졸	146,848 (29.8)	100,050 (20.2)	34,779 (20.4)	22,362 (13.0)	109,906 (34.6)	75,943 (23.8)	2,163 (50.6)	1,745 (40.7)
석사이상	30,667 (6.2)	12,919 (2.6)	4,592 (2.7)	1,773 (1.0)	25,569 (8.0)	10,950 (3.4)	506 (11.8)	197 (4.6)

다음으로 2015년 대졸자의 대학 입학당시 부모님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 직업은 경영·회계·사무관련직 13.7%, 건설관련직 11.6%, 영업 및 판매관련직 10.0%, 기계관련직 9.9%, 운전 및 운송관련직 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은 무직(은퇴, 주부 등)이 42.3%로 가장 많았고,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0.1%, 음식서비스관련직 9.4%, 경영·회계·사무관련직 6.1% 순이었다.

2015년 대졸자의 학교 유형별 대학 입학당시 부모님 직업을 살펴보면, 2~3

년제 대학 졸업자의 아버지는 건설 관련직에서, 4년제 대학 및 교육대 졸업자의 아버지는 경영·회계·사무관련직에서 종사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았다. 어머니의 경우 대졸자의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무직(은퇴, 주부 등)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3년제 대학 및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어머니는 영업 및 판매 관련직에서, 교육대 졸업자의 어머니는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에서 종사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Ⅱ-7> 학교유형별 대학 입학당시 부모님 직업 분포

(단위: %)

직업(중분류)	전체		2~3년제		4년제		교육대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관리직	6.8	1.8	4.7	1.7	7.9	1.8	6.1	0.7
경영·회계·사무관련직	13.7	6.1	10.6	6.2	15.3	6.0	16.1	7.6
금융·보험관련직	2.4	2.4	1.6	2.2	2.8	2.5	4.9	2.4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3.6	4.7	1.7	1.9	4.5	6.0	15.9	17.8
법률·경찰·소방·교도관련직	1.4	0.2	1.3	0.1	1.5	0.2	2.1	0.4
보건·의료관련직	1.4	2.9	1.0	2.3	1.6	3.3	2.5	3.3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1.3	2.3	1.0	2.1	1.5	2.4	1.6	1.7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0.9	0.8	0.8	0.7	1.0	0.8	0.8	1.3
운전 및 운송관련직	7.9	0.3	9.7	0.2	6.9	0.3	6.9	-
영업 및 판매관련직	10.0	10.1	10.9	11.2	9.5	9.6	9.0	7.4
경비 및 청소관련직	0.7	0.7	0.9	0.9	0.6	0.5	0.6	0.7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0.7	2.5	0.7	3.1	0.7	2.1	0.6	1.2
음식 서비스관련직	3.8	9.4	4.3	10.9	3.6	8.6	1.8	5.2
건설관련직	11.6	0.5	12.4	0.3	11.2	0.6	6.5	0.6
기계관련직	9.9	1.2	10.1	1.5	9.9	1.1	6.3	1.3
재료관련직	1.4	0.3	1.5	0.4	1.4	0.2	1.3	0.6
화학관련직	0.9	0.1	0.7	0.1	1.0	0.2	1.1	0.2
섬유 및 의복관련직	1.6	2.1	1.5	2.5	1.7	1.9	0.2	1.1
전기·전자관련직	2.8	0.6	2.7	0.8	2.8	0.5	1.6	0.3
정보통신관련직	1.0	0.2	0.8	0.3	1.1	0.2	1.2	-
식품가공관련직	0.6	1.2	0.5	1.3	0.7	1.2	0.8	1.0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1.8	1.4	2.3	1.7	1.5	1.3	1.6	0.8
농림어업관련직	5.5	4.0	7.0	5.7	4.6	3.1	3.9	2.5
군인	0.6	0.1	0.4	0.03	0.7	0.1	0.7	-
무직(은퇴, 주부)	3.3	42.3	3.9	38.8	2.9	44.3	3.8	41.2
안 계심(사망)	4.5	1.9	7.3	3.3	3.0	1.2	2.1	1.0

제3장

현재 일자리

현재 일자리는 2016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 일주일에 해당하는 기간(8월 25일 ~ 8월 31일) 동안 취업상태에 있는 응답자들의 일자리를 말한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 취업자란 조사 기준 기간 동안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적이 있거나(일시 휴직자 포함), 지난 1주간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자기 가구원의 사업체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 경우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분류 기준을 따른다.

2014년 8월 및 2015년 2월 2~3년제 이상 대학졸업자(이하 2015GOMS)는 515,320명이다. 이 중 조사 당시(대학 졸업 약 18개월 후) 380,948명(73.9%)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9%는 실업자, 19.2%는 비경제활동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은 남성보다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육대 졸업자는 취업자의 비중이 다른 학교 유형에 비해 높았고, 4년제 대졸자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 모두 다른 학교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전공계열간의 비교에서는 의약계열의 취업자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

고, 인문·사회계열은 실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자연계열의 경우 비경제 활동인구 비중이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권역별로는 경기지역 대학 졸업자의 취업자 비중이 75.0%로 가장 높았다. 반면, 경상권의 경우 실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고, 서울권은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다른 권역대학 졸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Ⅲ-1> 2015년도 대졸자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명, %)

구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전체		380,948	(73.9)	35,304	(6.9)	99,068	(19.2)
성	남성	186,443	(75.1)	17,506	(7.0)	44,434	(17.9)
	여성	194,505	(72.9)	17,799	(6.7)	54,634	(20.5)
학교 유형	2·3년제	138,071	(76.1)	12,172	(6.7)	31,256	(17.2)
	4년제	238,970	(72.5)	23,104	(7.0)	67,388	(20.5)
	교육대	3,906	(89.6)	28	(0.6)	424	(9.7)
전공 계열	인문	33,053	(69.5)	3,763	(7.9)	10,716	(22.5)
	사회	108,621	(74.2)	11,270	(7.7)	26,566	(18.1)
	교육	23,282	(77.1)	732	(2.4)	6,165	(20.4)
	공학	91,325	(75.3)	8,428	(6.9)	21,529	(17.8)
	자연	35,629	(66.4)	3,966	(7.4)	14,076	(26.2)
	의약	40,778	(84.8)	1,314	(2.7)	6,013	(12.5)
	예체능	48,259	(70.9)	5,832	(8.6)	14,004	(20.6)
권역	서울	68,865	(70.8)	6,729	(6.9)	21,725	(22.3)
	경기	98,104	(75.0)	8,471	(6.5)	24,185	(18.5)
	충청	65,168	(74.5)	6,207	(7.1)	16,098	(18.4)
	경상	101,994	(74.7)	9,991	(7.3)	24,556	(18.0)
	전라	46,817	(74.0)	3,907	(6.2)	12,504	(19.8)

연도별 고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대졸자 이후 점차적으로 고용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소폭 상승하였으나(전년대비 1.2%p 상승), 2015년 대졸자의 경우 다시 1.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2〉 성별, 졸업대학 특성별 고용률

(단위: %)

		2015GOMS	2014GOMS	2013GOMS	2012GOMS	2011GOMS
성	전체	73.9	74.9	73.7	75.9	79.4
	남성	75.1	76.3	75.0	77.4	81.6
	여성	72.9	73.7	72.5	74.4	77.3
학 교 유 형	2~3년제	76.1	77.6	75.6	78.0	80.3
	4년제	72.5	73.1	72.2	74.4	78.7
	교육대	89.6	91.3	90.9	87.5	87.2
전 공 계 열	인문	69.5	68.0	65.5	69.1	75.1
	사회	74.2	74.1	73.2	75.8	78.8
	교육	77.1	78.2	76.3	74.9	78.1
	공학	75.3	76.7	76.2	78.6	81.8
	자연	66.4	67.8	67.5	69.4	75.4
	의약	84.8	85.9	83.1	83.4	86.5
	예체능	70.9	74.4	73.0	76.5	78.8

1. 입직 경로

현재 일자리에 입직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된 경로는 ‘(공개 및 수시) 채용 시험 합격’(34.8%)이고, 다음으로는 ‘인터넷 구직사이트’(21.9%), ‘가족, 친지 및 지인의 소개/추천’(13.5%), ‘학교 선생님의 소개나 추천’(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맥을 통한 입직이 전체 입직 경로의 24.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공개 및 수시) 채용시험’을 통한 입직이 가장 높았으며(각각 36.6%, 33.1%), 남성은 여성에 비해 ‘회사측의 특별채용(스카우트)’(3.9%), ‘개인사업 시작(가족사업 참여)’(5.4%) 등을 통한 입직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인터넷 구직사이트’(25.7%)와 ‘학교(학원) 선생님의 소개나 추천’(11.7%)을 통한 입직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2~3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인터넷 구직사이트’(26.3%)를 통한 입직 비율이 가장 높았고, 4년제 대학 졸업자는 ‘(공개 및 수시) 채용시험’(40.7%)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년제 대학 졸업자는 2~3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해 ‘(공개 및 수시) 채용 시험’을 통한 입직 비율이 15.9%p 높은 반면, 2~3년제 대학 졸업자는 ‘가족, 친지 및 지인의 소개’를 통한 입직 비율이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해 7.8%p 높게 나타났다.

〈표Ⅲ-3〉 성별, 학교유형별 입직경로

(단위: 명, %)

	성별		학교유형		전체
	남성	여성	2~3년제	4년제	
(공개 및 수시)	67,852	63,522	34,213	97,161	131,374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36.6)	(33.1)	(24.8)	(40.7)	(34.8)
회사측의 특별채용(스카우트)에 의하여	7,165	5,013	4,124	8,054	12,178
	(3.9)	(2.6)	(3.0)	(3.4)	(3.2)
학교(학원) 선생님의 소개나 추천으로	17,815	22,483	18,388	21,910	40,297
	(9.6)	(11.7)	(13.3)	(9.2)	(10.7)
가족, 친지 및 지인의 소개/추천으로	25,698	25,053	25,367	25,384	50,751
	(13.9)	(13.1)	(18.4)	(10.6)	(13.5)
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소개/추천으로	8,173	8,204	7,123	9,254	16,377
	(4.4)	(4.3)	(5.2)	(3.9)	(4.3)
인터넷구직사이트를 통해	33,182	49,286	36,343	46,125	82,468
	(17.9)	(25.7)	(26.3)	(19.3)	(21.9)
개인사업 시작 (가족사업 참여)	10,002	6,943	6,132	10,813	16,944
	(5.4)	(3.6)	(4.4)	(4.5)	(4.5)
취업박람회를 통하여	790	403	304	889	1,193
	(0.4)	(0.2)	(0.2)	(0.4)	(0.3)
현 직장에서의 업무경험	3,873	3,311	2,558	4,627	7,184
	(2.1)	(1.7)	(1.9)	(1.9)	(1.9)
공무원 시험 혹은 교원 시험 등에 합격하여	6,130	5,039	1,691	9,478	11,169
	(3.3)	(2.6)	(1.2)	(4.0)	(3.0)
군복무대체	1,716	-	243	1,473	1,716
	(0.9)		(0.2)	(0.6)	(0.5)
기타	2,823	2,487	1,541	3,769	5,310
	(1.5)	(1.3)	(1.1)	(1.6)	(1.4)

주: 교육대는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전공계열별로는 예체능 계열을 제외한 모든 계열에서 ‘(공개 및 수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입직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의약(46.1%)과 공학(38.9%) 계열 졸업자의 경우 공개 및 수시 채용 시험을 통한 입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예체능 계열의 경우 ‘(공개 및 수시) 채용시험’을 통해 입직한 비율은 19.1%로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낮은 편이었고, ‘인터넷구직사이트를 통해’ 입직한 비율이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Ⅲ-4> 전공계열별 입직경로

(단위: 명, %)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공개및수시) 채용시험에합격하여	10,936 (33.1)	38,237 (35.2)	7,073 (30.4)	35,485 (38.9)	12,424 (34.9)	18,806 (46.1)	9,208 (19.1)
회사측의특별채용 (스카우트)에 의하여	1,327 (4.0)	3,597 (3.3)	376 (1.6)	2,994 (3.3)	841 (2.4)	808 (2.0)	2,245 (4.7)
학교(학원)선생님의소 개나 추천으로	2,513 (7.6)	10,150 (9.3)	1,927 (8.3)	11,013 (12.1)	4,933 (13.8)	4,440 (10.9)	5,348 (11.1)
가족,친지및지인의 소개/추천으로	5,135 (15.5)	14,993 (13.8)	1,712 (7.4)	11,533 (12.6)	3,892 (10.9)	3,985 (9.8)	9,527 (19.7)
그직장에근무하고있는 사람의소개/추천으로	1,681 (5.1)	3,865 (3.6)	657 (2.8)	3,585 (3.9)	1,534 (4.3)	2,045 (5.0)	3,010 (6.2)
인터넷구직사이트를 통해	7,879 (23.8)	24,232 (22.3)	4,896 (21.1)	17,307 (19.0)	7,646 (21.5)	8,702 (21.3)	11,905 (24.7)
개인사업시작 (가족사업참여)	1,536 (4.6)	5,090 (4.7)	589 (2.5)	3,084 (3.4)	1,827 (5.1)	256 (0.6)	4,562 (9.5)
취업박람회통하여	67 (0.2)	414 (0.4)	21 (0.1)	461 (0.5)	33 (0.1)	102 (0.2)	96 (0.2)
현직장에서의업무경험	613 (1.9)	1,918 (1.8)	181 (0.8)	1,996 (2.2)	675 (1.9)	545 (1.3)	1,257 (2.6)
공무원시험 혹은 교원시험등에 합격하여	890 (2.7)	4,602 (4.2)	5,382 (23.2)	1,710 (1.9)	835 (2.3)	505 (1.2)	173 (0.4)
군복무대체	135 (0.4)	371 (0.3)	93 (0.4)	441 (0.5)	183 (0.5)	412 (1.0)	104 (0.2)
기타	342 (1.0)	1,106 (1.0)	341 (1.5)	1,717 (1.9)	807 (2.3)	172 (0.4)	825 (1.7)

2. 일자리 특성

1) 일자리 진출 분야(산업)

현재 일자리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17.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타 공공서비스업(14.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4.7%), 교육서비스업(14.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기타 공공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은 0.8%p 증가하였고, 제조업(광업포함) 종사자 비중은 1.2%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별 분포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누어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는 제조업(17.6%)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기타 공공서비스업(각각 14.9%)의 순으로 종사자 비중이 높았고, 비임금근로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31.3%), 교육서비스업(20.6%), 기타 공공서비스업(13.6%)의 순으로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5> 현재 일자리 진출분야(산업)

(단위: %)

	2015GOMS			2014 GOMS	2013 GOMS	2012 GOMS	2011 GOMS
	임금	비임금					
농림어업	0.3	0.1	4.8	0.5	0.4	0.4	0.3
제조업(광업포함)	17.1	17.6	6.9	18.3	18.4	18.2	17.9
전기, 가스, 건설업	4.1	4.2	2.3	4.1	4.4	4.2	4.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4.7	13.9	31.3	14.6	13.8	13.4	13.5
운수·통신업	8.5	8.6	7.1	8.0	9.0	8.9	8.3
금융 및 부동산업	4.3	4.3	5.0	4.1	4.4	5.8	6.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	7.4	5.9	7.2	7.3	7.4	7.1
교육서비스업	14.4	14.1	20.6	14.2	14.1	13.9	15.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3	14.9	2.1	14.9	14.6	14.3	13.9
기타 공공서비스업	14.8	14.9	13.6	14.0	13.6	13.3	13.4
국제 및 외국기관	0.0	0.0	0.3	0.2	0.1	0.1	0.1

주: 산업분야별 진출 비율을 고려해 산업대분류 상에서 재분류한 표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제조업(24.6%)과 기타 공공서비스업(16.6%), 전기, 가스, 건설업(6.1%)의 종사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보

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2.6%)과 교육서비스업(18.6%) 종사자 비율이 남성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2~3년제 졸업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2.5%), 도
소매 및 음식 숙박업(19.1%), 제조업(17.0%) 순으로 종사자 비율이 높게 조사되
었다. 4년제 졸업자는 제조업 종사 비율이 17.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육서비스업(16.5%), 기타 공공서비스업(15.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교육
대 졸업자의 대부분은 교육서비스업(96.4%)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6> 학교유형별 현재 일자리 진출분야(산업)

(단위: %)

	전체			2~3년제			4년제			교육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농림어업	0.3	0.6	0.1	0.4	0.9	0.1	0.3	0.4	0.1	-	-	-
제조업(광업포함)	17.1	24.6	10.0	17.0	26.9	9.2	17.5	23.6	10.8	-	-	-
전기, 가스, 건설업	4.1	6.1	2.2	4.6	7.6	2.1	3.9	5.5	2.3	0.3	1.1	-
도소매및음식숙박업	14.7	14.6	14.8	19.1	19.3	18.8	12.4	12.4	12.4	-	-	-
운수·통신업	8.5	10.1	6.9	5.7	8.0	3.9	10.3	11.3	9.1	-	-	-
금융및부동산업	4.3	4.5	4.2	2.7	2.3	3.0	5.3	5.6	5.1	-	-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7.3	7.2	7.5	5.2	5.0	5.3	8.7	8.3	9.1	-	-	-
교육서비스업	14.4	10.0	18.6	8.5	4.2	11.9	16.5	12.1	21.2	96.4	90.5	99.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4.3	5.7	22.6	22.5	8.5	33.6	9.8	4.3	15.7	-	-	-
기타공공서비스업	14.8	16.6	13.1	14.3	17.3	11.9	15.3	16.4	14.1	3.3	8.4	0.96
국제및외국기관	0.0	-	0.0	0.0	-	0.0	0.0	-	0.0	-	-	-

주: 산업분야별 진출 비율을 고려해 산업대분류 상에서 재분류한 표임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열에선 교육서비스업(20.2%)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 기타 공공서비스업(19.6%)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8.2%)의 순
으로 종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계열은 기타 공공서비스업(19.8%), 도
소매 및 음식숙박업(18.7%), 제조업 13.9% 등의 순으로, 공학계열은 제조업
(33.9%)과 운수 및 통신업(13.7%)의 종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계열은
대부분이 교육서비스(65.8%)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의약계열은 보건업 및 사회
복지서비스업(80.3%) 종사자 비중이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자
연계열 졸업자의 경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종사 비중이 27.2%로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제조업에 18.3%, 교육서비스업에 16.7%가 종사하고 있었으며, 예

채능 계열 졸업자의 경우 기타 공공서비스업(21.4%)과 교육서비스업(20.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7.8%) 종사 비중이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Ⅲ-7> 전공계열별 현재 일자리 진출분야(산업)

(단위: %)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농림어업	0.2	0.3	-	0.2	2.0	-	0.1
제조업(광업포함)	11.7	13.9	1.8	33.9	18.3	5.1	13.3
전기, 가스, 건설업	2.2	2.2	0.5	10.6	2.5	0.8	3.2
도소매및음식숙박업	18.2	18.7	2.9	9.2	27.2	5.6	17.8
운수업, 통신	13.4	8.1	1.5	13.7	4.1	0.5	9.7
금융및부동산업	4.7	9.1	0.7	2.2	4.2	0.8	2.2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6.6	8.2	0.5	10.0	9.0	1.1	8.2
교육서비스업	20.2	8.0	65.8	8.0	16.7	2.1	20.8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3.1	11.6	19.7	0.8	3.1	80.3	3.4
기타공공서비스업	19.6	19.8	6.6	11.5	13.0	3.6	21.4
국제및외국기관	0.2	0.0	-	-	-	-	-

주: 산업분야별 진출 비율을 고려해 산업대분류 상에서 재분류한 표임

2) 일자리 진출분야(직업)

2015년 대졸자의 직업별 종사 비율을 살펴보면, 경영재무직 종사 비율이 28.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건설·생산직(20.3%), 판매 및 개인서비스직(16.1%) 등의 순으로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 전체 취업자 분포와 임금 근로자의 분포는 유사하며, 비임금근로자는 판매 및 개인서비스직(33.9%)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종사 비중이 높아 17.7%이며, 경영·재무직이 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졸업자의 직업별 종사 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경영재무직과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종사자의 비중이 약간 증가하였고, 판매 및 개인서비스직, 기타 사회 서비스직 종사자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다.

<표Ⅲ-8> 현재 일자리 진출분야(직업)

(단위: %)

	2015GOMS			2014 GOMS	2013 GOMS	2012 GOMS	2011 GOMS
		임금	비임금				
관리직	0.2	0.1	2.0	0.2	0.3	0.3	0.5
경영·재무직	28.9	29.6	15.2	28.2	29.2	32.0	32.2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9.3	8.9	17.7	8.8	9.6	10.2	12.3
보건, 의료 관련직	10.9	11.3	1.5	10.8	9.8	9.6	9.3
기타 사회서비스직	11.8	11.7	14.8	12.2	12.3	12.6	12.0
판매 및 개인서비스직	16.1	15.3	33.9	16.9	15.6	14.2	14.5
건설, 생산직	20.3	20.7	10.0	20.1	20.7	19.5	18.3
농림어업직	0.4	0.2	4.9	0.5	0.4	0.5	0.3
군인	2.2	2.2	-	2.3	2.0	1.1	0.7

주: 직업분야별 진출 비율을 고려해 직업중분류 상에서 재분류한 표임

성별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은 건설·생산직(33.5%)과 경영·재무직(25.8%) 종사자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경영·재무직(31.9%)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건설·생산직 종사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판매 및 개인서비스직 종사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보건, 의료 관련직 종사자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기타 사회서비스직, 경영·재무직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2~3년제 졸업자는 경영·재무직(21.5%)과 판매 및 개인 서비스직(20.9%), 건설·생산직(20.4%)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4년제 졸업자는 경영·재무직(33.7%)과 건설·생산직(20.6%)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대 졸업자의 대부분은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96.7%)에 종사하고 있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종사 비율이 9.0%p 더 높게 나타났다.

<표Ⅲ-9> 학교유형별 현재 일자리 진출분야(직업)

(단위: %)

	전체			2~3년제			4년제			교육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관리직	0.2	0.2	0.1	0.2	0.2	0.2	0.2	0.3	0.1	-	-	-
경영재무직	28.9	25.8	31.9	21.5	16.9	25.1	33.7	30.4	37.3	0.3	-	0.49
교육및자연과학, 사회과학연구관련직	9.3	5.0	13.4	4.8	1.6	7.4	10.4	5.9	15.3	96.7	90.5	99.5
보건, 의료관련직	10.9	4.7	16.8	16.7	7.3	24.2	7.7	3.4	12.3	-	-	-
기타사회서비스직	11.8	7.6	15.8	13.3	7.7	17.7	11.1	7.6	15.0	-	-	-
판매및개인서비스직	16.1	18.7	13.6	20.9	23.3	19.0	13.5	16.5	10.3	0.3	1.1	-
건설, 생산직	20.3	33.5	7.6	20.4	39.0	5.7	20.6	31.1	9.1	-	-	-
농림어업직	0.4	0.7	0.1	0.6	1.2	0.1	0.3	0.4	0.1	-	-	-
군인	2.2	3.8	0.5	1.6	2.7	0.6	2.5	4.4	0.5	2.6	8.4	-

주: 직업분야별 진출 비율을 고려해 직업중분류 상에서 재분류한 표임

전공계열별로는 인문(46.1%), 사회(51.2%), 자연(26.3%) 계열 졸업자는 경영·재무직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학계열 졸업자는 건설·생산직(61.6%)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교육계열은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직(58.2%), 의약은 보건·의료 관련직(82.9%) 비율이 가장 높아 직업 분포가 전공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체능 계열 졸업자는 판매 및 개인서비스직(28.3%)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10> 전공계열별 현재 일자리 진출분야(직업)

(단위: %)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관리직	0.2	0.5	0.2	0.1	0.1	-	-
경영재무직	46.1	51.2	8.8	17.5	26.3	5.8	19.6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10.8	2.9	58.2	2.6	15.1	1.3	14.0
보건, 의료관련직	0.5	1.8	2.6	1.1	8.2	82.9	2.1
기타사회서비스직	13.0	15.2	22.7	3.7	4.9	1.3	27.2
판매 및 개인서비스직	20.8	18.8	4.3	10.6	21.8	4.4	28.3
건설, 생산직	6.4	6.0	1.1	61.6	19.7	4.2	7.3
농림어업직	0.2	0.4	-	0.2	2.1	-	0.2
군인	1.9	3.3	2.0	2.5	1.6	0.2	1.3

주: 직업분야별 진출 비율을 고려해 직업중분류 상에서 재분류한 표임

3) 사업체 규모

사업체 규모별 종사비율을 살펴보면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율은 21.3%, 30~299명 사업체 종사 비율은 32.0%, 30명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율은 46.6%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 분포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금근로자는 1~4명 규모의 사업체 종사 비율이 9.6%, 5~9명 13.9%, 10~29명 20.9%로 30명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율은 총 44.4%이며,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체 종사 비율은 22.2%로 나타났다. 반면, 비임금근로자의 82.7%는 1~4명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11> 현재 일자리 사업체 규모

(단위: 명, %)

	2015GOMS			2014 GOMS	2013 GOMS	2012 GOMS	2011 GOMS
		임금	비임금				
1~4명	48,268 (12.8)	34,636 (9.6)	13,632 (82.7)	44,726 (12.4)	43,052 (12.1)	45,017 (11.9)	49,253 (13.0)
5~9명	51,805 (13.7)	50,036 (13.9)	1,769 (10.7)	48,232 (13.3)	47,995 (13.5)	42,956 (11.3)	44,596 (11.8)
10~29명	75,844 (20.1)	75,275 (20.9)	569 (3.5)	71,806 (19.9)	68,818 (19.4)	75,622 (20.0)	69,062 (18.2)
30~49명	32,544 (8.6)	32,248 (9.0)	296 (1.8)	32,809 (9.1)	32,024 (9.0)	35,023 (9.2)	31,787 (8.4)
50~99명	38,298 (10.2)	38,216 (10.6)	82 (0.5)	38,888 (10.8)	40,903 (11.5)	44,214 (11.7)	42,640 (11.3)
100~299명	49,689 (13.2)	49,675 (13.8)	14 (0.1)	44,331 (12.3)	44,078 (12.4)	46,990 (12.4)	48,176 (12.7)
300~499명	19,461 (5.2)	19,382 (5.4)	79 (0.5)	19,128 (5.3)	17,275 (4.9)	20,791 (5.5)	20,948 (5.5)
500~999명	18,512 (4.9)	18,495 (5.1)	17 (0.1)	17,204 (4.8)	17,887 (5.0)	21,801 (5.8)	22,482 (5.9)
1,000명이상	42,356 (11.2)	42,322 (11.7)	34 (0.2)	44,441 (12.3)	42,432 (12.0)	46,369 (12.2)	49,167 (13.0)

성별로는 남성(41.6%)보다 여성(51.6%)이 30명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300명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은 남성(23.6%)이 여성(19.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30명 미만 사업체 종사 비율은 2~3년제 57.3%, 4년제 40.9%, 교육대 19.9% 순이었으며, 300명 이상 사업체 종사 비율은 4년제 25.0%, 2~3년제 15.4%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는 예체능(67.0%), 교육(59.3%), 인문(50.8%), 자연(46.4%), 사회(46.4%) 계열 졸업자의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체 종사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의약(34.7%)과 공학(27.0%) 계열 졸업자의 대규모 사업체 종사 비율은 다른 계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12> 성별, 졸업대학 특성별 사업체 규모

(단위: 명, %)

		1~4명	5~9명	10~29명	30~49명	50~99명	100~299명	3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전체		48,268 (12.8)	51,805 (13.7)	75,844 (20.1)	32,544 (8.6)	38,298 (10.2)	49,689 (13.2)	19,461 (5.2)	18,512 (4.9)	42,356 (11.2)
성	남성	21,949 (11.9)	21,715 (11.8)	32,993 (17.9)	16,911 (9.2)	19,212 (10.4)	28,020 (15.2)	10,154 (5.5)	9,145 (5.0)	24,227 (13.1)
	여성	26,318 (13.7)	30,090 (15.6)	42,851 (22.3)	15,632 (8.1)	19,086 (9.9)	21,669 (11.3)	9,307 (4.8)	9,368 (4.9)	18,129 (9.4)
학교 유형	2~3년제	21,449 (15.7)	25,012 (18.3)	31,850 (23.3)	11,049 (8.1)	11,017 (8.1)	15,237 (11.2)	5,718 (4.2)	5,218 (3.8)	10,071 (7.4)
	4년제	26,803 (11.3)	26,770 (11.3)	43,260 (18.3)	20,085 (8.5)	25,776 (10.9)	34,344 (14.5)	13,707 (5.8)	13,294 (5.6)	32,236 (13.6)
	교육대	15 (0.4)	23 (0.6)	733 (18.9)	1,410 (36.3)	1,506 (38.8)	108 (2.8)	36 (0.9)	-	48 (1.2)
전공 계열	인문	5,048 (15.4)	4,766 (14.6)	6,808 (20.8)	2,909 (8.9)	2,709 (8.3)	3,977 (12.1)	1,744 (5.3)	1,483 (4.5)	3,304 (10.1)
	사회	13,375 (12.4)	14,767 (13.7)	21,767 (20.3)	9,885 (9.2)	11,037 (10.3)	14,841 (13.8)	5,478 (5.1)	5,469 (5.1)	10,831 (10.1)
	교육	1,270 (5.5)	4,068 (17.6)	8,355 (36.2)	3,201 (13.9)	4,071 (17.6)	1,050 (4.5)	326 (1.4)	173 (0.7)	592 (2.6)
	공학	8,075 (9.0)	9,685 (10.7)	15,383 (17.1)	7,843 (8.7)	9,981 (11.1)	14,755 (16.4)	5,600 (6.2)	4,362 (4.8)	14,461 (16.0)
	자연	4,836 (13.8)	4,534 (12.9)	7,034 (20.0)	3,115 (8.9)	3,461 (9.9)	4,579 (13.0)	2,069 (5.9)	2,057 (5.9)	3,448 (9.8)
	의약	3,813 (9.4)	4,402 (10.9)	5,869 (14.5)	1,963 (4.9)	3,465 (8.6)	6,819 (16.9)	3,039 (7.5)	3,482 (8.6)	7,520 (18.6)
	예체능	11,851 (24.8)	9,582 (20.0)	10,628 (22.2)	3,628 (7.6)	3,574 (7.5)	3,669 (7.7)	1,205 (2.5)	1,487 (3.1)	2,200 (4.6)

3.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 근로소득

1)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는 전체 취업자의 95.6%이며, 취업자 중 상용직 비율은 79.7%, 임시직 14.3%, 일용직 1.6%로 조사되었다. 임금근로자 비율은 이전년도 졸업자(95.5%)와 유사하며,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율은 2014년 졸업자(78.5%)와 비교하여 1.2%p 증가하였고 임시직 비율은 이전년도(15.5%)에 비해 감소하였다.

성별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임금근로자 비율은 각각 94.8%, 96.5%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상용직 비율은 남성 81.3%, 여성 78.2%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상용직 비율이 3.1%p 높고, 임시직 비율은 남성 12.1%, 여성 16.5%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교육대(100.0%), 4년제(95.5%), 2~3년제(95.7%) 순으로 임금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율은 교육대 졸업자(94.4%)가 가장 높고, 2~3년제(80.5%)와 4년제 졸업자(79.0%)의 상용직 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 비교하여 보면 의약계열의 임금근로자 비율은 99.4%로 가장 높고, 예체능계열은 90.0%로 가장 낮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율은 의약계열(89.9%)과 공학계열(85.2%)이 높고, 임시직 비율은 인문계열(20.3%)과 자연계열(17.4%), 예체능계열(21.9%) 졸업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직 비율 또한 인문계열(2.2%)과 예체능계열(3.8%)에서 높게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예체능계열(9.5%)을 제외한 모든 계열에서 5%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13〉 성별, 졸업대학 특성별 종사상 지위

(단위: 명, %)

		임금근로				비임금근로		
			상용	임시	일용	종업원을 둔고용주	종업원이 없는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체		364,272 (95.6)	303,568 (79.7)	54,539 (14.3)	6,166 (1.6)	16,675 (4.4)	5,060 (1.3)	10,172 (2.7)
성	남성	176,658 (94.8)	151,552 (81.3)	22,534 (12.1)	2,573 (1.4)	9,784 (5.2)	3,582 (1.9)	5,269 (2.8)
	여성	187,614 (96.5)	152,016 (78.2)	32,005 (16.5)	3,593 (1.8)	6,891 (3.5)	1,478 (0.8)	4,903 (2.5)
학 교 유 형	2~3년제	132,095 (95.7)	111,193 (80.5)	17,954 (13.0)	2,948 (2.1)	5,976 (4.3)	1,814 (1.3)	3,324 (2.4)
	4년제	228,271 (95.5)	188,686 (79.0)	36,368 (15.2)	3,218 (1.3)	10,699 (4.5)	3,246 (1.4)	6,848 (2.9)
	교육대	3,906 (100.0)	3,689 (94.4)	217 (5.6)	-	-	-	-
전 공 계 열	인문	31,530 (95.4)	24,077 (72.8)	6,725 (20.3)	729 (2.2)	1,523 (4.6)	398 (1.2)	1,022 (3.1)
	사회	103,614 (95.4)	86,501 (79.6)	15,568 (14.3)	1,545 (1.4)	5,007 (4.6)	1,858 (1.7)	2,736 (2.5)
	교육	22,768 (97.8)	19,939 (85.6)	2,698 (11.6)	131 (0.6)	514 (2.2)	92 (0.4)	422 (1.8)
	공학	88,346 (96.7)	77,841 (85.2)	9,349 (10.2)	1,156 (1.3)	2,979 (3.3)	1,148 (1.3)	1,463 (1.6)
	자연	33,826 (94.9)	27,257 (76.5)	6,204 (17.4)	364 (1.0)	1,804 (5.1)	439 (1.2)	980 (2.8)
	의약	40,522 (99.4)	36,678 (89.9)	3,433 (8.4)	411 (1.0)	256 (0.6)	90 (0.2)	128 (0.3)
	예체능	43,666 (90.5)	31,275 (64.8)	10,562 (21.9)	1,829 (3.8)	4,592 (9.5)	1,036 (2.1)	3,421 (7.1)

2) 정규직 비율

2015년 대졸자의 정규직 비율은 63.9%로 이전년도 졸업자의 정규직 비율(63.3%)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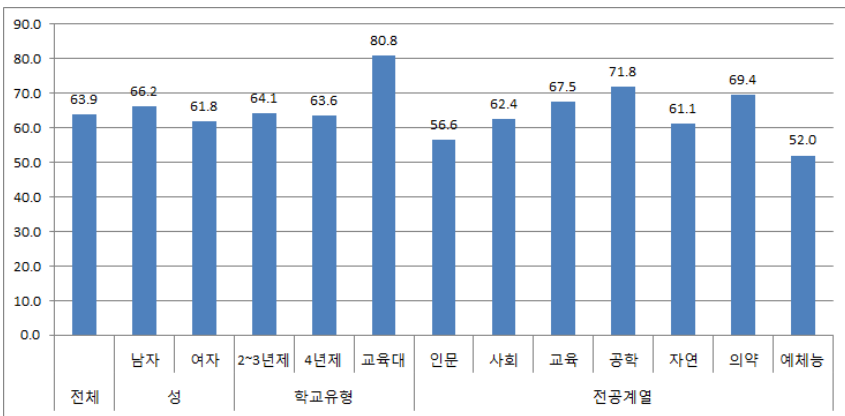
성별 정규직 비율은 남성 66.2%, 여성 61.8%로 남성의 정규직 비율이 여성에 비해 4.4%p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졸업자의 성별(남성 67.2%, 여성 59.6%) 정규직 차이(7.6%p)에 비해 그 폭이 감소한 것으로, 전년에 비해 남성의 정규직 비율은 1.0%p 감소한 반면, 여성의 정규직 비율은 2.2%p 증가한 것

에 따른 결과이다.

학교유형별 정규직 비율은 2~3년제(64.1%)가 4년제(63.6%)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교육대의 경우 정규직 비율이 8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계열 별로는 공학계열(71.8%)과 의학계열(69.4%), 교육계열(67.5%) 졸업자의 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예체능계열(52.0%)과 인문계열(56.6%) 졸업자의 정규직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그림Ⅲ-1] 현재 일자리 정규직 비율

(단위: %)



사업체 특성별 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우선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정규직 비율이 83.2%로 가장 높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1.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70.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8.8%)의 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교육서비스업의 정규직 비율은 매우 낮아 41.4%에 불과하였다.

직업별로는 보건, 의료 관련직의 정규직 비율이 70.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의 정규직 비율이 60%대로 조사되었다. 반면, 교육 및 자연, 사회 과학 연구관련직(49.3%)의 정규직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100~299명 사업체의 정규직 비율이 67.9%로 가장 높다. 30~99명 사업체를 기준으로 10명 미만과 10~29명 사업체의 정규직 비율은 각

각 58.4%, 66.0%로 상대적으로 낮고, 100~299명 사업체의 정규직 비율은 67.9%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표Ⅲ-14> 산업 및 직업,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 비율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산업	제조업	83.2	83.5	82.5
	도매 및 소매업	65.0	67.0	62.9
	숙박 및 음식점업	45.2	51.7	4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0.4	73.6	66.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1.9	70.7	73.0
	교육 서비스업	41.4	35.9	4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8.8	56.2	71.8
직업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65.5	70.3	62.0
	교육 및 자연,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49.3	44.6	51.1
	보건, 의료 관련직	70.7	58.0	74.0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62.2	55.4	64.0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63.6	63.5	63.7
	영업 및 판매 관련직	58.1	66.1	45.5
	음식서비스 관련직	39.6	48.8	33.0
사업체 규모	10명 미만	58.4	58.2	58.6
	10~29명	66.0	67.5	64.9
	30~99명	66.7	68.2	65.1
	100~299명	67.9	70.6	64.3
	300명이상	64.3	69.0	58.8

주: 산업은 종사비율이 5%, 직업은 4% 이상인 분야만을 분석

3) 근로 시간

2015년 대졸자는 현재 일자리에서 주당 평균 44.2시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2007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이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성별 근로시간은 남성 45.8시간, 여성 42.7시간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주당 평균 3.1시간 더 길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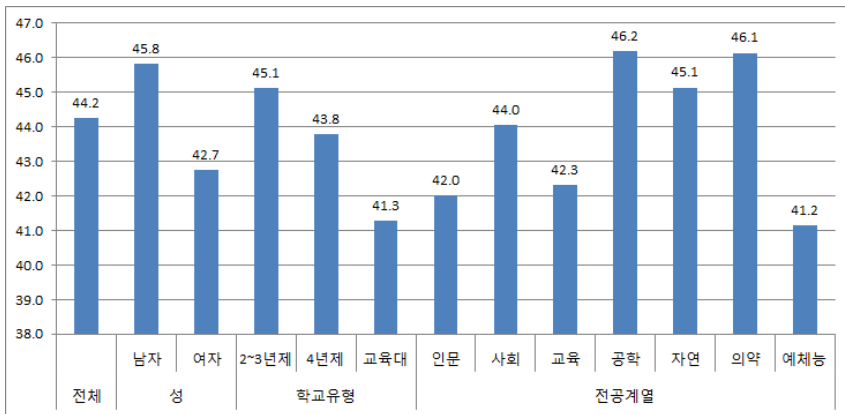
학교유형별로는 2~3년제 졸업자의 주당평균 근로시간이 45.1시간으로 가장

긴 시간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4년제 43.8시간, 교육대 41.3시간 순이었다.

전공계열별로는 공학계열(46.2시간)과 의약계열(46.1시간)의 주당평균 근로시간이 다른 계열 졸업자에 비해 긴 편이었고, 인문계열(42.0시간)과 예체능계열(41.2시간) 졸업자의 근로시간은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그림Ⅲ-2] 현재 일자리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종사상 지위별 근로시간은 임금근로자 44.3시간, 비임금근로자 43.4시간으로 임금근로자가 비임금근로자에 비해 주당 평균 0.9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남성 임금근로자는 주당 평균 45.7시간, 여성 42.9시간으로 남성이 주당 평균 2.8시간 더 길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임금근로자는 남성 47.2시간, 여성 37.9시간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주당 평균 9.3시간 더 길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5.7간이며, 임시직은 37.8시간, 일용직 31.0시간으로 나타나 상용직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임금근로자 중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상용직과 임시직, 일용직 모두 남성의 근로시간이 여성에 비해 길게 나타났으며, 일용직의 성별 근로시간 차이가 주당 평균 3.0시간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임시직 (2.8시간), 상용직(2.4시간)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Ⅲ-15〉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전체	남성	여성
임금근로	44.3	45.7	42.9
상용	45.7	46.9	44.5
임시	37.8	39.5	36.7
일용	31.0	32.7	29.7
비임금근로	43.4	47.2	37.9

산업별로는 제조업(46.5시간)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45.5시간), 숙박 및 음식점업(45.4시간)의 순으로 주당평균 근로시간이 다른 산업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8.1시간으로 가장 짧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보건, 의료관련직 종사자의 주당평균 근로시간이 46.5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과 영업 및 판매 관련직이 44.4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긴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 및 자연·사회과학 연구 관련직의 주당평균 근로시간은 36.7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및 직업별로 남성과 여성의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남성의 근로시간이 여성에 비해 길었으며, 산업은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직업은 음식서비스 관련직과 보건·의료 관련직, 영업 및 판매 관련직에서 성별 근로시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 주당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300명 이상 사업체 종사자의 근로시간이 45.7시간으로 가장 길고, 다음으로 100~299명 사업체 45.0시간, 10~29명 사업체 44.6시간 등으로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주당평균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서 남성의 근로시간은 44.9시간, 여성은 40.8시간으로 성별 근로시간 차이(4.1시간)가 가장 컸다. 반면, 100~299명 사업체에서의 성별 근로시간 차이는 1.4시간으로 다른 규모의 사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표Ⅲ-16> 산업 및 직업, 사업체 규모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전체	남성	여성
산업	제조업	46.5	47.2	44.7
	도매 및 소매업	45.2	46.3	44.0
	숙박 및 음식점업	45.4	49.7	42.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4.9	45.6	44.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4.8	45.4	44.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5.5	47.0	42.7
	교육 서비스업	38.1	39.1	37.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5.1	47.1	44.7
직업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43.9	45.1	43.0
	교육 및 자연,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36.7	37.3	36.6
	보건, 의료 관련직	46.5	50.1	45.6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42.5	40.7	43.0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44.4	44.8	44.1
	영업 및 판매 관련직	44.4	46.1	41.8
	음식서비스 관련직	43.8	48.4	40.1
사업체 규모	10명 미만	42.6	44.9	40.8
	10~29명	44.6	46.3	43.3
	30~99명	44.2	45.3	43.1
	100~299명	45.0	45.6	44.2
	300명 이상	45.7	47.1	44.0

주: 산업은 종사비율이 5%, 직업은 4% 이상인 분야만을 분석

4) 근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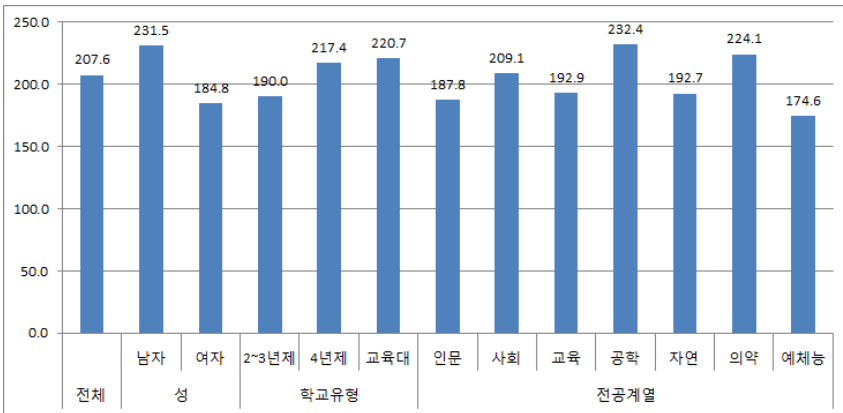
대학 졸업 후 약 1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2015년 대졸자의 월평균 근로 소득은 207만 6천원으로 나타났다. 성별 월평균 소득은 남성이 231만 5천원으로 여성(184만 8천원)에 비해 월평균 46만 7천원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 교유형별로는 교육대(220만원 7천원), 4년제(217만 4천원), 2~3년제(190만원) 순으로 나타나 2~3년제 대학 졸업자의 월평균 소득이 타 대학 유형의 월평균 소득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는 공학계열 졸업자의 월평균 소득이 232만 4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의약계열이 224만 1천원, 사회계열 209만 1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열, 자연계열 졸업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90만원 초반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인문계열 졸업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87.8만원이었고, 예체능계열 졸업자의 평균 근로소득은 174만원 6천원으로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월평균 근로소득이 가장 낮았다.

[그림Ⅲ-3] 현재 일자리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만원)



종사상 지위별 월평균 소득은 임금근로자 204만 8천원, 비임금근로자 273만 원 8천원으로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월평균 약 69만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의 월평균 소득은 218만 2천원, 임시직 140만 4천원, 일용직 110만 7천원으로 상용직과 임시, 일용직간 월평균 소득액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성별 임금을 살펴보면,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26만 9천원인데 비해, 여성은 184만 1천원으로 남성이 월평균 42만 8천원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성별 소득 차이는 임시직보다는 상용직과 일용직에서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비임금 근로자의 성별 임금 차이는 120만 1천원으로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크게 나타났다.

<표Ⅲ-17> 종사상 지위별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만원)

	전체	남성	여성
임금근로	204.8	226.9	184.1
상용	218.2	239.5	197.0
임시	140.4	152.3	132.0
일용	110.7	128.5	98.3
비임금근로	273.8	323.9	203.8

산업별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246만 6천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214만 7천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13만 7천원으로 높은 소득 수준을 보였고, 교육서비스업(160만원)의 월평균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보건, 의료관련직(219만 8천원), 영업 및 판매 관련직(207만 1천원),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206만 2천원) 등의 순으로 월평균 소득이 높았으며, 교육 및 자연,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169만 1천원),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168만원)은 다른 직업 종사자에 비해 월평균 소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 및 직업별로 성별 임금을 살펴보면, 성별 임금격차가 큰 산업분야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월평균 53만 6천원)과 제조업(월평균 49만 3천원), 숙박 및 음식서비스업(월평균 47만 9천원)이었으며, 교육 서비스업은 남녀 월평균 임금격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영업 및 판매 관련직과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남성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여성에 비해 각각 67만 5천원, 50만 1천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성별 임금격차가 작은 직업은 교육 및 자연,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10명 미만 사업체의 월평균 소득이 177만원 2천원, 300명 이상 사업체 247만 6천원으로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월평균 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18〉 산업 및 직업,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만원)

		전체	남성	여성
산업	제조업	246.6	261.3	212.0
	도매 및 소매업	207.7	230.7	183.0
	숙박 및 음식점업	165.6	193.1	145.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13.7	225.0	198.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14.7	242.5	188.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06.5	217.4	185.3
	교육 서비스업	160.0	161.5	159.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3.9	227.8	198.2
직업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206.2	234.8	184.7
	교육 및 자연,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169.1	178.4	165.7
	보건, 의료 관련직	219.8	245.4	212.9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68.0	181.1	164.5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184.6	210.3	170.5
	영업 및 판매 관련직	207.1	233.3	165.8
	음식서비스 관련직	149.5	175.3	129.1
사업체 규모	10명 미만	177.2	206.6	154.7
	10~29명	197.9	223.1	178.5
	30~99명	208.1	224.9	190.7
	100~299명	219.3	233.4	201.1
	300명 이상	247.6	268.5	223.0

주: 산업은 종사비율이 5%, 직업은 4% 이상인 분야만을 분석

5) 사회보험 가입률

현재 일자리가 있는 대졸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82.8%, 건강보험 가입률은 92.3%, 고용보험 가입률은 81.5%이다. 성별 국민연금 가입률은 남성 82.2%, 여성 83.3%이며, 건강보험 가입률은 남성 92.5%, 여성 92.1%, 고용보험은 남성 81.6%, 여성 81.3%로 성별 가입률 차이는 크지 않다.

<표Ⅲ-19> 성별, 졸업대학 특성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보험
			직장가입	지역가입		직장가입	지역가입	
전체		312,051 (82.8)	299,545 (79.4)	12,505 (3.3)	347,929 (92.3)	319,395 (84.7)	28,534 (7.6)	307,207 (81.5)
성별	남성	152,253 (82.2)	146,241 (79.0)	6,012 (3.2)	171,330 (92.5)	157,813 (85.2)	13,517 (7.3)	151,197 (81.6)
	여성	159,797 (83.3)	153,304 (79.9)	6,493 (3.4)	176,599 (92.1)	161,582 (84.2)	15,017 (7.8)	156,011 (81.3)
학교 유형	2~3년제	118,928 (86.1)	114,275 (82.8)	4,653 (3.4)	128,481 (93.1)	118,830 (86.1)	9,651 (7.0)	116,002 (84.0)
	4년제	193,122 (80.8)	185,271 (77.5)	7,852 (3.3)	219,448 (91.8)	200,565 (83.9)	18,883 (7.9)	191,206 (80.0)
전공	인문	26,069 (78.9)	24,649 (74.6)	1,420 (4.3)	29,523 (89.3)	26,061 (78.8)	3,462 (10.5)	24,988 (75.6)
	사회	92,023 (84.7)	88,165 (81.2)	3,859 (3.6)	102,186 (94.1)	94,832 (87.3)	7,354 (6.8)	90,805 (83.6)
	교육	14,330 (74.0)	13,754 (71.0)	576 (3.0)	18,182 (93.8)	17,389 (89.7)	793 (4.1)	15,673 (80.9)
	공학	79,506 (87.1)	77,215 (84.5)	2,291 (2.5)	85,832 (94.0)	80,479 (88.1)	5,353 (5.9)	78,538 (86.0)
	자연	28,439 (79.8)	27,212 (76.4)	1,227 (3.4)	32,436 (91.0)	28,996 (81.4)	3,439 (9.7)	27,916 (78.4)
	의약	37,345 (91.6)	36,957 (90.6)	388 (1.0)	39,367 (96.5)	38,822 (95.2)	545 (1.3)	37,445 (91.8)
	예체능	34,338 (71.2)	31,593 (65.5)	2,744 (5.7)	40,403 (83.7)	32,815 (68.0)	7,588 (15.7)	31,843 (66.0)

주: 교육대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학교유형별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2~3년제 대졸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86.1%, 건강보험 가입률 93.1%, 고용보험 가입률 84.0%로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하여 약간씩 높게 나타났다.

전공계열별 사회보험 가입률은 성 및 학교유형별 가입률에 비하여 꽤 큰 차이를 보이며, 특히 국민연금 가입률이 계열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은 계열은 의약계열(91.6%)과 공학계열(87.1%), 사회계열(84.7%)이며, 예체능계열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71.2%로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가장

낮았다. 건강보험 가입률 또한 의약계열 졸업자가 가장 높아 96.5%이며, 예체능 계열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83.7%로 가장 낮았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의약계열(91.8%)과 공학계열(86.0%), 사회계열(83.6%) 졸업자가 높고, 예체능 계열 졸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66.0%로 낮게 나타났다.

6) 부가급여

2015년 대졸자들의 부가급여 수혜율은 퇴직금 85.4%, 유급휴가 74.5%, 시간외수당 65.8%, 상여금 73.9%로 2014년 졸업자에 비해 부가급여 수혜율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퇴직금 수혜율은 87.1%, 유급휴가 78.4%, 시간외수당 69.6%, 상여금 78.2%로 4개의 부가급여 수혜율이 모두 여성에 비해 높다.

학교유형별로 비교하면, 교육대 졸업자의 퇴직금과 유급휴가, 상여금 수혜율은 모두 90%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2~3년제 졸업자의 퇴직금 수혜율(85.9%)과 시간외수당 수혜율(65.8%)은 4년제 대졸자에 비해 조금씩 높은 반면, 유급휴가 수혜율(71.8%)과 상여금 수혜율(72.6%)은 4년제 대졸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75.7%, 74.2%).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교육계열과 공학계열, 의약계열 졸업자의 부가급여 수혜율이 다른 계열 졸업자에 비해 높은 편이며, 예체능 계열 졸업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급여 수혜율을 보인다.

<표Ⅲ-20> 성별, 졸업대학 특성별 부가급여 수혜율

(단위: 명, %)

		퇴직금	유급휴가	시간외수당	상여금
전체		310,139 (85.4)	268,499 (74.5)	242,225 (65.8)	268,947 (73.9)
성	남성	152,487 (87.1)	136,295 (78.4)	123,523 (69.6)	136,813 (78.2)
	여성	157,651 (83.8)	132,204 (70.8)	118,701 (62.2)	132,134 (69.8)
학교 유형	2~3년제	112,473 (85.9)	92,772 (71.8)	87,101 (65.8)	95,413 (72.6)
	4년제	193,863 (84.9)	172,156 (75.7)	151,409 (65.3)	169,750 (74.2)
	교육대	3,802 (97.4)	3,571 (93.5)	3,715 (92.8)	3,785 (97.8)
전공 계열	인문	24,979 (77.9)	21,754 (67.9)	18,753 (58.5)	21,003 (66.4)
	사회	90,272 (87.4)	78,764 (77.0)	71,355 (68.6)	78,543 (75.8)
	교육	20,189 (89.1)	17,190 (75.2)	16,385 (70.1)	18,177 (79.1)
	공학	78,077 (88.8)	69,672 (79.7)	62,457 (69.8)	69,828 (79.3)
	자연	27,799 (81.3)	23,782 (70.8)	20,870 (60.2)	23,389 (68.1)
	의약	37,818 (94.4)	31,570 (81.5)	30,759 (76.2)	32,923 (81.0)
	예체능	31,005 (71.4)	25,768 (58.5)	21,646 (48.1)	25,085 (57.9)

4. 일자리 만족도 및 업무수준

1) 만족도

2015년 대졸자의 현재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문항에 대해 5점 만점에 3점 이상의 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만족도가 높은 분야는 ‘인간관계’(3.74)와 ‘근무 환경’(3.71), ‘고용안정성 및 적성일치’(3.65)

등의 순이었고, 만족도가 낮은 분야는 ‘인사체계’(3.23), ‘임금 또는 소득’(3.26) 등으로 나타났다.

성별 및 학교유형별, 전공계열별 현재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다르지 않아, 전반적으로 ‘인간관계’와 ‘근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인사체계’와 ‘임금’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특이한 점은, 교육대 졸업자의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2~3년제 및 4년제 대학 졸업자의 만족도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용안정성’(4.58)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Ⅲ-21> 현재 일자리 만족도

(단위: 점)

		임금	고용 안정성	근무 환경	근무 시간	발전 가능성	인간 관계	복지 후생 제도	인사 체계	사회적 평판 -일	자율성, 권한	사회적 평판 -일자리	적성 일치	교육 훈련
전체		3.26	3.65	3.71	3.56	3.50	3.74	3.38	3.23	3.57	3.62	3.59	3.65	3.45
성	남성	3.33	3.68	3.70	3.55	3.58	3.79	3.45	3.30	3.58	3.66	3.58	3.67	3.50
	여성	3.20	3.61	3.73	3.57	3.42	3.68	3.32	3.15	3.57	3.57	3.59	3.63	3.40
학 교 유 형	2~3년제	3.26	3.61	3.65	3.53	3.45	3.71	3.36	3.20	3.50	3.57	3.51	3.59	3.43
	4년제	3.26	3.65	3.74	3.57	3.51	3.74	3.38	3.23	3.61	3.64	3.62	3.68	3.46
	교육대	3.84	4.58	4.30	4.42	4.22	4.23	4.37	3.91	4.29	4.21	4.33	4.26	4.17
전 공 계 열	인문	3.15	3.54	3.71	3.57	3.38	3.70	3.22	3.07	3.48	3.55	3.49	3.51	3.30
	사회	3.24	3.62	3.73	3.59	3.42	3.71	3.39	3.19	3.53	3.59	3.56	3.58	3.40
	교육	3.59	3.95	4.00	3.90	3.78	3.98	3.80	3.51	3.85	3.80	3.84	3.98	3.80
	공학	3.36	3.74	3.72	3.55	3.61	3.80	3.48	3.36	3.61	3.68	3.61	3.68	3.52
	자연	3.21	3.59	3.66	3.52	3.52	3.69	3.30	3.15	3.54	3.60	3.56	3.65	3.42
	의약	3.23	3.77	3.61	3.38	3.42	3.63	3.41	3.24	3.70	3.50	3.69	3.63	3.48
	예체능	3.13	3.39	3.66	3.53	3.47	3.69	3.13	3.07	3.47	3.64	3.47	3.71	3.37

2) 업무수준과 교육수준 일치도

현재 일자리의 업무 수준을 자신의 교육수준과 비교한 결과 알맞다고 응답한 비율은 67.7%였으며, 자신의 교육수준보다 낮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7.7%,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교육수준에 비해 업무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16.4%)이 여성(19.0%)에 비해 2.6%p 낮고, 업무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17.1%)이 여성(12.3%)에 비해 4.8%p 높게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신의 업무수준과 교육수준이 알맞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육대 졸업자(85.9%)가 가장 높았다. 2~3년제와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업무수준과 교육수준이 알맞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9.1%, 66.6%로 나타났으며, 업무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보다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전공 계열별로 업무수준이 교육수준에 비해 알맞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육계열이 가장 높은 81.7%로 조사되었으며, 인문계열과 공학계열 졸업자는 각각 64.1%, 64.7%로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Ⅲ-22> 현재 일자리 업무-교육 수준 일치도

(단위: 명, %)

		매우낮음	낮음	알맞음	높음	매우높음
전체		9,161 (2.4)	58,297 (15.3)	257,849 (67.7)	47,926 (12.6)	7,715 (2.0)
성	남성	4,898 (2.6)	25,677 (13.8)	124,109 (66.6)	26,779 (14.4)	4,980 (2.7)
	여성	4,262 (2.2)	32,620 (16.8)	133,740 (68.8)	21,147 (10.9)	2,735 (1.4)
학교 유형	2~3년제	3,599 (2.6)	19,285 (14.0)	95,365 (69.1)	17,189 (12.4)	2,633 (1.9)
	4년제	5,536 (2.3)	38,844 (16.3)	159,128 (66.6)	30,456 (12.7)	5,007 (2.1)
	교육대	25 (0.7)	168 (4.3)	3,357 (85.9)	281 (7.2)	75 (1.9)
전공 계열	인문	1,111 (3.4)	6,948 (21.0)	21,194 (64.1)	3,259 (9.9)	541 (1.6)
	사회	2,888 (2.7)	18,583 (17.1)	73,194 (67.4)	12,280 (11.3)	1,676 (1.5)
	교육	194 (0.8)	2,047 (8.8)	19,019 (81.7)	1,717 (7.4)	306 (1.3)
	공학	2,024 (2.2)	12,078 (13.2)	59,120 (64.7)	15,720 (17.2)	2,382 (2.6)
	자연	835 (2.3)	5,763 (16.2)	24,262 (68.1)	4,248 (11.9)	521 (1.5)
	의약	449 (1.1)	4,356 (10.7)	29,361 (72.0)	5,454 (13.4)	1,158 (2.8)
	예체능	1,660 (3.4)	8,521 (17.7)	31,700 (65.7)	5,248 (10.9)	1,130 (2.3)

3) 업무수준과 기술수준 일치도

현재 일자리의 업무수준이 자신의 기술수준과 비교해 알맞다고 응답한 비율은 68.9%였으며, 자신의 기술수준보다 낮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7% 높은 수준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4%이다.

성별로는 남성(16.0%)이 여성(17.6%)에 비해, 학교유형별로는 교육대 졸업자(3.2%)가 2~3년제 및 4년제 대학 졸업자보다 자신의 기술수준에 비해 업무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열(22.7%)과 예체능계열(20.8%)이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업무수준이 자신의 기술수준에 비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공학계열(20.2%)의 경우 자신의 기술수준에 비해 업무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Ⅲ-23〉 현재 일자리 업무-기술 수준 일치도

(단위: 명, %)

		매우낮음	낮음	알맞음	높음	매우높음
전체		8,907 (2.3)	54,997 (14.4)	262,381 (68.9)	48,262 (12.7)	6,401 (1.7)
성	남성	4,512 (2.4)	25,304 (13.6)	126,644 (67.9)	25,688 (13.8)	4,296 (2.3)
	여성	4,395 (2.3)	29,693 (15.3)	135,738 (69.8)	22,574 (11.6)	2,105 (1.1)
학교 유형	2~3년제	3,917 (2.8)	17,858 (12.9)	97,832 (70.9)	16,315 (11.8)	2,150 (1.6)
	4년제	4,978 (2.1)	37,026 (15.5)	161,213 (67.5)	31,584 (13.2)	4,169 (1.7)
	교육대	12 (0.3)	113 (2.9)	3,336 (85.4)	363 (9.3)	81 (2.1)
전공 계열	인문	942 (2.8)	6,579 (19.9)	21,688 (65.6)	3,414 (10.3)	429 (1.3)
	사회	3,154 (2.9)	17,623 (16.2)	75,645 (69.6)	10,941 (10.1)	1,260 (1.2)
	교육	242 (1.0)	1,492 (6.4)	19,457 (83.6)	1,812 (7.8)	278 (1.2)
	공학	1,784 (2.0)	11,691 (12.8)	59,399 (65.0)	16,306 (17.9)	2,146 (2.3)
	자연	1,079 (3.0)	4,890 (13.7)	24,877 (69.8)	4,247 (11.9)	537 (1.5)
	의약	376 (0.9)	4,050 (9.9)	29,107 (71.4)	6,483 (15.9)	762 (1.9)
	예체능	1,330 (2.8)	8,672 (18.0)	32,209 (66.7)	5,059 (10.5)	988 (2.0)

4) 업무내용과 전공 일치도

현재 일자리에서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내용과 전공이 잘 맞는다(잘 맞음, 매우 잘 맞음)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50.0%로, 여성(52.6%)이 남성(47.4%)보다 5.2%p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 비교하면, 업무내용과 전공이 잘 맞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육대 졸업자가 가장 높아 86.3%이며, 전공계열별로는 의약계열(77.2%)과 교육계열(75.9%) 졸업자가 높게 나타났다.

<표Ⅲ-24> 현재 일자리 업무내용-전공 일치도

(단위: 명, %)

		전혀 맞지 않음	잘 맞지 않음	보통	잘 맞음	매우 잘 맞음
전체		54,006 (14.2)	45,692 (12.0)	90,668 (23.8)	124,690 (32.7)	65,892 (17.3)
성	남성	28,480 (15.3)	22,397 (12.0)	47,356 (25.4)	60,699 (32.6)	27,510 (14.8)
	여성	25,526 (13.1)	23,294 (12.0)	43,311 (22.3)	63,990 (32.9)	38,382 (19.7)
학교 유형	2~3년제	20,788 (15.1)	16,243 (11.8)	33,551 (24.3)	44,453 (32.2)	23,036 (16.7)
	4년제	33,112 (13.9)	29,362 (12.3)	56,774 (23.8)	78,745 (33.0)	40,977 (17.1)
	교육대	106 (2.7)	87 (2.2)	343 (8.8)	1,492 (38.2)	1,880 (48.1)
전공 계열	인문	8,608 (26.0)	6,455 (19.5)	7,143 (21.6)	7,387 (22.3)	3,461 (10.5)
	사회	18,359 (16.9)	16,722 (15.4)	30,460 (28.0)	32,397 (29.8)	10,683 (9.8)
	교육	1,196 (5.1)	930 (4.0)	3,497 (15.0)	8,490 (36.5)	9,169 (39.4)
	공학	10,634 (11.6)	10,315 (11.3)	24,117 (26.4)	32,990 (36.1)	13,269 (14.5)
	자연	5,289 (14.8)	3,946 (11.1)	8,150 (22.9)	12,269 (34.4)	5,975 (16.8)
	의약	1,978 (4.9)	1,397 (3.4)	5,944 (14.6)	15,519 (38.1)	15,939 (39.1)
	예체능	7,942 (16.5)	5,927 (12.3)	11,356 (23.5)	15,637 (32.4)	7,397 (15.3)

5) 대학 전공 지식의 도움

대학에서 배운 전공 지식이 현재 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도움이 된다(대체로 도움이 됨 + 매우 도움이 됨)고 응답한 비율은 48.6%로 도움이 안된다(전혀 도움이 안됨+별로 도움이 안됨)고 응답한 비율(24.5%)에 비해 약 24.1%p 높게 조사되었다.

<표Ⅲ-25> 대학 전공 지식의 업무 수행 도움 정도

(단위: 명, %)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보통	대체로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36,186 (9.5)	57,200 (15.0)	94,614 (24.8)	134,626 (35.3)	58,321 (15.3)
성	남성	20,042 (10.7)	28,608 (15.3)	49,072 (26.3)	64,176 (34.4)	24,545 (13.2)
	여성	16,144 (8.3)	28,592 (14.7)	45,542 (23.4)	70,451 (36.2)	33,775 (17.4)
학교 유형	2~3년제	15,506 (11.2)	21,021 (15.2)	32,722 (23.7)	46,421 (33.6)	22,401 (16.2)
	4년제	20,603 (8.6)	35,997 (15.1)	61,181 (25.6)	86,628 (36.3)	34,562 (14.5)
	교육대	77 (2.0)	183 (4.7)	711 (18.2)	1,578 (40.4)	1,357 (34.7)
전공 계열	인문	5,142 (15.6)	7,515 (22.7)	8,683 (26.3)	8,948 (27.1)	2,766 (8.4)
	사회	11,829 (10.9)	18,941 (17.4)	33,423 (30.8)	34,756 (32.0)	9,672 (8.9)
	교육	419 (1.8)	1,586 (6.8)	4,381 (18.8)	9,683 (41.6)	7,212 (31.0)
	공학	7,833 (8.6)	13,939 (15.3)	23,510 (25.7)	35,196 (38.5)	10,848 (11.9)
	자연	3,484 (9.8)	5,079 (14.3)	8,081 (22.7)	13,274 (37.3)	5,711 (16.0)
	의약	1,261 (3.1)	2,475 (6.1)	5,635 (13.8)	15,930 (39.1)	15,477 (38.0)
	예체능	6,219 (12.9)	7,665 (15.9)	10,902 (22.6)	16,840 (34.9)	6,633 (13.7)

6) 대학 재학 시 필수 습득 능력

2015년 대졸자들은 ‘의사소통능력(19.1%)’, ‘문제해결능력(16.2%)’, ‘기술이해 및 활용 능력’(16.1%) 등을 대학 재학 시에 배웠다면 현재 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재학 시 배웠으면 업무에 도움이 되었을 능력으로 생각하는 항목은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의사소통능력을, 남성은 여성에 비해 기술이해 및 활용능력의 필요성을 선택한 비율이 약간 높았다.

<표Ⅲ-26> 대학 재학시 배웠으면 업무에 도움이 되었을 능력

(단위: 명, %)

		의사 소통	수리 통계	문제 해결	자기 관리 개발	자원 활용	대인 관계	정보 수집 분석	기술 이해 활용	조직 이해	국제 감각
전체		72,307 (19.1)	17,384 (4.6)	61,599 (16.2)	45,302 (11.9)	10,627 (2.8)	52,202 (13.8)	39,116 (10.3)	61,167 (16.1)	14,096 (3.7)	3,995 (1.1)
성	남성	34,272 (18.5)	9,117 (4.9)	29,683 (16.0)	20,472 (11.0)	5,221 (2.8)	26,622 (14.3)	18,033 (9.7)	32,204 (17.4)	6,995 (3.8)	2,053 (1.1)
	여성	38,035 (19.6)	8,267 (4.3)	31,916 (16.5)	24,829 (12.8)	5,406 (2.8)	25,581 (13.2)	21,082 (10.9)	28,963 (14.9)	7,101 (3.7)	1,942 (1.0)
학 교 유 형	2-3년제	25,667 (18.7)	4,656 (3.4)	21,192 (15.4)	19,041 (13.9)	3,946 (2.9)	20,656 (15.0)	10,619 (7.7)	25,656 (18.7)	4,643 (3.4)	898 (0.7)
	4년제	45,568 (19.1)	12,688 (5.3)	39,644 (16.7)	25,952 (10.9)	6,565 (2.8)	30,816 (12.9)	28,264 (11.9)	35,137 (14.8)	9,208 (3.9)	3,083 (1.3)
	교육대	1,072 (27.4)	40 (1.0)	763 (19.5)	308 (7.9)	116 (3.0)	730 (18.7)	233 (6.0)	374 (9.6)	246 (6.3)	15 (0.4)
전 공 계 열	인문	7,558 (23.0)	1,452 (4.4)	4,594 (14.0)	3,789 (11.5)	771 (2.3)	4,358 (13.3)	4,416 (13.4)	3,525 (10.7)	1,452 (4.4)	690 (2.1)
	사회	23,816 (22.1)	5,959 (5.5)	17,826 (16.5)	11,788 (10.9)	2,989 (2.8)	17,438 (16.1)	12,698 (11.8)	9,029 (8.4)	4,853 (4.5)	1,190 (1.1)
	교육	6,213 (26.9)	418 (1.8)	4,496 (19.4)	2,693 (11.6)	409 (1.8)	3,949 (17.1)	1,745 (7.5)	2,192 (9.5)	943 (4.1)	15 (0.1)
	공학	12,908 (14.2)	4,460 (4.9)	15,457 (17.0)	10,194 (11.2)	2,479 (2.7)	9,823 (10.8)	9,327 (10.2)	22,005 (24.2)	3,044 (3.3)	1,102 (1.2)
	자연	5,242 (14.8)	2,308 (6.5)	5,125 (14.4)	4,394 (12.4)	1,420 (4.0)	4,774 (13.4)	4,184 (11.8)	6,725 (18.9)	1,043 (2.9)	278 (0.8)
	의약	8,542 (21.0)	1,464 (3.6)	7,892 (19.4)	4,750 (11.7)	1,283 (3.2)	5,179 (12.7)	2,502 (6.1)	7,975 (19.6)	936 (2.3)	108 (0.3)
	예체능	8,028 (16.7)	1,325 (2.8)	6,209 (12.9)	7,694 (16.0)	1,276 (2.7)	6,681 (13.9)	4,242 (8.8)	9,716 (20.2)	1,824 (3.8)	612 (1.3)

7) 현재 일자리 적응의 어려움

현재 일자리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웠던 점으로 ‘업무내용의 습득’을 선택한 비율이 43.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사-동료와의 관계’(23.3%), ‘기대 수준과의 격차’(15.2%)가 많았다. 이 세 항목이 현재 일자리 적응에 어려웠던 내용의 81.7%를 차지하였으며, 성 및 학교유형, 전공계열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때도 모두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Ⅲ-27〉 현재 일자리 적응의 어려운 점

(단위: 명, %)

		업무 내용 습득	상사- 동료 관계	적성/ 흥미와 불일치	기대수 준과의 격차	차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고용 불안정	건강/ 체력 문제	기타
전체		31,823 (43.2)	17,125 (23.3)	3,991 (5.4)	11,223 (15.2)	551 (0.7)	909 (1.2)	2,309 (3.1)	4,463 (6.1)	1,201 (1.6)
성	남성	13,605 (43.6)	5,563 (17.8)	2,219 (7.1)	5,325 (17.1)	267 (0.9)	614 (2.0)	1,488 (4.8)	1,337 (4.3)	753 (2.4)
	여성	18,219 (42.9)	11,562 (27.3)	1,771 (4.2)	5,898 (13.9)	284 (0.7)	295 (0.7)	821 (1.9)	3,126 (7.4)	448 (1.1)
학교 유형	2~3년제	11,290 (45.1)	6,130 (24.5)	988 (4.0)	3,751 (15.0)	171 (0.7)	307 (1.2)	453 (1.8)	1,747 (7.0)	178 (0.7)
	4년제	20,134 (42.0)	10,869 (22.7)	2,954 (6.2)	7,441 (15.5)	379 (0.8)	602 (1.3)	1,856 (3.9)	2,684 (5.6)	999 (2.1)
	교육대	399 (60.6)	125 (19.0)	48 (7.3)	31 (4.6)	-	-	-	32 (4.8)	24 (3.6)
전공 계열	인문	3,100 (42.9)	1,247 (17.3)	513 (7.1)	1,389 (19.2)	127 (1.8)	35 (0.5)	335 (4.6)	402 (5.6)	80 (1.1)
	사회	9,365 (42.8)	5,404 (24.7)	1,277 (5.8)	3,116 (14.2)	90 (0.4)	353 (1.6)	687 (3.1)	1,033 (4.7)	566 (2.6)
	교육	1,971 (48.1)	985 (24.0)	176 (4.3)	508 (12.4)	-	106 (2.6)	24 (0.6)	231 (5.6)	98 (2.4)
	공학	6,557 (47.4)	2,372 (17.1)	938 (6.8)	2,164 (15.6)	144 (1.0)	303 (2.2)	411 (3.0)	593 (4.3)	358 (2.6)
	자연	2,428 (36.6)	1,727 (26.1)	438 (6.6)	1,235 (18.6)	66 (1.0)	53 (0.8)	123 (1.9)	544 (8.2)	15 (0.2)
	의약	5,279 (47.8)	3,331 (30.1)	383 (3.5)	1,135 (10.3)	-	20 (0.2)	86 (0.8)	820 (7.4)	-
	예체능	3,122 (35.3)	2,059 (23.3)	267 (3.0)	1,676 (18.9)	123 (1.4)	39 (0.4)	643 (7.3)	841 (9.5)	83 (0.9)

제4장

첫 일자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 “첫 일자리”는 대학을 졸업(2014년 8월 및 2015년 2월)한 이후에 처음으로 가진 일자리 또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시작한 일자리라 하더라도 졸업 후까지 유지한 일자리를 말한다. 다음으로 ‘일자리’라 함은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지난 1주간 최소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적이 있거나(일시 휴직자 포함) 지난 1주간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자기 가구원의 사업체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 장은 졸업 후 가진 첫 번째 일자리를 분석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2015년 졸업자는 <표Ⅳ-1>에서 일자리 경험자에 해당되는 443,286명이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 첫 일자리에 대해 분석할 경우 설문지 상의 ‘현 일자리’와 ‘첫 일자리’ 두 개 파트에서 분석 대상을 추출하여야 한다. 현재 일자리 항목에 응답하는 경우는 졸업 후 취업한 첫 번째 일자리를 2016 조사 기준 시점까지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 경우로, 현재 일자리와 첫 번째 일자리가 동일한 297,482명(<표Ⅳ-1>)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학 졸업 후 처음으로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자리로 이직한 경우(이직 83,465명)와 일자리를 가진 경험은 있으나 조사 기준시점 당시 미취업 상태인 경우(그만뒀 62,338명)

는 첫 일자리 항목에 응답하도록 설문지가 구성되어 있다. 졸업 후 취업 경험 이 한 번도 없는 72,034명은 본 장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Ⅳ-1>에서 보면, 2015년 대졸자 중 대학 졸업 후 일자리를 다닌 경험 이 있는 비율은 86.0%로 2011GOMS 이후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2014년 대졸자 에 비해서도 0.6%p 감소하였다. 첫 일자리를 2016년 조사기준 시점까지 계속 하여 다니는 비율은 57.7%이며, 이직자는 16.2%, 대학 졸업 후 일자리 경험은 있으나 조사시점에 미취업 상태인 비율은 12.1%로 조사되었다.

<표Ⅳ-1> 졸업 후 일자리 경험 여부

(단위: 명, %)

	경험	첫 일자리	이직	그만둠	미경험
		계속 다님			
2015GOMS	443,286 (86.0)	297,482 (57.7)	83,465 (16.2)	62,338 (12.1)	72,034 (14.0)
2014GOMS	427,893 (86.6)	281,603 (57.0)	88,690 (17.9)	57,601 (11.7)	66,431 (13.4)
2013GOMS	422,160 (85.8)	280,653 (57.1)	80,840 (16.4)	60,668 (12.3)	69,605 (14.2)
2012GOMS	438,711 (87.2)	292,562 (58.2)	89,096 (17.7)	57,053 (11.3)	64,175 (12.8)
2011GOMS	431,558 (90.5)	271,030 (56.8)	107,750 (22.6)	52,778 (11.1)	45,434 (9.5)

1. 입직 소요기간

대졸자들이 첫 일자리에 진입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졸업 전에 첫 일자리에 들어간 비율이 38.3%로 가장 많고, 3개월 미만(22.9%), 6개월~12개월 미만(14.5%), 1년 이상(13.3%), 3~6개월 미만(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첫 일자리에 진입한 비율은 72.2%로 첫 일자리 경험자 4명 중 3명이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첫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이전 취업 비율은 2014년 졸업자에 비해 3.3%p 감소하였으며, 2011년 대졸자 이후 계속하여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졸업 후 첫 일자리에 진입하기까

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비중은 13.3%로 전년도에 비하여 2.0%p 증가하였다. 졸업 후 첫 직장 진입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비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고, 학교유형별로는 4년제 졸업자가 2~3년제나 교육대 졸업자에 비하여,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열과 교육계열이 다른 계열 졸업자에 비하여 길게 나타났다. 교육대와 교육계열 졸업자의 경우 다른 학교유형 및 전공계열 졸업자에 비해 졸업이전에 첫 일자리에 진입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동시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임용고시에 의한 입직경로와 그에 따른 입직시기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표Ⅳ-2〉 첫 일자리 입직 소요기간별 분포

(단위: %)

		졸업 이전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년 이상
전체		38.3	22.9	11.0	14.5	13.3
성	남성	42.2	21.0	10.2	14.1	12.5
	여성	34.8	24.6	11.6	14.9	14.0
학교 유형	2~3년제	41.7	23.0	10.6	13.1	11.5
	4년제	36.9	22.2	11.2	15.3	14.4
	교육대	2.6	61.5	6.2	17.0	12.6
전공 계열	인문	34.0	18.2	11.3	16.6	19.8
	사회	40.1	18.2	12.0	16.2	13.5
	교육	24.8	42.5	5.5	10.8	16.3
	공학	45.0	19.9	9.8	13.2	12.2
	자연	37.5	23.0	12.7	14.9	11.9
	의약	32.5	35.1	10.5	13.9	8.0
학교 소재지권	예체능	37.2	22.9	12.1	13.7	14.2
	서울권	40.2	20.8	10.8	13.7	14.5
	경기권	39.4	21.6	10.4	14.6	14.0
	충청권	37.0	24.9	10.8	13.6	13.7
	경상권	37.8	23.1	11.0	15.3	12.7
	전라권	36.4	25.5	12.5	14.9	10.8
2014GOMS		41.6	23.4	11.0	12.8	11.3
2013GOMS		41.2	22.8	11.5	12.6	11.9
2012GOMS		43.8	19.0	11.3	13.6	12.3
2011GOMS		44.8	19.1	11.4	12.6	12.1

주: 졸업시점 이전 입직자는 소요기간을 0으로 처리

2015년 대졸자가 대학 졸업 후 첫 일자리에 들어가는데 걸린 평균 기간은 4.0개월로 2014년 대졸자 보다 0.4개월 더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평균 입직 소요기간은 각각 3.8개월, 4.1개월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간 길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4년제 졸업자가 4.2개월로 입직 소요 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3년제 졸업자와 교육대 졸업자는 각각 3.5개월, 3.8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열별로는 의약계열이 평균 3.1개월로 첫 일자리 입직 소요기간이 가장 짧고, 인문계열(5.1개월)과 교육계열(4.1개월) 졸업자의 입직 소요기간이 다른 계열보다 길게 나타났다.

대학 졸업 후 첫 일자리에 들어가는데 걸리는 소요기간을 조사기준 시점까지 첫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첫 일자리를 계속하여 다니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입직에 걸리는 시간이 2.2개월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성별, 학교유형별, 전공계열별 모든 항목에서 동일하다. 특히, 첫 일자리 유지자와 비유지자간 입직 소요기간의 차이는 평균 입직소요기간이 긴 여성과 인문계열, 예체능 계열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표Ⅳ-3〉 일자리 유지여부별 첫 일자리 입직 소요기간

(단위: 개월)

		2015GOMS			2014GOMS	2013GOMS
			유지자	비유지자		
전체		4.0	4.7	2.5	3.6	3.6
성	남성	3.8	4.4	2.4	3.5	3.3
	여성	4.1	5.0	2.6	3.7	3.8
학교 유형	2~3년제	3.5	4.3	2.1	3.1	3.2
	4년제	4.2	4.9	2.8	3.9	3.8
	교육대	3.8	4.0	3.2	4.3	5.0
전공 계열	인문	5.1	6.2	3.2	4.4	4.2
	사회	4.1	4.8	2.7	3.6	3.7
	교육	3.9	4.3	2.7	3.7	4.1
	공학	3.7	4.1	2.3	3.3	3.1
	자연	3.8	4.4	2.9	3.4	3.9
	의약	3.1	3.8	1.8	3.3	3.3
	예체능	4.1	5.5	2.2	3.6	3.7

첫 일자리에 들어가는데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을 성별로 살펴보면 <표Ⅳ-4>와 같다. 성별로 첫 일자리에 들어가는데 걸리는 기간은 남성 3.8개월, 여성 4.1개월로 여성이 조금 길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4년제 졸업자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0.5개월 빨리 첫 직장 입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제와 교육대 졸업자는 4년제 졸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별 입직 소요기간의 차이가 적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첫 직장 입직소요기간이 0.2개월 길었다. 전공계열별로는 교육계열과 의약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은 모두 남성의 입직 소요기간이 여성이 비해 짧게 나타났다. 첫 직장 입직소요기간 차이가 가장 큰 계열은 인문계열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1.3개월 짧았으며, 반면 교육계열은 여성의 첫 직장 입직 소요기간이 남성에 비해 1.2개월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Ⅳ-4> 졸업대학 특성별 첫 일자리 입직 소요기간

(단위: 개월)

		남성	여성
전체		3.8	4.1
학교유형	2~3년제	3.4	3.6
	4년제	4.0	4.5
	교육대	4.0	3.8
전공계열	인문	4.2	5.5
	사회	4.1	4.2
	교육	4.8	3.6
	공학	3.6	4.2
	자연	3.5	4.1
	의약	3.3	3.1
	예체능	3.8	4.2

2. 첫 일자리 특성

1) 첫 일자리 진출분야(산업)

첫 일자리 진출 분야를 산업대분류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16.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육서비스업(14.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3.8%) 순으로 나타났다. 위 세 개 산업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분야는 모두 10% 미만의 낮은 비율을 나타낸다. 성별로는 남성은 제조업 분야 진출 비중이 24.4%로 가장 높고 다음은 교육 서비스업으로 10.1%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건설업 진출 비중은 5.3%로 여성에 비해 3.5%p 높았다. 반면, 여성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1.6%)과 교육 서비스업(18.7%) 진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Ⅳ-5> 첫 일자리 진출분야(산업대분류)

(단위: %)

	2015OMS			2014 GOMS	2013 GOMS	2012 GOMS	2011 GOMS
		남성	여성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0.3	0.5	0.1	0.4	0.4	0.4	0.3
제조업	16.6	24.4	9.6	17.5	17.6	17.1	17.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4	0.7	0.2	0.5	0.5	0.5	0.4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2	0.3	0.1	0.1	0.1	0.2	0.2
건설업	3.5	5.3	1.9	3.6	3.7	3.8	3.6
도매 및 소매업	8.9	9.7	8.4	8.9	8.8	9.3	9.7
운수업	1.7	2.3	1.3	1.6	2.0	1.7	1.6
숙박 및 음식점업	6.9	6.0	7.8	6.6	5.6	4.9	4.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6	7.7	5.7	6.4	7.1	7.1	6.7
금융 및 보험업	2.9	3.1	2.8	3.0	3.5	4.7	4.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	1.1	0.9	0.8	0.9	0.9	0.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5	7.7	7.5	7.4	7.8	7.9	7.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8	3.3	4.3	3.6	3.5	3.9	4.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9	6.7	3.4	4.7	4.1	3.7	3.3
교육 서비스업	14.5	10.1	18.7	15.1	14.7	14.2	15.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8	5.5	21.6	13.9	14.0	13.9	1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5	2.7	2.4	2.8	2.7	2.5	2.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2	2.9	3.5	3.0	2.9	3.5	3.6
국제 및 외국기관	-	-	-	0.1	0.1	0.1	-

성별·학교유형별 산업별 비율은 <표Ⅳ-6>과 같다. 2~3년제 대학 졸업자가 가장 많이 진출한 산업 분야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9%)이었으며, 다음으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0.8%), 제조업(16.3%), 기타 공공서비스업(14.4%) 등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진출 비중은 남녀 모두 높았으며, 그 외 남성은 제조업(26.7%)과 기타 공공서비스업(16.2%) 진출 비중이, 여성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2.6%)과 기타 공공서비스업(13.0%) 진출 비중이 높았다. 4년제 대졸자가 가장 많이 진출한 산업 분야는 제조업(17.3%)과 교육서비스업(17.1%)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남성은 제조업(23.5%) 진출 비중이, 여성은 교육서비스업(22.0%) 진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대는 교육서비스업 종사 비중이 94.4%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하다.

<표Ⅳ-6> 학교유형별 첫 일자리 진출분야(산업)

(단위: %)

	2~3년제			4년제			교육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농림어업	0.4	0.8	0.1	0.3	0.4	0.1	-	-	-
제조업(광업 포함)	16.3	26.7	8.2	17.3	23.5	10.8	-	-	-
전기, 가스, 건설업	4.2	7.2	2.0	3.8	5.5	2.2	0.5	1.7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0.8	21.3	20.4	13.3	13.1	13.6	1.1	1.2	1.1
운수, 통신	5.7	7.8	4.1	10.2	11.2	9.1	-	-	-
금융 및 부동산업	2.3	2.0	2.5	5.0	5.4	4.5	0.2	-	0.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7	5.8	5.7	8.8	8.8	8.9	-	-	-
교육서비스업	8.2	4.2	11.3	17.1	12.4	22.0	94.4	89.3	96.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1.9	8.1	32.6	9.3	4.2	14.6	-	-	-
기타 공공서비스업	14.4	16.2	13.0	14.9	15.6	14.2	3.7	7.8	1.8
국제 및 외국기관	-	-	-	-	-	-	-	-	-

주: 대졸자의 산업분야별 진출 비율을 고려해 산업대분류 상에서 재분류한 표임

첫 일자리 진출분야를 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20.7%), 사회계열(20.7%), 자연계열(28.3%)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공학계열(34.3%)은 제조업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문계열 졸업자의 경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외에 교육서비스업(19.7%)과 기타 공공서비스업(19.4%) 진출 비중이, 사회계열은 기타 공공서비스업(19.3%), 자연계열은 제

조업(18.8%)과 교육서비스업(16.7%) 진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교육계열 졸업자는 교육서비스업 진출 비율이 64.7%, 의약계열 졸업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진출 비율이 80.5%로 높게 나타나 산업 특수적인 전공 특성을 반영하여 보여준다. 예체능 계열의 경우 다른 계열 졸업자에 비해 좀 더 고른 업종별 진출 비율을 보인다.

<표Ⅳ-7> 전공계열별 첫 일자리 진출분야(산업)

(단위: %)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농림어업	0.2	0.3	-	0.2	1.6	0.1	0.1
제조업(광업 포함)	11.1	12.8	1.6	34.3	18.8	4.8	12.7
전기, 가스, 건설업	1.8	2.1	0.6	10.3	2.1	0.7	3.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0.7	20.7	3.8	10.0	28.3	6.3	16.9
운수, 통신	12.7	7.9	1.6	13.7	3.6	0.4	10.0
금융 및 부동산업	4.1	8.8	0.8	1.8	3.4	0.4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8	8.1	0.5	10.5	9.6	1.1	8.9
교육서비스업	19.7	8.9	64.7	7.7	16.7	2.4	20.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4	11.1	20.3	0.8	3.2	80.5	3.4
기타 공공서비스업	19.4	19.3	6.0	10.6	12.6	3.2	22.4
국제 및 외국기관	0.1	-	-	-	-	-	-

주: 대졸자의 산업분야별 진출 비율을 고려해 산업대분류 상에서 재분류한 표임

2) 첫 일자리 진출분야(직업)

2015년 대졸자의 첫 일자리 진출 분야를 직업 중분류별로 살펴보면, 경영·회계·사무 관련직(26.8%) 진출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보건·의료 관련직(10.5%),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9.3%)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여성에 비해 기계 관련직과 전기·전자 관련직, 정보통신 관련직 등 생산직 관련 진출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보건·의료 관련직 진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Ⅳ-8> 첫 일자리 진출분야(직업 중분류)

(단위: %)

	2015GOMS			2014 GOMS	2013 GOMS	2012 GOMS	2011 GOMS
		남성	여성				
관리직	0.2	0.2	0.1	0.2	0.3	0.3	0.5
경영·회계·사무관련직	26.8	23.5	29.9	26.8	27.9	29.0	28.7
금융·보험 관련직	2.2	2.4	2.0	2.0	2.2	3.2	3.3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9.3	5.1	13.0	9.2	9.6	10.2	12.1
법률·경찰·소방고도 관련직	0.8	1.2	0.5	0.7	0.6	0.6	0.7
보건·의료 관련직	10.5	4.5	16.0	10.1	9.2	9.2	8.8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4.9	2.1	7.4	4.7	5.1	5.4	5.4
문화·예술·디자인 방송 관련직	6.2	4.4	7.9	6.7	6.8	6.6	6.5
운전 및 운송 관련직	0.9	1.7	0.1	0.9	0.9	1.0	0.9
영업 및 판매 관련직	7.4	9.1	5.8	7.9	7.7	7.5	7.4
경비 및 청소 관련직	0.9	1.2	0.6	0.9	0.8	0.9	1.0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3.6	3.1	3.9	3.6	3.6	3.2	3.3
음식 서비스 관련직	4.6	4.3	4.9	4.7	3.7	3.1	3.0
건설 관련직	2.6	4.3	0.9	2.3	2.6	2.2	2.3
기계 관련직	4.4	8.7	0.4	4.4	4.0	4.0	4.0
재료 관련직	0.7	1.4	0.1	0.8	0.7	0.7	0.5
화학 관련직	1.0	1.4	0.5	1.1	1.1	0.9	0.9
섬유 및 의복 관련직	0.2	0.2	0.2	0.1	0.1	0.2	0.2
전기·전자 관련직	3.6	6.4	1.1	3.8	3.9	3.5	3.5
정보통신 관련직	4.6	7.2	2.2	4.3	4.7	4.6	4.3
식품가공 관련직	0.8	0.8	0.8	0.8	0.7	0.7	0.7
환경·인쇄·목재·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1.8	2.7	1.0	1.7	1.6	1.5	1.3
농림어업 관련직	0.4	0.6	0.1	0.4	0.4	0.4	0.3
군인	1.9	3.4	0.5	1.9	1.7	1.0	0.6

학교유형별로는 2~3년제 졸업자와 4년제 졸업자 모두 경영재무직과 판매 및 개인 서비스직, 건설·생산직 진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3년제 졸업자는 4년제 졸업자에 비해 보건·의료 관련직, 판매 및 개인 서비스직에 진출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며, 4년제 졸업자는 2~3년제 졸업자와 비교하여 경영 재무직과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진출 비율이 높았다. 교육대 졸업자는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진출 비중이 가장

높아 94.6%이며, 성별로는 남성 89.3%, 여성 97.1%가 해당된다.

2~3년제 및 4년제 대졸자의 성별, 직종별 진출 분야를 살펴보면 2~3년제 대학을 졸업한 남성은 건설·생산직 진출 비중이 38.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판매 및 개인서비스직(24.3%)과 경영재무직(16.4%) 진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2~3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 가장 많이 진출한 직업 분야는 경영재무직으로 23.8%이며, 다음으로 보건 의료관련직(23.1%), 판매 및 개인서비스직(21.8%), 기타 사회서비스직(18.3%)에서 많이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졸자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경영재무직 진출 비율이 각각 30.9%,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경영재무직 외에 건설·생산직(30.6%)과 판매 및 개인서비스직(17.2%) 진출 비율이 높았으며, 여성은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15.7%), 기타 사회서비스직(14.5%), 보건·의료 관련직(11.5%), 판매 및 개인서비스직(11.4%) 진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Ⅳ-9> 학교유형별 첫 일자리 진출분야(직업)

(단위: %)

	2~3년제			4년제			교육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관리직	0.2	0.2	0.2	0.2	0.2	0.1	-	-	-
경영재무직	20.6	16.4	23.8	34.3	30.9	37.8	0.6	-	0.8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4.4	1.8	6.5	10.8	6.1	15.7	94.6	89.3	97.1
보건, 의료 관련직	16.0	6.7	23.1	7.4	3.4	11.5	-	-	-
기타 사회서비스직	14.1	8.6	18.3	10.9	7.4	14.5	-	-	-
판매 및 개인서비스직	22.9	24.3	21.8	14.3	17.2	11.4	2.2	2.2	2.1
건설, 생산직	20.0	38.6	5.6	19.7	30.6	8.5	0.2	0.7	-
농림어업직	0.6	1.1	0.2	0.2	0.4	0.1	-	-	-
군인	1.3	2.4	0.5	2.1	3.8	0.4	2.5	7.8	-

주: 대졸자의 직업분야별 진출 비율을 고려해 직업중분류 상에서 재분류한 표임

전공계열별 첫 일자리에서의 진출 직업을 살펴보면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은 경영재무직 진출비율이 50%내외이다. 교육계열 졸업자는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55.1%)과 기타 사회서비스직(23.8%)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학계열 졸업자는 60.7%가 건설·생산직에

18.0%가 경영재무직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계열 졸업자는 경영재무직(26.3%)과 판매 및 개인서비스직(23.3%), 건설·생산직(20.9%) 진출 비중이, 의학계열 졸업자는 보건·의료 관련직(82.2%) 진출 비중이 높았다. 예체능계열 졸업자는 판매 및 개인서비스직과 기타 사회서비스직에 각각 29.8%, 28.9% 진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Ⅳ-10> 전공계열별 첫 일자리 진출분야(직업)

(단위: %)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학	예체능
관리직	-	0.4	0.2	0.1	0.1	-	-
경영재무직	46.8	50.7	10.3	18.0	26.3	5.6	17.9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10.9	3.2	55.1	2.7	14.8	1.8	13.3
보건, 의료 관련직	0.9	2.0	2.6	1.1	7.5	82.2	2.4
기타 사회서비스직	12.1	14.2	23.8	4.3	3.8	1.3	28.9
판매 및 개인서비스직	22.4	20.4	5.1	10.8	23.3	4.8	29.8
건설, 생산직	5.2	5.8	1.1	60.7	20.9	4.0	6.5
농림어업직	0.1	0.4	-	0.2	1.9	0.1	0.1
군인	1.6	2.8	1.7	2.2	1.4	0.2	1.1

주: 대졸자의 직업분야별 진출 비율을 고려해 직업중분류 상에서 재분류한 표임

3) 사업체 규모

사업체 규모별 2015년 대졸자의 첫 일자리 입직 비율은 5명 미만 사업체 13.0%, 5-9명 사업체 14.6%, 10-29명 사업체 20.4%로 30명 미만 사업체 종사 비율이 48.0%를 차지한다. 반면, 1,000명 이상 사업체 종사 비율은 10.6%, 500-999명 사업체와 300-499명 사업체 종사 비율은 각각 4.8%, 5.3%로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율은 20.8%에 불과하다. 성별로는 30명 미만 사업체에서 여성의 종사 비율은 52.9%로 남성(42.6%)에 비해 높고,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남성의 종사 비율(23.2%)이 여성(18.5%)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2011년 이후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30인 미만 사업체 종사 비중은 약간 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1년 졸업자(44.7%)에 비해 3.3%p 증가하였으며,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11년 졸업자(23.7%)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표Ⅳ-11> 첫 일자리 사업체 규모

(단위: 명, %)

	2015GOMS			2014GOMS	2013GOMS	2012GOMS	2011GOMS
		남성	여성				
1~4명	56,702 (13.0)	24,535 (11.7)	32,166 (14.1)	52,434 (12.6)	50,527 (12.2)	50,476 (11.6)	54,252 (12.6)
5~9명	64,016 (14.6)	25,702 (12.2)	38,315 (16.8)	58,503 (14.0)	58,934 (14.3)	53,784 (12.4)	56,002 (13.0)
10~29명	89,365 (20.4)	39,174 (18.7)	50,192 (22.0)	83,105 (19.9)	81,799 (19.8)	86,680 (19.9)	82,226 (19.1)
30~49명	37,668 (8.6)	19,551 (9.3)	18,118 (7.9)	38,321 (9.2)	37,615 (9.1)	40,219 (9.2)	35,406 (8.2)
50~99명	42,972 (9.8)	21,677 (10.3)	21,294 (9.3)	44,098 (10.6)	45,559 (11.0)	50,226 (11.5)	46,848 (10.9)
100~299명	56,070 (12.8)	30,472 (14.5)	25,599 (11.2)	50,696 (12.2)	52,169 (12.6)	54,718 (12.6)	53,563 (12.4)
300~499명	23,286 (5.3)	11,798 (5.6)	11,488 (5.0)	21,467 (5.2)	19,609 (4.8)	24,629 (5.7)	25,069 (5.8)
500~999명	21,149 (4.8)	10,008 (4.8)	11,141 (4.9)	20,083 (4.8)	20,471 (5.0)	24,562 (5.6)	25,517 (5.9)
1,000명 이상	46,568 (10.6)	26,912 (12.8)	19,656 (8.6)	47,896 (11.5)	45,898 (11.1)	49,768 (11.4)	51,555 (12.0)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30명 미만 사업체 종사 비율은 2~3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57.8%, 4년제 대학 졸업자는 42.6%로 나타났다. 반면, 300명 이상 사업체 종사 비율은 2~3년제 졸업자가 14.9%, 4년제 졸업자는 24.6%로 나타나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 비율은 2~3년제 대학 졸업자가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해 15.3%p 높은 반면, 300명 이상 사업체 종사 비율은 4년제 대학 졸업자가 2~3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해 9.7%p 더 높다. 교육대 졸업자의 경우 대부분이 30~49명 사업체(36.6%)와 50~99명 사업체(37.1%)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교육대 졸업자의 대부분이 초등학교로 취업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세분하여 보면, 2~3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30명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은 남성에 비해 10.2%p 높다.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도 30명 미만 사업체 종사 비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고 성별 차이는

9.3%p이다.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체 종사 비율은 30명 미만 사업체의 성별 종사 비율과 반대로 남성의 종사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으며, 그 차이는 2~3년제 대졸자보다 4년제 대졸자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표Ⅳ-12> 학교유형별 사업체 규모

(단위: 명, %)

	2~3년제			4년제			교육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4명	25,560 (15.9)	10,480 (14.9)	15,081 (16.6)	31,069 (11.4)	14,040 (10.2)	17,029 (12.7)	72 (1.7)	15 (1.2)	56 (2.0)
5~9명	30,990 (19.2)	11,336 (16.1)	19,654 (21.6)	32,988 (12.1)	14,346 (10.4)	18,642 (13.9)	38 (0.9)	20 (1.5)	18 (0.6)
10~29명	36,685 (22.8)	14,783 (21.0)	21,903 (24.1)	51,894 (19.0)	24,123 (17.5)	27,771 (20.7)	786 (18.9)	268 (20.7)	518 (18.0)
30~49명	12,921 (8.0)	7,110 (10.1)	5,812 (6.4)	23,222 (8.5)	11,952 (8.6)	11,271 (8.4)	1,525 (36.6)	489 (37.8)	1,036 (36.1)
50~99명	13,435 (8.3)	6,510 (9.3)	6,925 (7.6)	27,990 (10.3)	14,754 (10.7)	13,236 (9.9)	1,547 (37.1)	414 (31.9)	1,133 (39.5)
100~299명	17,655 (11.0)	9,025 (12.8)	8,629 (9.5)	38,303 (14.1)	21,411 (15.5)	16,893 (12.6)	112 (2.7)	36 (2.7)	77 (2.7)
300~499명	6,887 (4.3)	2,753 (3.9)	4,133 (4.5)	16,363 (6.0)	9,017 (6.5)	7,346 (5.5)	36 (0.9)	28 (2.1)	8 (0.3)
500~999명	5,936 (3.7)	2,749 (3.9)	3,187 (3.5)	15,213 (5.6)	7,260 (5.3)	7,954 (5.9)	-	-	-
1,000명 이상	11,152 (6.9)	5,550 (7.9)	5,602 (6.2)	35,367 (13.0)	21,336 (15.4)	14,031 (10.5)	48 (1.2)	26 (2.0)	22 (0.8)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30명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율은 예체능계열이 68.5%, 교육계열 60.1%, 인문계열 51.5%, 사회계열 47.8%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학계열(38.5%)과 의약계열(35.1%) 졸업자의 경우에는 다른 계열 졸업자에 비해 30명 미만 사업체 종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300명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의약계열이 33.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공학계열(26.6%)과 사회계열(20.2%), 인문계열(19.0%), 순이었다. 교육계열(5.0%)과 예체능계열(10.0%)의 경우에는 300명 이상 대기업 종사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Ⅳ-13〉 전공계열별 사업체 규모

(단위: 명, %)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1-4명	5,573 (14.3)	15,344 (12.3)	1,651 (6.2)	8,968 (8.8)	5,393 (13.0)	4,188 (9.3)	15,586 (26.5)
5-9명	6,339 (16.3)	17,877 (14.3)	5,295 (19.9)	12,159 (11.9)	5,399 (13.0)	5,044 (11.2)	11,905 (20.2)
10-29명	8,159 (20.9)	26,459 (21.2)	9,020 (34.0)	18,209 (17.8)	8,140 (19.6)	6,566 (14.6)	12,813 (21.8)
30-49명	2,878 (7.4)	11,301 (9.0)	3,615 (13.6)	8,810 (8.6)	4,075 (9.8)	2,707 (6.0)	4,283 (7.3)
50-99명	3,330 (8.5)	12,840 (10.3)	4,306 (16.2)	10,451 (10.2)	4,059 (9.8)	3,905 (8.7)	4,082 (6.9)
100-299명	5,302 (13.6)	15,872 (12.7)	1,331 (5.0)	16,308 (16.0)	5,532 (13.3)	7,447 (16.6)	4,279 (7.3)
300-499명	2,039 (5.2)	6,820 (5.5)	356 (1.3)	6,450 (6.3)	2,513 (6.1)	3,409 (7.6)	1,699 (2.9)
500-999명	1,948 (5.0)	6,586 (5.3)	208 (0.8)	4,556 (4.5)	2,241 (5.4)	3,986 (8.9)	1,624 (2.8)
1,000명 이상	3,417 (8.8)	11,854 (9.5)	773 (2.9)	16,145 (15.8)	4,089 (9.9)	7,719 (17.2)	2,571 (4.4)

3. 고용형태 및 근로소득, 근로시간

1) 종사상 지위

2015년 대졸자의 첫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가 96.7%로 조사되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상용직 근로자 비율은 74.7%, 임시직 근로자 19.9%, 일용직 근로자는 2.1%이며, 비임금 근로자 비율은 3.3%이다.

<표Ⅳ-14> 성별, 졸업대학 특성별 종사상 지위

(단위: 명, %)

		임금 근로				비임금 근로			
			상용	임시	일용		종업원을 둔 고용주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체		428,776 (96.7)	331,205 (74.7)	88,041 (19.9)	9,530 (2.1)	14,510 (3.3)	4,398 (1.0)	8,789 (2.0)	1,323 (0.3)
성	남성	204,287 (96.2)	163,608 (77.1)	36,540 (17.2)	4,138 (1.9)	8,002 (3.8)	3,049 (1.4)	4,136 (1.9)	816 (0.4)
	여성	224,489 (97.2)	167,597 (72.6)	51,501 (22.3)	5,391 (2.3)	6,509 (2.8)	1,349 (0.6)	4,653 (2.0)	507 (0.2)
학 교 유 형	2~3년제	158,070 (96.9)	124,308 (76.2)	29,509 (18.1)	4,253 (2.6)	5,036 (3.1)	1,523 (0.9)	2,797 (1.7)	716 (0.4)
	4년제	266,528 (96.6)	203,383 (73.7)	57,902 (21.0)	5,243 (1.9)	9,462 (3.4)	2,875 (1.0)	5,979 (2.2)	607 (0.2)
	교육대	4,178 (99.7)	3,515 (83.9)	630 (15.0)	34 (0.8)	12 (0.3)	-	12 (0.3)	-
전 공 계 열	인문	37,997 (96.5)	25,947 (65.9)	10,727 (27.2)	1,323 (3.4)	1,392 (3.5)	333 (0.8)	978 (2.5)	82 (0.2)
	사회	122,327 (96.6)	94,117 (74.3)	25,643 (20.2)	2,568 (2.0)	4,318 (3.4)	1,706 (1.3)	2,249 (1.8)	363 (0.3)
	교육	26,270 (98.0)	20,793 (77.6)	5,140 (19.2)	337 (1.3)	530 (2.0)	104 (0.4)	426 (1.6)	-
	공학	100,854 (97.6)	84,535 (81.8)	14,579 (14.1)	1,740 (1.7)	2,441 (2.4)	989 (1.0)	1,142 (1.1)	310 (0.3)
	자연	40,624 (96.3)	29,531 (70.0)	10,135 (24.0)	957 (2.3)	1,577 (3.7)	371 (0.9)	900 (2.1)	306 (0.7)
	의약	45,106 (99.5)	40,159 (88.5)	4,352 (9.6)	595 (1.3)	248 (0.5)	58 (0.1)	104 (0.2)	86 (0.2)
	예체능	55,597 (93.3)	36,124 (60.6)	17,464 (29.3)	2,009 (3.4)	4,004 (6.7)	837 (1.4)	2,991 (5.0)	177 (0.3)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임금근로자 비율은 거의 비슷하지만 상용직 비율이 여성(72.6%)에 비해 남성(77.1%)이 4.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4년제 졸업자와 2~3년제 졸업자의 임금근로자 비율은 각각 96.9%, 96.6%로 유사하나, 상용직 비율은 2~3년제 졸업자가 76.2%로 4년제 졸업자(73.7%)보다 높게 나타난다. 교육대 졸업자의 경우 상용직 비율은 83.9%

로 가장 높았고, 임시직 비율은 15.0%로 2~3년제 및 4년제 졸업자에 비해 낮다.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 비율은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모든 계열에서 95%으로 이상 높고, 예체능계열의 임금근로 비율은 93.3%로 다른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상용직 비율은 의약계열(88.5%)과 공학계열(81.8%)이 가장 높고, 예체능계열(60.6%)과 인문계열(65.9%)은 상대적으로 낮아 의약계열과 공학계열에 비해 상용직 비중이 16%p 이상 낮게 나타나 계열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 졸업 후 가진 첫 일자리를 2016년 9월 조사 기준시점까지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첫 일자리에서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표Ⅳ-15>와 같다. 첫 일자리를 조사 기준시점까지 유지하고 있는 경우 첫 일자리에서 상용직 비율은 81.9%, 임시직 비율은 12.5%이다. 반면, 첫 일자리에서 이직하거나 첫 일자리를 그만두고 현재 미취업 상태인 경우 상용직 비율은 60.0%, 임시직 비율은 34.9%로 첫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상용직 비율은 낮고, 임시직 비율은 높다.

<표Ⅳ-15> 첫 일자리 유지여부별 종사상 지위

(단위: 명, %)

	유지자	비유지자
임금근로	284,906 (95.8)	143,964 (98.7)
상용	243,673 (81.9)	87,533 (60.0)
임시	37,209 (12.5)	50,831 (34.9)
일용	3,930 (1.3)	5,600 (3.8)
비임금근로	12,671 (4.3)	1,839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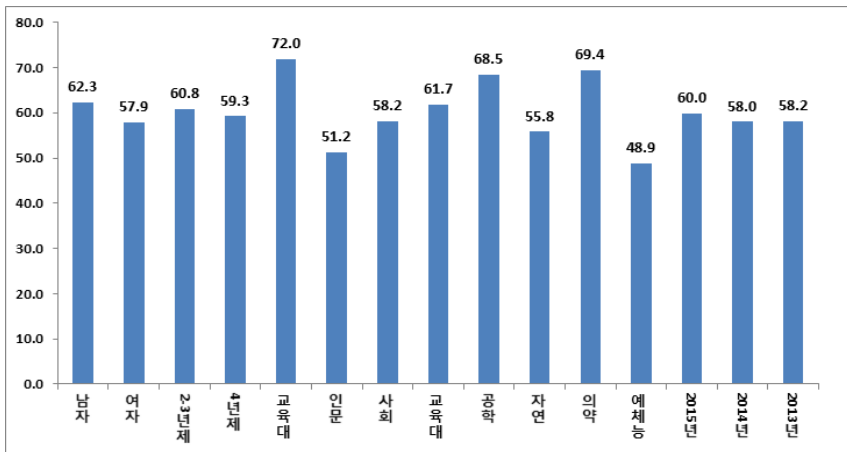
2) 정규직 비율

첫 일자리의 정규직 근로형태 비율은 60.0%로 조사되어 2013년과 2014년 정규직 비율과 비교하여 소폭 증가하였다. 정규직 비율을 성별로 비교하여 보

면 남성(62.3%)이 여성(57.9%)보다 약 4.4%p 높다. 학교 유형별로는 교육대의 정규직 비율이 72.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3년제(60.8%), 4년제(59.3%)순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는 의약계열과 공학계열 졸업자의 정규직 비율이 각각 69.4%, 68.5%로 가장 높고,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의 정규직 비율은 각각 51.2%, 48.9%로 가장 낮다.

[그림Ⅳ-1] 첫 일자리 정규직 비율

(단위: %)



대학 졸업 후 첫 일자의 산업 분야가 제조업인 경우의 정규직 비율은 80.2%로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교육서비스업의 정규직 비율은 36.8%로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매우 낮는데, 이는 교육 서비스업의 산업 분류 내에 초·중등 교육기관 외에도 일반 학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직업별 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기계관련직 정규직 비율이 75.5%로 가장 높고, 정보통신관련직 71.3%, 보건·의료관련직 70.9%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직업도 산업과 마찬가지로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의 정규직 비율이 44.4%로 매우 낮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100~299명 미만 사업체의 정규직 비율이 63.2%로 가장 높았으며, 10~29명 미만 사업체, 30~99명 미만 사업체, 300명 이상 사업체 모두 60% 이상의 정규직 비율을 보였다. 다만, 10명 미만의 사업체 정규직 비율은 56.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Ⅳ-16> 산업 및 직업,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 비율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산업	제조업	80.2	80.4	79.7
	도매 및 소매업	61.7	62.8	60.7
	숙박 및 음식점업	42.7	47.3	39.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4.5	68.2	6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8.2	67.1	69.3
	교육서비스업	36.8	31.0	39.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8.3	54.9	71.5
직업	경영·회계·사무관련직	60.5	65.6	56.9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관련직	44.4	37.1	47.1
	보건·의료 관련직	70.9	57.3	74.4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직	58.8	58.4	59.0
	영업 및 판매관련직	54.1	61.7	43.1
	기계 관련직	75.5	75.3	78.5
	정보통신관련직	71.3	71.7	70.1
사업체 규모	10명 미만	56.0	56.0	56.0
	10-29명	62.5	63.4	61.7
	30-99명	61.4	63.0	59.6
	100-299명	63.2	67.3	58.3
	300명 이상	60.3	64.9	55.1

주: 산업은 종사비율 5% 이상, 직업은 4% 이상인 분야만을 분석

졸업 후 첫 일자리를 2016년 조사기준 시점(9월 1일)까지 계속하여 다니고 있는 경우 첫 일자리에서 정규적인 비율은 66.6%로 첫 일자리를 그만 둔 사람들의 정규직 비율(46.8%)에 비하여 19.9%p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종사상 지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첫 일자리에서의 고용상태가 상용직, 또는 정규직인 경우에 일자리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음을 보여준다.

<표Ⅳ-17> 첫 일자리 유지여부별 정규직 비율

(단위: %)

	유지자	비유지자
정규직	66.6	46.8
비정규직	33.4	53.2

3)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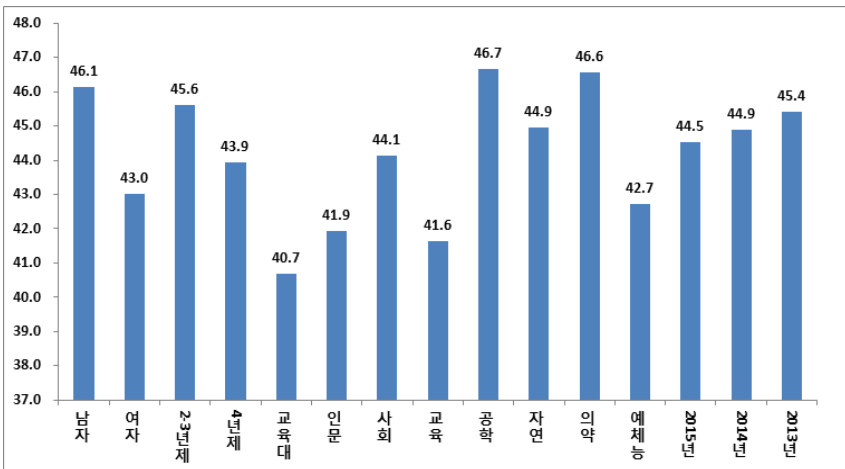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정규 근로시간과 초과 근로시간의 합으로 계산하였으며, 정규 근로시간과 초과 근로시간을 모른다고 응답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결측으로 처리하였다.

첫 일자리에서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4.5시간으로 2013년 대졸자 45.4시간, 2014년 대졸자 44.9시간에 비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남성 46.1시간, 여성 43.0시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주당 평균 3시간 더 길게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2~3년제 대졸자 45.6시간, 4년제 43.9시간, 교육대 40.7시간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는 공학계열과 의약계열의 평균 근로시간이 각각 46.7시간, 46.6시간으로 가장 긴 반면, 교육계열(41.6시간)과 인문계열(41.9시간)의 평균 근로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Ⅳ-2] 첫 일자리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임금근로자 44.6시간, 비임금근로자 41.7시간으로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비임금근로자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상용직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46.3시간으로 가

장 길었다. 임시직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9.6시간으로 상용직에 비해 주당 평균 6.7시간, 일용직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3.3시간으로 상용직에 비해 주당 평균 13.0시간 짧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주당 평균 2.9시간, 비임금근로자는 주당 평균 10.3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은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에 비해 주당 평균 2.5시간, 일용직은 주당 평균 4.8시간 더 길게 일해 종사상 지위 중 일용직의 성별 근로시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Ⅳ-18〉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전체	남성	여성
임금근로	44.6	46.1	43.2
상용	46.3	47.5	45.0
임시	39.6	41.0	38.6
일용	33.3	36.1	31.3
비임금근로	41.7	46.3	36.0

〈표Ⅳ-19〉는 산업·직업·사업체 규모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산업별로는 교육서비스업의 근로시간이 38.1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반면, 제조업 종사자의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 47.2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영상·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주당 평균 45시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기계 관련직과 보건·의료 관련직의 근로시간이 각각 49.3시간, 46.8시간으로 길게 나타났으며,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6.3시간으로 짧게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00명 이상 사업체가 46.0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10명 미만 사업체 42.7시간, 10-29명 사업체와 30-99명 사업체가 44.9시간, 44.8시간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짧았다.

<표Ⅳ-19> 산업 및 직업, 사업체 규모별 주당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전체	남성	여성
산업	제조업	47.2	48.0	45.3
	도매 및 소매업	45.6	46.5	44.6
	숙박 및 음식점업	44.3	47.9	41.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5.2	45.6	44.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5.4	46.2	44.6
	교육서비스업	38.1	39.1	37.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5.3	47.1	44.9
직업	경영·회계·사무관련직	44.4	45.5	43.6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관련직	36.3	37.1	36.0
	보건·의료 관련직	46.8	50.5	45.9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직	45.6	46.1	45.3
	영업 및 판매관련직	44.2	46.1	41.6
	기계 관련직	49.3	49.3	49.2
	정보통신관련직	45.1	45.6	43.8
사업체 규모	10명 미만	42.7	45.0	41.1
	10-29명	44.9	46.6	43.6
	30-99명	44.8	46.1	43.5
	100-299명	45.2	46.1	44.1
	300명 이상	46.0	47.3	44.5

주: 산업은 종사비율 5% 이상, 직업은 4% 이상인 분야만을 분석

4) 근로소득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조사 기준시점에서의 일자리가 졸업 후 첫 일자리인 경우에는 해당 직장에서의 초임을 조사하고, 첫 일자리가 아닌 경우에는 첫 일자리에에서의 초임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졸업 후 첫 일자리 근로소득을 월평균 근로소득과 급여형태별 근로소득 두 가지로 묻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세금 및 상여금을 포함하여 응답받고 있다. 본 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소득은 졸업 후 첫 일자리에에서의 월평균 근로소득이다.

2015년 대졸자의 첫 일자리 월평균 근로소득은 196만 1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219만 8천원)이 여성(174만 5천원) 보다 45만 2천원 월평균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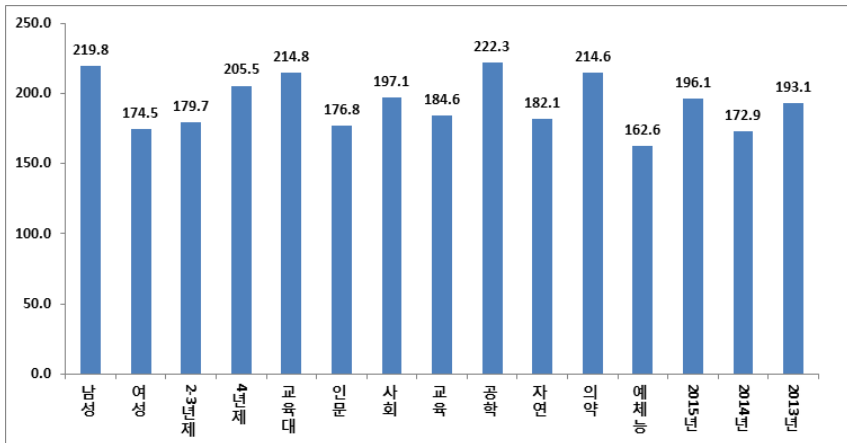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2~3년제 대학 졸업자(179만 7천원)의 근로소득이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4년제(205만 5천원), 교육대(214만 8천원)의 순이다.

전공계열별로는 공학계열(222만 3천원), 의약계열(214만 6천원) 졸업자의 월평균 소득이 높은 반면, 예체능계열(162만 6천원)과 인문계열(176만 8천원) 졸업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낮았다.

[그림Ⅳ-3] 첫 일자리 월평균 소득

(단위: 만원)



종사상 지위별 월평균 소득은 임금근로자는 193만 7천원, 비임금근로자는 277만 5천원으로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이 평균 83만 9천원 높게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의 월평균 소득은 211만 9천원으로 임시직(133만 9천원) 근로자에 비해서 월평균 78만 1천원, 일용직(107만 7천원)에 비해 월평균 104만 2천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격차는 임금근로자보다는 비임금근로자에게서 크게 나타났으며, 임시직과 일용직에 비해 상용직에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소득이 높은 종사상 지위에서 임금격차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Ⅳ-20〉 종사상 지위별 근로소득

(단위: 만원)

	전체	남성	여성
임금근로	193.7	215.6	173.8
상용	211.9	233.4	191.1
임시	133.9	146.0	125.3
일용	107.7	121.9	97.1
비임금근로	277.5	340.6	202.5

산업별로는 제조업(239만 5천원)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01만 6천원)의 월 평균 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151만 1천원)과 교육서비스업(153만 5천원)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기계관련직의 월평균 소득이 250만 4천원으로 다른 직업 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정보통신관련직(221만 4천원), 보건·의료 관련직(210만 1천원)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이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과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직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162만 5천원, 172만 1천원으로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대부분의 산업 및 직업 분야에서 남성의 월평균 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산업분야에서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7.2%)이었으며, 가장 높은 곳은 교육서비스업(99.3%)이다. 직업분야에서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영업 및 판매관련직(71.3%)이며, 가장 높은 곳은 기계 관련직(107.4%)으로 여성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 약간 높다.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소득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증가해, 10명 미만 사업체는 164만원, 30~99명 사업체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 2천원, 300명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소득은 237만 1천원으로 조사되었다.

<표Ⅳ-21> 산업 및 직업, 사업체 규모별 근로소득

(단위: 만원)

		전체	남성	여성
산업	제조업	239.5	253.4	207.2
	도매 및 소매업	195.7	214.8	175.5
	숙박 및 음식점업	151.1	175.2	133.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97.0	211.2	179.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01.6	228.3	176.2
	교육서비스업	153.5	154.3	153.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95.3	220.1	189.4
직업	경영·회계·사무관련직	195.1	221.8	175.9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관련직	162.5	170.3	159.6
	보건·의료 관련직	210.1	236.6	203.1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직	172.1	195.9	159.9
	영업 및 판매관련직	189.8	215.3	153.5
	기계 관련직	250.4	249.5	268.1
	정보통신관련직	221.4	223.7	214.2
사업체 규모	10명 미만	164.0	190.6	145.3
	10-29명	187.2	209.0	170.1
	30-99명	200.2	216.2	183.6
	100-299명	208.3	224.5	189.1
	300명 이상	237.1	259.9	211.1

주: 산업은 종사비율 5% 이상, 직업은 4% 이상인 분야만을 분석

4. 일자리 만족도 및 업무수준

1) 만족도

첫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근무환경(3.59)과 인간관계(3.59)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사체계에 대한 만족도(3.10)와 임금에 대한 만족도(3.17)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의 만족도가 높은 주요 항목은 인사체계와 임금, 발전가능성, 인간관계였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근무환경과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학교 유형별로는 교육대학 졸업자의 만족도가 모든 항목에서 2~3년제 및 4년제 졸업자보다 높았으며, 4년제에 비해서 2~3년제 졸업자의 만족도가 더

높게 조사되었다. 전공 계열별로는 근무 환경과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대부분의 전공계열에서 만족도가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육계열의 경우에는 고용안정성(3.80)과 적성일치(3.89)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계열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연계열은 적성일치에 대한 만족도(3.54), 의약계열은 일과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평판(3.61, 3.59), 예체능계열은 적성일치에 대한 만족도(3.54)가 높게 나타났다.

<표Ⅳ-22> 첫 일자리 만족도

(단위: 점)

		임금	고용 안정성	근무 환경	근무 시간	발전 가능성	인간 관계	복지 후생 제도	인사 체계	사회적 평판 -일	자율성, 권한	사회적 평판 -일자리	적성 일치	교육 훈련
전체		3.17	3.49	3.59	3.43	3.33	3.59	3.26	3.10	3.47	3.45	3.47	3.51	3.32
성	남성	3.24	3.54	3.57	3.42	3.40	3.66	3.33	3.18	3.47	3.50	3.47	3.53	3.37
	여성	3.11	3.45	3.60	3.44	3.27	3.53	3.21	3.03	3.47	3.41	3.47	3.49	3.27
학 교 유 형	2-3년제	3.16	3.47	3.53	3.38	3.30	3.56	3.25	3.08	3.39	3.39	3.39	3.44	3.29
	4년제	3.17	3.49	3.61	3.44	3.34	3.60	3.26	3.10	3.50	3.48	3.51	3.54	3.32
	교육대	3.81	4.44	4.24	4.38	4.14	4.20	4.27	3.85	4.21	4.12	4.23	4.20	4.11
전 공 계 열	인문	3.10	3.39	3.56	3.44	3.17	3.55	3.12	2.96	3.37	3.40	3.38	3.37	3.18
	사회	3.16	3.45	3.61	3.47	3.23	3.59	3.25	3.06	3.42	3.43	3.43	3.44	3.25
	교육	3.52	3.80	3.89	3.79	3.62	3.86	3.66	3.41	3.75	3.70	3.74	3.89	3.68
	공학	3.27	3.61	3.59	3.41	3.43	3.65	3.37	3.24	3.50	3.50	3.50	3.53	3.38
	자연	3.16	3.46	3.58	3.42	3.40	3.58	3.24	3.06	3.46	3.46	3.48	3.54	3.34
	의약	3.13	3.65	3.47	3.25	3.31	3.48	3.33	3.15	3.61	3.34	3.59	3.49	3.37
	예체능	2.97	3.21	3.51	3.35	3.30	3.48	3.00	2.89	3.36	3.42	3.34	3.54	3.20

2) 업무수준과 교육수준 일치도

첫 일자리에서 수행한 업무의 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알맞다고 응답한 비율은 64.7%였으며, 자신의 교육수준보다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22.0%,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1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과 비교해 업무수준이 알맞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64.0%)이 여성(65.3%)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교육수준보다 높은 업무를 하

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23.3%)이 여성(20.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 비교에서는 2~3년제와 4년제의 경우 교육수준과 업무수준이 알맞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6.0%, 63.6%로 큰 차이가 없지만, 교육대 졸업자는 84.3%로 매우 높다.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교육계열(78.8%) 졸업자가 업무수준과 교육수준이 알맞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이에 비해 인문계열(59.7%) 졸업자는 첫 일자리에서의 업무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알맞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고, 교육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계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Ⅳ-23> 첫 일자리 업무-교육 수준 일치도

(단위: 명, %)

		매우 낮음	낮음	알맞음	높음	매우 높음
전체		14,913 (3.4)	82,525 (18.6)	286,662 (64.7)	51,579 (11.6)	7,607 (1.7)
성	남성	7,490 (3.5)	36,089 (17.0)	135,809 (64.0)	28,023 (13.2)	4,877 (2.3)
	여성	7,423 (3.2)	46,435 (20.1)	150,853 (65.3)	23,557 (10.2)	2,730 (1.2)
학교 유형	2~3년제	5,318 (3.3)	27,867 (17.1)	107,678 (66.0)	19,531 (12.0)	2,713 (1.7)
	4년제	9,548 (3.5)	54,402 (19.7)	175,453 (63.6)	31,763 (11.5)	4,825 (1.7)
	교육대	48 (1.1)	257 (6.1)	3,532 (84.3)	286 (6.8)	69 (1.6)
전공 계열	인문	1,661 (4.2)	9,899 (25.1)	23,501 (59.7)	3,758 (9.5)	570 (1.4)
	사회	4,952 (3.9)	26,337 (20.8)	81,090 (64.0)	12,675 (10.0)	1,591 (1.3)
	교육	384 (1.4)	3,040 (11.3)	21,117 (78.8)	1,992 (7.4)	267 (1.0)
	공학	3,126 (3.0)	17,100 (16.6)	64,550 (62.5)	16,268 (15.7)	2,251 (2.2)
	자연	1,359 (3.2)	7,862 (18.6)	27,570 (65.3)	4,833 (11.5)	577 (1.4)
	의약	962 (2.1)	5,744 (12.7)	31,568 (69.6)	6,071 (13.4)	1,009 (2.2)
	예체능	2,469 (4.1)	12,544 (21.0)	37,266 (62.5)	5,981 (10.0)	1,341 (2.3)

3) 업무수준과 기술수준 일치도

첫 일자리의 업무수준을 자신의 기술수준과 비교했을 때, 알맞다고 응답한 비율은 66.2%이며,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20.7%,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13.1%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업무수준과 기술수준이 알맞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65.7%)과 여성(66.7%)이 유사하나, 자신의 기술수준에 비해 업무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14.7%)에 비해 여성(11.7%)이 낮게 나타났다.

<표Ⅳ-24> 첫 일자리 업무-기술 수준 일치도

(단위: 명, %)

		매우 낮음	낮음	알맞음	높음	매우 높음
전체		14,212 (3.2)	77,481 (17.5)	293,581 (66.2)	51,126 (11.5)	6,885 (1.6)
성	남성	7,029 (3.3)	34,829 (16.4)	139,424 (65.7)	26,644 (12.6)	4,362 (2.1)
	여성	7,184 (3.1)	42,652 (18.5)	154,157 (66.7)	24,482 (10.6)	2,523 (1.1)
학교 유형	2~3년제	5,245 (3.2)	25,770 (15.8)	111,118 (68.1)	18,308 (11.2)	2,664 (1.6)
	4년제	8,933 (3.2)	51,498 (18.7)	178,945 (64.8)	32,463 (11.8)	4,151 (1.5)
	교육대	35 (0.8)	214 (5.1)	3,517 (83.9)	355 (8.5)	70 (1.7)
전공 계열	인문	1,407 (3.6)	9,375 (23.8)	24,220 (61.5)	3,919 (9.9)	467 (1.2)
	사회	5,312 (4.2)	24,685 (19.5)	84,365 (66.6)	10,990 (8.7)	1,293 (1.0)
	교육	482 (1.8)	2,477 (9.2)	21,501 (80.2)	2,074 (7.7)	267 (1.0)
	공학	3,049 (3.0)	16,519 (16.0)	64,719 (62.7)	16,827 (16.3)	2,181 (2.1)
	자연	1,312 (3.1)	7,253 (17.2)	28,353 (67.2)	4,586 (10.9)	697 (1.7)
	의약	808 (1.8)	4,963 (10.9)	31,918 (70.4)	6,831 (15.1)	834 (1.8)
	예체능	1,843 (3.1)	12,209 (20.5)	38,505 (64.6)	5,899 (9.9)	1,146 (1.9)

학교 유형별로는 2~3년제와 4년제 졸업자의 68.1%, 64.8%가, 교육대 졸업자는 83.9%가 자신의 업무수준과 기술수준이 유사하다고 응답하였다.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교육계열(80.2%)과 의약계열(70.4%) 졸업자가 업무수준과 기술수준이 알맞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인문계열(61.5%)과 예체능계열(64.6%)의 경우는 업무수준과 기술수준이 알맞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4) 업무내용과 전공 일치도

<표Ⅳ-25> 첫 일자리 업무내용-전공 일치도

(단위: 명, %)

		전혀 맞지 않음	잘 맞지 않음	그런대로 맞음	잘 맞음	매우 잘 맞음
전체		65,903 (14.9)	57,391 (12.9)	111,717 (25.2)	137,070 (30.9)	71,205 (16.1)
성	남성	32,904 (15.5)	28,372 (13.4)	55,981 (26.4)	66,032 (31.1)	28,999 (13.7)
	여성	32,999 (14.3)	29,019 (12.6)	55,736 (24.1)	71,037 (30.8)	42,206 (18.3)
학교 유형	2~3년제	25,282 (15.5)	20,452 (12.5)	41,883 (25.7)	48,806 (29.9)	26,683 (16.4)
	4년제	40,428 (14.6)	36,806 (13.3)	69,477 (25.2)	86,700 (31.4)	42,579 (15.4)
	교육대	194 (4.6)	133 (3.2)	356 (8.5)	1,564 (37.3)	1,943 (46.4)
전공 계열	인문	10,225 (26.0)	8,039 (20.4)	9,420 (23.9)	7,957 (20.2)	3,748 (9.5)
	사회	22,637 (17.9)	20,664 (16.3)	36,839 (29.1)	34,989 (27.6)	11,516 (9.1)
	교육	1,851 (6.9)	1,189 (4.4)	4,777 (17.8)	9,327 (34.8)	9,657 (36.0)
	공학	13,088 (12.7)	13,524 (13.1)	27,800 (26.9)	34,964 (33.8)	13,919 (13.5)
	자연	6,403 (15.2)	4,748 (11.3)	9,946 (23.6)	14,208 (33.7)	6,895 (16.3)
	의약	2,711 (6.0)	2,163 (4.8)	7,869 (17.4)	16,430 (36.2)	16,180 (35.7)
	예체능	8,988 (15.1)	7,064 (11.9)	15,065 (25.3)	19,194 (32.2)	9,290 (15.6)

첫 일자리의 업무 내용이 자신의 전공과 그런대로 맞음(25.2%), 잘 맞음(30.9%), 매우 잘 맞음(16.1%) 등 맞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2.2%로 맞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27.8%)보다 세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간에 큰 차이는 없었으며, 학교유형별로는 2~3년제와 4년제 졸업자는 잘 맞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72.0%, 맞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8.0%로 동일하고, 교육대 졸업자의 대부분은 업무내용과 전공의 일치도가 높게 응답되었다. 전공계열별로는 교육계열, 의약계열이 업무내용과 전공이 잘 맞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각각 88.7%, 89.3%로 높았고, 인문계열은 53.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5. 일자리 적응 및 그만둔 이유

1) 첫 일자리 적응의 어려움

2015년 대졸자는 첫 일자리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업무내용 습득(36.3%)과 상사·동료 간의 관계(24.6%)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업무내용 습득, 상사·동료와의 관계, 기대했던 수준과의 격차 순으로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지만 남성은 여성에 비해 적성/흥미와의 불일치나 고용의 불안정성에서, 여성은 상사·동료와의 관계, 육체적 건강/체력 문제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유형별로는 2~3년제와 4년제의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2~3년제와 4년제 모두 업무내용 습득, 상사·동료와의 관계, 기대했던 수준과의 격차가 커서 어려웠다는 비율이 높았다. 교육대의 경우 업무내용의 습득이 어려웠다는 비율(54.2%)이 가장 높은데 이는 다른 항목에서의 어려움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게 조사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전공계열별로는 업무내용 습득이 어려웠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계열은 교육(48.4%)과 의약(40.0%)계열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상사·동료와의 관계가 어려웠다는 비율은 자연(27.7%)과 의약(27.4%), 사회(27.2%) 계열이, 기대했던 수준과의 격차 때문에 어려웠다는 비율은 예체능계열(21.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Ⅳ-26> 첫 일자리 적응의 어려운 점

(단위: 명, %)

		업무 내용 습득	상사- 동료와의 관계	적성/ 흥미와 불일치	기대했던 수준과의 격차	차별 (성, 학력, 지역 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고용 또는 직장의 불안정성	육체적 건강/ 체력적 문제	기타
전체		34,847 (36.3)	23,632 (24.6)	7,047 (7.3)	16,694 (17.4)	744 (0.8)	952 (1.0)	3,358 (3.5)	6,776 (7.1)	1,963 (2.0)
성	남성	14,169 (36.0)	8,426 (21.4)	3,523 (8.9)	7,274 (18.5)	306 (0.8)	706 (1.8)	1,942 (4.9)	1,960 (5.0)	1,083 (2.7)
	여성	20,678 (36.5)	15,206 (26.9)	3,524 (6.2)	9,420 (16.6)	438 (0.8)	246 (0.4)	1,416 (2.5)	4,817 (8.5)	880 (1.6)
학교 유형	2~3년제	13,447 (39.2)	8,257 (24.0)	2,253 (6.6)	6,008 (17.5)	170 (0.5)	329 (1.0)	709 (2.1)	2,655 (7.7)	508 (1.5)
	4년제	21,018 (34.5)	15,234 (25.0)	4,753 (7.8)	10,629 (17.4)	574 (0.9)	623 (1.0)	2,634 (4.3)	4,090 (6.7)	1,417 (2.3)
	교육대	382 (54.2)	140 (19.9)	41 (5.8)	57 (8.0)	-	-	15 (2.2)	32 (4.5)	38 (5.4)
전공 계열	인문	3,313 (35.4)	2,068 (22.1)	907 (9.7)	1,813 (19.3)	123 (1.3)	48 (0.5)	404 (4.3)	555 (5.9)	137 (1.5)
	사회	9,627 (34.3)	7,633 (27.2)	2,386 (8.5)	4,769 (17.0)	238 (0.8)	313 (1.1)	1,052 (3.7)	1,211 (4.3)	833 (3.0)
	교육	2,564 (48.4)	1,126 (21.3)	226 (4.3)	645 (12.2)	-	118 (2.2)	127 (2.4)	378 (7.1)	113 (2.1)
	공학	7,126 (39.8)	3,780 (21.1)	1,481 (8.3)	3,308 (18.5)	100 (0.6)	319 (1.8)	477 (2.7)	870 (4.9)	441 (2.5)
	자연	2,790 (31.3)	2,472 (27.7)	718 (8.1)	1,434 (16.1)	103 (1.2)	80 (0.9)	322 (3.6)	831 (9.3)	170 (1.9)
	의약	5,696 (40.0)	3,907 (27.4)	782 (5.5)	2,065 (14.5)	-	20 (0.1)	132 (0.9)	1,629 (11.4)	16 (0.1)
	예체능	3,730 (30.5)	2,646 (21.7)	547 (4.5)	2,660 (21.8)	180 (1.5)	53 (0.4)	844 (6.9)	1,303 (10.7)	254 (2.1)

첫 일자리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어려웠던 점을 일자리 유지여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 일자리를 2016년 조사기준 시점까지 계속하여 다니고 있는 경우 업무내용을 습득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비율이 43.6%로 가장 높았고, 상사-동료와의 관계가 23.2%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를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로 이직하거나 미취업 상태인 경우는 상사-동료와의 관계가 어려웠다고 응답한 비율이

2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업무내용습득(25.6%), 기대했던 수준과의 격차(21.1%)로 나타나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과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표Ⅳ-27> 첫 일자리 유지여부별 첫 일자리 적응의 어려운 점

(단위: 명, %)

	유지자	비유지자
업무내용습득	24,872 (43.6)	9,975 (25.6)
상사-동료와의 관계	13,247 (23.2)	10,385 (26.7)
적성/흥미와 불일치	3,163 (5.5)	3,884 (10.0)
기대했던 수준과의 격차	8,499 (14.9)	8,196 (21.1)
차별(성, 학력, 지역 등)	461 (0.8)	283 (0.7)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818 (1.4)	133 (0.3)
고용 또는 직장의 불안정성	1,700 (3.0)	1,658 (4.3)
육체적 건강/체력적 문제	3,342 (5.9)	3,434 (8.8)
기타	1,004 (1.8)	959 (2.5)

2) 첫 일자리를 그만둔 주된 이유

2015년 대졸자들이 첫 일자리를 그만 둔 가장 주된 이유는 ‘보다 나은 직장으로의 전직(이직)을 위하여’가 2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기간이 끝나서’(16.9%), ‘근로시간 또는 근로환경이 나빠서’(14.5%), ‘학업의 계속이나 재취업준비’(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보다 나은 직장으로의 전직(이직)을 위하여’란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지만 그 비율은 여성(21.0%)보다 남성(23.8%)이 높았고, ‘근로시간 또는 근로환경이 나빠서’그만둔 경우가 여성(13.0%)보다 남성(16.3%)보다 비율이 높았다.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계약기간의 종료’와 ‘건강이 좋지 않아’ 그만둔 비율이 근소하게 높았다.

학교유형별로는 2~3년제 졸업자의 경우 ‘보다 나은 직장으로의 전직(이직)을 위하여’ 첫 일자리를 그만두었다는 비율(21.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년제 졸업자는 ‘보다 나은 직장으로의 전직(이직)을 위하여’ (22.8%) 첫직장을 그만둔 비율과 ‘계약기간이 끝나서’(20.1%) 그만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첫 일자리를 그만둔 교육대 졸업자 중에서는 51.0%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일자리를 그만두었다고 응답하였다.

<표Ⅳ-28> 성별 및 학교유형별 첫 일자리 그만둔 이유

(단위: 명, %)

	성별		학교 유형			전체
	남성	여성	2~3년제	4년제	교육대	
계약기간이 끝나서	10,238 (16.1)	14,349 (17.5)	6,731 (11.6)	17,480 (20.1)	376 (51.0)	24,588 (16.9)
직장의 휴/폐업 등으로	2,301 (3.6)	2,997 (3.7)	2,061 (3.6)	3,228 (3.7)	9 (1.2)	5,298 (3.6)
권고사직, 정리해고, 명예퇴직 으로 인해서	1,177 (1.8)	1,680 (2.0)	1,494 (2.6)	1,363 (1.6)	-	2,857 (2.0)
보수가 낮아서	7,046 (11.1)	7,497 (9.1)	6,845 (11.8)	7,657 (8.8)	41 (5.5)	14,543 (10.0)
근로시간 또는 근로환경이 나빠서	10,395 (16.3)	10,668 (13.0)	8,400 (14.5)	12,635 (14.5)	28 (3.8)	21,063 (14.5)
차별을 받아서	187 (0.3)	770 (0.9)	382 (0.7)	575 (0.7)	-	957 (0.7)
전공, 지식, 기술, 적성 등이 맞지 않아서	2,839 (4.5)	4,609 (5.6)	3,237 (5.6)	4,197 (4.8)	14 (1.9)	7,448 (5.1)
학업의 계속이나 재취업 준비	6,148 (9.7)	8,917 (10.9)	6,292 (10.9)	8,737 (10.0)	36 (4.9)	15,065 (10.3)
육아(출산), 결혼, 가족과 연관된 이유로	585 (0.9)	2,206 (2.7)	1,126 (1.9)	1,647 (1.9)	18 (2.5)	2,791 (1.9)
상사 또는 동료와의 갈등 때문에	3,068 (4.8)	4,292 (5.2)	3,350 (5.8)	4,010 (4.6)	-	7,360 (5.1)
보다 나은 직장으로의 전직 (이직)을 위하여	15,145 (23.8)	17,256 (21.0)	12,417 (21.5)	19,826 (22.8)	157 (21.3)	32,401 (22.2)
건강이 좋지 않아서	1,960 (3.1)	3,704 (4.5)	3,104 (5.4)	2,548 (2.9)	12 (1.7)	5,664 (3.9)
회사이전이나 이사 등으로 거리가 멀어져서	943 (1.5)	1,748 (2.1)	1,146 (2.0)	1,499 (1.7)	46 (6.3)	2,692 (1.8)
기타	1,576 (2.5)	1,409 (1.7)	1,245 (2.2)	1,740 (2.0)	-	2,985 (2.0)

전공계열별로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를 살펴보면, 교육계열을 제외한 모든 전공계열에서 ‘보다 나은 직장으로의 전직(이직)을 위해서’란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에 대한 비율이 높은 항목은 ‘계약기간의 종료’로 인문(21.1%)과 교육(32.4%), 자연(19.6%), 예체능(16.5%) 계열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다. 또한 ‘근로시간 또는 근로환경이 나빠서’ 첫 일자리를 그만둔 비율이 높은 계열은 공학(18.5%)과 자연(15.3%), 의약(19.0%)계열 등으로 나타났다.

<표Ⅳ-29> 전공계열별 첫 일자리 그만둔 이유

(단위: 명, %)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계약기간이 끝나서	2,996 (21.1)	7,112 (17.7)	2,355 (32.4)	3,396 (12.1)	2,980 (19.6)	1,481 (10.0)	4,268 (16.5)
직장의 휴/폐업 등으로	335 (2.4)	1,252 (3.1)	189 (2.6)	1,532 (5.4)	522 (3.4)	299 (2.0)	1,170 (4.5)
권고사직, 정리해고, 명예퇴직 으로	313 (2.2)	711 (1.8)	43 (0.6)	544 (1.9)	154 (1.0)	412 (2.8)	680 (2.6)
보수가 낮아서	1,293 (9.1)	3,576 (8.9)	482 (6.6)	3,055 (10.9)	1,115 (7.3)	1,523 (10.3)	3,499 (13.5)
근로시간 또는 근로환경이 나빠서	1,790 (12.6)	5,399 (13.4)	591 (8.1)	5,202 (18.5)	2,317 (15.3)	2,802 (19.0)	2,962 (11.5)
차별을 받아서	130 (0.9)	207 (0.5)	46 (0.6)	112 (0.4)	143 (0.9)	61 (0.4)	258 (1.0)
전공, 지식, 기술, 적성 등이 맞지 않아서	840 (5.9)	2,144 (5.3)	187 (2.6)	1,386 (4.9)	763 (5.0)	661 (4.5)	1,467 (5.7)
학업의 계속이나 재취업 준비	1,584 (11.1)	5,458 (13.5)	776 (10.7)	2,550 (9.1)	1,479 (9.7)	1,016 (6.9)	2,202 (8.5)
육아(출산), 결혼, 가족과 연 관된 이유로	139 (1.0)	700 (1.7)	284 (3.9)	158 (0.6)	368 (2.4)	644 (4.4)	498 (1.9)
상사 또는 동료와의 갈등 때 문에	581 (4.1)	2,120 (5.3)	286 (3.9)	1,921 (6.8)	459 (3.0)	986 (6.7)	1,008 (3.9)
보다 나은 직장으로의 전직 (이직)을 위하여	3,208 (22.6)	9,037 (22.4)	1,566 (21.5)	6,403 (22.8)	3,734 (24.6)	3,362 (22.8)	5,092 (19.7)
건강이 좋지 않아서	518 (3.6)	1,357 (3.4)	319 (4.4)	847 (3.0)	624 (4.1)	499 (3.4)	1,501 (5.8)
회사이전이나 이사 등으로 거리가 멀어져서	225 (1.6)	667 (1.7)	79 (1.1)	380 (1.4)	293 (1.9)	542 (3.7)	506 (2.0)
기타	272 (1.9)	554 (1.4)	69 (1.0)	636 (2.3)	238 (1.6)	482 (3.3)	734 (2.8)

제5장

학교생활, 훈련 및 자격

1. 출신 대학교

1) 졸업대학 및 전공 선택

2015년 대졸자들은 졸업한 대학을 선택한 이유로 ‘원하는 전공 혹은 업무관련 분야를 공부할 수 있어서’(41.3%)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수능 및 학교)성적에 맞춰서’(37.4%),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6.8%)의 순이었다.

성별 응답분포를 살펴본 결과 남성과 여성간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유형별로는 교육대의 경우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18.7%로 2~3년제(7.6%)나 4년제(6.2%)와 비교하여 매우 높았다.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예체능계열과 교육계열에서 ‘원하는 전공 혹은 업무관련 분야를 공부할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4.7%, 52.4%로 다른 계열보다 높게 나타났고, 의약계열은 ‘졸업 후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가 12.3%로 다른 전공계열보다 높았다. 인문계열은 ‘(수능 및 학교) 성적에 맞춰서’의 응답 비율이 다른 계열에 비해 높았다.

<표 V-1> 졸업 대학 선택 이유

(단위: 명, %)

		(수능 및 학교 성적에 맞춰서	원하는 전공 혹은 업무관련 분야 공부가능	부모님, 선생님의 권유로	친구나 선배의 권유로	통학 거리가 가까워서	학교의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서	졸업 후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	아간 수업이 가능해서	학비가 저렴해서	기타
전체		192,475 (37.4)	212,724 (41.3)	35,225 (6.8)	5,519 (1.1)	19,130 (3.7)	10,202 (2.0)	21,346 (4.1)	3,315 (0.6)	13,252 (2.6)	2,134 (0.4)
성	남성	95,707 (38.5)	98,520 (39.7)	16,441 (6.6)	2,770 (1.1)	9,491 (3.8)	4,283 (1.7)	11,226 (4.5)	1,800 (0.7)	7,046 (2.8)	1,097 (0.4)
	여성	96,767 (36.3)	114,204 (42.8)	18,783 (7.0)	2,749 (1.0)	9,638 (3.6)	5,919 (2.2)	10,120 (3.8)	1,514 (0.6)	6,206 (2.3)	1,037 (0.4)
학 교 유 형	2~3년제	54,133 (29.8)	80,361 (44.3)	13,848 (7.6)	3,407 (1.9)	9,248 (5.1)	1,679 (0.9)	12,450 (6.9)	2,603 (1.4)	2,940 (1.6)	832 (0.5)
	4년제	137,556 (41.8)	130,208 (39.5)	20,561 (6.2)	2,078 (0.6)	9,859 (3.0)	8,463 (2.6)	8,436 (2.6)	712 (0.2)	10,299 (3.1)	1,290 (0.4)
	교육대	786 (18.0)	2,154 (49.4)	816 (18.7)	34 (0.8)	23 (0.5)	60 (1.4)	460 (10.6)	-	14 (0.3)	12 (0.3)
전 공 계 열	인문	21,974 (46.2)	18,099 (38.1)	2,491 (5.2)	291 (0.6)	1,397 (2.9)	1,059 (2.2)	706 (1.5)	105 (0.2)	1,249 (2.6)	161 (0.3)
	사회	62,702 (42.8)	52,844 (36.1)	9,172 (6.3)	2,138 (1.5)	6,741 (4.6)	2,736 (1.9)	3,540 (2.4)	1,933 (1.3)	4,042 (2.8)	611 (0.4)
	교육	8,241 (27.3)	15,813 (52.4)	2,727 (9.0)	236 (0.8)	858 (2.8)	288 (1.0)	1,309 (4.3)	251 (0.8)	377 (1.3)	77 (0.3)
	공학	47,423 (39.1)	45,344 (37.4)	8,072 (6.7)	1,026 (0.8)	4,922 (4.1)	2,260 (1.9)	7,193 (5.9)	703 (0.6)	3,741 (3.1)	597 (0.5)
	자연	20,402 (38.0)	22,902 (42.7)	3,467 (6.5)	340 (0.6)	1,740 (3.2)	1,421 (2.6)	1,264 (2.4)	75 (0.1)	1,914 (3.6)	144 (0.3)
	의약	13,370 (27.8)	20,490 (42.6)	5,195 (10.8)	536 (1.1)	1,242 (2.6)	770 (1.6)	5,904 (12.3)	120 (0.2)	387 (0.8)	90 (0.2)
	예체능	18,362 (27.0)	37,231 (54.7)	4,101 (6.0)	951 (1.4)	2,229 (3.3)	1,667 (2.4)	1,431 (2.1)	128 (0.2)	1,542 (2.3)	453 (0.7)
학 교 소 재 권 역	서울권	41,111 (42.2)	38,601 (39.7)	5,246 (5.4)	417 (0.4)	2,064 (2.1)	5,027 (5.2)	2,611 (2.7)	416 (0.4)	1,333 (1.4)	495 (0.5)
	경기권	48,078 (36.8)	55,142 (42.2)	7,954 (6.1)	1,414 (1.1)	6,810 (5.2)	1,644 (1.3)	5,137 (3.9)	1,092 (0.8)	2,894 (2.2)	594 (0.5)
	충청권	30,956 (35.4)	37,789 (43.2)	6,711 (7.7)	965 (1.1)	3,107 (3.6)	1,074 (1.2)	3,032 (3.5)	470 (0.5)	2,953 (3.4)	415 (0.5)
	경상권	53,473 (39.2)	52,421 (38.4)	9,685 (7.1)	1,656 (1.2)	4,668 (3.4)	1,815 (1.3)	7,867 (5.8)	817 (0.6)	3,619 (2.7)	520 (0.4)
	전라권	18,857 (29.8)	28,770 (45.5)	5,629 (8.9)	1,067 (1.7)	2,480 (3.9)	642 (1.0)	2,698 (4.3)	520 (0.8)	2,453 (3.9)	111 (0.2)

학교소재권역별 대학 선택 이유를 살펴보면 서울권의 경우 다른 권역보다 ‘(수능 및 학교)성적에 맞춰서’(42.2%)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서울권과 경상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권역에서 ‘원하는 전공 혹은 업무관련 분야를 공부할 수 있어서’가 졸업한 대학을 선택한 이유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서울권의 경우 ‘학교의 사회적 인지도(명성)가 높아서’의 비율이 5.2%로 다른 권역에 비해 높았다.

전공 선택의 이유는 ‘학문적 흥미 및 적성을 고려해서’(45.7%)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직업 및 취업 전망이 밝아서’(26.2%), ‘(수능 및 학교)성적에 맞춰서’(19.3%),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6.5%)의 순이었다.

남성은 여성보다 ‘직업 및 취업 전망이 밝아서’ 해당 전공을 선택했다는 응답 비율이 4.2%p 높은 반면, ‘학문적 흥미 및 적성을 고려해서’ 전공을 선택했다는 응답비율은 여성(48.4%)이 남성(42.7%)보다 5.7%p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 전공 선택의 이유를 살펴보면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학문적 흥미 및 적성을 고려해서’ 전공을 선택했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업 및 취업 전망이 밝아서’ 해당 전공을 선택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전공계열별로는 예체능 계열의 경우 ‘학문적 흥미 및 적성을 고려해서’ 전공을 선택했다는 응답이 72.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인문, 교육, 자연계열도 ‘학문적 흥미 및 적성을 고려해서’의 응답 비중이 각각 55.3%, 51.8%, 52.5%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의약계열 전공 학생들은 ‘직업 및 취업 전망이 밝아서’ 전공을 선택했다는 응답이 53.3%로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높았다. ‘성적에 맞춰서’ 졸업학과를 선택했다는 비중은 인문, 사회, 자연계열에서 각각 26.6%, 23.3%, 22.3%로 다른 전공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학교소재권역별로 살펴보면 ‘학문적 흥미 및 적성을 고려해서’가 모든 권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권(52.6%)에서 가장 높았다. ‘직업 및 취업전망이 밝아서’의 비율은 경상권(30.7%)과 전라권(30.2%)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서울권(20.5%)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V-2> 전공 선택 이유

(단위: 명, %)

		직업 및 취업 전망이 밝아서	성적에 맞춰서	흥미 및 적성을 고려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	친구나 선배의 권유로	사회적 인식이나 명성때문에	기타
전체		135,174 (26.2)	99,323 (19.3)	235,366 (45.7)	33,266 (6.5)	5,460 (1.1)	4,086 (0.8)	2,644 (0.5)
성	남성	70,454 (28.4)	48,649 (19.6)	106,041 (42.7)	16,666 (6.7)	2,528 (1.0)	2,447 (1.0)	1,597 (0.6)
	여성	64,720 (24.2)	50,673 (19.0)	129,325 (48.4)	16,600 (6.2)	2,933 (1.1)	1,640 (0.6)	1,047 (0.4)
학교 유형	2~3년제	56,987 (31.4)	30,733 (16.9)	75,501 (41.6)	12,163 (6.7)	3,426 (1.9)	1,362 (0.8)	1,327 (0.7)
	4년제	76,825 (23.3)	68,219 (20.7)	157,721 (47.9)	20,707 (6.3)	1,966 (0.6)	2,705 (0.8)	1,317 (0.4)
	교육대	1,362 (31.3)	370 (8.5)	2,144 (49.2)	396 (9.1)	68 (1.6)	18 (0.4)	-
전공 계열	인문	5,460 (11.5)	12,664 (26.6)	26,302 (55.3)	2,403 (5.1)	143 (0.3)	418 (0.9)	142 (0.3)
	사회	38,209 (26.1)	33,921 (23.2)	58,817 (40.2)	10,781 (7.4)	2,141 (1.5)	1,888 (1.3)	700 (0.5)
	교육	7,656 (25.4)	3,875 (12.8)	15,632 (51.8)	2,499 (8.3)	291 (1.0)	213 (0.7)	12 (0.0)
	공학	41,577 (34.3)	23,514 (19.4)	45,981 (37.9)	7,582 (6.3)	1,159 (1.0)	591 (0.5)	878 (0.7)
	자연	9,651 (18.0)	11,979 (22.3)	28,182 (52.5)	2,881 (5.4)	480 (0.9)	258 (0.5)	239 (0.4)
	의약	25,657 (53.3)	5,194 (10.8)	11,281 (23.5)	4,839 (10.1)	638 (1.3)	283 (0.6)	213 (0.4)
	예체능	6,966 (10.2)	8,175 (12.0)	49,171 (72.2)	2,281 (3.3)	608 (0.9)	434 (0.6)	459 (0.7)
	기타	1,362 (31.3)	370 (8.5)	2,144 (49.2)	396 (9.1)	68 (1.6)	18 (0.4)	-
학교 소재 권역	서울권	19,954 (20.5)	19,402 (19.9)	51,177 (52.6)	4,869 (5.0)	450 (0.5)	1,057 (1.1)	409 (0.4)
	경기권	31,893 (24.4)	25,465 (19.5)	62,094 (47.5)	8,106 (6.2)	1,281 (1.0)	1,032 (0.8)	891 (0.7)
	충청권	22,281 (25.5)	17,492 (20.0)	39,334 (45.0)	5,931 (6.8)	1,062 (1.2)	894 (1.0)	478 (0.5)
	경상권	41,961 (30.7)	27,035 (19.8)	54,919 (40.2)	9,904 (7.3)	1,603 (1.2)	549 (0.4)	569 (0.4)
	전라권	19,086 (30.2)	9,928 (15.7)	27,842 (44.0)	4,456 (7.0)	1,063 (1.7)	554 (0.9)	298 (0.5)
	기타	1,362 (31.3)	370 (8.5)	2,144 (49.2)	396 (9.1)	68 (1.6)	18 (0.4)	-

2) 취업 및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

취업 및 경력개발과 관련된 프로그램 가운데 2015년 대졸자의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인·적성 검사 등 직업심리검사’(44.2%)로 나타났고, ‘취업, 진로에 관련 교과목’(41.0%), ‘면접기술이력서 작성 프로그램’(33.7%), ‘교내 취업 박람회’(28.1%)의 순이었다.

〈표 V-3〉 취업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 참여 경험

(단위: %)

		진로 취업 관련 교과목	직장체험 프로그램 (인턴 포함)	인·적성 검사 등 직업심리 검사	교내 취업 박람회	진로 관련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면접기술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취업캠프	기업 채용 설명회
전체		41.0	21.1	44.2	28.1	27.9	33.7	14.5	24.7
성	남성	39.9	20.0	41.7	31.7	26.6	31.8	15.4	28.5
	여성	42.1	22.2	46.5	24.8	29.2	35.4	13.7	21.2
학교 유형	2~3년제	38.3	22.5	41.2	24.1	28.7	36.7	15.3	18.2
	4년제	42.7	20.2	45.7	30.7	27.6	32.1	14.3	28.6
	교육대	34.5	31.5	51.5	3.8	23.0	25.2	1.6	2.3
전공 계열	인문	42.8	18.1	50.8	29.2	31.4	34.0	14.8	28.0
	사회	44.0	20.2	45.7	29.0	29.7	36.4	16.5	25.7
	교육	34.4	22.2	48.3	14.9	20.9	25.5	5.5	8.1
	공학	41.7	23.2	41.6	35.9	28.0	35.2	16.4	34.4
	자연	42.4	22.4	43.1	31.1	28.2	30.8	15.1	28.2
	의약	38.5	23.7	42.7	21.3	27.7	37.4	15.9	17.5
	예체능	35.8	18.6	40.8	20.1	24.7	28.1	9.3	12.7
학교 소재 권역	서울권	40.5	21.7	44.1	34.3	25.0	29.6	11.4	34.2
	경기권	42.9	23.4	42.8	26.0	30.1	36.0	14.6	23.3
	충청권	45.3	21.0	47.4	28.7	31.6	39.2	16.4	23.0
	경상권	38.7	19.4	42.0	27.5	25.6	32.1	15.3	22.9
	전라권	37.4	19.5	47.3	23.5	27.6	30.9	14.8	19.5

성별로 보면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여성의 참여율이 남성보다 높았고, 남성은 여성보다 ‘교내 취업박람회’(31.7%)와 ‘취업캠프’(15.4%), ‘기업채용설명회’(28.5%)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2~3년제에서는 ‘면접기술이력서 작성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다른 학교유형보다 높게 나타났고, 4년제에서는 ‘진로, 취업 관련 교과목’, ‘교내 취업박람회’, ‘기업 채용 설명회’ 등의 참여율이 높은 편이었다. 교육대는 ‘안·적성 검사 등 직업심리검사’의 참여율이 51.5%로 가장 높았다.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공학계열에서 ‘교내 취업박람회’(35.9%)와 ‘기업 채용설명회’(34.4%)의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예체능계열은 다른 계열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취업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저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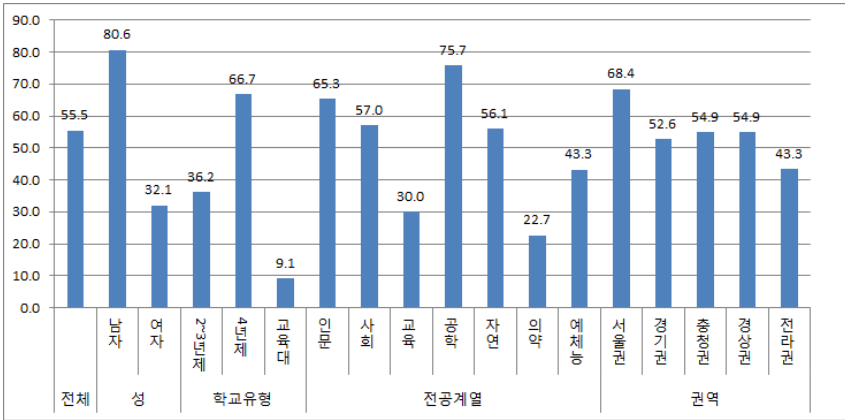
학교소재권역별로 살펴보면 충청권의 경우 대부분의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경상권과 전라권의 경우 대부분의 프로그램 참여율이 다른 권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3) 휴학 경험

2015년 대졸자 중 55.5%가 휴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휴학경험이 80.6%로 여성의 32.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의 휴학경험 질문이 군입대를 위한 휴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유형별로는 4년제가 66.7%로 2~3년제(36.2%), 교육대(9.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는 공학계열(75.7%)의 휴학 경험률이 다른 계열 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육계열(30.0%)과 의약계열(22.7%)의 휴학 경험률이 낮게 나타났다. 학교소재권역별 휴학경험을 살펴보면 서울권(68.4%)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라권 대학 졸업자들의 휴학경험(43.3%)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V-1] 휴학경험

(단위: %)



휴학이유에 대해서는 ‘군입대’가 47.8%로 가장 높고, ‘취업 및 취업준비’ 13.5%, ‘어학연수/해외여행’ 10.9%, ‘자격증 및 고시준비’ 8.4%, ‘경제적인 이유로’ 7.7%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군입대’(65.8%)가 가장 높았고, 여성은 ‘취업 및 취업준비’(24.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2~3년제는 ‘군입대’가 70.1%로 다른 학교유형보다 높았고, 4년제는 ‘취업 및 취업준비’(15.3%)와 ‘자격증 및 고시준비’(9.8%)가 타 유형 보다 비교적 높았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열에서 ‘어학연수/해외여행’(20.4%)의 응답비율이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계열의 경우 ‘취업 및 취업준비’(18.1%), ‘자격증 및 고시준비’(13.8%)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예체능계열은 ‘경제적인 이유로’(13.2%)의 응답비율이 다른 전공계열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교소재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권에서는 ‘취업 및 취업준비’, ‘어학연수/해외여행’, ‘자격증 및 고시준비’가 각각 15.5%, 15.4%, 14.5%로 다른 권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V-4> 휴학 이유

(단위: 명, %)

		어학연수/ 해외 여행	편입학 (및 재수) 준비	자격증 및 고시준비	군입대	대학원 (유학) 준비	취업 및 취업준비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상의 이유로	기타
전체		43,296 (10.9)	5,969 (1.5)	33,447 (8.4)	189,486 (47.8)	4,731 (1.2)	53,432 (13.5)	30,618 (7.7)	13,511 (3.4)	22,008 (5.6)
성	남성	17,402 (6.0)	2,640 (0.9)	17,300 (5.9)	189,128 (65.8)	2,468 (65.0)	27,130 (0.8)	18,258 (9.3)	6,805 (6.3)	9,795 (3.4)
	여성	25,894 (24.5)	3,329 (3.2)	16,146 (15.3)	358 (0.3)	2,264 (2.1)	26,302 (24.9)	12,360 (11.7)	6,705 (6.4)	12,213 (11.6)
학교 유형	2~3년제	2,449 (3.2)	868 (1.1)	2,244 (2.9)	54,449 (70.1)	359 (0.5)	4,703 (6.1)	6,809 (8.8)	2,605 (3.4)	3,135 (4.0)
	4년제	40,765 (12.8)	5,059 (1.6)	31,182 (9.8)	134,888 (42.4)	4,372 (1.4)	48,677 (15.3)	23,785 (7.5)	10,888 (3.4)	18,824 (5.9)
	교육대	82 (18.8)	42 (9.6)	21 (4.9)	149 (34.0)	-	51 (11.8)	24 (5.6)	18 (4.1)	50 (11.3)
전공 계열	인문	9,055 (20.4)	878 (2.0)	4,017 (9.0)	12,119 (27.3)	713 (1.6)	7,637 (17.2)	3,981 (9.0)	2,353 (5.3)	3,669 (8.3)
	사회	14,047 (11.2)	1,778 (1.4)	17,430 (13.8)	50,419 (40.1)	1,031 (0.8)	22,781 (18.1)	8,940 (7.1)	3,329 (2.6)	6,109 (4.9)
	교육	1,336 (12.0)	151 (1.4)	857 (7.7)	4,674 (42.1)	188 (1.7)	1,443 (13.0)	1,129 (10.2)	456 (4.1)	866 (7.8)
	공학	9,178 (7.4)	1,185 (1.0)	5,816 (4.7)	79,504 (64.1)	1,249 (1.0)	11,553 (9.3)	7,730 (6.2)	2,983 (2.4)	4,901 (3.9)
	자연	4,408 (11.2)	872 (2.2)	3,507 (8.9)	18,682 (47.4)	904 (2.3)	4,884 (12.4)	2,712 (6.9)	1,065 (2.7)	2,359 (6.0)
	의약	1,307 (9.9)	166 (1.3)	713 (5.4)	7,385 (55.9)	164 (1.2)	666 (5.0)	1,039 (7.9)	1,052 (8.0)	709 (5.4)
	예체능	3,965 (10.3)	939 (2.4)	1,108 (2.9)	16,703 (43.5)	482 (1.3)	4,469 (11.6)	5,087 (13.2)	2,274 (5.9)	3,396 (8.8)
학교 소재 권역	서울권	15,429 (15.4)	1,550 (1.5)	14,529 (14.5)	34,103 (34.0)	1,717 (1.7)	15,552 (15.5)	7,015 (7.0)	3,236 (3.2)	7,099 (7.1)
	경기권	8,245 (9.0)	2,107 (2.3)	5,812 (6.3)	47,349 (51.5)	745 (0.8)	10,676 (11.6)	8,974 (9.8)	3,559 (3.9)	4,460 (4.9)
	충청권	6,394 (10.1)	689 (1.1)	3,139 (5.0)	34,648 (54.8)	741 (1.2)	7,544 (11.9)	4,255 (6.7)	2,078 (3.3)	3,729 (5.9)
	경상권	9,997 (9.6)	1,289 (1.2)	7,497 (7.2)	53,710 (51.8)	1,183 (1.1)	14,177 (13.7)	7,593 (7.3)	3,260 (3.1)	5,006 (4.8)
	전라권	3,231 (8.6)	333 (0.9)	2,469 (6.6)	19,675 (52.6)	346 (0.9)	5,483 (14.7)	2,781 (7.4)	1,378 (3.7)	1,715 (4.6)

주: 휴학경험 최대 5회까지 응답값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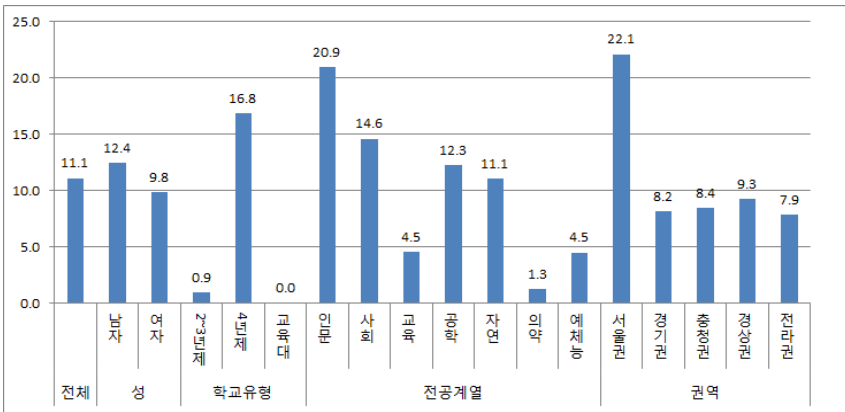
4) 졸업유예 경험

기존에는 휴학과 졸업유예경험을 동시에 질문하였지만, 졸업유예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분석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4년 대졸자에 대한 조사부터 휴학경험과 졸업유예 경험을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아래의 [그림 V-2]는 졸업유예를 경험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2015년 대졸자 중 졸업유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1%였다. 남성이 12.4%, 여성이 9.8%로 남성의 경험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졸업유예는 대부분 4년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인문계열과 서울권 대학 대졸자의 졸업유예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2] 졸업유예 경험

(단위: %)



졸업유예의 이유는 ‘일자리 지원 기회를 더욱 갖기 위해서’(37.3%), ‘취업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서’(27.0%), ‘스펙을 쌓기 위해서’(16.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보다 스펙을 쌓기 위해서(18.2%)와 ‘취업 및 진로 목표 미설정’(23.8%)의 이유로 졸업을 유예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금 더 높았고, 여성은 남성보다 ‘취업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서’(31.2%)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학교유형별로는 4년제 졸업자가 ‘일자리 지원 기회를 더욱 갖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7.7%로 2~3년제 졸업자 보다 높았다.

<표 V-5> 졸업유예 이유

(단위: 명, %)

		일자리 지원 기회를 더욱 갖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취업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서	취업 및 진로목표 미설정	군입대를 미루기 위해서	기타
전체		22,849 (37.3)	9,845 (16.1)	16,550 (27.0)	8,646 (14.1)	308 (0.5)	3,056 (5.0)
성	남성	12,768 (38.5)	6,039 (18.2)	7,772 (23.4)	4,539 (23.8)	308 (13.7)	1,728 (0.9)
	여성	10,081 (35.9)	3,807 (13.5)	8,778 (31.2)	4,107 (14.6)	-	1,328 (4.7)
학교 유형	2~3년제	238 (17.7)	325 (24.1)	319 (23.7)	325 (24.2)	-	138 (10.2)
	4년제	22,610 (37.7)	9,521 (15.9)	16,230 (27.1)	8,320 (13.9)	308 (0.5)	2,918 (4.9)
	교육대	-	-	-	-	-	-
전공 계열	인문	3,871 (37.9)	1,273 (12.5)	2,714 (26.6)	1,757 (17.2)	110 (1.1)	494 (4.8)
	사회	9,009 (37.5)	3,603 (15.0)	6,872 (28.6)	3,480 (14.5)	102 (0.4)	977 (4.1)
	교육	328 (22.8)	147 (10.2)	573 (39.8)	163 (11.3)	-	229 (15.9)
	공학	6,307 (40.5)	2,799 (18.0)	3,835 (24.6)	1,855 (11.9)	12 (0.1)	777 (5.0)
	자연	2,128 (34.4)	1,262 (20.4)	1,705 (27.6)	760 (12.3)	48 (0.8)	281 (4.5)
	의약	125 (22.9)	86 (15.8)	201 (37.0)	132 (24.3)	-	-
	예체능	1,082 (33.4)	677 (20.9)	649 (20.0)	498 (15.4)	37 (1.1)	296 (9.2)
	미분류	1,082 (33.4)	677 (20.9)	649 (20.0)	498 (15.4)	37 (1.1)	296 (9.2)
학교 소재 권역	서울권	9,470 (39.3)	3,451 (14.3)	6,609 (27.4)	3,214 (13.3)	54 (0.2)	1,307 (5.4)
	경기권	4,149 (36.5)	1,750 (15.4)	3,134 (27.6)	1,665 (14.6)	66 (0.6)	604 (5.3)
	충청권	2,522 (32.3)	1,603 (20.6)	1,859 (23.8)	1,104 (14.2)	109 (1.4)	600 (7.7)
	경상권	4,752 (38.3)	1,960 (15.8)	3,346 (27.0)	1,960 (15.8)	79 (0.6)	313 (2.5)
	전라권	1,956 (35.1)	1,083 (19.4)	1,602 (28.7)	702 (12.6)	-	232 (4.2)
	미분류	1,082 (33.4)	677 (20.9)	649 (20.0)	498 (15.4)	37 (1.1)	296 (9.2)

주: 졸업유예경험 최대 3회까지 응답값 포함

5) 대학교육 만족도

대학교육과 관련한 만족도는 ‘전공 교수진의 능력 및 열의’(3.46점)가 가장 높고, ‘진로관련 상담 및 지원제도’(3.22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대학교육 만족도는 거의 유사했지만 남성의 만족도가 여성보다 모든 항목에서 근소하게 높았다. 학교유형별로는 2~3년제와 4년제에서 ‘전공 교수진의 능력 및 열의’가 각각 3.41점, 3.49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대에서는 ‘학생지원제도’의 만족도(3.79점)가 높았다.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교육계열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예체능계열은 만족도가 다른 계열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진로관련 상담 및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3.05점의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V-6〉 대학교육 만족도

(단위: 점)

		교육 지원 시설	학생 복지 시설	학생 지원 제도	진로 관련 상담 및 지원 제도	전공 커리큘럼 및 내용	전공 교수진의 능력 및 열의	수업의 방식 및 질
전체		3.38	3.27	3.39	3.22	3.34	3.46	3.37
성	남성	3.42	3.31	3.42	3.27	3.35	3.49	3.38
	여성	3.35	3.23	3.35	3.18	3.33	3.44	3.36
학교유형	2~3년제	3.30	3.17	3.33	3.22	3.27	3.41	3.32
	4년제	3.43	3.31	3.41	3.22	3.38	3.49	3.40
	교육대	3.71	3.51	3.79	3.50	3.54	3.60	3.53
전공계열	인문	3.35	3.23	3.37	3.13	3.30	3.47	3.35
	사회	3.38	3.28	3.40	3.25	3.30	3.43	3.34
	교육	3.55	3.40	3.49	3.36	3.56	3.66	3.57
	공학	3.44	3.31	3.45	3.28	3.37	3.51	3.40
	자연	3.44	3.36	3.46	3.28	3.39	3.52	3.44
	의약	3.34	3.16	3.31	3.18	3.43	3.49	3.39
	예체능	3.25	3.11	3.21	3.05	3.21	3.32	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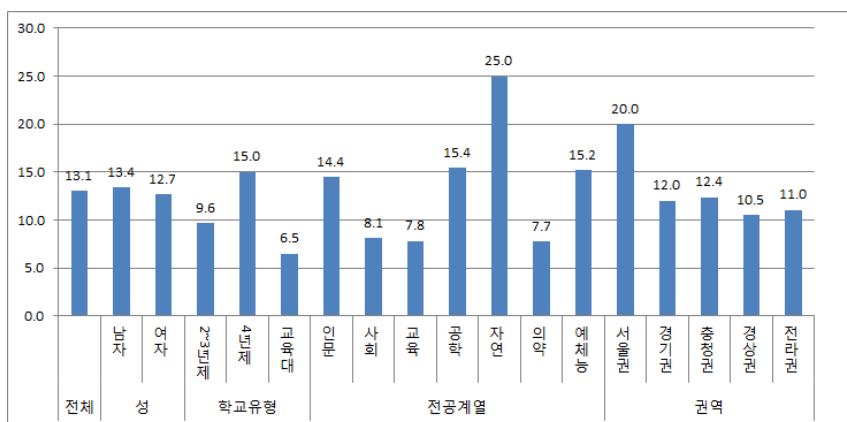
2. 현재 재학 중인 학교

2015년 대졸자의 경우 졸업 후 다른 대학이나 대학원 등으로 진학한 비율이 13.1%로 나타났다.

성별 진학률은 남성 13.4%, 여성 12.7%로 남성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2~3년제 9.6%, 4년제 15.0%, 교육대 6.5%로 4년제 대졸자의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는 자연계열의 진학률이 25.0%로 가장 높았고, 의약계열의 진학률이 7.7%로 가장 낮았다. 학교소재권별로는 서울권 졸업자의 진학률이 20.0%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림 V-3] 대학(원) 추가진학 여부

(단위: %)



대학(원) 진학의 주된 이유는 ‘전공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가 5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원)을 졸업한 후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19.2%, ‘전공 영역을 바꾸어 계속 공부’ 13.2%, ‘학력 상승’ 8.0%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전공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59.6%)의 응답비율이 높았고, 여성의 경우 ‘전공 영역을 바꾸어 계속 공부’(15.0%)와 ‘학력 상승’(11.3%)의 응답비율이 남성보다 비교적 높았다. 학교유형별로는 교육대의 경우 ‘전공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상급학교에 진학했다는 비율이 87.8%로 가장 높았고, 2~3년제의 경우 ‘학력 상승’(22.9%)이 다른 학교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4년제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8%로 비교적 높았다.

전공계열별 특성을 살펴보면 인문계열은 ‘전공 영역을 바꾸어 계속 공부’(17.6%)의 비율이 타 계열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학계열에서 ‘전공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58.8%)의 응답비율이 다른 계열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의 응답비율이 각각 22.1%로 다른 전공계열보다 높게 나타났고, 의약계열에서는 ‘주변의 권유’의 응답비율이 3.6%로 다른 전공계열보다 높았다.

학교소재권역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권과 경기권은 ‘전공 영역을 바꾸어 계속 공부’의 응답비율이 각각 14.8%로 높았고, 전라권의 경우 ‘학력 상승’의 응답 비율이 13.0%로 다른 권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경상권은 ‘전공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56.3%)의 응답 비율이 다른 권역에 비해 높았다.

<표 V-7> 대학(원) 진학의 주된 이유

(단위: 명, %)

		전공 공부를 계속 하기 위해	전공 영역을 바꾸어 계속 공부	학력 상승	사회적 평판이 좋은 대학(원)에 가기 위해	졸업 당시의 취업난 때문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주변의 권유	기타
전체		35,888 (53.1)	8,899 (13.2)	5,388 (8.0)	1,089 (1.6)	1,596 (2.4)	12,971 (19.2)	1,075 (1.6)	721 (1.1)
성	남성	20,023 (59.6)	3,803 (11.3)	1,527 (4.5)	565 (1.7)	689 (2.1)	5,948 (17.7)	651 (1.9)	405 (1.2)
	여성	15,865 (46.6)	5,096 (15.0)	3,861 (11.3)	524 (1.5)	907 (2.7)	7,024 (20.6)	424 (1.2)	316 (0.9)
학교 유형	2~3년제	6,929 (39.3)	2,722 (15.4)	4,045 (22.9)	476 (2.7)	421 (2.4)	2,651 (15.0)	265 (1.5)	122 (0.7)
	4년제	28,721 (57.8)	6,154 (12.4)	1,343 (2.7)	613 (1.2)	1,176 (2.4)	10,320 (20.8)	799 (1.6)	599 (1.2)
	교육대	238 (87.8)	23 (8.4)	-	-	-	-	10 (3.8)	-
전공 계열	인문	3,470 (50.6)	1,206 (17.6)	502 (7.3)	71 (1.0)	223 (3.2)	1,115 (16.3)	151 (2.2)	122 (1.8)
	사회	5,017 (41.9)	1,820 (15.2)	1,475 (12.3)	392 (3.3)	454 (3.8)	2,459 (20.5)	175 (1.5)	184 (1.5)
	교육	1,217 (51.9)	368 (15.7)	122 (5.2)	32 (1.4)	72 (3.1)	488 (20.8)	10 (0.4)	36 (1.5)
	공학	11,108 (58.8)	2,068 (11.0)	851 (4.5)	147 (0.8)	538 (2.8)	3,766 (20.0)	254 (1.3)	143 (0.8)
	자연	7,527 (55.9)	1,772 (13.2)	682 (5.1)	102 (0.8)	211 (1.6)	2,978 (22.1)	137 (1.0)	51 (0.4)
	의약	2,010 (54.0)	417 (11.2)	421 (11.3)	108 (2.9)	19 (0.5)	574 (15.4)	134 (3.6)	35 (0.9)
	예체능	5,541 (53.3)	1,248 (12.0)	1,334 (12.8)	237 (2.3)	80 (0.8)	1,591 (15.3)	213 (2.0)	150 (1.4)
학교 소재 권역	서울권	10,560 (53.8)	2,913 (14.8)	1,074 (5.5)	249 (1.3)	520 (2.7)	3,852 (19.6)	196 (1.0)	259 (1.3)
	경기권	7,690 (49.0)	2,327 (14.8)	1,813 (11.6)	515 (3.3)	93 (0.6)	2,874 (18.3)	236 (1.5)	134 (0.9)
	충청권	5,822 (53.8)	1,357 (12.5)	688 (6.4)	102 (0.9)	403 (3.7)	2,051 (19.0)	196 (1.8)	194 (1.8)
	경상권	8,155 (56.3)	1,469 (10.2)	901 (6.2)	135 (0.9)	433 (3.0)	3,061 (21.2)	235 (1.6)	83 (0.6)
	전라권	3,662 (52.0)	832 (11.8)	912 (13.0)	88 (1.2)	146 (2.1)	1,132 (16.1)	212 (3.0)	51 (0.7)

주: 졸업 후 진학(대학/대학원) 경험 최대 2회까지 응답값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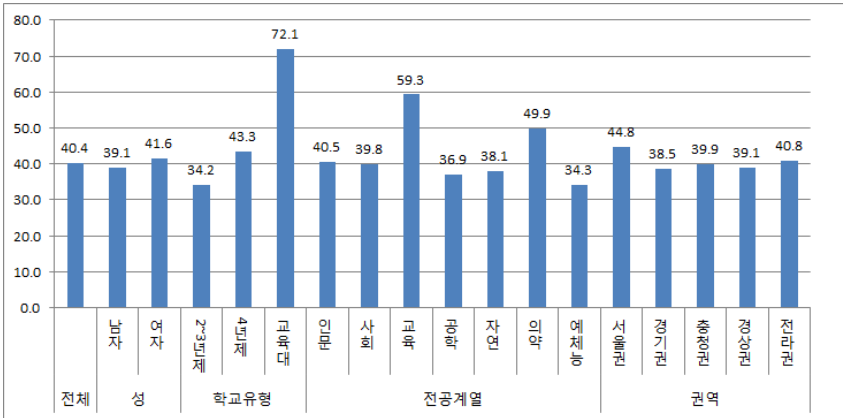
3. 졸업 전 취업목표

졸업 전 취업목표란 대학을 졸업하기 이전에 희망한 미래의 일자리 또는 직업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단순히 희망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목표에 대해 정보탐색 이상의 노력을 기울인 경우로 제한하였다.

2015년 대졸자 중 40.4%가 졸업 이전에 취업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졸업 전에 취업목표를 설정했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이 41.6%로 남성(39.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2~3년제의 취업목표 설정비율이 34.2%로 가장 낮았고, 4년제가 43.3%, 교육대가 72.1%였다. 전공계열별로는 교육계열과 의약계열이 각각 59.3%, 49.9%로 다른 전공계열보다 졸업 전 취업목표 설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V-4] 취업목표 설정 여부

(단위: 명, %)



1) 취업 희망 사업체 유형

2015년 대졸자들이 졸업 전 취업을 희망했던 사업체 유형은 내국인이 운영하는 민간회사가 54.0%로 가장 많고, 정부기관 12.1%, 교육기관 9.2%, 법인단체 7.0%의 순이었다.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 보면 남성의 경우 민간회사(55.9%)와 정부기관(13.4%), 공기업(7.0%)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교육기관(11.5%)과 법인단체(8.9%)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2~3년제는 민간회사와 법인단체의 응답 비율이 각각 65.4%, 9.5%로 4년제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4년제는 2~3년제와 마찬가지로 민간회사가 5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기관(14.3%)과 교육기관(9.2%), 공기업(7.3%)의 비율이 2~3년제 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육대의 경우 교육기관의 비율이 95.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공학계열에서 민간회사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문계열은 외국인 회사(7.8%)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전공계열보다 높게 나타났고, 사회계열은 정부기관의 희망 비율이 21.5%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계열의 경우 교육기관을 희망한 비율이 64.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V-8> 취업을 희망하는 사업체 유형 분포

(단위: 명, %)

		민간 회사	외국인 회사	공기업	법인 단체	정부 기관	교육 기관	연구 기관	프리 랜서	기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음
전체		112,355 (54.0)	8,283 (4.0)	12,094 (5.8)	14,509 (7.0)	25,073 (12.1)	19,157 (9.2)	4,247 (2.0)	4,326 (2.1)	263 (0.1)	7,671 (3.7)
성	남성	54,182 (55.9)	4,198 (4.3)	6,816 (7.0)	4,577 (4.7)	12,992 (13.4)	6,386 (6.6)	2,356 (2.4)	2,053 (2.1)	89 (0.1)	3,354 (3.5)
	여성	58,174 (52.4)	4,084 (3.7)	5,278 (4.8)	9,932 (8.9)	12,081 (10.9)	12,770 (11.5)	1,891 (1.7)	2,273 (2.0)	174 (0.2)	4,317 (3.9)
학 교 유 형	2-3년제	40,647 (65.4)	1,511 (2.4)	1,707 (2.7)	5,892 (9.5)	4,610 (7.4)	2,987 (4.8)	442 (0.7)	1,694 (2.7)	111 (0.2)	2,551 (4.1)
	4년제	71,674 (50.2)	6,771 (4.7)	10,370 (7.3)	8,618 (6.0)	20,377 (14.3)	13,167 (9.2)	3,805 (2.7)	2,632 (1.8)	151 (0.1)	5,120 (3.6)
	교육대	35 (1.1)	-	18 (0.6)	-	85 (2.7)	3,003 (95.6)	-	-	-	-
전 공 계 열	인문	9,479 (49.3)	1,497 (7.8)	1,171 (6.1)	1,046 (5.4)	2,653 (13.8)	1,630 (8.5)	358 (1.9)	408 (2.1)	37 (0.2)	946 (4.9)
	사회	29,493 (50.6)	2,272 (3.9)	3,969 (6.8)	5,475 (9.4)	12,553 (21.5)	1,365 (2.3)	229 (0.4)	1,046 (1.8)	102 (0.2)	1,805 (3.1)
	교육	3,699 (20.7)	33 (0.2)	308 (1.7)	856 (4.8)	890 (5.0)	11,583 (64.7)	133 (0.7)	78 (0.4)	-	312 (1.7)
	공학	30,006 (67.0)	2,575 (5.7)	3,697 (8.3)	592 (1.3)	3,397 (7.6)	506 (1.1)	1,708 (3.8)	431 (1.0)	-	1,882 (4.2)
	자연	11,413 (55.8)	765 (3.7)	1,501 (7.3)	708 (3.5)	2,240 (10.9)	1,193 (5.8)	1,365 (6.7)	463 (2.3)	-	807 (3.9)
	의약	13,304 (55.5)	424 (1.8)	985 (4.1)	5,167 (21.6)	1,912 (8.0)	830 (3.5)	380 (1.6)	207 (0.9)	67 (0.3)	697 (2.9)
	예체능	14,960 (64.1)	716 (3.1)	463 (2.0)	665 (2.9)	1,428 (6.1)	2,049 (8.8)	75 (0.3)	1,693 (7.3)	57 (0.2)	1,221 (5.2)

2) 의중임금

2015년 대졸자가 대학 졸업 직전 취업을 통해 최소한 받아들일 수 있는 연간 소득(의중임금)은 약 2,560만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2,744만원, 여성 2,388만원으로 남성의 의중임금이 여성에 비해 356만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4년제가 2,707만원으

로 가장 높았고, 교육대 2,536만원, 2~3년제가 2,293만원이었다. 전공계열별로는 공학계열(2,801만원)의 의중임금이 다른 전공계열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예체능계열(2,297만원)은 다른 전공계열보다 의중임금이 낮았다.

〈표 V -9〉 의중임금(연봉)

(단위: 만원)

		2015 GOMS	2014 GOMS	2013 GOMS	2012 GOMS	2011 GOMS
전체		2,560	2,513	2,430	2,727	2,702
성	남성	2,744	2,726	2,624	2,851	2,944
	여성	2,388	2,318	2,249	2,609	2,474
대학 유형	2~3년제	2,293	2,239	2,186	2,580	2,429
	4년제	2,707	2,676	2,577	2,818	2,879
	교육대	2,536	2,472	2,407	2,599	2,684
전공 계열	인문	2,463	2,452	2,428	2,682	2,632
	사회	2,515	2,472	2,422	2,726	2,694
	교육	2,369	2,347	2,278	2,591	2,520
	공학	2,801	2,741	2,658	2,831	2,902
	자연	2,595	2,539	2,424	2,716	2,701
	의약	2,638	2,579	2,398	2,691	2,796
	예체능	2,297	2,249	2,134	2,663	2,448

4.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1) 교육 및 훈련 경험 여부

2015년 대졸자 중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³⁾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13.0%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경험률이 13.8%로 미취업자(10.8%)보다 높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13.5%)과 여성(12.6%)의 경험률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취업상태를 반영한 성별 결과도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학교유형별로

3) 직업과 관련된 교육 또는 훈련은 취업, 창업 또는 직장에서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말함. 직장연수, 학원수강 등이 포함되며, 통신강좌와 교양강좌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것이라면 포함됨. 하지만, 꽃꽂이, 노래교실 등 단순한 취미 활동은 제외되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과 학점 인정되는 교과목, 정규학교교육의 학업과 관련한 학원수강 및 과외, 고시, 공무원, 공사(공단) 등의 시험준비와 인턴경험 또한 제외함.

살펴보면, 2~3년제 10.9%, 4년제 14.0%, 교육대 31.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모든 학교유형에서 취업자의 경험률이 미취업자보다 높게 나타나며 그 차이도 2~3년제<4년제<교육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교육계열(18.0%)과 공학계열(15.7%), 인문계열(13.4%)의 교육 및 훈련 참여율이 다른 계열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체능계열의 참여율은 9.3%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 V-10> 교육 및 훈련 경험률

(단위: 명, %)

구분		전체	취업자	미취업자
전체		13.0	13.8	10.8
성	남성	13.5	14.3	11.3
	여성	12.6	13.4	10.4
학교유형	2~3년제	10.9	11.0	10.7
	4년제	14.0	15.2	10.8
	교육대	31.3	32.4	22.0
전공계열	인문	13.4	13.6	13.1
	사회	12.6	13.0	11.6
	교육	18.0	19.8	11.9
	공학	15.7	16.5	13.0
	자연	10.5	12.2	7.1
	의약	12.3	13.2	7.1
	예체능	9.3	9.5	8.6

2) 교육 및 훈련 경험 횟수

2015년 대졸자 중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경험자들이 교육 및 훈련을 받은 횟수는 평균 1.60회이다.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비교하여 보면 취업자 1.70회, 미취업자 1.27회로 취업자의 경험 횟수가 더 많았으며, 이러한 취업자와 미취업자간 평균 경험 횟수의 차이는 평균 0.43회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1.69회로 남성(1.52)보다 더 많은 훈련을 받았다. 또한 취업자와 미취업자 모두 여성의 교육 및 훈련 참여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학교 유형별로는 교육대의 교육 및 훈련의 경험 횟수가 4.49회로 가장

많았고, 4년제가 1.54회로 가장 적었다.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교육계열 졸업자의 교육 및 훈련 경험 횟수가 2.69회로 가장 많고, 예체능계열의 경험횟수가 1.28회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약계열은 취업자(1.98회)에 비해 미취업자(2.52회)의 교육 및 훈련 경험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 교육 및 훈련 경험 횟수

(단위: 회)

구분		전체	취업자	미취업자
전체		1.60	1.70	1.27
성	남성	1.52	1.61	1.19
	여성	1.69	1.78	1.34
학교유형	2~3년제	1.56	1.65	1.28
	4년제	1.54	1.61	1.24
	교육대	4.49	4.58	3.36
전공계열	인문	1.41	1.54	1.10
	사회	1.66	1.79	1.27
	교육	2.69	2.89	1.52
	공학	1.31	1.34	1.20
	자연	1.51	1.60	1.21
	의약	2.03	1.98	2.52
	예체능	1.28	1.33	1.15

3) 교육 및 훈련 분야

2015년 대졸자는 컴퓨터분야(15.7%)의 교육 및 훈련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법률·사회복지분야(12.7%), 경영·사무분야(11.6%), 보건·의료 분야(10.6%), 서비스분야(7.8%)의 순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교육 및 훈련에 가장 많이 참여한 분야는 컴퓨터분야(18.9%)였고, 다음으로 경영·사무분야(11.9%), 기계분야(9.7%), 서비스분야(5.8%)의 순이었다. 여성은 교육·법률·사회복지분야의 참여 비율이 18.6%로 가장 높았고 보건·의료분야(15.0%), 컴퓨터분야(12.5%), 경영·사무분야(11.3%),

서비스분야(9.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남성은 기계분야와 컴퓨터분야, 건설 분야, 전자분야의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성은 교육법률·사회복지 분야, 보건·의료분야, 서비스분야의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V-12> 성 및 학교유형별 교육·훈련 분야

(단위: %)

구분	전체	성		학교유형		
		남성	여성	2~3년제	4년제	교육대
농·림·어업분야	0.6	0.7	0.5	0.4	0.8	-
식품분야	2.7	1.9	3.4	3.8	2.3	-
섬유·의복분야	0.7	0.5	0.9	0.9	0.7	-
화학분야	1.6	2.2	1.1	1.4	1.8	-
금속·비금속분야	0.9	1.5	0.3	1.5	0.7	-
기계분야	5.3	9.7	1.0	6.9	4.7	-
건설분야	3.3	5.3	1.4	2.4	3.8	-
전기분야	2.0	3.7	0.3	1.7	2.2	-
전자분야	2.7	4.6	0.9	2.0	3.1	-
컴퓨터분야	15.7	18.9	12.5	14.0	16.9	2.2
인쇄·출판·디자인분야	2.1	1.0	3.2	2.5	2.0	-
목재·펄프·가구공예분야	0.1	0.1	0.2	0.3	0.1	-
서비스분야	7.8	5.8	9.7	11.9	6.2	3.0
경영·사무분야	11.6	11.9	11.3	6.2	14.4	0.4
금융·보험분야	2.3	2.8	1.9	1.3	2.9	-
보건·의료분야	10.6	5.9	15.0	16.6	8.1	2.5
환경·비파괴·안전분야	1.5	1.9	1.2	1.0	1.8	0.8
교육·법률·사회복지분야	12.7	6.6	18.6	10.9	10.6	86.2
판매·영업분야	1.9	2.8	1.1	1.5	2.2	-
운전분야	0.2	0.4	0.1	0.5	0.1	-
계층별교육분야	3.0	3.1	2.9	3.1	3.0	2.3
어학분야	3.3	2.1	4.3	2.3	3.8	1.0
문화·예술분야	3.4	2.2	4.5	3.6	3.4	1.2
기타	4.0	4.5	3.5	3.3	4.4	0.4

주: 교육·훈련 경험 최대 3회까지 응답값 포함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2~3년제의 경우 보건·의료분야(16.6%), 컴퓨터분야(14.0%), 서비스 분야(11.9%), 교육법률·사회복지분야(10.9%)의 비율이 높았다. 4년제의 경우는 컴퓨터분야(16.9%), 경영·사무분야(14.4%), 교육법률·사회복지분

야(10.6%), 보건·의료분야(8.1%)의 순이었다. 교육대의 경우는 학교 특성에 맞게 교육·법률·사회복지분야(86.2%)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열의 경우 어학분야(6.1%), 사회계열의 경우 경영·사무분야(25.5%)가 다른 계열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육계열은 교육·법률·사회복지분야(69.3%)의 비율이 높았고, 공학계열은 컴퓨터분야(31.4%), 기계분야(16.2%), 건설분야(10.5%) 등 공학 관련 분야의 비율이 높았다. 자연계열은 식품분야(19.9%)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고, 의약계열은 보건·의료분야(81.9%), 예체능계열은 인쇄·출판·디자인분야(16.9%)와 문화·예술분야(27.2%)의 참여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표 V-13> 전공계열별 교육 및 훈련 분야

(단위: %)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농·림·어업분야	0.2	-	0.3	0.1	6.4	0.6	-
식품분야	1.6	2.5	0.2	0.6	19.9	-	0.9
섬유·의복분야	0.6	0.6	-	0.1	2.0	-	3.6
화학분야	0.5	0.2	0.8	3.9	5.4	-	-
금속비금속분야	1.1	0.4	-	1.8	0.9	0.5	1.3
기계분야	1.0	1.6	0.6	16.2	1.6	0.6	2.0
건설분야	0.7	1.2	-	10.5	1.3	-	-
전기분야	2.1	0.3	-	5.5	0.8	0.2	1.8
전자분야	1.0	0.8	-	8.3	1.4	0.2	-
컴퓨터분야	13.5	11.9	3.4	31.4	13.3	1.8	13.7
인쇄·출판·디자인분야	3.6	0.6	-	0.7	0.3	-	16.9
목재·펄프·가구 공예분야	-	0.2	-	-	-	-	1.1
서비스분야	16.8	11.2	8.4	2.3	9.8	3.6	6.8
경영·사무분야	21.8	25.5	1.9	3.6	7.2	2.4	4.5
금융·보험분야	1.7	5.7	0.3	0.3	3.2	-	2.2
보건·의료분야	4.2	3.5	3.4	1.7	3.9	81.9	0.7
환경·비파괴·안전분야	0.3	0.5	0.8	2.3	4.5	3.2	-
교육·법률·사회복지분야	8.6	14.4	69.3	0.6	3.6	1.2	5.9
판매·영업분야	2.9	3.4	0.4	1.2	1.4	-	2.6
운전분야	-	0.1	0.3	0.6	0.2	-	-
계층별교육분야	1.7	2.5	7.0	3.0	1.7	1.0	4.4
어학분야	6.1	4.8	1.5	2.4	3.9	1.4	1.3
문화·예술분야	3.8	1.5	0.6	0.3	2.1	-	27.2
기타	6.4	6.4	0.9	2.6	5.0	1.4	3.1

주: 교육·훈련 경험 최대 3회까지 응답값 포함

4) 교육 및 훈련의 목적

2015년도 대졸자의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의 주된 목적은 ‘더 나은 업무 수행을 위해서’가 42.5%로 가장 많았고, ‘취업을 위해’ 36.8%, ‘자기발전을 위한 일반적 목적으로’ 8.5%의 순이었다.

<표 V-14>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목적 분포

(단위: 명, %)

		더 나은 업무 수행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이나 다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인사 고과에 도움이 되어서	훈련비가 무료이고 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자기 발전을 위한 일반적인 목적으로	언젠가는 활용할수 있어서	기타
전체		37,913 (42.5)	32,799 (36.8)	4,891 (5.5)	627 (0.7)	1,697 (1.9)	7,622 (8.5)	2,503 (2.8)	1,110 (1.2)
성	남성	19,128 (43.8)	15,476 (35.5)	2,868 (6.6)	266 (0.6)	765 (1.8)	3,395 (7.8)	1,028 (2.4)	700 (1.6)
	여성	18,786 (41.3)	17,323 (38.0)	2,023 (4.4)	361 (0.8)	932 (2.0)	4,227 (9.3)	1,475 (3.2)	410 (0.9)
학 교 유 형	2~3년제	10,214 (38.0)	10,663 (39.7)	1,564 (5.8)	65 (0.2)	498 (1.9)	2,681 (10.0)	808 (3.0)	355 (1.3)
	4년제	25,710 (42.9)	22,058 (36.8)	3,317 (5.5)	537 (0.9)	1,153 (1.9)	4,791 (8.0)	1,578 (2.6)	745 (1.2)
	교육대	1,990 (82.0)	77 (3.2)	10 (0.4)	25 (1.0)	46 (1.9)	150 (6.2)	117 (4.8)	10 (0.4)
전 공 계 열	인문	2,495 (32.9)	3,756 (49.6)	328 (4.3)	63 (0.8)	125 (1.7)	460 (6.1)	275 (3.6)	76 (1.0)
	사회	10,436 (40.3)	9,970 (38.5)	1,672 (6.5)	248 (1.0)	532 (2.1)	1,944 (7.5)	805 (3.1)	276 (1.1)
	교육	5,386 (61.5)	1,576 (18.0)	75 (0.9)	102 (1.2)	211 (2.4)	858 (9.8)	494 (5.6)	51 (0.6)
	공학	9,477 (40.2)	9,627 (40.8)	1,357 (5.8)	126 (0.5)	376 (1.6)	1,889 (8.0)	510 (2.2)	234 (1.0)
	자연	2,980 (41.9)	2,841 (40.0)	487 (6.9)	-	71 (1.0)	636 (8.9)	77 (1.1)	16 (0.2)
	의약	5,511 (63.2)	1,247 (14.3)	444 (5.1)	88 (1.0)	229 (2.6)	921 (10.6)	176 (2.0)	110 (1.3)
	예체능	1,628 (21.7)	3,781 (50.3)	527 (7.0)	-	152 (2.0)	915 (12.2)	166 (2.2)	346 (4.6)

주: 교육·훈련 경험 최대 3회까지 응답값 포함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교육 및 훈련의 목적으로 ‘더 나은 업무수행을 위해서’와 ‘더 좋은 직장이나 다른 직업을 갖기 위해서’에 응답한 비율이 여성에 비해서 높았으며, 그 외 항목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2~3년제의 경우 ‘더 나은 업무수행을 위해서’와 ‘인사 고과에 도움이 되어서’의 응답비율이 4년제 대졸자에 비해 높은 반면, 나머지 항목은 4년제 대졸자가 2~3년제 대졸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육대의 경우 ‘더 나은 업무 수행을 위해서’의 응답비율이 82.0%로 매우 높았다. 전공계열별로는 교육계열(61.5%)과 의약계열(63.2%)에서 ‘더 나은 업무 수행을 위해’의 비율이 다른 계열 보다 높았다. 예체능계열(50.3%)과 인문계열(49.6%)에서는 ‘취업을 위해서’ 교육 및 훈련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 교육 및 훈련의 도움정도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의 도움정도에서 ‘대체로 도움이 됨’ 45.0%, ‘매우 도움이 됨’이 21.7%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학교유형별로 보면 교육대에서의 ‘대체로 도움이 됨’과 ‘매우 도움이 됨’의 합이 8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3년제와 4년제의 경우도 도움이 되었다(대체로 도움이 됨+매우 도움이 됨)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1.6%, 68.4%로 높게 나타났다.

전공계열로는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교육, 자연, 의약계열 전공 대졸자들에서 각각 71.5%, 70.3%, 70.2%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예체능계열은 ‘전혀 도움이 안됨’과 ‘별로 도움이 안됨’의 합이 15.5%로,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V-15〉 교육 및 훈련의 도움정도

(단위: 명, %)

		전혀 도움이 안됨	별로 도움이 안됨	보통	대체로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1,706 (1.9)	7,617 (8.5)	20,448 (22.9)	40,129 (45.0)	19,337 (21.7)
성	남성	844 (1.9)	3,353 (7.7)	9,583 (22.0)	19,829 (45.5)	10,017 (23.0)
	여성	862 (1.9)	4,264 (9.3)	10,865 (23.8)	20,300 (44.5)	9,320 (20.4)
학교 유형	2~3년제	394 (1.5)	2,931 (10.9)	7,014 (26.1)	10,644 (39.6)	5,923 (22.0)
	4년제	1,305 (2.2)	4,627 (7.7)	13,035 (21.8)	28,075 (46.9)	12,863 (21.5)
	교육대	7 (0.3)	59 (2.4)	399 (16.5)	1,410 (58.1)	551 (22.7)
전공 계열	인문	302 (4.0)	730 (9.6)	1,777 (23.5)	3,011 (39.7)	1,758 (23.2)
	사회	412 (1.6)	2,114 (8.2)	6,575 (25.4)	11,656 (45.0)	5,128 (19.8)
	교육	83 (0.9)	611 (7.0)	1,799 (20.6)	4,172 (47.7)	2,087 (23.8)
	공학	377 (1.6)	2,106 (8.9)	5,163 (21.9)	11,011 (46.7)	4,938 (20.9)
	자연	99 (1.4)	537 (7.5)	1,491 (20.8)	3,274 (45.7)	1,766 (24.6)
	의약	200 (2.3)	584 (6.7)	1,820 (20.9)	3,866 (44.3)	2,257 (25.9)
	예체능	233 (3.1)	936 (12.4)	1,822 (24.2)	3,138 (41.7)	1,403 (18.6)

주: 교육·훈련 경험 최대 3회까지 응답값 포함

5. 취득 자격증

1) 자격증 보유 여부

2015년 대졸자 중 59.6%가 자격증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가 62.0%로 미취업자(52.7%)보다 자격증 보유 비율이 더 높았다.

4) 운전면허의 경우 1종 대형 및 특수차량 면허만 포함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64.6%)이 남성(54.2%)에 비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취업자의 67.6%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유형별로는 교육대가 9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3년제가 64.5%, 4년제가 56.4%로 나타났다. 모든 학교유형에서 취업자의 자격증 보유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대에서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의 자격증 보유비율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공계열별로는 교육계열(85.1%)과 의약계열(85.7%)이 다른 계열보다 자격증 보유비율이 높은 반면, 인문계열(48.6%)과 예체능계열(47.0%)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취업여부에 따른 전공계열별 자격증 보유율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교소재권역별로 살펴보면, 전라권이 졸업자들의 자격증 보유 비율(72.5%)이 가장 높았고, 서울권이 49.4%로 가장 낮았다. 전체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졸업자의 자격증 보유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 -16> 자격증 보유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취업자	미취업자
전체		59.6	62.0	52.7
성	남성	54.2	56.3	48.2
	여성	64.6	67.6	56.5
학교유형	2~3년제	64.5	66.8	57.2
	4년제	56.4	58.8	50.3
	교육대	93.9	94.8	85.8
전공계열	인문	48.6	50.7	43.8
	사회	61.0	61.8	58.7
	교육	85.1	88.4	74.2
	공학	52.8	54.3	48.2
	자연	59.1	64.1	49.4
	의약	85.7	88.4	70.8
	예체능	47.0	48.5	43.2
학교소재 권역	서울권	49.4	52.0	43.0
	경기권	57.2	59.0	51.6
	충청권	61.3	63.7	54.1
	경상권	62.2	64.9	54.3
	전라권	72.5	74.7	66.3

2) 자격증 보유 개수

자격증 보유자는 평균 1.83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1.70개)가 미취업자(1.27) 보다 더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취업여부에 따른 특징은 모든 유형별 분석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1.79개, 남성이 1.87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2~3년제가 1.86개, 4년제가 1.82개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교육대는 1.43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공계열별로는 자연계열이 1.99개로 가장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사회계열이 1.96개, 예체능계열이 1.92개의 순이었다. 학교소재권역별로는 서울권이 1.72개로 자격증을 가장 적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충청권이 1.93개로 자격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17〉 자격증 보유 개수

(단위: 개)

구분		전체	취업자	미취업자
전체		1.83	1.70	1.27
성	남성	1.87	1.61	1.19
	여성	1.79	1.78	1.34
학교유형	2~3년제	1.86	1.65	1.28
	4년제	1.82	1.61	1.24
	교육대	1.43	4.58	3.36
전공계열	인문	1.73	1.54	1.10
	사회	1.96	1.79	1.27
	교육	1.70	2.89	1.52
	공학	1.78	1.34	1.20
	자연	1.99	1.60	1.21
	의약	1.55	1.98	2.52
	예체능	1.92	1.33	1.15
학교소재 권역	서울권	1.72	1.62	1.42
	경기권	1.86	1.73	1.28
	충청권	1.93	1.91	1.21
	경상권	1.81	1.57	1.16
	전라권	1.80	1.61	1.21

3) 자격증 취득 목적

자격증 취득의 주된 목적은 ‘취업’이 67.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자기개발’(20.6%)과 ‘업무관련성’(4.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8> 자격증 취득 목적 분포

(단위: %)

		취업	창업	승진	이직 (전직)	자격 수당	업무 관련성	자기 개발	교육 이수 평가	진학	졸업	기타
전체		67.4	0.8	0.2	0.1	0.3	4.9	20.6	2.3	0.7	2.3	0.4
성	남성	64.0	0.9	0.4	0.2	0.3	5.1	24.3	1.7	0.5	1.9	0.7
	여성	70.1	0.7	0.1	0.1	0.3	4.7	17.7	2.8	0.8	2.6	0.1
학교 유형	2~3년제	68.8	1.0	0.1	0.1	0.3	4.7	19.0	2.8	0.9	2.1	0.2
	4년제	66.2	0.7	0.3	0.2	0.4	5.0	21.9	1.9	0.5	2.4	0.5
	교육대	78.6	0.2	-	-	0.4	4.2	11.1	3.0	-	2.6	-
전공 계열	인문	63.0	0.7	0.4	-	0.1	4.8	25.2	1.8	0.9	2.4	0.7
	사회	68.6	0.8	0.3	0.1	0.3	4.9	19.8	2.3	0.5	1.9	0.4
	교육	70.8	0.5	-	0.0	0.3	2.9	15.8	4.0	0.3	5.2	0.1
	공학	65.4	0.6	0.3	0.2	0.3	5.3	23.6	1.4	0.7	1.6	0.6
	자연	67.9	1.0	0.1	0.2	0.2	4.9	20.4	2.3	0.8	2.0	0.3
	의약	74.4	0.7	0.1	0.1	0.4	5.2	13.6	2.5	0.2	2.9	0.0
	예체능	59.4	1.4	-	0.3	0.6	5.1	25.8	2.9	1.7	2.3	0.6
학교 소재 권역	서울권	65.4	0.6	0.2	0.2	0.2	5.7	21.2	2.2	0.6	2.8	0.9
	경기권	67.5	0.7	0.2	0.2	0.4	4.6	21.5	1.3	0.9	2.2	0.5
	충청권	66.5	1.1	0.3	0.0	0.2	4.1	22.0	2.2	0.4	2.8	0.3
	경상권	69.1	0.8	0.1	0.1	0.3	5.1	18.7	3.7	0.6	1.3	0.2
	전라권	66.8	0.8	0.3	0.1	0.5	5.0	20.6	1.6	0.7	3.3	0.3

주: 자격증 최대 3개까지 응답값 포함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취업’을 응답한 비율이 남성에 비해 6.1%p 높았고, 남성은 ‘자기개발’을 선택한 비율이 여성보다 6.6%p 높았다. 학교유형별로는 교육대에서 ‘취업’의 비율이 78.6%로 2~3년제나 4년제보다 높았으며, 4년제

에서는 ‘자기개발’이 21.9%로 다른 학교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취업’은 의약계열(74.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기개발’ 항목은 인문계열(25.2%)과 예체능계열(25.8%)에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소재권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권역이 유사한 응답분포를 보인다. 다만 충청권의 경우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비율은 22.0%이 다른 권역에 비해 높았고, 경상권의 경우 ‘취업’이 목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9.1%로 다른 권역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4) 자격증 취득의 도움정도

자격증 취득의 도움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2%가 도움이 된다고 (대체로 도움이 됨+매우 도움이 됨) 응답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격증 취득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남성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학교유형별로는 교육대에서 ‘매우 도움이 됨’의 비율이 67.4%로 매우 높았다. 2~3년제는 자격증 취득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5%로 4년제(59.8%)보다 약간 더 높았다. 전공계열로는 교육계열과 의약계열에서 ‘매우 도움이 됨’이 각각 46.8%, 50.5%로 다른 전공계열보다 높았으며, ‘대체로 도움이 됨’과 ‘매우 도움이 됨’ 비율의 합이 두 계열 모두 70%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다른 전공계열의 경우 ‘대체로 도움이 됨’과 ‘매우 도움이 됨’ 비율의 합이 모두 60% 미만으로 나타났다. 학교소재권역별로는 전라권에서 자격증 취득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67.2%로 다른 권역에 비해 높은 편이었고, 서울권의 경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16.0%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V-19〉 자격증 취득의 도움정도

(단위: 명, %)

		전혀 도움이 안됨	별로 도움이 안됨	보통	대체로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22,921 (4.6)	41,573 (8.3)	129,463 (25.9)	171,214 (34.3)	134,440 (26.9)
성	남성	12,455 (5.6)	20,573 (9.3)	61,685 (27.8)	76,349 (34.4)	51,137 (23.0)
	여성	10,466 (3.8)	20,999 (7.6)	67,778 (24.4)	94,865 (34.2)	83,303 (30.0)
학 교 유 형	2~3년제	8,615 (4.5)	15,488 (8.1)	47,886 (24.9)	63,435 (33.1)	56,509 (29.4)
	4년제	14,225 (4.7)	25,953 (8.6)	81,155 (26.9)	106,590 (35.3)	74,151 (24.5)
	교육대	81 (1.4)	131 (2.3)	422 (7.5)	1,190 (21.2)	3,780 (67.4)
전 공 계 열	인문	1,787 (4.9)	4,646 (12.9)	10,505 (29.1)	12,582 (34.8)	6,633 (18.3)
	사회	7,149 (4.6)	14,059 (9.1)	42,872 (27.9)	55,449 (36.1)	34,252 (22.3)
	교육	1,044 (2.6)	1,488 (3.7)	7,559 (19.0)	11,109 (27.9)	18,681 (46.8)
	공학	5,258 (5.2)	8,685 (8.5)	30,119 (29.6)	37,464 (36.8)	20,383 (20.0)
	자연	2,473 (4.4)	4,828 (8.6)	14,204 (25.4)	20,369 (36.4)	14,082 (25.2)
	의약	2,464 (4.2)	2,609 (4.4)	9,263 (15.7)	14,817 (25.2)	29,702 (50.5)
	예체능	2,747 (5.2)	5,258 (9.9)	14,942 (28.2)	19,424 (36.6)	10,706 (20.2)
학 교 소 재 권 역	서울권	4,756 (6.4)	7,178 (9.6)	20,072 (27.0)	23,904 (32.1)	18,540 (24.9)
	경기권	6,151 (5.0)	9,788 (8.0)	34,268 (27.9)	40,121 (32.7)	32,436 (26.4)
	충청권	3,669 (4.1)	8,479 (9.4)	23,260 (25.9)	29,456 (32.8)	25,010 (27.8)
	경상권	5,509 (4.0)	10,832 (7.8)	35,596 (25.8)	51,898 (37.6)	34,314 (24.8)
	전라권	2,836 (3.8)	5,296 (7.1)	16,268 (21.9)	25,836 (34.7)	24,140 (32.5)

주: 자격증 최대 3개까지 응답값 포함

제6장

청년층 현재 일자리

본 장에서는 2015년 대졸자 중 30세 미만 청년층의 현재 일자리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0세 미만 대졸자는 전체 졸업자 515,320명 중 478,092명(92.8%)이다. 이 중 2015년 조사기준 시점에 취업상태였던 청년층 대졸자는 351,295명으로 고용률은 73.5%이다.

연도별 고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대졸자의 고용률이 73.5%로 전년대비 4.8%p 낮아진 이후 2010년과 2011년 각각 79.2%와 78.7%로 2008년 대졸(78.3%)의 고용률 수준을 잠시 회복하였으나 이후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실업자 비율도 최근 3년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7.1%로 높은 편이며, 비경제활동의 비율은 19.4%로 최근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I-1> 대졸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명, %)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전체
2015GOMS	351,295 (73.5)	33,865 (7.1)	92,933 (19.4)	478,092 (100.0)
2014GOMS	336,835 (74.3)	33,757 (7.4)	82,820 (18.3)	453,412 (100.0)
2013GOMS	326,948 (73.3)	33,725 (7.6)	85,157 (19.1)	446,830 (100.0)
2012GOMS	333,895 (75.3)	29,996 (6.8)	79,281 (17.9)	443,171 (100.0)
2011GOMS	326,137 (78.7)	25,157 (6.1)	62,902 (15.2)	414,197 (100.0)
2010GOMS	321,748 (79.2)	23,115 (5.7)	61,321 (15.1)	406,184 (100.0)
2009GOMS	307,761 (73.5)	32,852 (7.8)	78,339 (18.7)	418,952 (100.0)
2008GOMS	342,075 (78.3)	28,686 (6.6)	66,097 (15.1)	436,859 (100.0)

학교유형별로는 교육대 졸업자의 고용률이 89.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3년제(75.8%), 4년제(72.1%) 순이었다. 2~3년제 대학 졸업자는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이 유사하였으며, 교육대는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에 비해 2.9%p, 4년제는 남성의 고용률이 여성에 비해 2.3%p 높게 나타났다.

전공계열별 고용률은 의약계열(84.6%)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계열(76.8%), 공학계열(74.3%), 사회계열(74.0%), 예체능계열(70.7%) 등의 순이었다. 인문계열(69.1%)과 자연계열(66.1%)의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계열은 교육계열로 여성 고용률이 남성보다 7.8%p 높았다.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 계열은 교육계열과 의약계열이었으며, 인문 및 사회, 공학, 자연, 예체능 계열은 남성의 고용률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교소재권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권과 경상권 대학 졸업자의 고용률이 각각 74.5%, 74.4%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라권(74.1%)과 충청권(73.8%), 서울권(70.2%)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의 고용률 차이가 큰 권역은 서울권(2.8%p)이며, 그 외 권역은 모두 1%p 대의 차이를 보였다.

<표 VI-2> 졸업대학 특성별 고용률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전체		73.5	74.0	73.0
학교유형	2~3년제	75.8	75.5	76.0
	4년제	72.1	73.2	70.9
	교육대	89.8	87.7	90.6
전공계열	인문	69.1	70.8	68.3
	사회	74.0	74.8	73.3
	교육	76.8	70.8	78.6
	공학	74.3	75.4	69.7
	자연	66.1	66.2	66.0
	의약	84.6	82.0	85.5
	예체능	70.7	73.3	69.4
학교소재권역	서울권	70.2	71.8	69.0
	경기권	74.5	73.9	75.0
	충청권	73.8	74.4	73.3
	경상권	74.4	74.9	73.8
	전라권	74.1	74.8	73.4

1. 일자리 특성

1) 일자리 진출 분야(산업)

2015년 대졸자 중 취업자의 17.3%는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교육서비스업(14.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4.0%)분야 등의 순으로 종사자 비율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은 여성에 비해 제조업(25.0%)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7.3%) 건설업(5.0%) 등의 순으로 종사 비율이 높았으며, 여성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1.8%)과 교육서비스업(18.9%) 종사자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3> 현재 일자리 진출분야(산업 대분류)

(단위: %)

	2015GOMS			2014 GOMS	2013 GOMS	2012 GOMS	2011 GOMS
	남성	여성					
농업,임업및어업	0.3	0.5	0.1	0.3	0.3	0.3	0.2
광업	-	-	-	0.1	-	0.1	0.01
제조업	17.3	25.0	10.2	18.6	18.7	18.6	18.6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0.5	0.8	0.2	0.6	0.5	0.5	0.4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1	0.2	0.1	0.2	0.1	0.2	0.2
건설업	3.4	5.0	1.9	3.4	3.6	3.5	3.5
도매및소매업	8.8	9.4	8.3	8.8	8.7	9.6	9.7
운수업	1.9	2.5	1.5	1.6	2.1	1.8	1.6
숙박및음식점업	6.1	5.4	6.7	6.0	5.1	4.7	3.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7	7.7	5.8	6.6	7.3	7.5	7.2
금융및보험업	3.3	3.3	3.3	3.1	3.5	4.7	5.2
부동산업및임대업	0.9	1.1	0.7	0.8	0.8	0.8	0.6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7.5	7.2	7.7	7.3	7.5	7.9	7.4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3.7	3.5	3.9	3.3	3.7	3.8	4.7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5.3	7.3	3.5	4.9	4.2	3.4	3.0
교육서비스업	14.7	10.0	18.9	14.6	14.4	13.9	15.9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4.0	5.4	21.8	14.5	14.1	13.2	12.9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5	2.7	2.4	2.5	2.6	2.5	2.3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	3.0	2.9	3.0	2.8	2.7	3.0	2.7
국제및외국기관	-	-	-	0.2	0.1	-	0.1

학교유형별로는 2~3년제 졸업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2.2%), 도매 및 음식숙박업(20.1%), 제조업(17.4%), 4년제는 제조업(17.5%)과 교육 서비스업(16.8%), 교육대는 교육서비스업(96.5%) 종사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3년제와 4년제 대학 모두 남성 졸업자는 여성에 비해 제조업 종사 비율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대 졸업자는 남녀 모두 교육서비스업 종사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여성의 교육서비스업 종사 비중이 남성에 비해 8.4%p 높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기타 공공서비스업 종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VI-4〉 학교유형별 현재 일자리 진출분야(산업)

(단위: %)

	2~3년제			4년제			교육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농림어업	0.4	0.8	0.03	0.3	0.4	0.1	-	-	-
제조업(광업포함)	17.4	27.6	9.5	17.5	24.0	11.0	-	-	-
전기, 가스, 건설업	4.1	7.1	1.9	3.8	5.3	2.3	-	-	-
도소매및음식숙박업	20.1	20.7	19.6	12.3	12.2	12.4	-	-	-
운수업, 통신	5.9	8.0	4.3	10.3	11.3	9.3	-	-	-
금융및부동산업	2.4	2.2	2.6	5.2	5.5	4.9	-	-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5.3	5.1	5.4	8.8	8.3	9.3	-	-	-
교육서비스업	8.4	3.6	12.1	16.8	12.3	21.3	96.5	90.6	99.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2.2	8.1	33.2	9.7	4.2	15.2	-	-	-
기타공공서비스업	13.8	16.8	11.4	15.3	16.5	14.1	3.5	9.4	1.0
국제및외국기관	-	-	-	0.0	-	0.0	-	-	-

주: 산업분야별 진출 비율을 고려해 산업대분류 상에서 재분류한 표임⁵⁾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 및 예체능 계열 졸업자는 교육 서비스업(각각 21.0%, 20.4%)과 기타 공공서비스업(각각 19.6%, 21.4%)의 종사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사회계열은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19.6%)과 기타공공서비스업(19.6%)의 종사비율이 가장 높았고, 교육계열은 교육 서비스업(66.0%) 종사자 비율이 과반을 차지하였다. 공학계열은 제조업(34.2%)과 운수 및 통신업(13.6%), 의약계열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1.4%) 종사 비율이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자연계열 졸업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7.8%)과 제조업(18.3%) 분야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기타 공공서비스업은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등을 포함함.

<표 VI-5> 전공계열별 현재 일자리 진출분야(산업)

(단위: %)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농림어업	0.1	0.2	-	0.2	1.7	-	0.1
제조업(광업포함)	11.4	14.2	1.9	34.2	18.3	5.0	13.4
전기, 가스, 건설업	2.1	2.0	0.4	9.9	2.4	0.8	2.9
도소매및음식숙박업	18.1	19.6	3.0	9.3	27.8	4.6	18.1
운수업, 통신	13.7	8.6	1.5	13.6	3.9	0.5	10.0
금융및부동산업	4.5	9.0	0.8	2.1	4.2	0.7	2.0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6.8	8.6	0.5	10.2	8.9	1.1	8.1
교육서비스업	21.0	7.7	66.0	8.4	16.9	2.2	20.4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6	10.5	19.4	0.9	2.9	81.4	3.5
기타공공서비스업	19.6	19.6	6.5	11.3	12.9	3.7	21.4
국제및외국기관	0.2	-	-	-	-	-	-

주: 산업분야별 진출 비율을 고려해 산업대분류 상에서 재분류한 표임

학교소재권역별로 보면, 서울권 대학 졸업자의 경우 교육서비스업(17.6%)과 제조업(17.0%) 종사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경기권 대학 졸업자는 소매 및 음식숙박업(17.9%)과 제조업(16.9%)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충청권과 경상권 대학 졸업자는 제조업 종사 비중이 각각 17.3%, 20.4%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라권 대학 졸업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중(24.3%)이 가장 높았다.

<표 VI-6> 학교소재권역별 현재 일자리 진출분야(산업)

(단위: %)

	서울권	경기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농림어업	0.1	0.1	0.4	0.3	1.2
제조업(광업포함)	17.0	16.9	17.3	20.4	11.7
전기, 가스, 건설업	4.3	3.6	3.1	3.8	5.0
도소매및음식숙박업	12.5	17.9	16.1	13.9	12.6
운수업, 통신	13.0	10.1	8.9	5.8	4.9
금융및부동산업	6.5	3.8	3.1	3.9	3.4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9.8	7.9	8.1	6.2	4.7
교육서비스업	17.6	13.2	15.2	13.4	15.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4.7	12.3	13.2	18.0	24.3
기타공공서비스업	14.4	14.2	14.6	14.4	16.7
국제및외국기관	0.0	0.0	-	-	-

주: 산업분야별 진출 비율을 고려해 산업대분류 상에서 재분류한 표임

2) 일자리 진출분야(직업)

직업별 종사자 비율은 경영·회계·사무 관련직(26.5%)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건·의료 관련직(10.9%),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관련직(9.5%), 영업 및 판매 관련직(7.0%),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5.9%)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 중분류별 종사자 비율이 5%를 상회하는 직업은 5개 분야로, 그 중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종사 비중이 높은 직업은 영업 및 판매 관련직 한 개 직종이었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보건·의료 관련직 등에서 종사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Ⅵ-7> 일자리 진출분야(직업 중분류)

(단위: %)

	2015GOMS			2014 GOMS	2013 GOMS	2012 GOMS	2011 GOMS
		남성	여성				
관리직	0.04	0.1	0.02	0.2	0.1	0.1	0.1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26.5	22.8	29.8	26.0	27.0	27.0	28.9
금융·보험 관련직	2.6	2.7	2.6	2.2	2.5	2.5	3.5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관련직	9.5	5.1	13.5	8.8	9.7	9.7	10.2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0.9	1.1	0.7	0.7	0.6	0.6	0.6
보건·의료 관련직	10.9	4.4	16.9	10.8	10.0	10.0	9.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4.5	1.9	6.9	5.0	4.5	4.5	4.3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5.9	4.1	7.6	6.4	6.7	6.7	6.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0	1.9	0.1	1.0	1.0	1.0	0.9
영업 및 판매 관련직	7.0	8.8	5.4	7.8	7.2	7.2	7.2
경비 및 청소 관련직	0.9	1.2	0.5	0.8	0.7	0.7	0.7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3.4	3.2	3.6	3.2	3.5	3.5	2.8
음식 서비스 관련직	4.0	3.8	4.1	4.0	3.3	3.3	2.8
건설 관련직	2.4	4.0	1.0	2.3	2.5	2.5	2.2
기계 관련직	4.6	9.1	0.5	4.7	4.4	4.4	4.2
재료 관련직	0.7	1.5	0.1	0.9	0.7	0.7	0.7
화학 관련직	1.0	1.6	0.5	1.1	1.3	1.3	1.0
섬유 및 의복 관련직	0.2	0.2	0.2	0.1	0.2	0.2	0.1
전기·전자 관련직	3.9	6.9	1.2	3.9	4.1	4.1	4.0
정보통신 관련직	4.9	7.5	2.5	4.5	5.2	5.2	5.3
식품·가공 관련직	0.8	0.7	1.0	0.8	0.7	0.7	0.8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 단순직	1.7	2.6	0.9	1.8	1.8	1.8	1.7
농림·어업 관련직	0.3	0.6	0.1	0.5	0.2	0.2	0.4
군인	2.3	4.1	0.6	2.3	2.1	2.1	1.1

학교유형별로는 2~3년제 대학 졸업자는 판매 및 개인서비스직 종사 비율이 21.5%, 4년제 졸업자는 경영재무직 종사 비율이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4년제 졸업자의 경우 2~3년제 졸업자에 비해 경영재무직과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종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3년제 졸업자는 4년제 졸업자에 비해 보건의료 관련직과 판매 및 개인서비스직 종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대 졸업자는 취업자의 대부분이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96.9%)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2~3년제 및 4년제 졸업자 모두 여성에 비해 판매 및 개인 서비스직과 건설·생산직 종사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2~3년제 졸업자는 보건의료 관련직(25.4%)과 경영재무직 종사 비율(25.2%)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4년제 여성 졸업자는 경영재무직(37.7%),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15.1%), 보건, 의료 관련직(12.0%), 기타 사회 서비스직(14.9%) 종사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VII-8> 학교유형별 현재 일자리 진출분야(직업)

(단위: %)

	2~3년제			4년제			교육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관리직	-	-	-	0.1	0.1	-	-	-	-
경영재무직	21.2	16.2	25.2	33.9	30.2	37.7	0.4	-	0.5
교육및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관련직	5.0	1.6	7.6	10.5	5.9	15.1	96.9	90.6	99.5
보건, 의료관련직	17.4	7.2	25.4	7.5	3.1	12.0	-	-	-
기타사회서비스직	12.2	7.4	15.9	11.0	7.1	14.9	-	-	-
판매및개인서비스직	21.5	24.1	19.4	13.6	16.6	10.5	-	-	-
건설·생산직	20.6	39.6	5.8	20.5	31.8	9.2	-	-	-
농림어업직	0.5	1.1	0.1	0.3	0.4	0.1	-	-	-
군인	1.6	2.8	0.7	2.6	4.7	0.5	2.8	9.4	-

주: 직업분야별 진출 비율을 고려해 직업중분류 상에서 재분류한 표임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열(47.5%)과 사회계열(52.9%), 자연계열(26.2%) 종사자는 경영재무직 종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계열은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59.4%)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학계열은 건설·생산직(61.7%), 의약계열은 보건의료 관련직(83.3%) 중

사 비율이 가장 높았다. 예체능 계열은 판매 및 개인서비스직(28.7%)과 기타 사회서비스직(27.8%)의 종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9> 전공계열별 현재 일자리 진출분야(직업)

(단위: %)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관리직	0.1	-	0.1	0.1	0.1	-	-
경영재무직	47.5	52.9	9.1	17.4	26.2	5.8	18.9
교육및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관련직	11.0	2.6	59.4	2.7	15.4	1.0	13.7
보건, 의료관련직	0.6	1.7	2.7	1.1	8.2	83.3	2.2
기타사회서비스직	12.3	13.8	21.2	3.6	5.0	1.2	27.8
판매및개인서비스직	20.6	19.1	4.4	10.7	22.1	4.2	28.7
건설·생산직	5.8	5.9	1.2	61.7	19.4	4.2	7.1
농림어업직	0.1	0.4	-	0.2	1.9	-	0.1
군인	2.0	3.6	2.1	2.5	1.6	0.2	1.4

주: 직업분야별 진출 비율을 고려해 직업중분류 상에서 재분류한 표임

학교소재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경영재무직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서울권은 39.5%의 청년 대졸 취업자가 경영재무직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권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건설·생산직의 경우 경영재무직 다음으로 모든 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전라권은 보건, 의료 관련직 종사 비율(19.8%)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VI-10> 학교소재권역별 현재 일자리 진출분야(직업)

(단위: %)

	서울권	경기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관리직	0.1	-	-	0.1	-
경영재무직	39.5	29.6	28.4	25.0	21.9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11.4	7.8	10.9	8.4	10.5
보건, 의료 관련직	4.0	8.9	10.1	14.4	19.8
기타 사회서비스직	10.5	13.1	11.0	11.0	9.5
판매 및 개인서비스직	12.0	19.0	16.8	16.2	15.7
건설·생산직	20.2	19.7	19.7	22.7	17.8
농림어업직	0.1	0.2	0.3	0.3	1.3
군인	2.2	1.7	2.8	2.0	3.5

주: 직업분야별 진출 비율을 고려해 직업중분류 상에서 재분류한 표임

3) 사업체 규모

현재 일자리의 사업체 규모별 종사 비율은 10명 미만 규모 사업체가 25.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00명 이상 규모 사업체(21.8%), 10-29명 규모 사업체와 30-99명 규모 사업체(각각 20.2%, 18.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사업체 규모별 종사 비율을 살펴보면, 10명 미만 규모 사업체와 10-29명 규모 사업체는 여성의 종사 비율이 남성에 비하여 각각 5.9%p, 4.2%p 높게 나타났다. 반면, 100-299명 규모 사업체와 300명 이상 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각각 4.1%p, 4.6%p 높게 나타났다.

<표 VI-11> 현재 일자리 사업체규모

(단위: 명, %)

	2015GOMS			2014 GOMS	2013 GOMS	2012 GOMS	2011 GOMS
		남성	여성				
10명미만	89,280 (25.7)	37,495 (22.6)	51,785 (28.5)	81,483 (24.8)	79,177 (24.8)	71,476 (21.6)	78,935 (24.8)
10-29명	70,139 (20.2)	29,749 (18.0)	40,390 (22.2)	65,362 (19.9)	61,539 (19.3)	66,573 (20.1)	62,012 (19.5)
30-99명	65,770 (18.9)	32,653 (19.7)	33,118 (18.2)	65,565 (19.9)	66,402 (20.8)	69,110 (20.9)	64,725 (20.3)
100-299명	46,442 (13.4)	25,681 (15.5)	20,761 (11.4)	41,009 (12.5)	40,236 (12.6)	43,054 (13.0)	40,068 (12.6)
300명이상	75,586 (21.8)	40,049 (24.2)	35,537 (19.6)	75,379 (22.9)	72,266 (22.6)	80,945 (24.4)	72,764 (22.8)

학교유형별로는 2~3년제 졸업자의 경우 10명 미만 규모 사업체 종사 비율이 32.9%로 가장 높았고, 100-299명 사업체 종사 비율은 11.8%로 가장 낮았다. 반면, 4년제 졸업자의 사업체 규모별 종사 비율은 300명 이상 규모의 사업체 종사자 비율이 25.3%로 가장 높았고, 10명 미만 규모 사업체 종사자 비율은 22.1%로 2~3년제 대학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대 졸업자는 30-99명 사업체 종사자 비율이 76.4%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3년제의 경우 성별 종사 비율의 차이가 가장 큰 사업체는 10명 미만 규모 사업체로 여성 종사 비율이 남성에 비해 6.8%p

높게 나타났다. 4년제 졸업자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종사 비율을 보이는 사업체는 10명 미만, 10-29명 중소규모의 사업체인 반면,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남성 졸업자의 종사 비율이 여성에 비해 5.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2> 학교유형별 사업체 규모

(단위: 명, %)

	2~3년제			4년제			교육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0명미만	40,456 (32.9)	15,655 (29.1)	24,802 (35.9)	48,801 (22.1)	21,829 (19.7)	26,971 (24.5)	23 (0.6)	11 (1.0)	12 (0.5)
10~29명	28,758 (23.4)	11,395 (21.2)	17,364 (25.1)	40,661 (18.4)	18,135 (16.4)	22,526 (20.5)	720 (19.6)	220 (20.5)	500 (19.2)
30~99명	19,506 (15.9)	10,181 (19.0)	9,325 (13.5)	43,522 (19.7)	21,718 (19.6)	21,804 (19.8)	2,742 (74.6)	754 (70.3)	1,988 (76.4)
100~299명	14,451 (11.8)	7,718 (14.4)	6,734 (9.7)	31,883 (14.4)	17,928 (16.2)	13,955 (12.7)	108 (2.9)	36 (3.3)	73 (2.8)
300명이상	19,652 (16.0)	8,766 (16.3)	10,886 (15.8)	55,850 (25.3)	31,230 (28.2)	24,620 (22.4)	84 (2.3)	53 (5.0)	31 (1.2)

사업체 규모별 종사 비율을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공학계열(27.6%), 의학계열(35.0%) 졸업자의 경우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 종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인문계열(29.4%), 사회계열(24.7%), 자연계열(26.3%) 졸업자의 경우 10명 미만 규모 사업체 종사 비율이 가장 높았다. 예체능계열 졸업자는 10명 미만 규모 사업체(44.1%) 종사 비율과 10~29명 규모 사업체(22.8%) 종사 비율이 높아 30명 미만 규모 사업체 종사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계열 졸업자의 경우에는 10~29명 사업체(36.4%)와 30~99명 규모 사업체(32.2%) 종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I-13〉 전공계열별 사업체 규모

(단위: 명, %)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10명미만	9,014 (29.4)	23,502 (24.7)	4,794 (21.8)	15,822 (18.9)	8,822 (26.3)	7,451 (20.0)	19,875 (44.1)
10-29명	6,475 (21.1)	18,729 (19.7)	8,003 (36.4)	14,496 (17.3)	6,741 (20.1)	5,436 (14.6)	10,260 (22.8)
30-99명	5,106 (16.7)	18,899 (19.9)	7,078 (32.2)	16,548 (19.8)	6,290 (18.8)	5,138 (13.8)	6,711 (14.9)
100-299명	3,882 (12.7)	13,671 (14.4)	1,017 (4.6)	13,769 (16.4)	4,394 (13.1)	6,217 (16.7)	3,491 (7.8)
300명이상	6,184 (20.2)	20,175 (21.2)	1,091 (5.0)	23,141 (27.6)	7,255 (21.7)	13,042 (35.0)	4,697 (10.4)

2. 고용형태 및 근로소득, 근로시간

1) 종사상 지위

현재 일자리에서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96.6%로, 상용직 80.2%, 임시직 14.7%, 일용직 1.6%이며, 비임금근로자는 전체 취업자의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임금근로자 비율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상용직 비율은 2014년 졸업자에 비해 0.9%p 증가하고, 임시직 비율은 1.3%p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임금근로자 비율은 유사하나, 상용직 비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2.9%p 높고, 임시직 비율은 4.1%p 낮다.

학교유형별로는 교육대 졸업자의 임금근로자 비율이 100%로 2~3년제 및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상용직 비율도 교육대 졸업자가 가장 높은 94.5%이며, 반면 임시직 비율은 5.5%로 가장 낮다. 2~3년제(97.2%) 졸업자 보다 4년제(96.1%) 졸업자의 임금근로자 비율은 1.1%p 더 낮게 나타났다. 취업자 중 상용직 비율은 2~3년제 졸업자(81.6%)가 4년제 졸업자(79.2%)보다 약간 높고, 임시직 비율은 2~3년제 졸업자(13.5%)가 4년제 졸업자(15.6%)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는 의약계열 졸업자의 임금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아 99.6%이며, 예체능계열은 92.0%로 가장 낮다. 상용직 비율도 의약계열 졸업자가 90.0%로 가장 높았으며, 예체능계열(65.6%) 졸업자의 상용직 비율은 다른 계열 졸업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VI-14> 성별, 졸업대학 특성별 종사상 지위

(단위: 명, %)

		임금근로				비임금근로
			상용	임시	일용	
전체		339,192 (96.6)	281,685 (80.2)	51,718 (14.7)	5,789 (1.6)	12,103 (3.4)
성	남성	160,564 (95.7)	137,085 (81.7)	21,098 (12.6)	2,381 (1.4)	7,146 (4.3)
	여성	178,628 (97.3)	144,600 (78.8)	30,620 (16.7)	3,408 (1.9)	4,956 (2.7)
학교 유형	2~3년제	120,748 (97.2)	101,277 (81.6)	16,741 (13.5)	2,730 (2.2)	3,431 (2.8)
	4년제	214,740 (96.1)	176,907 (79.2)	34,774 (15.6)	3,059 (1.4)	8,672 (3.9)
	교육대	3,704 (100.0)	3,500 (94.5)	203 (5.5)	-	-
전공 계열	인문	29,717 (96.0)	22,648 (73.1)	6,405 (20.7)	664 (2.1)	1,250 (4.0)
	사회	93,097 (96.9)	77,652 (80.8)	14,088 (14.7)	1,357 (1.4)	3,017 (3.1)
	교육	21,894 (98.8)	19,153 (86.4)	2,609 (11.8)	131 (0.6)	265 (1.2)
	공학	82,553 (97.2)	72,351 (85.2)	9,117 (10.7)	1,085 (1.3)	2,402 (2.8)
	자연	32,617 (95.9)	26,186 (77.0)	6,066 (17.8)	364 (1.1)	1,382 (4.1)
	의약	37,498 (99.6)	33,857 (90.0)	3,229 (8.6)	411 (1.1)	141 (0.4)
	예체능	41,816 (92.0)	29,837 (65.6)	10,204 (22.4)	1,775 (3.9)	3,645 (8.0)

2) 정규직 비율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은 63.8%로 전년도(63.1%)에 비해 0.2%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65.7%, 여성 62.1%로 나타났고, 여성의 정규직 비율은 2.2%p 상승한 반면, 남성의 정규직 비율은 0.9%p 감소하였다.

학교유형별 정규직 비율은 교육대 졸업자가 80.9%로 가장 높고, 2~3년제와 4년제 졸업자는 각각 64.2%, 63.3%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 정규직 비율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남성의 정규직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았고, 2~3년제 및 교육대는 여성의 정규직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정규직 비율 차이는 2~3년제 대학 1.9%p, 4년제 대학은 7.2%p, 교육대학은 15.3%p로 분석되었다.

전공계열별로는 공학계열(71.4%)의 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의 정규직 비율이 각각 56.5%, 52.0%로 다른 계열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교육계열과 의약계열을 제외한 모든 계열에서 남성의 정규직 비율이 여성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I-15> 졸업대학 특성별 정규직 비율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전체		63.8	65.7	62.1
학교유형	2~3년제	64.2	63.1	65.0
	4년제	63.3	66.9	59.7
	교육대	80.9	70.1	85.4
전공계열	인문	56.5	59.9	55.0
	사회	62.6	64.1	61.4
	교육	67.7	55.8	70.8
	공학	71.4	71.7	69.7
	자연	60.6	64.6	57.5
	의약	69.7	58.7	73.1
	예체능	52.0	54.1	50.8

산업별 정규직 비율은 제조업이 8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1.9%)과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70.1%)의 정규직 비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교육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정규직 비율은 각각 41.2%, 44.9%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성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남성의 정규직 비율이 여성에 비해 매우 높았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여성의 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기계 관련직의 정규직 비율이 77.4%로 가장 높았으며, 전기·전자 관련직과 정보통신 관련직도 각각 75.4%, 75.1%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관련직(49.7%)과 영업 및 판매 관련직(58.1%)의 정규직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영업 및 판매 관련직, 기계 관련직에서 남성의 정규직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정규직 비율이 높은 직종은 보건의료 관련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전기·전자 관련직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100-299명 규모 사업체의 정규직 비율이 67.6%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30-99명 규모 사업체(66.9%)와 10-29명 규모 사업체(66.6%)에서의 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를 제외한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남성의 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 성별 정규직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100-299명 사업체, 10-29명 사업체에서 남성과 여성의 정규직 비율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I-16> 산업 및 직업,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 비율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산업	제조업	83.0	83.2	82.6
	도매 및 소매업	65.1	66.7	63.5
	숙박 및 음식점업	44.9	51.4	40.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0.1	72.8	66.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1.9	70.9	72.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9.7	58.7	61.5
	교육 서비스업	41.2	34.8	44.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0.1	55.3	73.4
직업	경영·회계사무관련직	64.9	69.9	61.6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관련직	49.7	44.5	51.5
	보건·의료 관련직	71.3	57.0	74.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65.1	55.6	67.5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63.7	63.2	63.9
	영업 및 판매 관련직	58.1	65.9	46.5
	기계 관련직	77.4	77.5	75.7
	전기·전자 관련직	75.4	74.0	83.1
사업체 규모	정보통신 관련직	75.1	74.7	76.1
	10명미만	58.0	56.1	59.2
	10~29명	66.6	68.6	65.1
	30~99명	66.9	68.3	65.6
	100~299명	67.6	69.8	64.9
	300명이상	63.8	68.3	58.7

주: 산업은 종사비율 5% 이상, 직업은 종사비율 4% 이상만 분석

3) 근로시간

30세 미만 대졸 청년층은 현재 일자리에서 주당 평균 44.3시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5.9시간으로 여성(42.9시간)에 비해 주당 평균 3.0시간 더 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교육대 졸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1.2시간으로 가장 짧았으며, 2~3년제 졸업자는 가장 긴 주당 평균 45.3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졸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8시간이었다.

전공계열별로는 공학계열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6.2시간으로 가장 길

고,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은 각각 42.0시간, 41.2시간으로 다른 계열에 비해 짧았다. 남성과 여성 모두 의약계열 졸업자의 주당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길어 남성은 주당평균 48.6시간, 여성은 45.3시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남성의 경우 교육계열 졸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짧아 주당 평균 40.9시간이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의 주당평균 근로시간이 다른 계열졸업자에 비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Ⅵ-17> 졸업대학 특성별 주당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44.3	45.9	42.9
학교유형	2~3년제	45.3	46.9	44.2
	4년제	43.8	45.5	42.1
	교육대	41.2	42.2	40.7
전공계열	인문	42.0	44.2	40.9
	사회	44.3	45.4	43.4
	교육	42.4	40.9	42.9
	공학	46.2	46.6	44.0
	자연	45.3	47.0	43.9
	의약	46.1	48.6	45.3
	예체능	41.2	44.0	39.7

종사상 지위별 현재 일자리에서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임금근로자는 44.4시간, 비임금근로자는 42.7시간으로 임금근로자가 비임금근로자에 비해 주당 평균 1.7시간 더 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근로자는 주당 평균 45.8시간, 임시직 근로자는 38.0시간, 일용직 근로자는 30.6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용직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길었으며, 여성의 경우 임금근로자가 비임금근로자에 비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에 여성과 남성의 근로시간 차이가 평균 3.1시간으로 가장 컸으며, 일용직의 경우 성별 근로시간 차이가 2.0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표Ⅶ-18>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전체	남성	여성
임금근로	44.4	45.8	43.0
상용	45.8	47.0	44.7
임시	38.0	39.8	36.7
일용	30.6	31.8	29.8
비임금근로	42.7	47.3	36.0

산업별로는 제조업 종사자의 근로시간이 46.5시간으로 가장 길고,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의 근로시간이 38.1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모든 산업에서 남성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여성에 비해 길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의 성별 근로시간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Ⅶ-19> 산업 및 직업, 사업체 규모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전체	남성	여성
산업	제조업	46.5	47.3	44.8
	도매 및 소매업	45.2	46.4	44.1
	숙박 및 음식점업	45.1	49.3	42.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5.0	45.6	44.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5.0	45.7	44.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5.6	47.0	43.1
	교육 서비스업	38.1	39.0	37.7
직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5.4	47.2	45.0
	경영·회계·사무관련직	44.0	45.1	43.1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관련직	36.9	37.4	36.7
	보건·의료 관련직	46.5	49.7	45.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43.2	41.7	43.6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44.7	45.8	44.1
	영업 및 판매 관련직	44.3	46.1	41.6
	기계 관련직	48.4	48.4	49.8
사업체 규모	전기·전자 관련직	46.5	46.8	45.2
	정보통신 관련직	45.1	45.4	44.0
	10명미만	42.4	44.7	40.8
	10~29명	44.9	46.7	43.5
	30~99명	44.3	45.4	43.2
	100~299명	45.1	45.7	44.3
	300명이상	45.7	47.2	44.1

주: 산업은 종사비율 5% 이상, 직업은 종사비율 4% 이상만 분석

직업별 주당평균 근로시간은 기계관련직(48.4시간)과 전기·전자 관련직(46.5시간), 보건·의료 관련직(46.5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반면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종사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36.9시간으로 다른 직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10명 미만 규모 사업체 종사자의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42.4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사업체는 300명 이상 규모 사업체로 45.7시간으로 나타났다.

4) 근로소득

2015년 대졸 청년층의 현재 일자리에서의 월평균 소득은 202만 5천원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성의 월평균 소득이 224만원, 여성은 183만원으로, 남성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여성보다 평균 41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 근로소득은 교육대 졸업자가 가장 높아 219만 3천원이었으며, 4년제 대학 졸업자는 212만 5천원, 2~3년제 졸업자는 184만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2~3년제와 4년제 남성의 월평균 소득이 여성보다 각각 평균 36만 2천원, 41만 9천원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4년제 졸업자의 경우 성별 임금 격차가 2~3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대 졸업자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가 6만 2천원으로 2~3년제 및 4년제 대학에 비해 크지 않았다.

전공계열별로는 공학계열(226만 6천원)과 의약계열(218만원) 졸업자의 월평균 소득이 많은 편이었고, 예체능계열 졸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169만 2천원으로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모든 전공계열에서 남성의 임금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체능계열 남성 졸업자는 여성에 비해 월평균 52만 2천원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계열은 44만 3천원, 공학계열은 37만 7천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I-20> 졸업대학 특성별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만원)

		전체	남성	여성
전체		202.5	224.0	183.0
학교유형	2~3년제	184.0	204.4	168.2
	4년제	212.5	233.4	191.5
	교육대	219.3	223.7	217.5
전공계열	인문	185.1	206.2	175.2
	사회	203.4	227.7	183.4
	교육	193.6	223.1	185.8
	공학	226.6	233.2	195.5
	자연	188.9	201.2	179.2
	의약	218.0	227.4	215.1
	예체능	169.2	203.5	151.3

종사상 지위별 월평균 소득은 임금근로자 200만 8천원, 비임금근로자 257만 3천원으로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약 56만 5천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14만원으로 임시직 근로자(139만원)에 비해 월평균 75만원 더 많고, 일용직 근로자(106만 3천원)에 비해서는 107만 7천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남성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여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비임금근로자의 성별 임금 차이가 가장 커서 남성의 임금이 여성에 비해 월평균 117만 4천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 차이를 살펴보면 상용직 남성 근로자는 상용직 여성 근로자보다 월평균 37만 9천원을 더 받았고, 남성 임시직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여성 임시직보다 20만 7천원 많았으며, 남성 일용직은 여성 일용직에 비해 26만 7천원 높아, 상용직 근로자의 성별 소득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Ⅵ-21> 종사상 지위별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만원)

	전체	남성	여성
임금근로	200.8	220.8	182.9
상용	214.0	233.1	195.9
임시	139.0	151.2	130.5
일용	106.3	122.2	95.5
비임금근로	257.3	306.3	188.9

산업별로는 제조업(240만 4천원)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은 155만 4천원에 불과해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기계 관련직(251만 2천원), 전자전자 관련직(235만 6천원)과 정보통신 관련직(227만 7천원)분야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이 높았고,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의 월평균 소득이 165만원으로 낮게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소득은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해, 10명 미만 규모 사업체는 월평균 169만 3천원, 30~99명 규모 사업체는 203만 6천원, 300명 이상 규모 사업체는 241만 1천원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표Ⅵ-22>상에 나타나는 산업 분야 중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야에서 남성의 월평균 소득이 높았으며, 직업은 기계 관련직 및 전자전자 관련직을 제외한 분야에서 남성의 월평균 소득이 여성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산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분야로 남성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여성에 비해 50만 8천원 더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남성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여성에 비해 47만 9천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영업 및 판매 관련직 종사자의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커서 남성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여성에 비해 68만 7천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99명 규모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성별 임금 격차가 적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모든 규모의 사업체에서 30만원 이상의 성별 임금 차이를 보였다.

<표 VI-22> 산업 및 직업,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만원)

		전체	남성	여성
산업	제조업	240.4	253.2	212.0
	도매 및 소매업	202.4	224.9	179.6
	숙박 및 음식점업	163.9	191.6	143.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11.1	221.2	198.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0.5	237.8	187.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95.7	201.9	184.0
	교육 서비스업	155.4	152.2	156.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3.2	222.7	198.7
직업	경영·회계·사무관련직	200.5	226.9	182.1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관련직	165.0	170.1	163.3
	보건·의료 관련직	215.4	234.3	210.8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71.8	179.9	169.7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181.8	206.7	169.3
	영업 및 판매 관련직	205.0	232.5	163.8
	기계 관련직	251.2	250.4	265.7
	전기·전자 관련직	235.6	231.8	255.9
	정보통신 관련직	227.7	228.3	226.1
사업체 규모	10명 미만	169.3	194.3	151.5
	10~29명	193.8	216.5	177.1
	30~99명	203.6	218.2	189.2
	100~299명	216.4	230.3	199.3
	300명 이상	241.1	259.5	220.6

주: 산업은 종사비율 5% 이상, 직업은 종사비율 4% 이상만 분석

제7장

청년층 첫 일자리

본 장에서는 2014년 8월과 2015년 2월 대졸자 중 조사기준 시점 당시 30세 미만인 청년층의 대학 졸업 후 첫 일자리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015년 대졸 청년층 중 86.0%에 해당하는 410,172명은 졸업 후 일자리에 다닌 경험이 있으며, 이 중 대학 졸업 후 가진 첫 일자리를 2016년 조사기준 시점까지 계속하여 다니고 있는 비율은 57.0%이다. 첫 일자리를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로 이직한 비율은 16.5%, 첫 일자리를 그만둔 후 조사시점 기간에 미취업상태인 비율은 12.5%이다. 이전년도인 2014년 졸업생들과 비교하면 졸업 후 일자리 경험 비율은 유사하나, 첫 일자리를 계속하여 다니고 있는 비율은 소폭 증가한 반면, 이직한 비율은 감소하였다. 대학 졸업 후 약 18개월 기간 동안 일자리를 한번도 갖지 않은 비율은 2010년 졸업자 이후 조금씩 늘어나, 2010년 대졸자 9.9%에서 2015년 대졸자 14.0%로 4.1p 증가하였다.

<표VII-1> 졸업 후 일자리 경험 여부

(단위: 명, %)

	경험	첫 일자리 계속 다님			미경험
		이직	그만둠		
2015GOMS	410,172 (86.0)	271,978 (57.0)	78,557 (16.5)	59,637 (12.5)	66,768 (14.0)
남성	191,347 (84.8)	132,703 (58.8)	34,371 (15.2)	24,274 (10.8)	34,266 (15.2)
여성	218,824 (87.1)	139,275 (55.4)	44,187 (17.6)	35,363 (14.1)	32,502 (12.9)
2014GOMS	392,126 (86.5)	252,509 (55.7)	84,326 (18.6)	55,291 (12.2)	61,286 (13.5)
2013GOMS	382,505 (85.9)	249,807 (56.1)	75,914 (17.1)	56,784 (12.8)	62,563 (14.1)
2012GOMS	386,027 (87.1)	251,678 (56.8)	82,217 (18.6)	52,132 (11.8)	57,144 (12.9)
2011GOMS	374,741 (90.5)	227,850 (55.0)	98,287 (23.7)	48,604 (11.7)	39,456 (9.5)
2010GOMS	365,942 (90.1)	224,553 (55.3)	97,195 (23.9)	44,194 (10.9)	40,243 (9.9)

1. 입직 소요기간

대학 졸업 후 첫 일자리에 진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소요기간별로 살펴 보면, 졸업 전에 취업하는 비율은 36.7%, 졸업 후 3개월 내에 취업하는 비율은 23.7%로 60.4%가 대학 졸업 후 3개월 내에 첫 일자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첫 일자리에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이 대학 졸업 후 1년 이상이 걸린 비율은 13.6%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남성은 졸업 이전에 취업하는 비율이 40.3%로 여성(33.5%)에 비해 6.8%p 높고, 그 외 다른 구간에서 여성 비율이 조금씩 높다. 학교유형별로는 2~3년제와 4년제 모두 졸업 이전에 첫 일자리에 진입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각각 39.2%, 35.7%이다. 다음으로는 3개월 미만 입직 비율이 높아 2~3년제 졸업자는 24.4%, 4년제 졸업자는 22.8%로, 전반적으로 4년제 대학 졸업자가

2~3년제 졸업자에 비해 입직시기가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대 졸업자는 다른 학교유형에 비하여 졸업 이전 취업 비율이 매우 낮으나 졸업 후 3개월 이내에 취업되는 비율이 높다.

전공계열별 첫 일자리 진입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공학계열(43.4%)과 사회계열(37.9%) 졸업자는 졸업 이전에 첫 일자리에 진입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졸업 이후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첫 일자리에 진입하는 비율은 교육계열(42.7%)과 의약계열(36.1%)이 다른 계열에 비해 높았고, 졸업 이전부터 졸업 후 3개월 이내에 첫 일자리에 진입하는 비율이 높은 계열은 교육계열(66.7%)과 의약계열(65.9%), 공학계열(64.1%)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졸업 후 1년이 지난 이후에 첫 일자리에 진입하는 비율은 교육계열(16.8%) 졸업자가 다른 계열에 비해 매우 나타난다.

학교소재권역으로 살펴보면, 서울권(39.5%)과 경기권(37.9%) 졸업자는 졸업 이전에 첫 일자리에 진입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고, 전라권은 졸업 이전에 첫 일자리를 가지는 비율이 32.5%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Ⅶ-2〉 첫 일자리 입직 소요기간별 분포

(단위: %)

		졸업 이전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년 이상
전체		36.7	23.7	11.3	14.7	13.6
성	남성	40.3	22.1	10.6	14.3	12.8
	여성	33.5	25.2	11.9	15.1	14.3
학교유형	2~3년제	39.2	24.4	11.3	13.4	11.8
	4년제	35.7	22.8	11.3	15.4	14.7
	교육대	2.7	61.1	6.6	17.0	12.6
전공계열	인문	33.5	18.4	11.6	16.6	19.9
	사회	37.9	19.5	12.4	16.2	14.0
	교육	24.0	42.7	5.7	10.9	16.8
	공학	43.4	20.7	10.0	13.4	12.4
	자연	36.4	23.4	13.1	15.1	12.1
	의약	29.8	36.1	10.9	14.9	8.3
	예체능	35.9	23.3	12.4	14.0	14.5
	미분류	33.5	25.2	11.9	15.1	14.3
학교소재권역	서울권	39.5	21.0	11.0	13.6	14.9
	경기권	37.9	22.5	10.7	14.6	14.4
	충청권	35.7	25.6	11.2	13.8	13.8
	경상권	36.1	24.1	11.4	15.6	12.9
	전라권	32.5	27.2	12.9	16.1	11.3

2015년 대졸 청년층이 첫 일자리에 들어가는데 걸린 평균 기간은 4.0개월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남성 3.9개월, 여성 4.2개월로 여성의 입직 소요기간이 평균 0.3개월 길었고, 학교유형별로 보면 4년제 졸업자의 첫 일자리 평균 입직 소요기간이 4.3개월로 가장 길고, 다음으로 교육대, 2~3년제의 순이었다.

계열별로는 인문계열(5.1개월)과 사회계열(4.2개월), 예체능계열(4.1개월)의 평균 입직 소요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고, 의약계열은 3.3개월로 가장 짧았다. 성별로는 남성은 교육계열(4.9개월) 졸업자의 입직 소요기간이 가장 길고 공학과 자연, 의약계열의 평균 입직 소요기간이 3.6개월로 상대적으로 짧았다. 여성의 경우 인문계열 졸업자의 평균 입직 소요기간은 5.6개월로 가장 길고, 의약계열 졸업자는 3.2개월로 짧아 남성에 비해 계열간 입직 소요기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소재권역별로는 서울권의 첫 일자리 진입 기간이 4.2개월로 가장 길고, 전라권 졸업자는 3.8개월로 가장 짧다. 그러나 권역별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VII-3> 졸업대학 특성별 첫 일자리 입직 소요기간

(단위: 개월)

		전체	남성	여성
전체		4.0	3.9	4.2
학교유형	2~3년제	3.6	3.6	3.6
	4년제	4.3	4.0	4.6
	교육대	3.8	3.8	3.8
전공계열	인문	5.1	4.1	5.6
	사회	4.2	4.2	4.3
	교육	3.9	4.9	3.7
	공학	3.7	3.6	4.2
	자연	3.9	3.6	4.1
	의약	3.3	3.6	3.2
	예체능	4.1	3.9	4.3
학교소재권역	서울권	4.2	3.7	4.5
	경기권	4.1	4.0	4.2
	충청권	4.0	3.8	4.1
	경상권	4.0	3.8	4.3
	전라권	3.8	4.1	3.6

주: 졸업 이전 입직자는 소요기간을 0으로 처리

첫 일자리를 조사기준 시점까지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 첫 일자리 진입 기간은 남성과 여성 모두 첫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비유지자보다 진입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첫 일자리를 조사 기준시점까지 유지하고 있는 졸업자들의 입직 소요기간이 비유지자보다 평균 2개월 정도 길었다.

〈표Ⅶ-4〉 일자리 유지여부별 첫 일자리 입직 소요기간

(단위: 개월)

	전체	남성	여성
유지	4.8	4.5	5.1
비유지	2.5	2.4	2.6

주: 졸업시점 이전 입직자는 소요기간을 0으로 처리

2. 첫 일자리 특성

1) 첫 일자리 진출분야(산업)

첫 일자리 진출 분야를 산업 대분류별로 살펴보면, 제조업(16.9%)으로 진출한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서비스업(14.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3.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여성에 비해 제조업(24.9%) 진출 비율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교육서비스업(18.9%)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0.8%) 진출 비율이 매우 높았다.

연도별, 산업분야별 첫 일자리 진출 비율은 별다른 차이 없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제조업과 금융 및 보험업 진출 비율이 2011년 대졸자 이후 근소하게 감소하였고, 숙박 및 음식점업 진출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VII-5> 첫 일자리 진출분야(산업 대분류)

(단위: %)

	2015GOMS			2014 GOMS	2013 GOMS	2012 GOMS	2011 GOMS
	남성	여성					
농업, 임업 및 어업	0.3	0.5	0.1	0.2	0.2	0.3	0.2
광업	-	-	-	-	-	-	-
제조업	16.9	24.9	9.8	17.7	17.9	17.5	18.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4	0.7	0.2	0.5	0.5	0.4	0.4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1	0.3	0.1	0.1	0.1	0.2	0.1
건설업	3.4	5.1	1.8	3.4	3.4	3.6	3.4
도매 및 소매업	9.0	9.7	8.4	9.0	8.7	9.7	9.7
운수업	1.8	2.2	1.3	1.6	2.0	1.7	1.6
숙박 및 음식점업	7.2	6.3	8.0	6.9	5.9	5.3	4.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8	7.7	6.0	6.7	7.6	7.5	7.2
금융 및 보험업	2.9	3.0	2.8	2.9	3.6	4.5	4.9
부동산업 및 임대업	0.9	1.1	0.7	0.7	0.9	0.8	0.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8	7.8	7.7	7.5	8.1	8.4	7.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8	3.3	4.3	3.8	3.5	4.1	4.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8	6.6	3.2	4.4	4.0	3.3	2.9
교육 서비스업	14.8	10.2	18.9	15.5	14.9	14.1	15.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6	5.3	20.8	13.3	13.2	12.8	12.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6	2.7	2.4	2.8	2.8	2.6	2.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1	2.7	3.4	2.8	2.7	3.2	3.2
국제 및 외국기관	-	-	-	0.1	0.1	0.1	-

학교유형별로는 2~3년제 졸업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1.8%)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6%)에 많이 진출하였고, 4년제 졸업자는 제조업(17.3%)과 교육서비스업(17.5%)에 많이 진출하였다. 교육대는 학교의 특성에 맞게 94.5%가 교육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3년제 대학 남성 졸업자의 진출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분야는 제조업(27.3%) 분야이고, 여성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2.1%) 진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년제 졸업자 또한 성별로 가장 많이 진출한 산업분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남성은 제조업(23.9%) 분야에, 여성은 교육서비스업(22.1%) 분야에 가장 많이 입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VII-6> 학교유형별 첫 일자리 진출분야(산업)

(단위: %)

	2~3년제			4년제			교육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농림어업	0.3	0.7	0.1	0.2	0.4	0.1	-	-	-
제조업(광업 포함)	16.6	27.3	8.5	17.3	23.9	10.9	-	-	-
전기, 가스, 건설업	4.0	6.8	1.8	3.7	5.3	2.2	0.2	0.8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1.8	22.5	21.4	13.2	12.8	13.6	1.2	1.3	1.1
운수·통신업	5.9	7.8	4.5	10.2	11.1	9.3	-	-	-
금융 및 부동산업	2.0	1.8	2.1	4.9	5.3	4.5	0.2	-	0.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9	6.0	5.8	9.0	8.9	9.0	-	-	-
교육서비스업	8.0	3.7	11.3	17.5	12.7	22.1	94.5	89.1	96.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1.6	7.8	32.1	9.2	4.0	14.1	-	-	-
기타 공공서비스업	13.9	15.7	12.5	14.9	15.6	14.2	3.9	8.8	1.8
국제 및 외국기관	-	-	-	-	-	-	-	-	-

주: 대졸자의 산업분야별 진출 비율을 고려해 산업대분류 상에서 재분류한 표임

첫 일자리 진출분야를 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0.9%)과 교육서비스업(20.5%)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고, 사회계열 졸업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1.7%), 기타 공공서비스업(18.9%) 비율이, 교육계열 졸업자는 교육서비스업(65.0%)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계속해서, 공학계열은 제조업(34.6%) 비율이, 자연계열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8.8%), 그리고 의학계열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1.4%)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Ⅶ-7> 전공계열별 첫 일자리 진출분야(산업)

(단위: %)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농림어업	0.2	0.2	-	0.2	1.4	-	0.1
제조업(광업 포함)	10.8	13.0	1.7	34.6	19.0	4.7	12.7
전기, 가스, 건설업	1.7	2.1	0.6	9.8	2.0	0.7	3.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0.9	21.7	3.9	10.1	28.8	5.3	17.2
운수·통신업	12.8	8.3	1.7	13.6	3.6	0.4	10.3
금융 및 부동산업	3.9	8.7	0.8	1.7	3.3	0.5	1.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0	8.5	0.4	10.6	9.6	1.1	8.8
교육서비스업	20.5	8.6	65.0	8.1	16.6	2.4	2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9	10.1	20.1	0.8	3.2	81.4	3.5
기타 공공서비스업	19.2	18.9	5.7	10.5	12.5	3.4	22.6
국제 및 외국기관	0.1	-	-	-	-	-	-

주: 대졸자의 산업분야별 진출 비율을 고려해 산업대분류 상에서 재분류한 표임

학교소재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권은 제조업(16.6%)과 교육서비스업(17.1%), 경기권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9.1%) 비율이 가장 높았다. 충청권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진출 비율이 모두 16% 이상으로 유사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경상권은 제조업(20.2%) 비율이, 전라권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분야로 입직한 비율이 22.7%로 다른 권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Ⅶ-8> 학교소재권역별 첫 일자리 진출분야(산업)

(단위: %)

	서울권	경기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농림어업	-	0.1	0.3	0.2	1.0
제조업(광업 포함)	16.6	16.7	16.1	20.2	11.2
전기, 가스, 건설업	3.9	3.9	3.1	3.7	4.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4.6	19.1	16.6	15.1	14.2
운수·통신업	12.5	10.0	8.8	6.0	4.6
금융 및 부동산업	6.2	3.1	2.9	3.7	3.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0.3	8.6	8.2	6.1	5.2
교육서비스업	17.1	12.4	16.2	13.9	16.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0	12.4	12.7	17.1	22.7
기타 공공서비스업	13.6	13.9	15.1	14.0	16.6
국제 및 외국기관	0.1	-	-	-	-

주: 대졸자의 산업분야별 진출 비율을 고려해 산업대분류 상에서 재분류한 표임

2) 첫 일자리 진출분야(직업)

2015년 대졸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출 분야를 직업중분류별로 살펴보면, 경영·회계·사무관련직(26.9%)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건·의료 관련직(10.5%),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여성에 비해 기계관련직(9.0%)과 전기·전자 관련직(6.6%), 정보통신 관련직(7.4%) 등 생산 관련직 진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경영·회계·사무 관련직(30.3%)과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13.1%), 보건·의료 관련직(15.9%) 진출 비율이 남성이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VII-9> 첫 일자리 진출분야(직업 중분류)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관리직	-	-	-
경영·회계·사무관련직	26.9	23.0	30.3
금융·보험 관련직	2.1	2.3	2.0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관련직	9.4	5.2	13.1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0.8	1.0	0.5
보건·의료 관련직	10.5	4.2	15.9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4.2	1.9	6.3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6.5	4.5	8.3
운전 및 운송 관련직	0.9	1.7	0.1
영업 및 판매 관련직	7.4	9.1	5.9
경비 및 청소 관련직	0.9	1.3	0.6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3.6	3.2	4.0
음식 서비스 관련직	4.8	4.6	5.0
건설 관련직	2.5	4.2	1.0
기계 관련직	4.4	9.0	0.4
재료 관련직	0.8	1.5	0.1
화학 관련직	1.0	1.5	0.5
섬유 및 의복 관련직	0.2	0.2	0.2
전기·전자 관련직	3.7	6.6	1.1
정보통신 관련직	4.6	7.4	2.2
식품가공 관련직	0.8	0.8	0.9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1.8	2.7	0.9
농림어업 관련직	0.3	0.6	0.1
군인	1.9	3.6	0.5

학교유형별로는 2~3년제와 4년제 졸업자 모두 경영재무직과 판매 및 개인 서비스직, 건설·생산직 진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2~3년제 졸업자(23.6%)는 4년제 졸업자(14.4%)에 비해 판매 및 개인서비스직 진출 비율이, 4년제 졸업자(34.6%)는 2~3년제 졸업자(20.2%)에 비해 경영재무직 진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3년제 대학 졸업자 중 남성의 60% 이상이 판매 및 개인서비스직과 건설·생산직 분야로 진출하였고, 여성은 경영재무직, 보건·의료 관련직, 판매 및 개인서비스직 진출 비율이 높았다. 4년제 졸업자의 경우 남성은 건설·생산직(31.3%)과 경영재무직(30.6%) 진출 비율이, 여성은 경영재무직(38.3%) 진출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관련직(15.5%)과 기타 사회서비스직(14.4%) 진출 비율이 높았다.

<표Ⅶ-10> 학교유형별 첫 일자리 진출분야(직업)

(단위: %)

	2~3년제			4년제			교육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관리직	-	-	-	0.1	-	0.1	-	-	-
경영재무직	20.2	15.5	23.8	34.6	30.6	38.3	0.6	-	0.8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4.5	1.7	6.6	10.9	6.2	15.5	94.7	89.1	97.0
보건, 의료 관련직	16.5	6.5	24.1	7.2	3.1	11.1	-	-	-
기타 사회서비스직	13.0	8.3	16.7	10.8	7.0	14.4	-	-	-
판매 및 개인서비스직	23.6	25.2	22.4	14.4	17.2	11.6	1.9	1.3	2.2
건설, 생산직	20.3	39.3	5.7	19.7	31.3	8.5	0.2	0.8	-
농림어업직	0.5	1.0	0.1	0.2	0.3	0.1	-	-	-
군인	1.4	2.4	0.6	2.3	4.2	0.4	2.6	8.8	-

주: 대졸자의 직업분야별 진출 비율을 고려해 직업중분류 상에서 재분류한 표임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47.8%)과 사회계열(52.2%), 자연계열(26.2%)의 경우 경영재무직 진출 비율이 모두 가장 높고, 교육계열은 졸업자 중 56.1%가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학계열은 건설·생산직(60.9%) 진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의약계열은 82.2%가 보건·의료 관련직에 진출하였다. 예체능계열과 자연계열은 다른 전공계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직업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Ⅶ-11> 전공계열별 첫 일자리 진출분야(직업)

(단위: %)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관리직	-	-	0.1	-	0.1	-	-
경영재무직	47.8	52.2	10.6	17.7	26.2	5.9	17.3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11.1	3.0	56.1	2.8	14.8	1.6	13.1
보건, 의료 관련직	0.9	1.9	2.7	1.1	7.5	82.2	2.5
기타 사회서비스직	11.5	12.8	22.3	4.2	3.8	1.2	29.5
판매 및 개인서비스직	22.3	21.0	5.1	10.8	23.7	4.8	29.9
건설, 생산직	4.7	5.6	1.2	60.9	20.7	4.1	6.4
농림어업직	0.1	0.3	-	0.1	1.7	-	0.1
군인	1.7	3.1	1.8	2.2	1.4	0.2	1.2

주: 대졸자의 직업분야별 진출 비율을 고려해 직업중분류 상에서 재분류한 표임

학교소재권역별로 보면, 모든 권역에서 경영재무직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권의 경우는 청년층 대졸자의 경영재무직 진출비율이 40%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라권, 경기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건설, 생산직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경기권(20.5%)은 판매 및 개인서비스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전라권은 보건·의료관련직(18.6%)의 비율이 높았다.

<표Ⅶ-12> 학교소재권역별 첫 일자리 진출분야(직업)

(단위: %)

	서울권	경기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관리직	-	-	-	0.1	0.1
경영재무직	40.9	28.3	28.5	24.9	22.7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10.6	7.6	11.0	8.7	11.1
보건, 의료 관련직	3.9	8.7	10.0	13.4	18.6
기타 사회서비스직	11.2	13.7	11.2	10.6	9.1
판매 및 개인서비스직	12.9	20.5	18.2	17.7	17.4
건설, 생산직	18.6	19.6	18.3	22.6	17.0
농림어업직	-	0.2	0.4	0.3	1.1
군인	1.8	1.5	2.4	1.7	3.1

주: 대졸자의 직업분야별 진출 비율을 고려해 직업중분류 상에서 재분류한 표임

3) 사업체 규모

대졸 청년층이 처음으로 진출하는 일자리의 사업체 규모는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가 27.0%,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21.2%로 나타났다. 2011년 졸업자 이후 사업체 규모별 진출 비율은 별다른 변화없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10명 미만 사업체 입직 비율과 300명 이상 사업체 입직 비율이 각각 23.3%, 23.7%로 유사하나, 여성의 경우 10명 미만 사업체 입직 비율이 30.3%로 남성에 비해 7.0%p 높고, 300명 이상 사업체 진출 비율은 4.8%p 낮다.

<표VII-13> 첫 일자리 사업체 규모

(단위: 명, %)

	2015GOMS			2014 GOMS	2013 GOMS	2012 GOMS	2011 GOMS
		남성	여성				
10명 미만	109,408 (27.0)	43,993 (23.3)	65,415 (30.3)	98,363 (25.8)	95,487 (25.6)	86,537 (22.6)	89,401 (23.9)
10-29명	82,633 (20.4)	35,208 (18.6)	47,425 (22.0)	76,185 (20.0)	73,313 (19.6)	76,661 (20.0)	70,675 (18.9)
30-99명	74,819 (18.5)	37,192 (19.7)	37,627 (17.4)	76,113 (19.9)	76,232 (20.4)	78,833 (20.6)	71,346 (19.1)
100-299명	52,249 (12.9)	27,763 (14.7)	24,486 (11.3)	47,035 (12.3)	48,130 (12.9)	50,066 (13.1)	48,566 (13.0)
300명 이상	85,723 (21.2)	44,821 (23.7)	40,901 (18.9)	83,840 (22.0)	80,410 (21.5)	90,498 (23.7)	93,632 (25.1)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2~3년제 대졸자는 10명 미만 규모의 사업체 진출 비율이 34.4%, 10-29명 미만 규모 사업체 22.7% 순이다. 반면 4년제 대졸자는 300명 이상 규모 사업체 진출 비율이 가장 높아 24.8%로 나타났다. 교육대 졸업자의 경우에는 30-99명 미만 규모 사업체 진출 비율이 73.1%를 차지하는데, 이는 교육대 졸업자들이 졸업 후 대부분 초등학교로 취업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학교유형별·성별 사업체 규모를 살펴보면, 2~3년제 졸업자는 남성의 경우 10명 미만 사업체 종사자 비율이 30.2%로 여성에 비해 7.5%p 낮고, 4년제 남성 졸업자의 10명 미만 사업체 종사자 비율은 20.0%로 여성에 비해 6.2%p 낮다. 반면,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체 진출비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4년제에서는 5.9%p 차이를 보였다.

〈표VII-14〉 학교유형별 사업체 규모

(단위: 명, %)

	2~3년제			4년제			교육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0명 미만	50,395 (34.4)	19,153 (30.2)	31,242 (37.7)	58,919 (23.2)	24,820 (20.0)	34,099 (26.2)	94 (2.4)	20 (1.7)	75 (2.7)
10~29명	33,218 (22.7)	13,441 (21.2)	19,778 (23.8)	48,642 (19.1)	21,513 (17.3)	27,130 (20.9)	772 (19.5)	254 (22.2)	518 (18.5)
30~99명	23,624 (16.1)	12,156 (19.2)	11,467 (13.8)	48,309 (19.0)	24,251 (19.5)	24,058 (18.5)	2,887 (73.1)	785 (68.4)	2,102 (75.0)
100~299명	16,628 (11.4)	8,508 (13.4)	8,120 (9.8)	35,508 (14.0)	19,219 (15.4)	16,289 (12.5)	112 (2.8)	36 (3.1)	77 (2.7)
300명 이상	22,512 (15.4)	10,165 (16.0)	12,347 (14.9)	63,126 (24.8)	34,603 (27.8)	28,523 (21.9)	84 (2.1)	53 (4.7)	31 (1.1)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예체능계열의 경우 10명 미만 규모의 사업체에 진출하는 비율이 46.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문계열(30.0%)과 자연계열(25.8%), 사회계열(25.6%) 순으로 나타난다. 3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로 처음 취업하는 비율은 의약계열(33.8%)과 공학계열(27.1%)이 높게 나타났다.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체로의 취업 비율이 가장 낮은 계열은 교육계열로 5.3%에 불과하며, 다른 계열과 다르게 10~29명 미만 사업체 취업비율이 34.2%로 높게 나타난다.

〈표VII-15〉 전공계열별 사업체 규모

(단위: 명, %)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10명 미만	11,026 (30.0)	28,345 (25.6)	6,360 (25.2)	19,255 (20.2)	10,210 (25.8)	8,350 (20.1)	25,862 (46.5)
10~29명	7,875 (21.4)	22,868 (20.6)	8,654 (34.2)	17,144 (18.0)	7,790 (19.7)	6,085 (14.7)	12,217 (22.0)
30~99명	5,750 (15.7)	21,823 (19.7)	7,631 (30.2)	17,784 (18.7)	7,773 (19.6)	6,197 (15.0)	7,861 (14.1)
100~299명	5,136 (14.0)	14,384 (13.0)	1,298 (5.1)	15,293 (16.1)	5,287 (13.4)	6,810 (16.4)	4,040 (7.3)
300명 이상	6,952 (18.9)	23,434 (21.1)	1,337 (5.3)	25,792 (27.1)	8,530 (21.5)	14,008 (33.8)	5,670 (10.2)

학교소재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권의 경우 300명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 진출하는 비율이 31.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상권(19.5%)과 충청권(19.2%) 순으로 나타난다. 서울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청년층 대졸자가 10명 미만 규모 사업체에 진출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전라권은 10명 미만 규모 사업체 진출비율(30.4%)이 가장 높고,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체로의 진출비율은 경기권(18.5%)과 전라권(18.1%)이 낮았다.

<표VII-16> 학교소재권역별 사업체 규모

(단위: 명, %)

	서울권	경기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10명 미만	14,998 (20.5)	31,218 (29.4)	17,949 (25.4)	31,127 (28.7)	14,116 (30.4)
10-29명	13,132 (17.9)	23,306 (21.9)	14,755 (20.9)	22,981 (21.2)	8,458 (18.2)
30-99명	12,414 (17.0)	19,297 (18.2)	14,297 (20.3)	19,888 (18.4)	8,923 (19.2)
100-299명	9,593 (13.1)	12,835 (12.1)	10,067 (14.3)	13,193 (12.2)	6,561 (14.1)
300명 이상	23,036 (31.5)	19,633 (18.5)	13,532 (19.2)	21,138 (19.5)	8,383 (18.1)

3.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 근로소득

1) 종사상 지위

2015년 청년 대졸자가 첫 일자리에서 가진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가 97.5%이며,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2.5%이다. 취업자 중 상용직 비율은 74.9%, 임시직 비율은 20.4%, 일용직 비율은 2.2%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임금근로자 비율은 비슷하지만 상용직 비율이 여성(72.9%)에 비해 남성(77.2%)이 4.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용직 비율은 교육대 졸업자가 83.6%로 가장 높고, 2~3년제 졸업자는 76.8%, 4년제 졸업자는 73.7%로 조사되었다. 임시직 비율은 4년제 졸

업자가 가장 높은 21.5%, 2~3년제 18.6%, 교육대 15.3%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의약계열(99.6%)의 임금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고, 예체능계열(94.7%)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용직 비율은 의약계열(87.9%)과 공학계열(81.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예체능계열과 인문계열의 상용직 비율은 각각 61.3%, 65.7%로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Ⅶ-17> 성별, 졸업대학 특성별 종사상 지위

(단위: 명, %)

		임금근로	상용	임시	일용	비임금근로
전체		400,004 (97.5)	307,256 (74.9)	83,772 (20.4)	8,976 (2.2)	10,167 (2.5)
성	남성	185,696 (97.0)	147,696 (77.2)	34,150 (17.8)	3,851 (2.0)	5,651 (3.0)
	여성	214,308 (97.9)	159,561 (72.9)	49,622 (22.7)	5,126 (2.3)	4,516 (2.1)
학교 유형	2~3년제	145,453 (98.2)	113,860 (76.8)	27,600 (18.6)	3,993 (2.7)	2,716 (1.8)
	4년제	250,586 (97.1)	190,073 (73.7)	55,564 (21.5)	4,949 (1.9)	7,439 (2.9)
	교육대	3,965 (99.7)	3,323 (83.6)	608 (15.3)	34 (0.8)	12 (0.3)
전공 계열	인문	36,042 (97.0)	24,413 (65.7)	10,353 (27.9)	1,276 (3.4)	1,101 (3.0)
	사회	109,957 (97.8)	84,447 (75.1)	23,253 (20.7)	2,257 (2.0)	2,502 (2.2)
	교육	25,216 (98.8)	19,935 (78.1)	4,944 (19.4)	337 (1.3)	312 (1.2)
	공학	94,589 (98.0)	78,793 (81.6)	14,123 (14.6)	1,674 (1.7)	1,920 (2.0)
	자연	39,157 (97.0)	28,353 (70.3)	9,846 (24.4)	957 (2.4)	1,193 (3.0)
	의약	41,618 (99.6)	36,729 (87.9)	4,333 (10.4)	556 (1.3)	165 (0.4)
	예체능	53,426 (94.7)	34,587 (61.3)	16,920 (30.0)	1,919 (3.4)	2,976 (5.3)

첫 일자리를 조사 기준시점까지 유지하고 있는 경우, 첫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는 전체 취업자 중 상용직이 82.5%, 임시직 12.9%였다. 반면, 비유지자는 첫 일자리에서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 59.9%, 임시직 35.1%로 나타나 비유지자의 임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Ⅶ-18> 첫 일자리 유지여부별 종사상 지위

(단위: 명, %)

	유지자	비유지자
임금근로	263,463 (96.9)	136,732 (98.9)
상용	224,505 (82.5)	82,752 (59.9)
임시	35,219 (12.9)	48,553 (35.1)
일용	3,643 (1.3)	5,333 (3.9)
비임금근로	8,611 (3.2)	1,557 (1.1)

2) 근로시간

2015년 대졸 청년층이 첫 일자리에서 주당 평균 일한 시간은 44.6시간이며, 남성이 46.2시간, 여성은 43.1시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주당 평균 3.1시간 더 많이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2~3년제 대학 졸업자(46시간)의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전공계열별로는 공학계열(46.6시간)과 의약계열(46.3시간) 졸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2~3년제 및 교육대 졸업자에 비해 4년제 졸업자의 성별 주당 근로시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커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주당 평균 3.6시간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계열별로는 의약과 예체능계열의 남성 졸업자가 여성에 비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다른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었고, 교육계열 졸업자의 경우에만 여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남성이 비해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Ⅶ-19> 졸업대학 특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44.6	46.2	43.1
학교유형	2~3년제	46.0	47.5	44.8
	4년제	43.9	45.7	42.1
	교육대	40.6	41.8	40.1
전공계열	인문	41.8	43.9	40.9
	사회	44.4	45.7	43.4
	교육	41.8	40.1	42.2
	공학	46.6	47.2	44.2
	자연	45.0	46.5	43.9
	의약	46.3	49.1	45.5
	예체능	42.9	45.2	41.7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의 첫 일자리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비임금근로자보다 더 길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근로시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비임금근로자보다 0.3시간 긴 반면, 여성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43.3시간으로 여성 비임금근로자(33.3시간)에 비해 주당 평균 10시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상용직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6.4시간, 임시직 39.7시간, 일용직 33.2시간으로 상용직에 비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각각 6.7시간, 13.2시간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상용직과 임시직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주당 평균 2.5시간 정도 더 일하고 있으며, 임시직은 주당 평균 4.4시간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Ⅶ-20>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전체	남성	여성
임금근로		44.7	46.3	43.3
	상용	46.4	47.7	45.2
	임시	39.7	41.3	38.7
	일용	33.2	35.8	31.4
비임금근로		40.3	46.0	33.3

아래 <표VII-21>은 산업·직업·사업체 규모별 대졸 청년층의 첫 일자리 주당 평균 근로시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산업별종사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보면 제조업이 47.3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의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 38.2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보건·의료 관련직 종사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6.6시간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종사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또한 45.9시간으로 길게 나타났다. 반면에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6.4시간으로 짧았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명 이상 규모 사업체 종사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6.0시간으로 가장 길고, 10명 미만 사업체(42.6시간)와 30-99명 미만 사업체(44.9시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VII-21> 산업 및 직업, 사업체 규모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전체	남성	여성
산업	제조업	47.3	48.2	45.4
	도매 및 소매업	45.4	46.3	44.5
	숙박 및 음식점업	44.1	47.4	41.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5.2	45.6	44.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5.5	46.4	44.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5.3	46.6	42.8
	교육 서비스업	38.2	39.4	37.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5.5	47.1	45.1
직업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44.4	45.4	43.7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관련직	36.4	37.3	36.1
	보건·의료 관련직	46.6	50.0	45.9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45.9	46.9	45.4
	영업 및 판매 관련직	44.1	46.1	41.4
사업체 규모	10명 미만	42.6	44.8	41.2
	10-29명	45.2	47.0	43.8
	30-99명	44.9	46.1	43.7
	100-299명	45.2	46.2	44.1
	300명 이상	46.0	47.4	44.5

주: 산업·직업 종사비율 5% 이상 분야만 분석

졸업 후 첫 일자리를 2015년 조사기준 시점까지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당 평균 44.3시간, 비유지자는 45.1시간 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Ⅶ-22> 첫 일자리 유지여부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전체	남성	여성
유지	44.3	45.9	42.8
비유지	45.1	47.2	43.7

3) 근로소득

2015년 대졸 청년층의 첫 일자리 월평균 근로소득은 191만 4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남성(212만 9천원)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여성(172만 8천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2~3년제 졸업자(174만 5천원)의 월평균 소득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4년제(200만 8천원), 교육대(213만 2천원)의 순이다. 남성 임금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4년제 대졸자가 가장 커 80.5%이며, 2~3년제 졸업자 83.4%, 교육대 졸업자 97.4%이다.

전공계열별로는 공학계열(217만원)과 의약계열(208만 7천원) 졸업자의 월평균 소득이 높은 반면, 예체능계열(158만 2천원), 인문계열(174만 2천원) 졸업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낮게 형성되어 있다.

학교소재권역별로는 서울권 청년층 대졸자의 첫 일자리 월평균 소득이 211만 6천원으로 다른 권역 대졸자에 비해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경상권(191만 1천원)의 월평균 소득이 높았으며, 경기권의 경우는 월평균 소득이 183만 6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표VII-23> 졸업대학 특성별 근로소득

(단위: 만원)

		전체	남성	여성
전체		191.4	212.9	172.8
학교유형	2~3년제	174.5	192.7	160.8
	4년제	200.8	223.1	179.6
	교육대	213.2	217.2	211.5
전공계열	인문	174.2	194.5	165.1
	사회	191.6	216.5	172.1
	교육	185.0	207.9	179.0
	공학	217.0	223.5	187.9
	자연	178.1	190.6	168.4
	의약	208.7	221.7	204.8
	예체능	158.2	187.3	144.0
학교소재권역	서울권	211.6	246.5	186.9
	경기권	183.6	201.6	168.4
	충청권	185.5	201.7	170.1
	경상권	191.1	212.6	170.5
	전라권	187.4	209.8	167.4

종사상 지위별 월평균 소득은 임금근로자는 190만원, 비임금근로자는 258만 7천원으로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이 임금근로자보다 월 평균 68만 7천원 높게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의 월평균 소득은 207만 9천원으로 임시직(133만원), 일용직(104만 9천원)에 비해 매우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여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 139만 4천원, 상용직은 37만 7천원 더 높게 나타났다.

<표VII-24> 종사상 지위별 근로소득

(단위: 만원)

		전체	남성	여성
임금근로		190.0	210.1	172.6
	상용	207.9	227.5	189.8
	임시	133.0	144.5	125.0
	일용	104.9	118.4	95.0
비임금근로		258.7	322.6	183.2

산업별로는 제조업(234만원)분야의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97만 1천원)과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94만 6천원) 분야의 월평균 소득이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50만 1천원에 불과했다.

직업별로는 보건·의료관련직의 월평균 소득이 206만원으로 다른 직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영·회계·사무 관련직(190만 1천원)의 월평균 소득이 높았다. 반면에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관련직(158만 4천원)과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169만 7천원)의 월평균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체 규모별 평균 근로소득은 10명 미만 규모 사업체의 경우 157만원, 10-29명 규모 사업체는 183만 6천원으로 낮았고,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해 300명 이상 규모 사업체는 231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VII-25> 산업 및 직업, 사업체 규모별 근로소득

(단위: 만원)

		전체	남성	여성
산업	제조업	234.0	246.1	207.1
	도매 및 소매업	188.7	206.9	170.7
	숙박 및 음식점업	150.1	175.2	132.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94.6	208.0	179.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97.1	222.7	174.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88.9	196.5	175.3
	교육 서비스업	149.3	145.7	150.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94.7	216.3	189.9
직업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190.1	214.7	173.8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관련직	158.4	162.7	156.9
	보건·의료 관련직	206.0	228.7	200.6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169.7	192.8	158.8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86.3	212.3	151.1
사업체 규모	10명 미만	157.0	179.7	142.0
	10-29명	183.6	203.8	168.7
	30-99명	196.0	210.2	181.9
	100-299명	205.4	221.2	187.5
	300명 이상	231.0	250.9	209.3

주: 산업·직업 종사비율 5% 이상 분야만 분석

첫 일자리 유지여부별 월평균 소득은 유지자가 206만 3천원, 비유지자는 162만 3천원으로 유지자의 소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 마찬가지이다. 다만, 임금 조사 시 일자리 유지자는 현재 일자리에서 조사 기준시점(2016년 9월)에서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비유지자는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를 기준으로 한 3개월 간의 평균 임금을 조사하므로 시점의 차이가 있음은 유념하여야 한다.

〈표Ⅶ-26〉 첫 일자리 유지여부별 근로소득

(단위: 만원)

	전체	남성	여성
유지	206.3	228.2	185.6
비유지	162.3	178.5	150.4

2015년 대졸 청년층이 취업 후 받고자 했던 최소한의 소득은 연평균 2,512만 9천원으로 첫 직장에서의 실제 연평균 소득 2,297만 2천원과는 215만 7천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중임금과 첫 직장에서의 연평균 소득의 차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4년제 대학이 타 대학 유형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예체능계열에서 의중임금과 첫 직장 소득의 차이가 각각 344만 2천원, 376만 6천원, 362만 7천원으로 다른 계열에 비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소재권역별로는 서울권(283만 2천원)과 충청권(228만 8천원)에서의 청년층 대졸자 의중임금과 첫 직장 소득 차이가 다른 권역에 비해 높았고, 전라권(165만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차이를 보였다.

<표VII-27> 졸업대학 특성별 의중임금과 첫 직장에서의 연평균 소득

(단위: 만원)

		의중임금(A)	첫 직장 근로소득(B)	차이(A-B)
전체		2,512.9	2,297.2	215.7
성	남성	2,686.7	2,554.8	131.9
	여성	2,360.8	2,073.2	287.6
학교유형	2~3년제	2,251.2	2,094.2	157.1
	4년제	2,662.5	2,409.6	252.9
	교육대	2,524.9	2,558.4	-33.5
전공계열	인문	2,433.9	2,089.8	344.2
	사회	2,479.8	2,299.4	180.4
	교육	2,351.3	2,220.0	131.4
	공학	2,739.8	2,603.9	135.9
	자연	2,513.5	2,136.9	376.6
	의약	2,582.0	2,504.4	77.6
	예체능	2,261.5	1,898.8	362.7
학교 소재권역	서울권	2,822.5	2,539.3	283.2
	경기권	2,401.1	2,202.6	198.5
	충청권	2,454.9	2,226.1	228.8
	경상권	2,493.0	2,292.7	200.3
	전라권	2,413.6	2,248.7	165.0

부표1.

년도별 주요 표

부표1-1. 현재 일자리

<부표1-1> 대졸자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명, %)

구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전체
	취업자	실업자		
2015GOMS	380,948 (73.9)	35,304 (6.9)	99,068 (19.2)	515,320 (100.0)
2014GOMS	370,293 (74.9)	35,650 (7.2)	88,381 (17.9)	494,324 (100.0)
2013GOMS	362,335 (73.7)	36,557 (7.4)	92,874 (18.9)	491,765 (100.0)
2012GOMS	381,658 (75.9)	32,711 (6.5)	88,517 (17.6)	502,886 (100.0)
2011GOMS	380,776 (79.4)	27,818 (5.8)	70,878 (14.8)	479,472 (100.0)
2010GOMS	376,048 (79.9)	25,807 (5.5)	68,703 (14.6)	470,558 (100.0)
2009GOMS	357,738 (74.5)	35,819 (7.5)	86,636 (18.0)	480,193 (100.0)
2008GOMS	391,390 (78.7)	31,363 (6.3)	74,621 (15.0)	497,374 (100.0)
2007GOMS	389,205 (78.0)	33,033 (6.6)	76,461 (15.3)	498,700 (100.0)

<부표1-2> 현재 일자리 진출 분야(산업)

(단위:%)

	2015 GOMS	2014 GOMS	2013 GOMS	2012 GOMS	2011 GOMS	2010 GOMS	2009 GOMS	2008 GOMS	2007 GOMS
농림어업	0.3	0.5	0.4	0.4	0.3	0.5	0.4	0.4	0.4
제조업(광업포함)	17.1	18.3	18.4	18.2	17.9	17.4	16.6	16.4	17.5
전기, 가스, 건설업	4.1	4.1	4.4	4.2	4.1	4.0	5.1	4.8	4.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4.7	14.6	13.8	13.4	13.5	12.7	13.1	11.7	12.1
운수통신업	8.5	8.0	9.0	8.9	8.3	7.7	8.1	8.2	9.2
금융 및 부동산업	4.3	4.1	4.4	5.8	6.0	6.3	6.6	6.7	7.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	7.2	7.3	7.4	7.1	7.2	7.6	7.4	8.1
교육서비스업	14.4	14.2	14.1	13.9	15.4	16.0	14.5	15.8	13.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3	14.9	14.6	14.3	13.9	14.3	15.1	14.2	13.1
기타 공공서비스업	14.8	14.0	13.6	13.3	13.4	13.5	12.8	14.3	13.7
국제 및 외국기관	-	0.2	0.1	0.1	0.1	-	0.1	0.1	-

주: 산업분야별 진출 비율을 고려해 산업대분류 상에서 재분류한 표임

<부표1-3> 현재 일자리 진출 분야(직업)

(단위: %)

직업중분류	2015 GOMS	2014 GOMS	2013 GOMS	2012 GOMS	2011 GOMS	2010 GOMS	2009 GOMS	2008 GOMS	2007 GOMS
관리직	0.1	0.1	0.1	0.2	0.3	0.3	0.1	0.4	0.5
경영·회계·사무관련직	27.2	27.1	27.9	29.6	29.7	29.5	28.9	29.5	28.3
금융·보험관련직	2.7	2.2	2.6	3.8	3.9	4.4	4.7	5.2	4.8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관련직	7.9	7.2	8.0	8.5	10.5	10.6	9.4	10.6	8.9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1.0	0.8	0.6	0.8	0.8	0.9	1.0	1.0	1.1
보건·의료 관련직	11.4	11.5	10.4	10.1	9.9	9.7	10.2	9.6	9.4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5.3	5.3	5.6	5.9	5.9	5.9	6.5	5.7	5.4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5.4	6.1	6.0	6.1	5.6	5.8	5.7	5.8	6.1
운전 및 운송 관련직	0.9	1.0	1.1	0.9	0.9	1.1	0.9	1.0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6.8	7.5	7.0	6.7	6.8	6.9	6.9	6.7	6.9
경비 및 청소 관련직	0.9	0.8	0.7	0.7	0.8	0.9	0.9	0.9	0.9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3.3	3.1	3.3	2.7	2.5	2.7	2.5	2.4	3.0
음식 서비스 관련직	3.6	3.8	2.9	2.5	2.3	2.1	1.7	1.8	1.6
건설 관련직	2.6	2.4	2.6	2.4	2.5	2.6	3.0	3.2	3.6
기계 관련직	4.8	4.9	4.7	4.3	4.4	3.8	3.9	3.5	4.3
재료 관련직	0.7	1.0	0.8	0.7	0.6	0.6	0.6	0.7	0.7
화학 관련직	1.0	1.1	1.3	1.0	1.0	0.8	0.7	0.8	0.9
섬유 및 의복 관련직	0.2	0.1	0.2	0.1	0.2	0.1	0.1	0.1	0.2
전기·전자 관련직	4.1	4.1	4.3	4.1	3.8	3.9	3.8	3.5	4.1
정보통신 관련직	5.0	4.7	5.2	5.2	4.9	4.7	5.2	5.0	5.6
식품·가공 관련직	0.8	0.8	0.7	0.8	0.7	0.5	0.6	0.6	0.4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1.8	1.7	1.8	1.6	1.2	1.3	1.4	1.3	1.7
농림어업 관련직	0.2	0.3	0.1	0.2	0.1	0.1	0.1	0.1	0.1
군인	2.2	2.4	2.1	1.1	0.7	0.7	1.1	0.6	0.4

<부표1-4> 현재 일자리 사업체 규모

(단위: 명, %)

	2015 GOMS	2014 GOMS	2013 GOMS	2012 GOMS	2011 GOMS	2001 GOMS	2009 GOMS	2008 GOMS	2007 GOMS
1~4명	48,268 (12.8)	44,726 (12.4)	43,052 (12.1)	45,017 (11.9)	49,253 (13.0)	52,817 (14.2)	45,199 (12.6)	56,108 (14.4)	53,992 (13.9)
5~9명	51,805 (13.7)	48,232 (13.3)	47,995 (13.5)	42,956 (11.3)	44,596 (11.8)	47,357 (12.7)	46,512 (13.0)	51,714 (13.2)	48,957 (12.6)
10~29명	75,844 (20.1)	71,806 (19.9)	68,818 (19.4)	75,622 (20.0)	69,062 (18.2)	72,215 (19.4)	75,008 (21.0)	78,554 (20.1)	77,517 (19.9)
30~49명	32,544 (8.6)	32,809 (9.1)	32,024 (9.0)	35,023 (9.2)	31,787 (8.4)	33,994 (9.1)	34,963 (9.8)	36,787 (9.4)	35,889 (9.2)
50~99명	38,298 (10.2)	38,888 (10.8)	40,903 (11.5)	44,214 (11.7)	42,640 (11.3)	40,648 (10.9)	42,766 (12.0)	44,814 (11.5)	42,162 (10.8)
100~299명	49,689 (13.2)	44,331 (12.3)	44,078 (12.4)	46,990 (12.4)	48,176 (12.7)	45,025 (12.1)	42,137 (11.8)	45,612 (11.7)	49,140 (12.6)
300~499명	19,461 (5.2)	19,128 (5.3)	17,275 (4.9)	20,791 (5.5)	20,948 (5.5)	18,957 (5.1)	16,026 (4.5)	19,682 (5.0)	18,904 (4.9)
500~999명	18,512 (4.9)	17,204 (4.8)	17,887 (5.0)	21,801 (5.8)	22,482 (5.9)	19,508 (5.2)	16,628 (4.6)	18,995 (4.9)	19,850 (5.1)
1,000명이상	42,356 (11.2)	44,441 (12.3)	42,432 (12.0)	46,369 (12.2)	49,167 (13.0)	42,097 (11.3)	38,444 (10.7)	38,499 (9.9)	42,650 (11.0)

<부표1-5> 현재 일자리 종사상 지위

(단위: 명, %)

		임금근로				비임금근로		
		상용	임시	일용		종업원을 둔 고용주	종업원이 없는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2015GOMS	364,272 (95.6)	303,568 (79.7)	54,539 (14.3)	6,166 (1.6)	16,675 (4.4)	5,060 (1.3)	10,172 (2.7)	1,443 (0.4)
2014GOMS	353,634 (95.5)	290,758 (78.5)	57,289 (15.5)	5,588 (1.5)	16,659 (4.5)	6,240 (1.7)	9,674 (2.6)	745 (0.2)
2013GOMS	346,358 (95.6)	299,650 (86.5)	41,954 (12.1)	4,755 (1.4)	15,976 (4.4)	7,134 (44.7)	7,627 (47.7)	1,216 (7.6)
2012GOMS	363,677 (95.3)	305,055 (79.9)	53,420 (14.0)	5,203 (1.4)	17,981 (4.7)	6,317 (1.7)	10,311 (2.7)	1,354 (0.4)
2011GOMS	358,149 (94.6)	299,704 (79.1)	56,361 (14.9)	2,084 (0.6)	20,631 (5.4)	7,703 (2.0)	11,821 (3.1)	1,106 (0.3)
2010GOMS	356,373 (94.8)	308,887 (82.1)	42,812 (11.4)	4,674 (1.2)	19,675 (5.2)	8,244 (2.2)	9,922 (2.6)	1,508 (0.4)
2009GOMS	340,481 (95.2)	303,087 (84.7)	34,185 (9.6)	3,211 (0.9)	17,276 (4.8)	7,886 (2.2)	8,986 (2.5)	405 (0.1)
2008GOMS	369,088 (94.3)	321,364 (82.1)	44,775 (11.4)	2,949 (0.8)	22,302 (5.7)	9,214 (2.4)	11,776 (3.0)	1,312 (0.3)
2007GOMS	368,317 (94.4)	314,616 (80.6)	49,826 (12.8)	3,875 (1.0)	21,958 (5.7)	9,005 (2.3)	11,943 (3.1)	1,010 (0.3)

<부표1-6> 현재 일자리 월평균 근로소득 및 주당 평균근로시간

(단위: 만원, 시간)

	전체		남성		여성	
	소득	근로시간	소득	근로시간	소득	근로시간
2015GOMS	207.6	44.2	231.5	45.8	184.8	42.7
2014GOMS	203.7	45.2	226.4	48.6	182.2	42.0
2013GOMS	204.7	45.1	235.1	47.4	175.7	43.0
2012GOMS	197.5	44.9	224.9	46.7	171.8	43.1
2011GOMS	198.6	45.4	226.8	47.4	170.6	43.5
2010GOMS	194.1	45.9	222.3	48.1	166.8	43.7
2009GOMS	188.3	46.2	213.0	47.7	163.5	44.8
2008GOMS	184.5	47.1	208.2	49.6	160.6	44.6
2007GOMS	190.2	47.0	215.0	49.2	164.0	44.8

부표1-2. 첫 일자리

<부표1-7> 첫 일자리 진출분야

(단위: %)

	2015 GOMS	2014 GOMS	2013 GOMS	2012 GOMS	2011 GOMS	2010 GOMS	2009 GOMS	2008 GOMS	2007 GOMS
농업, 임업 및 어업	0.3	0.4	0.4	0.4	0.3	0.4	0.4	0.4	0.3
광업	-	-	-	-	-	0.1	-	-	-
제조업	16.6	17.5	17.6	17.1	17.4	16.3	15.7	16.2	16.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4	0.5	0.5	0.5	0.4	0.4	0.4	0.4	0.5
하수·폐기물 처리, 원 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2	0.1	0.1	0.2	0.2	0.2	0.2	0.2	0.2
건설업	3.5	3.6	3.7	3.8	3.6	3.6	4.7	4.5	4.5
도매 및 소매업	8.9	8.9	8.8	9.3	9.7	9.0	9.6	8.9	9.5
운수업	1.7	1.6	2.0	1.7	1.6	1.6	1.6	1.7	1.6
숙박 및 음식점업	6.9	6.6	5.6	4.9	4.6	3.8	3.6	3.5	3.6
출판, 영상, 방송통 신 및 정보서비스업	6.6	6.4	7.1	7.1	6.7	6.2	6.6	6.8	7.2
금융 및 보험업	2.9	3.0	3.5	4.7	4.9	5.2	5.3	5.7	5.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	0.8	0.9	0.9	0.8	0.8	1.0	0.9	1.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5	7.4	7.8	7.9	7.3	7.5	7.9	7.9	8.4
사업시설관리 및 사 업지원 서비스업	3.8	3.6	3.5	3.9	4.3	3.8	3.0	4.2	3.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9	4.7	4.1	3.7	3.3	4.1	4.8	3.9	3.5
교육 서비스업	14.5	15.1	14.7	14.2	15.3	17.0	15.1	15.5	14.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8	13.9	14.0	13.9	13.6	14.0	14.7	13.7	12.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5	2.8	2.7	2.5	2.4	2.3	2.2	2.4	2.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2	3.0	2.9	3.5	3.6	3.5	3.1	3.3	3.7
국제 및 외국기관	-	0.1	0.1	0.1	-	-	-	-	0.1

<부표1-8> 첫 일자리 진출분야(직업 중분류)

(단위: %)

	2015 GOMS	2014 GOMS	2013 GOMS	2012 GOMS	2011 GOMS	2010 GOMS	2009 GOMS	2008 GOMS	2007 GOMS
관리직	0.2	0.2	0.3	0.3	0.5	0.4	0.2	0.6	0.8
경영·회계·사무관련직	26.8	26.8	27.9	29.0	28.7	29.0	27.7	27.6	26.5
금융·보험 관련직	2.2	2.0	2.2	3.2	3.3	3.6	3.9	4.3	4.0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9.3	9.2	9.6	10.2	12.1	12.8	11.7	12.4	11.1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0.8	0.7	0.6	0.6	0.7	0.8	0.8	0.8	1.0
보건의료 관련직	10.5	10.1	9.2	9.2	8.8	9.0	9.5	8.8	8.6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4.9	4.7	5.1	5.4	5.4	5.5	6.1	5.4	5.3
문화·예술디자인 방송 관련직	6.2	6.7	6.8	6.6	6.5	6.2	6.3	6.6	6.4
운전 및 운송 관련직	0.9	0.9	0.9	1.0	0.9	1.0	1.0	1.2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7.4	7.9	7.7	7.5	7.4	7.3	7.7	7.6	7.7
경비 및 청소 관련직	0.9	0.9	0.8	0.9	1.0	0.9	1.0	0.9	0.8
미용·숙박·여행·오락 스포츠 관련직	3.6	3.6	3.6	3.2	3.3	3.3	2.9	3.1	3.7
음식 서비스 관련직	4.6	4.7	3.7	3.1	3.0	2.4	2.1	2.2	2.0
건설 관련직	2.6	2.3	2.6	2.2	2.3	2.6	2.9	3.0	3.7
기계 관련직	4.4	4.4	4.0	4.0	4.0	3.3	3.4	3.2	3.9
재료 관련직	0.7	.8	0.7	0.7	0.5	0.5	0.6	0.5	0.7
화학 관련직	1.0	1.1	1.1	0.9	0.9	0.7	0.7	0.8	0.9
섬유 및 의복 관련직	0.2	0.1	0.1	0.2	0.2	0.1	0.1	0.1	0.1
전기·전자 관련직	3.6	3.8	3.9	3.5	3.5	3.5	3.4	3.3	3.9
정보통신 관련직	4.6	4.3	4.7	4.6	4.3	4.1	4.8	4.6	5.0
식품가공 관련직	0.8	0.8	0.7	0.7	0.7	0.6	0.6	0.5	0.5
환경·인쇄·목재·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1.8	1.7	1.6	1.5	1.3	1.4	1.4	1.3	1.6
농림어업 관련직	0.4	0.4	0.4	0.4	0.3	0.4	0.3	0.4	0.3
군인	1.9	1.9	1.7	1.0	0.6	0.6	0.9	0.6	0.4

<부표1-9> 첫 일자리 사업체 규모

(단위: 명, %)

	2015 GOMS	2014 GOMS	2013 GOMS	2012 GOMS	2011 GOMS	2010 GOMS	2009 GOMS	2008 GOMS	2007 GOMS
1-4명	56,702 (13.0)	52,434 (12.6)	50,527 (12.2)	50,476 (11.6)	54,252 (12.6)	56,756 (13.5)	50,506 (12.6)	59,214 (13.4)	59,819 (13.6)
5-9명	64,016 (14.6)	58,503 (14.0)	58,934 (14.3)	53,784 (12.4)	56,002 (13.0)	58,007 (13.8)	55,188 (13.8)	64,815 (14.7)	60,608 (13.8)
10-29명	89,365 (20.4)	83,105 (19.9)	81,799 (19.8)	86,680 (19.9)	82,226 (19.1)	82,013 (19.5)	83,537 (20.9)	91,455 (20.7)	89,863 (20.4)
30-49명	37,668 (8.6)	38,321 (9.2)	37,615 (9.1)	40,219 (9.2)	35,406 (8.2)	38,832 (9.2)	39,851 (10.0)	41,350 (9.4)	40,976 (9.3)
50-99명	42,972 (9.8)	44,098 (10.6)	45,559 (11.0)	50,226 (11.5)	46,848 (10.9)	45,129 (10.7)	47,342 (11.8)	48,669 (11.0)	47,782 (10.9)
100-299명	56,070 (12.8)	50,696 (12.2)	52,169 (12.6)	54,718 (12.6)	53,563 (12.4)	51,555 (12.3)	46,352 (11.6)	51,845 (11.7)	53,398 (12.1)
300-499명	23,286 (5.3)	21,467 (5.2)	19,609 (4.8)	24,629 (5.7)	25,069 (5.8)	21,964 (5.2)	18,288 (4.6)	22,070 (5.0)	20,843 (4.7)
500-999명	21,149 (4.8)	20,083 (4.8)	20,471 (5.0)	24,562 (5.6)	25,517 (5.9)	21,945 (5.2)	17,556 (4.4)	20,148 (4.6)	21,179 (4.8)
1,000명 이상	46,568 (10.6)	47,896 (11.5)	45,898 (11.1)	49,768 (11.4)	51,555 (12.0)	43,795 (10.4)	41,475 (10.4)	41,846 (9.5)	45,674 (10.4)

<부표1-10> 종사상 지위

(단위: 명, %)

	임금 근로				비임금 근로			
		상용	임시	일용		종업원을 둔 고용주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2015GOMS	428,776 (96.7)	331,205 (74.7)	88,041 (19.9)	9,530 (2.1)	14,510 (3.3)	4,398 (1.0)	8,789 (2.0)	1,323 (0.3)
2014GOMS	412,982 (96.5)	314,437 (73.5)	90,203 (21.1)	8,343 (1.9)	14,911 (3.5)	5,466 (1.3)	8,776 (2.1)	669 (0.2)
2013GOMS	408,043 (96.7)	322,156 (76.3)	79,331 (18.8)	6,556 (1.6)	14,117 (3.3)	6,127 (1.5)	6,862 (1.6)	1,128 (0.3)
2012GOMS	421,899 (96.2)	338,425 (77.1)	75,566 (17.2)	7,908 (1.8)	16,812 (3.8)	6,044 (1.4)	9,564 (2.2)	1,205 (0.3)
2011GOMS	413,521 (95.8)	320,866 (74.4)	89,888 (20.8)	2,767 (0.6)	18,036 (4.2)	6,760 (1.6)	10,395 (2.4)	882 (0.2)
2010GOMS	406,910 (95.9)	325,611 (76.8)	75,374 (17.8)	5,926 (1.4)	17,327 (4.1)	7,549 (1.8)	8,437 (2.0)	1,340 (0.3)
2009GOMS	384,467 (96.0)	323,146 (80.7)	57,509 (14.4)	3,812 (1.0)	16,018 (4.0)	6,983 (1.7)	8,649 (2.2)	386 (0.1)
2008GOMS	423,562 (95.8)	356,955 (80.7)	63,132 (14.3)	3,475 (0.8)	18,766 (4.2)	7,543 (1.7)	10,164 (2.3)	1,059 (0.2)
2007GOMS	421,303 (95.4)	344,381 (78.0)	72,090 (16.3)	4,832 (1.1)	20,150 (4.6)	8,233 (1.9)	10,792 (2.4)	1,125 (0.3)

<부표1-11> 월평균 근로소득 및 주당 평균근로시간

(단위: 만원, 시간)

	전체		남성		여성	
	소득	근로시간	소득	근로시간	소득	근로시간
2015GOMS	196.1	44.5	219.8	46.1	174.5	43.0
2014GOMS	172.9	44.9	191.5	46.5	155.5	43.5
2013GOMS	193.1	45.4	221.8	47.5	166.7	43.4
2012GOMS	192.4	45.0	218.7	46.8	167.9	43.4
2011GOMS	186.1	45.8	213.4	47.6	160.2	44.1
2010GOMS	181.8	46.3	209.5	48.3	156.1	44.3
2009GOMS	178.9	46.3	203.8	47.9	155.1	44.8
2008GOMS	175.5	47.7	198.7	50.1	153.0	45.3
2007GOMS	179.5	47.6	202.7	49.8	156.2	45.4

부표1-3. 청년층_현재 일자리

<부표1-12> 대졸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명,%)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전체
2015GOMS	351,295 (73.5)	33,865 (7.1)	92,933 (19.4)	478,092 (100.0)
2014GOMS	336,835 (74.3)	33,757 (7.4)	82,820 (18.3)	453,412 (100.0)
2013GOMS	326,948 (73.3)	33,725 (7.6)	85,157 (19.1)	446,830 (100.0)
2012GOMS	333,895 (75.3)	29,996 (6.8)	79,281 (17.9)	443,171 (100.0)
2011GOMS	326,137 (78.7)	25,157 (6.1)	62,902 (15.2)	414,197 (100.0)
2010GOMS	321,748 (79.2)	23,115 (5.7)	61,321 (15.1)	406,184 (100.0)
2009GOMS	307,761 (73.5)	32,852 (7.8)	78,339 (18.7)	418,952 (100.0)
2008GOMS	342,075 (78.3)	28,686 (6.6)	66,097 (15.1)	436,859 (100.0)
2007GOMS	337,423 (77.1)	30,456 (7.0)	69,640 (15.9)	437,520 (100.0)

<부표1-13> 현재 일자리 진출분야(산업 대분류)

(단위: %)

	2015 GOMS	2014 GOMS	2013 GOMS	2012 GOMS	2011 GOMS	2010 GOMS	2009 GOMS	2008 GOMS	2007 GOMS
농업,임업 및 어업	0.3	0.3	0.3	0.3	0.2	0.3	0.3	0.2	0.2
광업	0.0	0.1	0.0	0.1	0.0	0.1	-	-	-
제조업	17.3	18.6	18.7	18.6	18.6	18.3	17.3	17.3	18.3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0.5	0.6	0.5	0.5	0.4	0.4	0.3	0.5	0.6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1	0.2	0.1	0.2	0.2	0.2	0.2	0.2	0.2
건설업	3.4	3.4	3.6	3.5	3.5	3.2	4.5	4.2	3.8
도매및소매업	8.8	8.8	8.7	9.6	9.7	10.0	10.2	8.8	9.1
운수업	1.9	1.6	2.1	1.8	1.6	1.5	1.6	1.8	1.7
숙박 및 음식점업	6.1	6.0	5.1	4.7	3.9	3.7	3.5	3.2	3.1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7	6.6	7.3	7.5	7.2	6.6	7.1	7.1	7.9
금융 및 보험업	3.3	3.1	3.5	4.7	5.2	5.4	5.5	5.9	6.2
부동산업 및 임대업	0.9	0.8	0.8	0.8	0.6	0.6	0.8	0.5	1.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	7.3	7.5	7.9	7.4	7.7	8.0	7.8	8.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7	3.3	3.7	3.8	4.7	4.2	2.9	4.0	3.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5.3	4.9	4.2	3.4	3.0	3.2	4.1	4.4	3.0
교육서비스업	14.7	14.6	14.4	13.9	15.9	16.4	14.8	15.9	14.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4.0	14.5	14.1	13.2	12.9	12.9	13.9	12.9	1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5	2.5	2.6	2.5	2.3	2.3	1.9	2.5	2.5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	3.0	2.8	2.7	3.0	2.7	2.9	3.0	2.8	3.3
국제및외국기관	0.01	0.2	0.1	-	0.1	-	-	-	-

<부표1-14> 일자리 진출분야(직업 중분류)

(단위: %)

	2015 GOMS	2014 GOMS	2013 GOMS	2012 GOMS	2011 GOMS	2010 GOMS	2009 GOMS	2008 GOMS	2007 GOMS
관리직	0.04	0.2	0.1	0.1	0.2	0.2	-	0.3	0.4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26.5	26.0	27.0	28.9	29.1	28.6	28.3	28.3	27.3
금융보험 관련직	2.6	2.2	2.5	3.5	3.7	4.1	4.3	4.9	4.7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9.5	8.8	9.7	10.2	12.8	12.9	11.6	12.7	11.0
법률경찰소방 교도 관련직	0.9	0.7	0.6	0.6	0.6	0.8	0.9	0.7	0.7
보건의료 관련직	10.9	10.8	10.0	9.7	9.7	9.3	9.7	9.2	9.2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4.5	5.0	4.5	4.3	4.3	4.3	4.9	4.4	3.9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5.9	6.4	6.7	6.7	6.2	6.2	6.3	6.5	6.6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0	1.0	1.0	0.9	0.9	1.0	0.9	1.0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7.0	7.8	7.2	7.2	7.2	7.6	7.6	7.2	7.6
경비 및 청소 관련직	0.9	0.8	0.7	0.7	0.7	0.8	0.8	0.9	0.8
미용숙박여행·오락 스포츠 관련직	3.4	3.2	3.5	2.8	2.7	2.8	2.7	2.6	3.3
음식 서비스 관련직	4.0	4.0	3.3	2.8	2.5	2.3	1.9	2.0	1.8
건설 관련직	2.4	2.3	2.5	2.2	2.3	2.3	2.9	3.1	3.5
기계 관련직	4.6	4.7	4.4	4.2	4.3	3.7	3.6	3.4	4.1
재료 관련직	0.7	0.9	0.7	0.7	0.5	0.6	0.5	0.6	0.7
화학 관련직	1.0	1.1	1.3	1.0	1.0	0.8	0.7	0.8	1.0
섬유 및 의복 관련직	0.2	0.1	0.2	0.1	0.2	0.1	0.1	0.1	0.1
전자전자 관련직	3.9	3.9	4.1	4.0	3.6	4.0	3.7	3.4	4.0
정보통신 관련직	4.9	4.5	5.2	5.3	4.9	4.8	5.4	5.1	5.6
식품가공 관련직	0.8	0.8	0.7	0.8	0.7	0.6	0.6	0.6	0.4
환경인쇄목재가구 공예 및 생산 단순직	1.7	1.8	1.8	1.7	1.2	1.3	1.4	1.3	1.7
농림어업 관련직	0.3	0.5	0.2	0.4	0.1	0.2	0.2	0.2	0.2
군인	2.3	2.3	2.1	1.1	0.2	0.6	1.0	0.6	0.5

<부표1-15> 현재 일자리 사업체규모

(단위: 명, %)

	2015 GOMS	2014 GOMS	2013 GOMS	2012 GOMS	2011 GOMS	2010 GOMS	2009 GOMS	2008 GOMS	2007 GOMS
10명미만	89,280 (25.7)	81,483 (24.8)	79,177 (24.8)	71,476 (21.6)	78,935 (24.8)	73,822 (24.0)	87,739 (25.7)	87,739 (25.7)	82,795 (24.5)
10-29명	70,139 (20.2)	65,362 (19.9)	61,539 (19.3)	66,573 (20.1)	62,012 (19.5)	64,268 (20.9)	68,396 (20.1)	68,396 (20.1)	68,666 (20.4)
30-99명	65,770 (18.9)	65,565 (19.9)	66,402 (20.8)	69,110 (20.9)	64,725 (20.3)	67,687 (22.0)	72,220 (21.2)	72,220 (21.2)	67,487 (20.0)
100-299명	46,442 (13.4)	41,009 (12.5)	40,236 (12.6)	43,054 (13.0)	40,068 (12.6)	37,898 (12.3)	42,016 (12.3)	42,016 (12.3)	44,243 (13.1)
300명이상	75,586 (21.8)	75,379 (22.9)	72,266 (22.6)	80,945 (24.4)	72,764 (22.8)	64,014 (20.8)	70,419 (20.7)	70,419 (20.7)	74,183 (22.0)

<부표1-16> 성별, 졸업대학 특성별 종사상 지위

(단위: 명, %)

	임금근로				비임금근로
		상용	임시	일용	
2015GOMS	339,192 (96.6)	281,685 (80.2)	51,718 (14.7)	5,789 (1.6)	12,103 (3.4)
2014GOMS	326,187 (96.8)	267,118 (79.3)	53,734 (16.0)	5,335 (1.6)	10,648 (3.2)
2013GOMS	317,439 (97.1)	273,717 (83.7)	39,446 (12.1)	4,276 (1.3)	9,509 (2.9)
2012GOMS	323,390 (96.9)	270,654 (81.1)	48,056 (14.4)	4,680 (1.4)	10,504 (3.1)
2011GOMS	315,274 (96.7)	262,659 (80.5)	50,672 (15.5)	1,944 (0.6)	10,863 (3.3)
2010GOMS	311,535 (96.8)	268,797 (83.5)	38,668 (12.0)	4,070 (1.3)	10,211 (3.2)
2009GOMS	298,437 (97.0)	264,247 (85.9)	31,328 (10.2)	2,862 (0.9)	9,325 (3.0)
2008GOMS	329,801 (96.4)	283,842 (83.0)	43,253 (12.6)	2,706 (0.8)	12,274 (3.6)
2007GOMS	327,292 (96.7)	280,992 (83.0)	42,769 (12.6)	3,531 (1.0)	11,275 (3.3)

<부표1-17> 월평균 근로소득 및 주당 평균근로시간

(단위: 만원, 시간)

	전체		남성		여성	
	소득	근로시간	소득	근로시간	소득	근로시간
2015GOMS	202.5	44.3	224.0	45.9	183.0	42.9
2014GOMS	197.3	44.9	216.6	44.9	179.8	43.5
2013GOMS	197.5	45.2	222.6	47.4	174.7	43.2
2012GOMS	198.1	45.0	220.8	46.7	176.9	43.4
2011GOMS	192.2	45.5	216.4	47.5	169.0	43.7
2010GOMS	184.9	45.9	207.5	48.0	163.8	43.9
2009GOMS	180.7	46.3	201.8	47.8	160.0	44.9
2008GOMS	175.5	47.2	194.7	49.6	156.0	44.8
2007GOMS	166.7	46.3	177.1	46.9	158.9	45.7

부표1-4. 청년층_첫 일자리

<부표1-18> 첫 일자리 진출분야(산업 대분류)

(단위: %)

	2015 GOMS	2014 GOMS	2013 GOMS	2012 GOMS	2011 GOMS	2010 GOMS	2009 GOMS	2008 GOMS	2007 GOMS
농업, 임업 및 어업	0.3	0.2	0.2	0.3	0.2	0.2	0.2	0.2	0.2
광업	-	-	-	-	-	0.1	-	-	-
제조업	16.9	17.7	17.9	17.5	18.1	17.2	16.4	17.1	17.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4	0.5	0.5	0.4	0.4	0.4	0.4	0.4	0.5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1	0.1	0.1	0.2	0.1	0.2	0.2	0.2	0.2
건설업	3.4	3.4	3.4	3.6	3.4	3.2	4.5	4.3	4.2
도매 및 소매업	9.0	9.0	8.7	9.7	9.7	9.2	9.9	9.1	9.6
운수업	1.8	1.6	2.0	1.7	1.6	1.6	1.6	1.8	1.6
숙박 및 음식점업	7.2	6.9	5.9	5.3	4.7	4.0	3.8	3.7	3.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 보서비스업	6.8	6.7	7.6	7.5	7.2	6.7	7.2	7.4	7.8
금융 및 보험업	2.9	2.9	3.6	4.5	4.9	5.1	5.2	5.6	5.3
부동산업 및 임대업	0.9	0.7	0.9	0.8	0.7	0.7	0.8	0.7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8	7.5	8.1	8.4	7.7	8.0	8.3	8.4	8.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8	3.8	3.5	4.1	4.5	4.1	3.0	4.4	3.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8	4.4	4.0	3.3	2.9	3.7	4.5	3.6	2.7
교육 서비스업	14.8	15.5	14.9	14.1	15.7	17.4	15.4	15.5	14.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6	13.3	13.2	12.8	12.5	12.5	13.4	12.3	1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6	2.8	2.8	2.6	2.4	2.4	2.1	2.4	2.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1	2.8	2.7	3.2	3.2	3.3	3.0	3.0	3.5
국제 및 외국기관	-	0.1	0.1	0.1	-	-	-	-	0.1

<부표1-19> 첫 일자리 진출분야(직업 중분류)

(단위: %)

	2015 GOMS	2014 GOMS	2013 GOMS	2012 GOMS	2011 GOMS	2010 GOMS	2009 GOMS	2008 GOMS	2007 GOMS
관리직	-	-	-	0.1	0.1	0.1	-	0.2	0.3
경영·회계·사무관련직	26.9	26.9	28.3	29.5	29.4	29.4	28.5	27.8	26.6
금융·보험 관련직	2.1	2.0	2.2	3.0	3.2	3.5	3.7	4.3	3.9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9.4	9.3	9.7	10.2	12.5	13.1	12.0	12.5	11.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0.8	0.6	0.6	0.5	0.5	0.7	0.8	0.7	0.7
보건·의료 관련직	10.5	10.2	9.3	9.3	9.1	9.1	9.6	8.9	8.9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4.2	4.0	4.0	4.1	4.0	4.1	4.6	4.2	3.9
문화·예술·디자인 방송 관련직	6.5	7.1	7.3	7.2	7.0	6.8	6.9	7.2	7.1
운전 및 운송 관련직	0.9	0.9	0.8	1.0	0.8	0.9	0.9	1.1	0.9
영업 및 판매 관련직	7.4	8.0	7.6	7.6	7.2	7.4	7.6	7.5	7.7
경비 및 청소 관련직	0.9	1.0	0.8	0.9	0.9	0.9	0.9	0.9	0.8
미용·숙박·여행·오락· 스포츠 관련직	3.6	3.5	3.7	3.3	3.2	3.3	2.9	3.1	3.8
음식 서비스 관련직	4.8	4.8	4.0	3.4	3.1	2.5	2.2	2.2	2.1
건설 관련직	2.5	2.2	2.5	2.1	2.2	2.4	2.9	3.2	3.7
기계 관련직	4.4	4.4	4.1	4.0	4.2	3.4	3.3	3.5	4.1
재료 관련직	0.8	.8	0.8	0.7	0.5	0.5	0.5	0.5	0.7
화학 관련직	1.0	1.1	1.1	1.0	0.9	0.7	0.7	0.9	1.0
섬유 및 의복 관련직	0.2	.1	0.1	0.2	0.1	0.1	0.1	0.1	0.1
전기·전자 관련직	3.7	3.9	3.9	3.6	3.6	3.7	3.4	3.5	4.1
정보통신 관련직	4.6	4.5	4.9	4.9	4.6	4.5	5.2	4.9	5.4
식품·가공 관련직	0.8	0.9	0.8	0.7	0.7	0.6	0.6	0.5	0.5
환경·인쇄·목재·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1.8	1.6	1.5	1.5	1.3	1.4	1.4	1.3	1.6
농림어업 관련직	0.3	0.2	0.2	0.3	0.1	0.2	0.2	0.2	0.2
군인	1.9	2.0	1.8	1.0	0.5	0.5	0.9	0.6	0.4

<부표1-20> 첫 일자리 사업체 규모

(단위: 명, %)

	2015 GOMS	2014 GOMS	2013 GOMS	2012 GOMS	2011 GOMS	2010 GOMS	2009 GOMS	2008 GOMS	2007 GOMS
10명 미만	109,408 (27.0)	98,363 (25.8)	95,487 (25.6)	86,537 (22.6)	89,401 (23.9)	92,057 (25.4)	85,917 (24.8)	101,776 (28.7)	97,983 (25.5)
10-29명	82,633 (20.4)	76,185 (20.0)	73,313 (19.6)	76,661 (20.0)	70,675 (18.9)	70,859 (19.6)	72,417 (20.9)	80,005 (22.5)	80,160 (20.9)
30-99명	74,819 (18.5)	76,113 (19.9)	76,232 (20.4)	78,833 (20.6)	71,346 (19.1)	72,934 (20.1)	76,597 (22.1)	79,958 (22.5)	77,971 (20.3)
100-299명	52,249 (12.9)	47,035 (12.3)	48,130 (12.9)	50,066 (13.1)	48,566 (13.0)	46,398 (12.8)	41,880 (12.1)	47,769 (13.4)	47,941 (12.5)
300명 이상	85,723 (21.2)	83,840 (22.0)	80,410 (21.5)	90,498 (23.7)	93,632 (25.1)	79,725 (22.0)	69,773 (20.1)	45,656 (12.9)	79,941 (20.8)

〈부표1-21〉 성별, 졸업대학 특성별 종사상 지위

(단위: 명, %)

	임금근로	비임금근로			비임금근로
		상용	임시	일용	
2015GOMS	400,004 (97.5)	307,256 (74.9)	83,772 (20.4)	8,976 (2.2)	10,167 (2.5)
2014GOMS	383,028 (97.7)	289,208 (73.8)	85,789 (21.9)	8,032 (2.0)	9,098 (2.3)
2013GOMS	374,496 (97.9)	293,226 (76.7)	74,958 (19.6)	6,312 (1.7)	8,008 (2.1)
2012GOMS	376,293 (97.5)	300,529 (77.9)	68,576 (17.8)	7,189 (1.9)	9,735 (2.5)
2011GOMS	365,915 (97.6)	280,718 (74.9)	82,727 (22.1)	2,470 (0.7)	8,826 (2.4)
2010GOMS	357,866 (97.8)	283,548 (77.5)	68,921 (18.8)	5,397 (1.5)	8,076 (2.2)
2009GOMS	338,411 (97.5)	281,971 (81.3)	53,001 (15.3)	3,439 (1.0)	8,527 (2.5)
2008GOMS	377,808 (97.5)	314,914 (81.3)	59,727 (15.4)	3,167 (0.8)	9,651 (2.5)
2007GOMS	375,438 (97.5)	306,482 (79.6)	64,453 (16.7)	4,504 (1.2)	9,699 (2.5)

<부표1-22> 월평균 근로소득 및 주당 평균근로시간

(단위: 만원, 시간)

	전체		남성		여성	
	소득	근로시간	소득	근로시간	소득	근로시간
2015GOMS	191.4	44.6	212.9	46.2	172.8	43.1
2014GOMS	170.4	44.9	188.0	46.5	155.0	43.6
2013GOMS	186.8	45.4	210.7	47.5	165.6	43.5
2012GOMS	186.5	45.2	208.1	46.7	167.2	43.8
2011GOMS	180.6	46.0	204.4	47.7	158.9	44.5
2010GOMS	172.6	46.4	194.8	48.3	152.8	44.6
2009GOMS	171.5	46.4	192.7	48.0	151.7	45.0
2008GOMS	168.4	47.9	187.6	50.1	149.6	45.6
2007GOMS	170.3	47.7	189.9	49.8	150.9	45.6

부표1-5. 학교생활, 훈련 및 자격

<부표1-23> 졸업 대학 선택 이유

(단위: 명, %)

	(수능 및 학교) 성적에 맞춰서	원하는 전공 혹은 업무관련 분야 공부가능	부모님, 선생님의 권유로	친구나 선배의 권유로	통학 거리가 가까워서	학교의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서	졸업 후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	야간 수업이 가능해서	학비가 저렴해서	기타
2015GOMS	192,475 (37.4)	212,724 (41.3)	35,225 (6.8)	5,519 (1.1)	19,130 (3.7)	10,202 (2.0)	21,346 (4.1)	3,315 (0.6)	13,252 (2.6)	2,134 (0.4)
2014GOMS	166,917 (33.8)	208,452 (42.2)	42,368 (8.6)	5,312 (1.1)	19,141 (3.9)	9,963 (2.0)	24,366 (4.9)	4,355 (0.9)	11,617 (2.4)	1,833 (0.4)
2013GOMS	159,966 (32.5)	213,524 (43.4)	39,919 (8.1)	8,258 (1.7)	14,843 (3.0)	10,445 (2.1)	22,310 (4.5)	4,072 (0.8)	16,073 (3.3)	2,356 (0.5)
2012GOMS	161,146 (32.0)	209,240 (41.6)	46,681 (9.3)	7,922 (1.6)	19,729 (3.9)	11,200 (2.2)	23,299 (4.6)	5,215 (1.0)	15,718 (3.1)	2,736 (0.5)
2011GOMS	150,059 (31.5)	196,004 (41.1)	42,754 (9.0)	8,216 (1.7)	18,967 (4.0)	11,237 (2.4)	25,259 (5.3)	5,345 (1.1)	13,970 (2.9)	5,182 (1.1)
2010GOMS	126,549 (26.9)	191,932 (40.8)	50,259 (10.7)	10,582 (2.2)	25,297 (5.4)	12,632 (2.7)	26,918 (5.7)	6,429 (1.4)	15,676 (3.3)	4,286 (0.9)
2009GOMS	157,391 (32.8)	220,295 (45.9)	33,119 (6.9)	8,527 (1.8)	17,180 (3.6)	8,910 (1.9)	19,183 (4.0)	6,605 (1.4)	8,644 (1.8)	321 (0.1)
2008GOMS	140,742 (28.3)	218,831 (44.0)	46,714 (9.4)	14,121 (2.8)	24,738 (5.0)	13,982 (2.8)	28,849 (5.8)	-	-	9,396 (1.9)
2007GOMS	141,342 (28.3)	225,673 (45.3)	38,514 (7.7)	10,182 (2.0)	25,154 (5.0)	15,314 (3.1)	28,387 (5.7)	-	-	14,129 (2.8)

<부표1-24> 전공 선택 이유

(단위: 명, %)

	직업 및 취업 전망이 밝아서	성적에 맞춰서	흥미 및 적성을 고려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	친구나 선배의 권유로	사회적 인식이나 명성때문에	기타
2015GOMS	135,174 (26.2)	99,323 (19.3)	235,366 (45.7)	33,266 (6.5)	5,460 (1.1)	4,086 (0.8)	2,644 (0.5)
2014GOMS	140,394 (28.4)	79,084 (16.0)	226,846 (45.9)	37,360 (7.6)	4,455 (0.9)	3,710 (0.8)	2,475 (0.5)
2013GOMS	138,453 (28.2)	78,327 (15.9)	226,960 (46.2)	33,779 (6.9)	6,155 (1.3)	4,864 (1.0)	3,203 (0.7)
2012GOMS	134,384 (26.7)	74,442 (14.8)	237,700 (47.3)	40,169 (8.0)	7,530 (1.5)	4,940 (1.0)	3,621 (0.7)
2011GOMS	128,276 (26.9)	57,797 (12.1)	234,412 (49.1)	36,559 (7.7)	8,502 (1.8)	4,923 (1.0)	6,524 (1.4)
2010GOMS	130,290 (27.7)	49,764 (10.6)	227,489 (48.3)	42,771 (9.1)	8,522 (1.8)	5,079 (1.1)	6,641 (1.4)
2009GOMS	139,904 (29.1)	81,396 (17.0)	220,084 (45.8)	26,594 (5.5)	7,055 (1.5)	4,518 (0.9)	614 (0.1)
2008GOMS	138,134 (27.8)	54,089 (10.9)	244,971 (49.3)	38,001 (7.6)	10,751 (2.2)	5,602 (1.1)	5,827 (1.2)
2007GOMS	141,442 (28.0)	57,272 (11.0)	247,003 (50.0)	34,645 (7.0)		6,776 (1.0)	11,564 (2.0)

<부표1-25> 대학(원) 추가진학 여부

(단위: 명, %)

	추가진학	비진학	전체
2015GOMS	67,250 (13.1)	448,070 (86.9)	515,320 (100.0)
2014GOMS	67,395 (13.6)	426,930 (86.4)	494,324 (100.0)
2013GOMS	62,192 (12.6)	429,573 (87.4)	491,765 (100.0)
2012GOMS	60,328 (12.0)	442,558 (88.0)	502,886 (100.0)
2011GOMS	65,555 (13.7)	411,437 (86.3)	476,992 (100.0)
2010GOMS	67,161 (14.3)	403,012 (85.7)	470,173 (100.0)
2009GOMS	54,392 (11.3)	425,801 (88.7)	480,193 (100.0)
2008GOMS	66,924 (13.5)	430,450 (86.5)	497,374 (100.0)

<부표1-26>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경험	비경험	전체
2015GOMS	67,132 (13.0)	448,188 (87.0)	515,320 (100.0)
2014GOMS	61,457 (12.4)	432,867 (87.6)	494,324 (100.0)
2013GOMS	53,750 (10.9)	438,015 (89.1)	491,765 (100.0)
2012GOMS	73,237 (14.6)	429,649 (85.4)	502,886 (100.0)
2011GOMS	81,501 (17.1)	395,491 (82.9)	476,992 (100.0)
2010GOMS	90,528 (19.2)	380,031 (80.8)	470,559 (100.0)
2009GOMS	63,876 (13.3)	416,317 (86.7)	480,193 (100.0)
2008GOMS	104,642 (21.0)	392,732 (79.0)	497,374 (100.0)
2007GOMS	65,864 (13.2)	432,835 (86.8)	498,699 (100.0)

<부표1-27> 성별 연도별 교육 및 훈련 분야

(단위: %)

구분	2015 GOMS	2014 GOMS	2013 GOMS	2012 GOMS	2011 GOMS	2010 GOMS	2009 GOMS	2008 GOMS	2007 GOMS
농·림·어업분야	0.6	0.3	0.3	0.8	0.6	0.9	0.6	0.8	0.2
식품분야	2.7	2.8	2.4	2.2	2.0	2.2	2.6	2.0	1.6
섬유·의복분야	0.7	0.8	0.9	0.7	0.5	0.5	1.0	0.6	0.6
화학분야	1.6	1.1	1.0	1.1	0.7	1.0	0.9	0.9	0.6
금속·비금속분야	0.9	1.1	0.9	1.2	0.8	0.8	0.4	0.4	0.6
기계분야	5.3	5.2	4.5	4.6	4.2	3.8	4.0	4.4	5.4
건설분야	3.3	3.3	3.5	3.0	2.4	2.1	2.3	2.2	2.8
전기분야	2.0	1.6	1.7	1.8	1.3	1.2	1.7	1.8	1.7
전자분야	2.7	1.9	2.5	3.0	2.1	2.8	1.6	2.1	2.5
컴퓨터분야	15.7	14.0	17.8	13.9	12.0	12.8	16.0	15.2	18.1
인쇄·출판·디자인분야	2.1	2.3	2.7	2.1	1.4	1.8	1.9	1.7	2.1
목재·펄프·가구공예분야	0.1	0.1	-	0.2	0.1	0.2	0.3	0.3	0.2
서비스분야	7.8	8.3	8.7	12.1	12.4	11.8	11.0	11.1	9.8
경영·사무분야	11.6	13.4	11.4	9.9	12.9	9.9	9.9	10.8	10.5
금융·보험분야	2.3	2.7	2.4	3.6	4.8	5.2	5.0	4.6	4.6
보건·의료분야	10.6	10.4	9.5	9.8	10.5	10.9	10.0	6.6	5.4
환경·비파괴·안전분야	1.5	1.4	1.3	1.3	1.5	1.8	1.4	1.3	0.7
교육·법률·사회복지분야	12.7	11.3	11.8	12.6	13.3	17.0	14.4	14.9	10.7
판매·영업분야	1.9	1.3	2.1	1.6	1.7	1.9	1.6	1.9	1.6
운전분야	0.2	1.1	0.8	0.5	0.3	0.2	0.2	0.3	0.6
계층별교육분야	3.0	3.8	4.7	1.9	2.8	1.8	2.7	3.9	2.7
어학분야	3.3	4.7	4.1	3.2	3.1	1.1	5.7	8.4	7.6
문화·예술분야	3.4	2.5	3.5	3.3	2.6	2.8	2.7	3.8	2.2
기타	4.0	4.7	1.4	5.7	6.0	5.6	2.1	-	7.0

<부표1-28> 자격증 보유 여부

(단위: 명, %)

구분	보유	미보유	전체
2015GOMS	307,116 (59.6)	208,204 (40.4)	515,320 (100.0)
2014GOMS	315,253 (63.8)	179,071 (36.2)	494,324 (100.0)
2013GOMS	304,443 (61.9)	187,322 (38.1)	491,765 (100.0)
2012GOMS	307,382 (61.1)	195,504 (38.9)	502,886 (100.0)
2011GOMS	340,218 (71.3)	136,774 (28.7)	476,992 (100.0)
2010GOMS	350,822 (74.6)	119,736 (25.4)	470,558 (100.0)
2009GOMS	313,502 (65.3)	166,691 (34.7)	480,193 (100.0)
2008GOMS	368,366 (74.1)	129,008 (25.9)	497,374 (100.0)
2007GOMS	361,426 (72.5)	137,274 (27.5)	498,700 (100.0)

<부표1-29> 자격증 취득 목적

(단위: 명, %)

	취업	창업	승진	이직 (전직)	자격 수당	업무 관련성	자기 개발	교육이 수평가	진학	졸업	기타
2015 GOMS	336,434 (67.4)	3,995 (0.8)	1,071 (0.2)	714 (0.1)	1,610 (0.3)	24,377 (4.9)	103,066 (20.6)	11,495 (2.3)	3,312 (0.7)	11,478 (2.3)	1,975 (0.4)
2014 GOMS	217,782 (69.7)	2,100 (0.7)	758 (0.2)	455 (0.1)	1,182 (0.4)	12,859 (4.1)	56,801 (18.2)	5,337 (1.7)	1,142 (0.4)	12,283 (3.9)	1,639 (0.5)
2013 GOMS	324,015 (63.4)	4,284 (0.8)	1,212 (0.2)	666 (0.1)	1,266 (0.2)	21,445 (4.2)	116,153 (22.7)	12,162 (2.4)	3,952 (0.8)	23,094 (4.5)	2,485 (0.5)
2012 GOMS	331,126 (64.2)	5,190 (1.0)	1,366 (0.3)	1,233 (0.2)	1,006 (0.2)	24,907 (4.8)	111,635 (21.7)	14,325 (2.8)	3,178 (0.6)	18,553 (3.6)	3,065 (0.6)
2011 GOMS	394,173 (63.4)	7,854 (1.3)	2,471 (0.4)	1,490 (0.2)	1,257 (0.2)	22,351 (3.6)	145,617 (23.4)	20,281 (3.3)	3,392 (0.5)	19,343 (3.1)	3,608 0.6
2010 GOMS	414,611 (59.6)	11,436 (1.6)	2,753 (0.4)	3,764 (0.5)	2,156 (0.3)	47,012 (6.8)	169,349 (24.3)	19,208 (2.8)	6,614 (1.0)	16,118 (2.3)	2,736 (0.4)
2009 GOMS	316,409 (57.7)	6,815 (1.2)	2,337 (0.4)	4,502 (0.8)	2,117 (0.4)	43,664 (8.0)	129,719 (23.7)	30,224 (5.5)	5,190 (0.9)	7,015 (1.3)	236 (0.0)

부표2.

표준직업분류 기준 직종별
일자리 분포

〈표Ⅲ-9〉 학교유형별 현재 일자리 직업 진출분야(표준)

(단위: %)

	전체			2~3년제			4년제			교육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관리자	0.2	0.2	0.1	0.2	0.2	0.2	0.2	0.3	0.1	-	-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9.3	44.5	54.0	43.8	34.0	51.5	51.8	49.2	54.6	96.7	90.4	99.5
사무종사자	27.1	23.5	30.4	20.9	15.7	25.0	31.1	27.6	34.8	0.3	-	0.5
서비스 종사자	6.6	5.9	7.3	11.3	10.6	11.9	4.0	3.7	4.4	-	-	-
판매 종사자	5.6	6.4	4.9	6.7	7.1	6.3	5.1	6.1	4.1	-	-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4	0.7	0.1	0.6	1.2	0.1	0.3	0.4	0.1	-	-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5	6.2	1.0	6.0	11.9	1.4	2.2	3.5	0.7	-	-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6	6.5	0.8	6.6	13.0	1.6	1.9	3.4	0.2	0.4	1.1	-
단순노무 종사자	1.5	2.2	0.8	2.3	3.5	1.4	1.0	1.5	0.5	-	-	-
군인	2.2	3.8	0.5	1.6	2.7	0.6	2.5	4.4	0.5	2.6	8.4	-

<표Ⅲ-10> 전공계열별 현재 일자리 직업 진출분야(표준)

(단위: %)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관리자	0.2	0.5	0.2	0.1	0.1	-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6.1	26.4	86.3	54.0	44.8	88.4	53.8
사무종사자	42.2	48.2	8.2	16.8	24.6	5.5	17.4
서비스 종사자	6.2	7.7	1.8	3.0	13.2	2.3	12.4
판매 종사자	8.8	7.8	0.6	4.1	5.0	1.4	8.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2	0.4	-	0.1	2.1	-	0.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8	1.8	0.5	9.2	4.3	0.6	2.3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3	2.3	0.3	8.3	1.8	1.2	3.4
단순노무 종사자	1.4	1.7	0.2	1.9	2.4	0.5	1.2
군인	1.9	3.3	2.0	2.5	1.6	0.2	1.3

<표Ⅳ-9> 학교유형별 첫 일자리 직업 진출분야(표준)

(단위: %)

	전체			2~3년제			4년제			교육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관리자	0.2	0.2	0.1	0.2	0.2	0.2	0.2	0.2	0.1	-	-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8.0	43.7	51.9	42.9	34.3	49.6	50.2	48.1	52.5	94.6	89.2	97.1
사무종사자	27.4	24.0	30.6	20.2	15.5	23.9	32.1	28.5	35.8	0.6	-	0.8
서비스 종사자	7.5	6.5	8.5	12.6	10.9	13.9	4.7	4.3	5.0	1.0	-	1.4
판매 종사자	6.0	6.7	5.3	7.2	7.7	6.7	5.4	6.3	4.5	0.5	-	0.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3	0.6	0.1	0.6	1.1	0.2	0.2	0.4	0.1	-	-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4	6.1	0.9	5.8	11.7	1.3	2.0	3.4	0.6	-	-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5	6.2	0.9	6.2	12.0	1.7	1.9	3.4	0.4	0.3	1.1	-
단수노무 종사자	1.8	2.6	1.2	2.9	4.2	2.0	1.2	1.7	0.7	0.6	1.8	-
군인	1.9	3.4	0.5	1.3	2.4	0.5	2.1	3.8	0.4	2.5	7.9	-

<표Ⅳ-10> 전공계열별 첫 일자리 직업 진출분야(표준)

(단위: %)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관리자	-	0.4	0.2	0.1	0.1	-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3.0	25.3	84.2	53.6	42.3	87.5	54.2
사무종사자	43.9	48.2	9.6	17.4	24.8	5.4	16.3
서비스 종사자	8.0	8.9	1.9	2.8	14.2	3.4	13.5
판매 종사자	9.0	8.2	1.4	4.3	6.1	1.2	7.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1	0.4	-	0.1	1.9	-	0.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7	1.5	0.4	9.3	4.1	0.6	2.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3	2.2	0.3	8.1	2.5	0.9	2.9
단순노무 종사자	1.4	2.1	0.3	2.2	2.6	0.8	1.8
군인	1.6	2.8	1.7	2.2	1.4	0.2	1.1

〈표 VI-8〉 대졸 청년층의 학교유형별 현재 일자리 직업 진출분야(표준)

(단위: %)

	전체			2~3년제			4년제			교육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관리자	-	0.1	-	-	-	-	0.1	0.1	-	-	-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9.2	44.3	53.6	43.1	33.0	51.0	51.8	49.4	54.2	96.9	90.5	99.5
사무종사자	27.3	23.2	31.0	20.7	14.9	25.1	31.4	27.5	35.4	0.4	-	0.5
서비스 종사자	6.8	6.1	7.5	12.1	11.6	12.5	4.0	3.5	4.4	-	-	-
판매 종사자	5.5	6.2	4.9	6.6	7.0	6.4	4.9	5.8	4.1	-	-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3	0.6	0.1	0.5	1.1	0.1	0.2	0.4	0.1	-	-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6	6.5	0.9	6.2	12.4	1.4	2.2	3.7	0.7	-	-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5	6.5	0.8	6.8	13.4	1.8	1.8	3.3	0.2	-	-	-
단순노무 종사자	1.5	2.3	0.7	2.3	3.8	1.1	1.1	1.6	0.5	-	-	-
군인	2.3	4.1	0.6	1.6	2.8	0.7	2.6	4.7	0.5	2.8	9.5	-

<표 VI-9> 대졸 청년층의 전공계열별 현재 일자리 직업 진출분야(표준)

(단위: %)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관리자	0.1	-	0.1	0.1	0.1	-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5.2	24.9	86.0	53.8	45.1	88.3	54.3
사무종사자	43.6	5-	8.4	16.7	24.5	5.5	17.0
서비스 종사자	6.3	7.9	1.9	3.1	13.5	2.3	12.8
판매 종사자	8.3	7.7	0.7	4.0	4.9	1.3	7.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1	0.4	-	0.2	1.9	-	0.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8	1.7	0.5	9.4	4.4	0.6	2.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2	2.1	0.2	8.4	1.6	1.3	3.3
단순노무 종사자	1.4	1.6	0.2	1.9	2.4	0.5	1.3
군인	2.0	3.6	2.1	2.5	1.6	0.2	1.4

<표VII-10> 대졸 청년층의 학교유형별 첫 일자리 직업 진출분야(표준)

(단위: %)

	전체			2~3년제			4년제			교육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관리자	-	-	-	-	-	-	0.1	-	0.1	-	-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7.7	43.6	51.4	42.2	33.4	48.9	50.2	48.4	52.0	94.7	89.1	97.0
사무종사자	27.6	23.6	31.2	20.0	14.6	24.0	32.4	28.3	36.4	0.6	-	0.8
서비스 종사자	7.8	6.7	8.7	13.5	11.9	14.7	4.6	4.2	5.0	1.0	-	1.5
판매 종사자	5.9	6.6	5.3	7.2	7.8	6.8	5.3	6.1	4.4	0.5	-	0.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3	0.5	0.1	0.5	1.0	0.1	0.2	0.3	0.1	-	-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4	6.4	0.8	6.0	12.2	1.3	2.0	3.5	0.6	-	-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4	6.3	0.9	6.4	12.3	1.9	1.8	3.3	0.4	-	-	-
단수노무 종사자	1.8	2.6	1.1	2.9	4.4	1.7	1.2	1.8	0.7	0.6	2.1	-
군인	2.0	3.6	0.5	1.4	2.4	0.6	2.3	4.2	0.4	2.6	8.9	-

<표Ⅶ-11> 대졸 청년층의 전공계열별 첫 일자리 직업 진출분야(표준)

(단위: %)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관리자	-	-	0.1	-	0.1	-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2.3	23.8	83.7	53.4	42.4	87.1	54.5
사무종사자	44.9	49.8	10.1	17.2	24.8	5.6	16.0
서비스 종사자	8.2	9.2	2.0	2.8	14.6	3.6	14.1
판매 종사자	8.6	8.3	1.4	4.2	6.0	1.2	7.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1	0.3	-	0.1	1.7	-	0.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7	1.4	0.4	9.5	4.1	0.6	1.9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2	2.1	0.3	8.2	2.4	1.0	2.8
단순노무 종사자	1.4	2.0	0.3	2.3	2.6	0.7	1.8
군인	1.7	3.1	1.8	2.2	1.4	0.2	1.2

부록.

2016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5GOMS) 설문지



2016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5GOMS)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대졸자의 노동시장 진입 및 이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2~3년제 대학 및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청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정책 수립과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7조 및 직업안정법 제16조 등에 근거하여 실시되며 응답해주신 내용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응답내용 및 신상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고용정보원은 국가고용정보의 수집·제공,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국가고용서비스의 선진화에 힘쓰고 있는 정부출연기관입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연구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패널조사팀

조사수행기관 : (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면접원 성명	D1) 리스트번호 : <input type="text"/>	D2) 학교소재지역 : <input type="text"/>
	D3) 학교 유형 : <input type="text"/>	D4) 전공계열 : <input type="text"/> D5) 성별 : <input type="text"/>

응답자 성명	연락처	전화: () - - - -	E-mail	
		핸드폰: - - - -	생년월	양력) _____년 _____월
거주지 주소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졸업년월	<input type="checkbox"/> 1) 2014년 8월 <input type="checkbox"/> 2) 2015년 2월
	_____번지 _____호(_____아파트_____동_____호)			

방문일정	1차 방문	____월 ____일	<input type="checkbox"/> 1) 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 부재중 <input type="checkbox"/> 3) 응답거부 <input type="checkbox"/> 4) 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 조사불가 <input type="checkbox"/> 6) 조사약속
	2차 방문	____월 ____일	<input type="checkbox"/> 1) 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 부재중 <input type="checkbox"/> 3) 응답거부 <input type="checkbox"/> 4) 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 조사불가 <input type="checkbox"/> 6) 조사약속
	3차 방문	____월 ____일	<input type="checkbox"/> 1) 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 부재중 <input type="checkbox"/> 3) 응답거부 <input type="checkbox"/> 4) 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 조사불가 <input type="checkbox"/> 6) 조사약속
	4차 방문	____월 ____일	<input type="checkbox"/> 1) 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 부재중 <input type="checkbox"/> 3) 응답거부 <input type="checkbox"/> 4) 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 조사불가 <input type="checkbox"/> 6) 조사약속
	5차 방문	____월 ____일	<input type="checkbox"/> 1) 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 부재중 <input type="checkbox"/> 3) 응답거부 <input type="checkbox"/> 4) 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 조사불가 <input type="checkbox"/> 6) 조사약속

슈퍼바이저 확인		직/산업 1차 코딩		직/산업 최종 코딩		전화검증 확인 성공	
-------------	--	---------------	--	---------------	--	---------------	--

☐ 조사기준일: 2016년 9월 1일

귀하의 현재 경제활동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 모든 항목은 조사기준일(2016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SQ1) 지난 4주간(2016년 8월 4일~8월 31일)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 창업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은 구직활동에 포함됩니다.

1. 일하였음
2. 일시휴직
3. 구직활동
4. 발령대기
5. 육아
6. 가사
7.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8.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9. 취업준비
10. 진학준비
11. 심신장애
12. 군입대 대기
13. 결혼 준비
14. 쉬었음
15. 기타()

→ **SQ2)로 이동**

SQ1-1) 응답하신 주된 활동은 언제부터 유지되었습니까?

■ _____년 _____월

※ 처음 시작한 시점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시작한
가장 최근 시점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SQ2) 지난 1주(2016년 8월 25일~8월 31일)간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1. 일하였음 → **SQ4)로 이동**
2. 일시휴직
3. 구직활동
4. 발령대기
5. 육아
6. 가사
7.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8.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9. 취업준비
10. 진학준비
11. 심신장애
12. 군입대 대기
13. 결혼 준비
14. 쉬었음
15. 기타()

**SQ3) 지난 1주(2016년 8월 25일~8월 31일)간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1. 일을 한 적이 있었다.
2. 일을 한 적이 없었다. → **SQ5)로 이동**

※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수입을 위해 1시간 이상 일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SQ4) 하였던 일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1.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돈)를 받고
일한다.(직장, 아르바이트 등 포함) → **A1)로 이동**
2. 내 사업을 한다.(개인사업, 프리랜서, 가게·식당 등의
주인 또는 농림수산업) → **A1)로 이동**
3.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돕는다.

**SQ4-1)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일을 돕는 시간이 1주일
평균 약 18시간(하루에 3~4시간) 이상입니까?**

1. 18시간 이상이다. → **A1)로 이동**
2. 18시간 미만이다. → **SQ6)으로 이동**

**SQ5) 지난주(2016년 8월 25일~8월 31일)에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자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 있었다
2. 없었다 → **SQ6)으로 이동**

**SQ5-1) 왜 지난주(2016년 8월 25일~8월 31일)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1. 일시적 병, 사고
2. 연(휴)가
3. 교육
4. 육아가족적 이유
5. 노사분규
6. 사업부진·조업중단
7. 기타()
8. 발령대기

→ **A1)로 이동**

**SQ6) 귀하는 지난주(2016년 8월 25일~8월 31일)에
직장(일자리)를 구해보았습니까?**

1. 구해 보았다 → **B1)로 이동**
2. 구해보지 않았다

**SQ7) 귀하는 지난 4주 내(2016년 8월 4일~8월 31일)에
직장(일자리)를 구해보았습니까?**

1. 구해 보았다 → **B1)로 이동**
2. 구해보지 않았다 → **C1)로 이동**

※ 발령대기자 중 1개월 이내에 일을 할 것이 확실한
경우는 "1. 구해 보았다"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현재 일자리(2016년 8월 25일~8월 31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조사 대상 기간(2016년 8월 25일~8월 31일)에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한 일자리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A1) 현재 일자리는 언제 시작하였습니까?

■ _____년 _____월

A2) 현재 하시는 일은 아르바이트입니까?

※ 아르바이트: 수입을 목적으로 임시로 하는 일

1. 예
2. 아니오

A3) 현재 일하는 곳(사업체)은 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기업체는 하나 이상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는 기업체, ○○전자의 ○○공장, ○○영업소, ○○서비스센터 등은 사업체에 해당합니다.

※ 현재 일하는 사업체명은 급여를 받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고, 파견근로 내지 사내하청근로의 경우 응답자가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업체명	
사업체명	
사업체의 주 생산품목(활동)	
주 생산품 원료	
추가질문사항	
추가질문답변	

CODE

A3-1) 현재 일하는 곳(사업체)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사업체 자체가 공장인 생산업체는 “1. 단독사업체”에 응답하여 주시고, 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는 “4. 기타”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독사업체
2. 본사
3. 지점/공장
4. 기타(_____)

A4) 귀하가 현재 일자리에서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부서명	
직 급	
직무내용	
사용 장비나 도구	
추가질문사항	
추가질문답변	

CODE

A5) 현재 일하는 곳의 종사자 수는 몇 명입니까?

기업체		사업체	
-----	--	-----	--

※ 문A3)에서 응답하신 기업체명과 사업체명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와 사업체가 동일한 경우(중소기업, 자영업 등)는 기업체와 사업체 종사자 수를 동일하게 기입하시면 됩니다.

- | | |
|-----------|--------------|
| 1. 1~4명 | 6. 100~299명 |
| 2. 5~9명 | 7. 300~499명 |
| 3. 10~29명 | 8. 500~999명 |
| 4. 30~49명 | 9. 1,000명 이상 |
| 5. 50~99명 | |

A6) 현재 일하는 곳(사업체)은 어디에 있습니까?

- 국내: _____특별시/광역시/도 _____구/시/군
■ 국외(국가명): _____

A7) 현재 일자리에 갈 때 주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십니까?

※ 갈아타기 위하여 두 가지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이 오래 걸리는 교통수단 두 가지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 “1. 걸어서”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통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	--	------	--

- | | |
|---------------|------------------|
| 1. 걸어서 | 7. 기타 |
| 2. 승용차, 소형승합차 | 8. 택시 |
| 3. 시내·좌석·마을버스 | 9. 자전거 |
| 4. 통근버스 | 10. 기타(_____) |
| 5. 고속·시외버스 | 11. 두 번째 교통수단 없음 |
| 6. 전철, 지하철 | |

A7-1) 출근 시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 집에서 출발하여 일자리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_____시간 _____분

A8) 현재 일하는 곳(사업체)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1.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2. 외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에 위치하는 외국인 회사
3.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
4. (재단, 사단) 법인단체
5.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6. 교육기관(대학, 초/중/고 등)
7. 연구기관(국립/사립)
8.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9. 기타(_____)

A9) 현재 일자리에서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1. 상용근로자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 임시근로자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 일용근로자	6. 무급가족종사자

→ **A20)으로 이동**

※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

※ **임시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고용계약이 정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사업(원로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 **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매달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 **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조사대상주간에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

※ 다음은 임금근로자만 응답하는 항목입니다.

A10) 현재 일자리에서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였습니까?

※ 현 직장이 정년제인 경우는 '정해져 있지 않음'에 해당합니다.

1. 정하였다.
2. 정하지 않았다. → **A10-3)으로 이동**

A10-1) 정하였다면, 계약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 1개월 미만
2. 2년
3. 1개월 이상~1년 미만
4. 2년 초과~3년 미만
3. 1년
7. 3년 이상
4. 1년 초과~2년 미만

A10-2) 현재 계약(기간)은 반복·갱신된 것입니까?

※ 최초 계약인 경우는 '2. 아니오'에 해당합니다.

1. 예
 2. 아니오
- **A10-4)로 이동**

A10-3) 현재 일자리는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몇 주씩 일하는 형태입니까?
(건설일용근로자,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1. 예 → **A10-7)로 이동**
2. 아니오

A10-4) 회사가 아주 어려워져서 폐업 또는 고용조정을 하거나 귀하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원하는 한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A10-6)으로 이동**

A10-5) 계속 다닐 수 있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하였으므로
 2.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고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3. 묵시적인 고용관행에 의해
- **A10-7)로 이동**

A10-6) 계속 다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2. 묵시적·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3. 사업주가 그만두려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 (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4. 현재 하는 업무(프로젝트)가 끝나기 때문에
5. 현재의 일자리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하기 때문에
6. 특정 계절 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7. 적성·근로조건·능력 등의 이유로 다른 일자리를 찾을 예정이므로
8. 규정·관행상 퇴직하는 연령에 도달하기 때문에
9. 학업·가족부양·건강 등의 이유로
10. 직장의 경영상 이유 때문에
11. 기타(_____)

A10-7) 현재 일자리에서의 근로시간은 어떤 형태입니까?

※ 시간제 근로는 파트타임·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간제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 전일제 근로에 해당합니다.

※ 전일제 일자리(full-time job)이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규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정규적인 업무개시 시각과 종료시각과의 사이의 근로시간)과 동일한 시간 동안 근무하도록 정해진 근로형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 09:00~18:00인 일자리를 의미함.

1. 전일제 근로 → **A10-9)로 이동**
2. 시간제 근로

A10-8) 시간제 근로를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2. 가사에 대한 책임 때문에
3. 집안의 고령자나 장애인을 돌봐야 해서
4. 학업(학교, 시험준비 등) 때문에
5.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6. 개인의 (여가)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어서
7. 건강(병이나 장애) 때문에
8. 일(직업)의 특성상
9. 기타()

A10-9) 실제 일하시는 곳과 임금(급여)을 주는 곳이 동일합니까?

1. 예 → **A10-11)로 이동**
2. 아니오

A10-10) 그렇다면, 임금(급여)은 다음 중 어디에서 받습니까?

1. 파견업체
2. 용역업체

A10-11) 현재 일자리는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에 해당됩니까?

※ 예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운전기사, 쿼터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 방송작가 등

1. 예
2. 아니오

A10-12) 주로 어디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 가사도우미, 입주보모, 입주 가정교사 등은 2에 해당됩니다.

1. 가정에서
2. 사업장 내 또는 사무실 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A11) 현재 일자리에서 교대제로 일하고 계십니까? 교대제로 일하신다면 몇 조 몇 교대제로 일하고 계십니까?

※ 교대제는 일정기간마다 교대로 작업을 하게하는 근무 형태를 말합니다.

- 교대제의 유형은 교대조의 수와 교대순번에 따라 3조 2교대, 3조3교대, 4조2교대, 4조3교대 등으로 구분됩니다.

1. 예 → ____ 조 ____ 교대제
2. 아니오

A12) 현재 일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본인의 혜택여부는 직장에서 제공된다는 경우에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 유급주휴란 1주간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경우 1일의 휴일에 대하여 일급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월급제(연봉제) 형태인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월급여액에 주휴일의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직장에서의 제공여부			본인의 혜택여부		
	제공된다	제공되지 않는다	모른다	받을수 있다	받을수 없다	모른다
(1) 법정퇴직금/퇴직연금	1	2	3	1	2	3
(2) 유급휴가	1	2	3	1	2	3
(3) 시간외수당	1	2	3	1	2	3
(4) 상여금	1	2	3	1	2	3
(5) 유급주휴	1	2	3	-	-	-

A13) 현재 일자리에서 귀하는 정규직입니까?

1. 예
2. 아니오

※ 다음은 인턴경험에 관한 문항입니다.

A14) 귀하는 현재 일자리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인턴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 **A28)로 이동**

A15) 다음 중 어떤 인턴제에 참여한 것입니까?

1.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취업인턴, 창직인턴)에 참여
2. 행정인턴제(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참여
3. 글로벌(해외) 인턴제에 참여
4. 기업 자체 운영 인턴제에 참여

A16) 현재 일자리에 인턴에 대한 내부 평가 시스템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A17) 현 일자리에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A18) 현재 일자리의 인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A19)로 이동**

A18-1) 현 일자리의 인턴계약 종료일은 언제입니까(언제였습니까)?

■ _____년 _____월

A19) 인턴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되었습니까?

※ A13) 문항의 정규직 여부를 참고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1. 인턴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되었음
2. 현재 인턴으로 근무 중 → **A28)로 이동**
3. 전환되지 않았음 → **A28)로 이동**

A19-1)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_____년 _____월

A19-2) 인턴기간 동안의 업무와 비교하여 정규직 채용 후 업무가 변경 되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A30)로 이동**

A19-3) 정규직 채용 전 (인턴 근무 시) 주된 업무는 무엇이었습니까?

부서명	
직 급	
직무내용	
사용 장비나 도구	
추가질문사항	
추가질문답변	

CODE

→ **A30)으로 이동**

※ 다음은 비임금근로자만 응답하는 항목입니다.

A20) 현재 일자리는 다음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합니까?

1. 혼자 창업
2. 동업자와 함께 창업
3. 기존에 운영되던 것을 인수
4. 기존 사업에 동업으로 참여(일정지분보유형태)
5. 가족,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음 → **A24)로 이동**
6. 사업자 등록 없이 혼자 일함(과외, 레슨 등) → **A24)로 이동**
7. 기타(_____)

A21) 현재 일자리를 시작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 또는 투자액은 모두 얼마였습니까?

■ _____만원

A21-1) 현재 일자리를 시작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은 어떻게 조달하셨습니까?

조달방법	비용
(1) 본인 또는 가족, 친지	_____만원
(2) 동업자	_____만원
(3) 은행 등 금융기관의 융자	_____만원
(4) 동업자 또는 친지 이외의 타인에게 빌림	_____만원
(5) 대금업자(사채)	_____만원
(6) 정부의 보조 및 지원	_____만원
(7) 기타(_____)	_____만원
계	(A21의 응답값)

A22) 다음은 창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느꼈던 어려움의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쉬움	매우 쉬움
(1) 충분한 자금의 확보	1	2	3	4	5
(2) 기술의 확보	1	2	3	4	5
(3) 적당한 인력의 확보	1	2	3	4	5
(4) 행정적인 절차 (인허가, 창업지원)	1	2	3	4	5
(5) 업종 선정	1	2	3	4	5
(6) 사업장 위치 선정	1	2	3	4	5
(7) 창업관련정보의 수집	1	2	3	4	5

A23) 다음 항목들이 현재 일자리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해당 사항 (경험) 없음
(1) 전공지식	1	2	3	4	5	X
(2) 이전 직장(일자리) 경험	1	2	3	4	5	8
(3) 동아리 또는 동호회 활동 경험	1	2	3	4	5	8
(4)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1	2	3	4	5	8
(5) 민간 창업 컨설팅	1	2	3	4	5	8
(6)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의 창업보육과정	1	2	3	4	5	8

A24) 현재 일자리의 주된 근무 장소는 어디입니까?

1. 사업장(건물 등)
2. 나의 집(나의 집에서 과외 지도 등)
3. 남의 집(방문 과외 등)
4. 거리(노점, 행사, 방문·이동판매 등)
5. 야외 작업현장(논, 밭, 건설 및 토목공사 현장 등)
6. 운송수단(자동차, 트럭, 고깃배 등)
7. 기타()

A25) 비임금근로를 선택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가족 사업에 참여하거나 물려받아서
2. 더 많은 소득이 가능해서
3. 회사에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4. 유연한 근로시간
5.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6. 재택근무가 가능해서
7. 더 많은 독립성과 자율성, 자기 결정권
8. 스트레스가 적어서
9. 직업적 특성에 의해서 (통·번역사 등)
10. 기타()

A26) 현재 비임금근로자로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1. 유연한 시간 활용
2. 보다 높은 소득
3. 독립적이고 자율적임
4. 창의적인 일에 도전
5. 적은 스트레스
6. 원하는 때(나이)까지 일할 수 있음
7. 기타()

A27) 현재 비임금근로자로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1. 사업의 불확실성
2. 불안정한 수입
3. 낮은 수입
4. 세금 부담
5. 은행대출의 어려움
6. 복리후생의 부족
7. 과도한 책임감
8. 긴 영업시간, 휴일부족
9. 홀로 일하는 고립감
10. 기타()

※ 다음은 취업자(현재 일자리가 있는 모든 응답자) 공통 문항입니다. A13에서 정규직이라고 응답한 경우 A30으로 이동하고, A13의 비정규직 근로자(인턴)와 비임금근로자는 A28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A28) 귀하는 정규직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길 희망합니까?

1. 예
2. 아니오 → **A30)으로 이동**

A29) 희망하신다면, 정규직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A30) 현재 일자리에서 주당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는 며칠입니까?

※ 주당 정규 근로일 :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정규 근로일로 1시간이라도 근무하였으면 1일로 간주합니다. 토요일 격주휴무제인 경우는 주당정규 근무일수를 5.5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주당 정규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이내로 사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정상근로일에서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근로한 시간

※ 자영자 등 정규·초과 근로시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정규 근로시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주당 초과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월평균 휴일근로 : 사업체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의 정상근로일 이외의 휴일(주휴일, 취업규칙상 휴일) 및 휴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일수를 기재합니다.

주당 정규 근로일	_____ 일
주당 정규 근로시간	_____ 시간
주당 초과 근로시간	_____ 시간
월평균 휴일근로	_____ 일

A31) 현재 일자리에서 근로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먼저 자신의 급여형태에 맞게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월 평균 근로소득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임금근로자는 세금·상여금을 포함하고, 비임금근로자는 운영비는 제외하고, 세금을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 프로젝트별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급여형태별	1. 연봉 _____ 만원 또는
	2. 월평균 _____ 만원 또는
	3. 주당 _____ 만원 또는
	4. 일당 _____ 만원 또는
	5. 시간당 _____ 원
월평균	_____ 만원

A31-1) 현재의 일자리에 입사했던 당시에 받았던 월평균 초임은 얼마나 됩니까? 먼저 자신의 급여 형태에 맞게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월평균 초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임금근로자는 세금·상여금을 포함하고, 비임금근로자는 운영비는 제외하고, 세금을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 프로젝트별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급여형태별	1. 연봉 _____ 만원 또는
	2. 월평균 _____ 만원 또는
	3. 주당 _____ 만원 또는
	4. 일당 _____ 만원 또는
	5. 시간당 _____ 원
월평균초임	_____ 만원

A32) 현재 일자리와 관련하여 아래 항목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임금 또는 소득	1	2	3	4	5
(2) 고용의 안정성	1	2	3	4	5
(3) 근무환경시설 안전 위생상태 등	1	2	3	4	5
(4) 일하는 시간(근로시간 근무일수)	1	2	3	4	5
(5) 개인의 발전가능성	1	2	3	4	5
(6) 인간관계	1	2	3	4	5
(7) 복리후생제도 (사회보험 및 부가급부)	1	2	3	4	5
(8) 인사체계(승진제도)	1	2	3	4	5
(9)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	1	2	3	4	5
(10) 하고 있는 일의 자율성과 권한	1	2	3	4	5
(11)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평판	1	2	3	4	5
(12) 하는 일과 자신의 적성 흥미의 일치	1	2	3	4	5
(13) 직무관련 교육 또는 훈련	1	2	3	4	5

A32-1) 현재 일자리(직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A32-2) 주된 일(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A33) 현재 일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일의 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1. 일의 수준이 매우 낮다
2. 일의 수준이 낮다
3. 일의 수준이 알맞다
4. 일의 수준이 높다
5. 일의 수준이 매우 높다

A34) 현재 일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일의 기술(기능) 수준이 자신의 기술(기능)수준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1. 일의 기술(기능) 수준이 매우 낮다
2. 일의 기술(기능) 수준이 낮다
3. 일의 기술(기능) 수준이 알맞다
4. 일의 기술(기능) 수준이 높다
5. 일의 기술(기능) 수준이 매우 높다

A35) 현재 일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일의 내용이 자신의 (편)입학 시 전공(주전공)과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맞지 않는다
2. 잘 맞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잘 맞는다
5. 매우 잘 맞는다

A35-1) 현재 일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일의 내용이 자신의 복수전공과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수전공은 2중 전공, 다전공 등 이수 후 추가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1. 전혀 맞지 않는다
2. 잘 맞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잘 맞는다
5. 매우 잘 맞는다
6. 복수전공을 하지 않았다

A36) 대학에서 배운 전공지식이 현 직장(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1. 전혀 도움이 안 된다
2. 별로 도움이 안 된다
3. 보통이다 → **A37)로 이동**
4. 대체로 도움이 된다 → **A37)로 이동**
5. 매우 도움이 된다 → **A37)로 이동**

A36-1) 대학에서 배운 전공 지식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전공 지식이 경쟁력이 없어서
2. 지원한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서
3. 실제업무와 관련은 있지만, 활용도가 떨어져서
4. 전공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적어서
5. 기타 ()

A37) 현재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대학 재학 시 배웠으면 업무에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1. 의사소통능력
2. 수리통계능력
3. 문제해결능력
4.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5. 자원활용능력
6. 대인관계능력
7.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
8. 기술이해 및 활용능력
9. 조직이해
10. 국제감각
11. 기타()

A38) 나의 일자리에서는 외국어 능력이 얼마나 요구됩니까?

1. 전혀 요구되지 않는다
2. 거의 요구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조금 요구된다
5. 많이 요구된다

A39) 현재 일자리에서 업무상 요구되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있다면, 가장 대표적인 자격증 한 가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1. 있다 (자격증명 : _____ code : _____)
2. 없다 → **A40)으로 이동**

A39-1) 귀하는 해당(A39에서 응답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A40) 현재 일자리에서 귀하는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할 경우 지역가입여부에 대하여 주십시오.
※ 직장 내 가입되어 있지 않고 가족 이름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 지역 가입 여부에 '가입되어 있다'에 체크해 주십시오.
※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 이외의 별도의 연금제도로서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은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 4대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함.

	직장 내 가입 여부			지역 가입 여부 (직장 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만)		
	가입되어 있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	모른다	가입되어 있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	모른다
(1) 국민연금	1	2	3	1	2	3
(2) 특수직역연금	1	2	3			
(3) 건강보험	1	2	3	1	2	3
(4) 고용보험	1	2	3			
(5) 산재보험	1	2	3			

A41) 현 직장내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있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 ※ 직장 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만 본인의 가입여부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직장 내 유무 여부			본인의 가입여부		
있다	없다	모른다	가입하였다	가입하지 않았다	가입대상자가 아니다
1	2	3	1	2	3

A41-1) 귀하는 현 직장 이외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습니까?

- ※ 예) 지역노조, 산별노조 등
1. 가입하였다
2. 가입하지 않았다.

A42) 현재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창업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도 구직활동에 포함됩니다.

1. 예
2. 아니오 → **A43)으로 이동**

A42-1) 현재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구직활동을 한 실제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 실제로 구직활동을 한 기간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0월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추석명절 때문에 1주일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는 3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 1주 이내는 1주로, 4주는 1개월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_____개월 _____주 동안

A43) 현재 일자리에 들어가게 된 주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 (정시 및 수시) 공개 채용전형에 합격하여
- 회사 측의 특별채용(스카우트)에 의하여(헤드헌터)
- 학교(학원) 선생님이 나를 회사에 소개/추천해서
- 가족, 친지 및 지인이 나를 회사에 소개/추천해서
- 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나를 회사에 소개/추천해서
- 이력서를 등록한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보고 회사측에서 연락 후 면접을 통해서
- 개인사업 시작(가족사업 참여)
- 취업박람회 등을 통하여
- 현 직장에서의 과거 업무경험(아르바이트, 인턴, 산학협력, 레지던트 등)
- 현 직장에서의 과거 업무경험(아르바이트, 인턴, 산학협력, 레지던트 등)
- 공무원시험 혹은 교원시험 등에 합격하여
→ **A45)으로 이동**
- 군복무대체(산업기능요원복무, 방위산업체 등)
- 기타(_____)

A44) 현재 일자리의 정보를 얻은 주된 방법은 무엇입니까?

- 학교 취업정보실
- 교수님(과사무실 포함)
- 부모 또는 친척 (회사홈페이지 포함)
- 친구, 선후배 등 지인
- 신문, TV 등 언론매체
- 생활정보지
- 공공취업알선기관 (고용센터 자체 취업센터 등)
- 사설취업알선기관 (직업소개소 등)
-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 회사에 직접 연락
- 직업 및 취업박람회
- 학원
- 현장실습/인턴십
- 헤드헌터(서치 컨설턴트)
- 기타(_____)

A45) 현재 일자리는 신입채용으로 지원해 들어오셨습니까?

- ※ 신입채용과 경력직 채용은 채용공고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인턴을 거쳐 채용된 경우는 신입채용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입채용
- 경력직 채용
- 구분 없음
- 해당사항 없음(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 기타(_____)

A46) 현재 일자리에 취업하는데 있어서 다음 사항들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근로소득	9. 직장(고용) 안정성
2. 근로시간	10. 근무환경
3. 자신의 적성/흥미	11. 복리후생
4. 전공분야와의 관련성	12. 회사규모
5. 업무내용의 난이도	13. 출퇴근거리
6. 업무량	14.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평판
7. 개인의 발전가능성	15.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
8. 직업 자체의 미래 전망	

A47) 현재 일자리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A49)로 이동**

A48)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1. 업무내용습득
2. 상사-동료와의 관계
3. 적성-흥미와 불일치
4. 기대했던 수준(임금, 복지, 근로시간 등)과의 격차
5. 차별(성, 학력, 지역 등)
6.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7. 고용 또는 직장의 불안정성
8. 육체적 건강 또는 체력의 문제
9. 기타()

A49) 현재 일자리에서 일하는 동안 다른 일자리 제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일자리 제의란 구직활동을 통한 일자리 제의뿐 아니라 헤트런터, 스퀘어트 등에 의한 일자리 제의를 포함합니다.

1. 예
2. 아니오 → **A51)로 이동**

A50) 받은 적이 있다면, 일자리 제의 횟수는 총 몇 번이었습니까?

- 회

※ 다음은 이직 준비관련 문항입니다.

A51) 귀하는 현재 직장을 옮길(이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이직활동이란 현재 일자리를 시작 한 이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입니다. 직업소개소 등록, 원서접수 또는 취직시험 응시, 구인광고 탐색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 임금근로자의 경우 창업 또는 개인사업 준비도 포함되며, 비임금근로자는 다른 사업체 취업 또는 업종 변경 준비도 포함됩니다.

※ 이직활동을 하다가 업무과중 등의 사유로 현재 잠시

이직활동을 쉬는 경우로 “예”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1. 예
2. 아니오 → **A67)로 이동**

A52) 직장을 옮기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보수가 적어서	
2. 전망이 없어서	
3.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4.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5. 고용의 불안정/계약의 종료	
6.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거나 될 것에 대비해서	
7.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8.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 맞지 않아서	
9. 직장 동료나 상사와의 불화	
10. 현재 일에 보람을 느끼지 못해서	
11. 출퇴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12. 건강상의 이유로	
13. 집안 사정 때문에(육아, 가사 부담 등 포함)	
14. 기타()	

A53) 현재 일자리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얼마동안 이직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가장 최근 이직활동이 아닌 현재 일자리에서 일하는 동안의 이직활동 전체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 1주 이내는 1주로, 4주는 1개월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개월 주 동안

A54) 이직을 희망하는 사업체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1.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2. 외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에 위치하는 외국인 회사
3.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
4. (재단, 사단) 법인단체
5.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6. 교육기관(대학, 초/중/고 등)
7. 연구기관(국립/사립)
8.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형태의 근무
9. 기타()
10.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A55) 이직을 희망하는 사업체의 규모는 다음 중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1. 1~29명 | 5. 300~499명 |
| 2. 30~49명 | 6. 500~999명 |
| 3. 50~99명 | 7. 1000명 이상 |
| 4. 100~299명 | 8.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

A56) 이직 시 희망하는 직업은 다음 중 무엇에 해당합니까?

1. 관리직
2.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3. 금융·보험 관련직

4. 교육 및 자연과학 ·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5. 법률 · 경찰 · 소방 · 교도 관련직
6. 보건 · 의료 관련직
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8. 문화 · 예술 · 디자인 · 방송 관련직
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2. 미용 · 숙박 · 여행 · 오락 · 스포츠 관련직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4. 건설 관련직
15. 기계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금속 · 유리 · 점토 · 시멘트)
17. 화학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19. 전기 · 전자 관련직
20. 정보통신 관련직
21. 식품가공 관련직
22. 환경 · 인쇄 · 목재 · 가구 · 공예 및 생산단순직
23. 농림어업 관련직
24. 군인
25.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A57) 일자리 정보를 얻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1. 학교 취업정보실
2. 교수님(과사무실 포함)
3. 부모 또는 친척
4. 친구, 선후배 등 지인
5. 신문, TV 등 언론매체
6. 생활정보지
7.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8. 사설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등)
9.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10. 회사에 직접 연락(회사홈페이지 포함)
11. 직업 및 취업박람회
12. 학원
13. 현장실습/인턴십
14. 헤드헌터(서치 컨설턴트)
15. 기타()

A58) 이직 시 희망하는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1. 임금근로자
2. 비임금근로자 → **A62)로 이동**

A59)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는 무엇입니까?

※ 시간제근로 : 파트타임 근로 또는 동일 사업체 내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는 경우

※ 전일제 일자리(full-time job)이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규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정규적인 업무개시 시각과 종료시각과의 사이의 근로시간)과 동일한 시간 동안 근무하도록 정해진 근로형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 09:00~18:00인 일자리를 의미함.

1. 시간제 근로 → (주당 희망근로일수: _____일
일당 희망근로시간: _____시간)
2. 전일제 근로 → **A61)으로 이동**

A60)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2. 가사에 대한 책임 때문에
3. 집안의 고령자나 장애인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4. 학업(학교, 시험준비 등)
5.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6. 개인의 (여가)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어서
7. 건강(병이나 장애) 때문에
8. 일(직업)의 특성상
9. 기타 ()

A61) 이직활동기간 중 일자리에 지원한 횟수는 몇 번입니까?

※ 위 **A53)에** 응답하신 이직활동 기간을 기준으로 지원한 횟수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경우는 여러 번 연력이 오더라도 1회에 해당합니다.

- _____회

A61-1) 이직활동기간 중 면접을 본 횟수는 몇 번입니까?

※ 한 기업에서 한 번의 채용전형동안 여러 번 면접을 본 경우는 1회에 해당합니다.

- _____회

A61-2) 일자리에 지원한 후 합격하여 제의를 받은 횟수는 몇 번입니까?

- _____회

A61-3) 일자리 제의(취업)를 거절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A63)으로 이동**

A61-4) 일자리 제의를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일자리 제의 거절경험이 2회 이상인 경우는 가장 최근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1.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2.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3. 적성과 맞지 않아서
4. 전공과 맞지 않아서
5. 장래성이나 발전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6. 사회적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7. 출·퇴근거리가 너무 멀어서(해외근무지 포함)
8. 원하던 직업이 아니어서
9. 더 좋은 곳에 취업되어서
10. 기타()

→ **A63)으로 이동**

A62) 비임금근로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가족 사업에 참여하거나 물려받아서
2. 더 많은 소득이 가능해서
3. 회사에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4. 유연한 근로시간
5.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6. 재택근무가 가능해서
7. 더 많은 독립성과 자율성, 자기 결정권
8. 스트레스가 적어서
9. 직업적 특성에 의해서 (통·번역사 등)
10. 기타 ()

A63) 향후 일자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 연봉은 얼마입니까?

- ※ 연평균 소득(연봉)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창업 또는 개인 사업을 준비하시는 경우는 생각하시는 최저 연평균 순수입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연평균(연봉) 만 원

A64) 일자리의 선택에서 다음 사항들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1. 근로소득 | 9. 직장(고용) 안정성 |
| 2. 근로시간 | 10. 근무환경 |
| 3. 자신의 적성·흥미 | 11. 복리후생 |
| 4. 전공분야와의 관련성 | 12. 회사규모 |
| 5. 업무내용의 난이도 | 13. 출퇴근거리 |
| 6. 업무량 | 14.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평판 |
| 7. 개인의 발전가능성 | 15.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 |
| 8. 직업 자체의 미래 전망 | |

A65) 이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거나, 현재 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예	아니오
(1) 외국어 회화 학원수강	1	2
(2) 토익, 토플 등 외국어 시험	1	2
(3) 면접훈련 교육	1	2
(4) IT, 컴퓨터관련 교육	1	2
(5) 공공취업알선기관 구직등록 또는 상담원 상담	1	2
(6) 취업박람회 참여	1	2
(7) 구직정보를 민간취업알선 인터넷에 등록	1	2
(8) 친인척, 친구, 교수 등에게 취업 부탁	1	2
(9) 자격증 취득	1	2
(10) 외모관리	1	2
(11) 헤드헌터(서치 컨설턴트)와 상담	1	2
(12) 점포물색, 인허가 취득준비 등 창업준비	1	2
(13) 기타()	1	2

A66) 이직준비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1. 취업(창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
2.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3. 경력이 부족해서
4. 성차별 때문에
5. 나이가 많거나 적어서
6. 학력, 학벌, 능력(스펙, 자격증 등)이 부족해서
7.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장애, 병)으로 인해서
8.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
9.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
10.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서
11.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12. 입사 준비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방법을 잘 몰라서
13.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확신이 없어서
14. 창업자금이 부족해서
15. 기타()

※ 다음은 현재 주된 일자리 이외의 다른 일자리 관련 문항입니다.

A67) 현재(2016년 8월 25일~8월 31일) 주된 일자리 이외에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수입을 목적으로 임시로 하는 아르바이트도 포함됩니다.

1. 예
2. 아니오 → **A75)로 이동**

※ A68)~A74)은 응답표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현재 주된 일자리를 제외한 다른 일자리의 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가장 많은 시간 일을 한 일자리 3개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68)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사업체명	
직무내용	
사용 장비나 도구	

CODE

A69) 하시는 일은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 년 월

A70) 하시는 일은 주된 일자리의 업무내용과 비교하여 동일분야입니까?

1. 동일하다
2. 유사하다
3. 전혀 다르다

A71)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 | | |
|----------|-----------------|
| 1. 상용근로자 |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 2. 임시근로자 |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 3. 일용근로자 | 6. 무급가족종사자 |

A72) 주당 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 _____ 시간

A73)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임금근로자는 세금 · 상여금을 포함하고, 비임금근로자는 세금을 포함하여 기입하여 주십시오.

■ _____ 만원

A74) 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경제적 여유를 위해
2. 지인의 부탁으로
3. 창업을 위한 준비 또는 가족사업 참여(승계)를 위해
4. 자아실현을 위해
5. 경력개발을 위해
6.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7. 기타(_____)

〈A68)~A74) 응답표〉

	1	2	3
A68) 하시는 일			
A69) 시작시기	_____년 _____월 _____년 _____월 _____년 _____월		
A70) 동일분야			
A71) 종사상 지위			
A72) 주당 근무시간	_____시간	_____시간	_____시간
A73) 월평균소득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A74) 일하는 이유			

A75) (동시 일자리를 제외하면) 현재 주된 일자리가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일자리)입니까?

1. 예 → **D1)로 이동**
2. 아니오

A75-1) 현재 주된 일자리는 졸업 후 몇 번째 직장(일자리)입니까?

※ 현재 주된 일자리 이외에 현재 하고 있는 다른 일자리는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 _____ 번째

→ **D1)로 이동**

다음은 귀하의 구직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 지난 4주 이내(2016년 8월 4일~8월 31일)에 구직활동 경험에 있는 경우(현재 취업자는 제외)에만 응답하는 문항입니다.

B1) 귀하는 지난주(2016년 8월 25일~8월 31일)에 직장(일자리)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1. 예 → **B3)으로 이동**
2. 아니오

B2) 일자리를 구해보았으나, 지난주(2016년 8월 25일 ~ 8월 31일)에 직장(일자리)이 있더라도 일을 할 수 없었던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취업을 위해 준비 중(학원수강, 시험준비 등)
2. 결혼, 육아 또는 가사
3.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4. 군입대 대기
5. 진학준비
6. 심신장애
7. 기타(_____)

→ **C3)으로 이동**

B3) 현재까지 얼마동안 구직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가장 최근 구직활동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1주 이내는 1주로, 4주는 1개월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_____개월 _____주 동안

B4) 일자리 정보를 얻은 주된 방법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1. 학교 취업정보실
2. 교수님(과사무실 포함)
3. 부모 또는 친척
4. 친구, 선후배 등 지인
5. 신문, TV 등 언론매체
6. 생활정보지
7.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8. 사설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등)
9.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10. 회사에 직접 연락(회사홈페이지 포함)
11. 직업 및 취업박람회
12. 학원
13. 현장실습/인턴십
14. 헤드헌터(서치 컨설턴트)
15. 기타(_____)

B5) 취업을 희망하는 사업체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1.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2. 외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에 위치하는 외국인 회사
3.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
4. (재단, 사단) 법인단체
5.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6. 교육기관(대학, 초/중/고 등)

7. 연구기관(국립/사립)
8.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형태의 근무
9. 기타()
10.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B6) 취업을 희망하는 사업체의 규모는 다음 중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1. 1 ~ 29명 | 5. 300 ~ 499명 |
| 2. 30 ~ 49명 | 6. 500 ~ 999명 |
| 3. 50 ~ 99명 | 7. 1000명 이상 |
| 4. 100 ~ 299명 | 8.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

B7)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은 다음 중 무엇에 해당합니까?

1. 관리직
2. 경영 · 회계 · 사무 관련직
3. 금융 · 보험 관련직
4. 교육 및 자연과학 ·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5. 법률 · 경찰 · 소방 · 교도 관련직
6. 보건 · 의료 관련직
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8. 문화 · 예술 · 디자인 · 방송 관련직
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2. 미용 · 숙박 · 여행 · 오락 · 스포츠 관련직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4. 건설 관련직
15. 기계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금속 · 유리 · 점토 · 시멘트)
17. 화학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19. 전기 · 전자 관련직
20. 정보통신 관련직
21. 식품가공 관련직
22. 환경 · 인쇄 · 목재 · 가구 · 공예 및 생산단조직
23. 농림어업 관련직
24. 군인
25.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B8) 희망하는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1. 임금근로자
2. 비임금근로자 → **B12)로 이동**

B9)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는 무엇입니까?

- ※ 시간제 근로는 파트타임·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간제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 전일제 근로에 해당합니다.
- ※ 전일제 일자리(full-time job)이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규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정규적인 업무개시 시간과 종료시간과의 사이의 근로시간)과 동일한 시간 동안 근무하도록 정해진 근로형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 09:00~18:00인 일자리를 의미함.

1. 시간제 근로 → (주당 희망근로일수: 일 일당 희망근로시간: 시간)
2. 전일제 근로 → **B11)로 이동**

B10)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2. 가사에 대한 책임 때문에
3. 집안의 고령자나 장애인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4. 학업(학교, 시험준비 등)
5.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6. 개인의 (여가)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어서
7. 건강(병이나 장애) 때문에
8. 일(직업)의 특성상
9. 기타 ()

B11) 구직활동기간 중 일자리에 지원한 횟수는 몇 번입니까?

- ※ 위 B3)에 응답하신 구직활동 기간을 기준으로 지원한 횟수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 _____회

B11-1) 구직활동기간 중 면접을 본 횟수는 몇 번입니까?

- ※ 한 기업에서 한 번의 채용전형동안 여러 번 면접을 본 경우는 1회에 해당합니다.

■ _____회

B11-2) 구직활동 기간 동안 일자리를 제의 받은 횟수는 몇 번입니까?

■ _____회

B11-3) 일자리 제의(취업, 스카우트 등)를 거절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B13)으로 이동**

B11-4) 일자리 제의를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일자리 제의 거절경험이 2회 이상인 경우는 가장 최근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1. 임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2.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3. 적성과 맞지 않아서
4. 전공과 맞지 않아서
5. 장래성이나 발전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6. 사회적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7. 출·퇴근거리가 너무 멀어서(해외근무지 포함)
8. 원하던 직업이 아니어서
9. 더 좋은 곳에 취업되어서
10. 학업 또는 시험준비와 병행이 어려워서
11. 기타()

→ **B13)으로 이동**

B12) 비임금근로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가족 사업에 참여하거나 물려받아서
2. 더 많은 소득이 가능해서
3. 회사에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4. 유연한 근로시간
5.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6. 재택근무가 가능해서

7. 더 많은 독립성과 자율성, 자기 결정권
8. 스트레스가 적어서
9. 직업적 특성에 의해서 (통.번역사 등)
10. 기타 ()

B13) 귀하는 정규직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길 희망합니까?

1. 예
2. 아니오 → **B15로 이동**

B14) 희망하신다면, 정규직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B15) 향후 일자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 연봉은 얼마입니까?

※ 연평균(연봉)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 또는 개인 사업을 준비하시는 경우는 생각하시는 최저 연평균 순수입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연평균(연봉) _____만원

B16) 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거나 현재 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예	아니오
(1) 외국어 회화 학원수강	1	2
(2) 토익, 토플 등 외국어 시험	1	2
(3) 면접훈련 교육	1	2
(4) IT, 컴퓨터관련 교육	1	2
(5) 공공취업알선기관 구직등록 또는 상담원 상담	1	2
(6) 취업박람회 참여	1	2
(7) 구직정보를 민간취업알선 인터넷에 등록	1	2
(8) 친인척, 친구, 교수 등에게 취업 부탁	1	2
(9) 자격증 취득	1	2
(10) 현장실습 및 인턴십	1	2
(11) 외모관리	1	2
(12) 점포물색, 인허가 취득준비 등 창업준비	1	2
(13) 기타()	1	2

B17) 일자리의 선택에서 다음 사항들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1. 근로소득 | 9. 직장(고용) 안정성 |
| 2. 근로시간 | 10. 근무환경 |
| 3. 자신의 적성·흥미 | 11. 복리후생 |
| 4. 전공분야와의 관련성 | 12. 회사규모 |
| 5. 업무내용의 난이도 | 13. 출퇴근거리 |
| 6. 업무량 | 14.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평판 |
| 7. 개인의 발전가능성 | 15.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 |
| 8. 직업 자체의 미래 전망 | |

B18) 구직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취업(창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
-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 경력이 부족해서
- 성차별 때문에
- 나이가 많거나 적어서
- 학력, 학벌, 능력(스펙, 자격증 등)이 부족해서
-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장애, 병)으로 인해서
-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
-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
-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 임사 준비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방법을 잘 몰라서
- 창업자금이 부족해서
- 기타()

B19) 귀하는 현재 경제적인 문제를 주로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 부모 또는 형제의 지원
- 예전에 모아둔 저축
- 배우자의 소득
- 종교기관, 국가 등의 지원금
- 장학금, 연구 관련 지원비 등
- 실업급여
- 대출
- 기타()

→ **D1로 이동**

다음은 귀하의 비경제활동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 현재 일자리(직장)가 없고, 지난 4주 이내(2016년 8월 4일~8월 31일)에 구직활동 경험도 없는 비경제활동상태인 경우에 만 응답하는 문항입니다.

C1) 지난주(2016년 8월 25일~8월 31일)에 직장(일자리)을 원하였습니까?

1. 예
2. 아니요 → **C2)로 이동**

C1-1) 지난주(2016년 8월 25일~8월 31일)에 직장(일자리)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요

C1-2) 지난 4주(2016년 8월 4일~8월 31일) 동안 직장(일자리)을 구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2.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3. 근처(주변)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4.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5. 나이가 너무 어려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6.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7. 취업을 위해 준비 중(학원수강, 시험준비 등)
8. 일하고 싶지 않아서
9. 육아 또는 가사
10.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11. 군입대 대기
12. 진학준비
13. 심신장애
14. 기타()

C2) 귀하는 졸업 이후 구직활동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 고시, 자격증, 공사(공단) 등의 시험준비는 구직활동에 포함되지 않으나, 시험에 응시한 경우는 구직활동에 포함됩니다.

1. 예
2. 아니요 → **C3)으로 이동**

C2-1) 가장 최근까지 실시하였던 구직활동을 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가장 최근의 구직활동을 시작한 시점부터 최종적으로 구직활동을 그만둔 시점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_____년 _____월 부터
_____년 _____월 까지

C3) 귀하는 향후 1년 이내에 직장(일자리)을 가질 의향이 있습니까?

1. 예 → **C5)로 이동**
2. 아니요

C4) 향후 1년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일할 의향이 있습니까?

1. 예 → **C5)로 이동**
2. 아니요

C4-1) 향후 일이 주어져도 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대학(원) 재학(진학) 때문에
2. 공무원, 교원 등 시험준비를 위해서
3. 육아 및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서
4.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5. 나이가 많아서(은퇴)
6. 기타()

→ **C11)로 이동**

C5) 향후 일을 하게 된다면 희망하는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

※ **임시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고용계약이 정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 **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 **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조사대상주간에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

1. 상용직
2. 임시직
3. 일용직
4. 비임금근로자 → **C7)로 이동**
5.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 **C7)로 이동**

C6) 향후 일을 하게 된다면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는 무엇입니까?

※ 시간제 근로는 파트타임·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간제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 전일제 근로에 해당합니다.

※ 전일제 일자리(full-time job)이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규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정규적인 업무개시 시각과 종료시각과의 사이의 근로시간)과 동일한 시간동안 근무하도록 정해진 근로형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 09:00~18:00인 일직리를 의미함.

1. 시간제 근로
2. 전일제 근로
3.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C7)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사업체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1.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2. 외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에 위치하는 외국인 회사
3.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
4. (재단, 사단) 법인단체
5.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6. 교육기관(대학, 초/중/고 등)
7. 연구기관(국립/사립)
8.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형태의 근무
9. 기타()
10.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C8)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사업체의 규모는 다음 중 어느 정도 인니까?

1. 1 ~ 29명
2. 30 ~ 49명
3. 50 ~ 99명
4. 100 ~ 299명
5. 300 ~ 499명
6. 500 ~ 999명
7. 1000명 이상
8.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C9)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관리직
2. 경영 · 회계 · 사무 관련직
3. 금융 · 보험 관련직
4. 교육 및 자연과학 ·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5. 법률 · 경찰 · 소방 · 교도 관련직
6. 보건 · 의료 관련직
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8. 문화 · 예술 · 디자인 · 방송 관련직
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2. 미용 · 숙박 · 여행 · 오락 · 스포츠 관련직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4. 건설 관련직
15. 기계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금속 · 유리 · 점토 · 시멘트)
17. 화학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19. 전기 · 전자 관련직
20. 정보통신 관련직
21. 식품가공 관련직
22. 환경 · 인쇄 · 목재 · 가구 · 공예 및 생산단순직
23. 농업어업 관련직
24. 군인
25.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C10) 향후 일을 한다면 받아들이 수 있는 최저 연봉은 얼마입니까?

※ 연평균(연봉)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 또는 개인 사업을 준비하셨던 경우는 생각하셨던 최저 연평균 순수입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연평균(연봉) _____만원

C11) 귀하는 현재 경제적인 문제를 주로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1. 부모 또는 형제의 지원
2. 예전에 모아둔 저축
3. 배우자의 소득
4. 종교기관, 국가 등의 지원금
5. 장학금, 연구 관련 지원비 등
6. 실업급여
7. 대출
8. 기타()

→ **D1)로 이동**

다음은 첫 일자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D1) 대학 졸업 후, 일자리를 가진 경험이 있습니까?

※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대학 졸업 후 가진 첫 번째 일자리 경험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대학 졸업 전부터 일하기 시작하였더라도 졸업 후까지 계속 일을 한 경우는 첫 일자리에 해당합니다.

1. 예
2. 아니오 → **F1)로 이동**

D2) 첫 일자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였습니까?

■ _____년 _____월 ~ _____년 _____월

D3) 하셨던 일은 아르바이트였습니까?

※ 아르바이트: 수입을 목적으로 임시로 하는 일

1. 예
2. 아니오

D4) 처음 일하셨던 곳(사업체)은 주로 무엇을 하는 곳이었습니까?

※ 기업체는 하나 이상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는 기업체, ○○전자의 ○○공장, ○○영업소, ○○서비스센터 등은 사업체에 해당합니다.

※ 사업체명은 급여를 받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십시오. 파견근로 내지 사내하청근로의 경우 응답자가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업체명	
사업체명	
사업체의 주 생산품목(활동)	
주 생산품 원료	
추가질문사항	
추가질문답변	

CODE

D4-1) 처음 일하셨던 곳(사업체)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사업체 자체가 공장인 생산업체는 "1. 단독사업체"에 응답하여 주시고, 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는 "4. 기타"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독사업체
2. 본사
3. 지점·공장
4. 기타()

D5) 귀하가 첫 일자리에서 주로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서명	
직 급	
직무내용	
사용 장비나 도구	
추가질문사항	
추가질문답변	

CODE

--	--	--	--

D6) 처음 일하셨던 곳의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 D4)에서 응답하신 기업체명과 사업체명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와 사업체가 동일한 경우 (중소기업, 자영업 등)는 기업체와 사업체 종사자 수를 동일하게 기입하시면 됩니다.

기업체	사업체
-----	-----

- | | |
|-----------|--------------|
| 1. 1~4명 | 6. 100~299명 |
| 2. 5~9명 | 7. 300~499명 |
| 3. 10~29명 | 8. 500~999명 |
| 4. 30~49명 | 9. 1,000명 이상 |
| 5. 50~99명 | |

D7) 처음 일하셨던 곳(사업체)은 어디에 있습니까?

- 국내: _____ 특별시/광역시/도 _____ 구/시/군
- 국외(국가명) : _____

D8) 처음 일하셨던 곳(사업체)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1.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2. 외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에 위치하는 외국인 회사
3.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
4. (재단, 사단) 법인단체
5.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6. 교육기관(대학, 초/중/고 등)
7. 연구기관(국립/사립)
8.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
9. 기타()

D9) 첫 일자리에서 종사상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1. 상용근로자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D21)로 이동
2. 임시근로자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이동
3. 일용근로자	6. 무급가족종사자 → D25)로 이동

- ※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
- ※ **임시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고용계약이 정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사업(원로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 ※ **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 ※ **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조사대상주간에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

※ 임금근로자만 응답하는 항목입니다.

D10) 첫 일자리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었습니까?

※ 첫 직장이 정년제인 경우는 '정해져 있지 않음'에 해당합니다.

1. 정해져 있었다
2. 정해져 있지 않았다 → **D10-3)으로 이동**

D10-1) 정해져 있었다면, 계약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 | |
|-----------------|----------------|
| 1. 1개월 미만 | 5. 2년 |
| 2. 1개월 이상~1년 미만 | 6. 2년 초과~3년 미만 |
| 3. 1년 | 7. 3년 이상 |
| 4. 1년 초과~2년 미만 | |

D10-2) 계약(기간)은 반복·갱신된 것이었습니까?

※ 최초 계약인 경우는 '2. 아니오'에 해당합니다.

1. 예
 2. 아니오
- **D10-4)로 이동**

D10-3) 첫 일자리는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였습니까?
(건설일용근로자,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1. 예 → **D10-7)로 이동**
2. 아니오

D10-4) 회사가 아주 어려워져서 폐업 또는 고용조정을 하거나 귀하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원하는 한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D10-6)으로 이동**

D10-5) 계속 다닐 수 있었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하였으므로
2.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고용이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3. 목시적인 고용관행에 의해

→ **D10-7)로 이동****D10-6) 계속 다닐 수 없었다고 응답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2. 목시적·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3. 사업주가 그만두려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 (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4. 하던 업무(프로젝트)가 끝났기 때문에
5.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하였기 때문에
6. 특정 계절 동안만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7. 적성·근로조건·능력 등의 이유로 다른 일자리를 찾을 예정이었으므로
8. 규정·관행상 퇴직하는 연령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9. 학업·가족부양·건강 등의 이유로
10. 직장의 경영상 이유 때문에
11. 기타()

D10-7) 첫 일자리에에서의 근로시간은 어떤 형태였습니까?

- ※ 시간제 근로는 파트타임·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간제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 전일제 근로에 해당합니다.
- ※ 전일제 일자리(full-time job)이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규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정규적인 업무개시 시각과 종료시각과의 사이의 근로시간)과 동일한 시간 동안 근무하도록 정해진 근로형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 09:00~18:00인 일자리를 의미함.

1. 전일제 근로
2. 시간제 근로

D10-8) 실제 일하시는 곳과 임금(급여)을 주는 곳이 동일하였습니까?

1. 예 → **D10-10)으로 이동**
2. 아니오

D10-9) 그렇다면, 임금(급여)은 다음 중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1. 파견업체
2. 용역업체

D10-10) 첫 일자리는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실제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에 해당되었습니까?

- ※ 예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비보조원, 레미콘 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 방송작가 등

1. 예
2. 아니오

D10-11) 주로 어디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 ※ 가사도우미, 입주보모, 입주 가정교사 등은 '2'에 해당됩니다.

1. 가정에서
2. 사업장 내 또는 사무실 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D11) 첫 일자리에서 교대제로 일을 하였습니까? 교대제로 일하였다면 몇 조 몇 교대제로 일하였습니까?

- ※ 교대제는 일정기간마다 교대로 작업을 하게하는 근무 형태를 말합니다.

- 교대제의 유형은 교대조의 수와 교대순번에 따라 3조 2교대, 3조3교대, 4조2교대, 4조3교대 등으로 구분됨

1. 예 → ____ 조 ____ 교대
2. 아니오

D12) 첫 일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 ※ 본인의 혜택여부는 직장에서 제공된다는 경우에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 ※ 유급휴한 1주간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경우 1일의 휴일에 대하여 일급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월급제(연봉제) 형태인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월급여액에 주휴일의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직장에서의 제공여부			본인의 혜택여부		
	제공 되었다	제공되지 않았다	모른다	받을 수 있었다	받을 수 없었다	모른다
(1) 법정퇴직금/ 퇴직연금	1	2	3	1	2	3
(2) 유급휴가	1	2	3	1	2	3
(3) 시간외수당	1	2	3	1	2	3
(4) 상여금	1	2	3	1	2	3
(5) 유급주휴	1	2	3	-	-	-

D13) 첫 일자리 종료 당시 귀하는 정규직이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다음은 인턴경험에 관한 문항입니다.

D14) 첫 일자리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D29)로 이동**

D15) 첫 일자리는 다음 중 어떤 인턴제에 참여한 것입니까?

1.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취업인턴, 창직인턴)에 참여
2. 행정인턴제(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참여
3. 글로벌(해외) 인턴제에 참여
4. 기업 자체 운영 인턴제에 참여

D16) 첫 일자리에는 인턴에 대한 내부 평가시스템이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D17) 첫 일자리에는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하는 제도가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D18) 첫 일자리에서 인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D19로 이동

D18-1) 첫 일자리의 인턴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였습니까?

■ _____년 _____월

D19) 첫 일자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되었습니까?

※ D13) 문항의 정규직 여부를 참고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1. 예
2. 아니오 → D20으로 이동

D19-1) 정규직으로 채용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 _____년 _____월

D19-2) 정규직 채용 후 업무가 변경되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D20으로 이동

D19-3) 정규직 채용 전(인턴 근무 시) 주로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서명	
직 급	
직무내용	
사용 장비나 도구	
추가질문사항	
추가질문답변	

CODE

D20) 첫 일자리에서의 인턴제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도움이 안 된다
2. 별로 도움이 안 된다
3. 보통이다 → D29로 이동
4. 대체로 도움이 된다 → D29로 이동
5. 매우 도움이 된다 → D29로 이동

D20-1) 인턴제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단순 보조일에 그쳐서
2. 기간이 짧아서
3. 전공과 맞지 않아서
4. 향후 취업하고자 하는 일자리와 맞지 않아서
5. 기타()

→ D29로 이동

※ 다음은 비임금근로자만 응답하는 항목입니다.

D21) 첫 일자리는 다음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십니까?

1. 혼자 창업
2. 동업자와 함께 창업
3. 기존에 운영되던 것을 인수
4. 기존 사업에 동업으로 참여(일정지분보유형태)
5. 가족,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음 → D25로 이동
6. 사업자 등록없이 혼자 일함(과외, 레슨 등) → D25로 이동
7. 기타()

D22) 첫 일자리를 시작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 또는 투자액은 모두 얼마였습니까?

■ _____만원

D22-1) 첫 일자리를 시작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은 어떻게 조달하셨습니까?

조달방법	비용
(1) 본인 또는 가족, 친지	_____만원
(2) 동업자	_____만원
(3) 은행 등 금융기관의 융자	_____만원
(4) 동업자 또는 친지 이외의 타인에게 빌림	_____만원
(5) 사채업자	_____만원
(6) 정부의 보조 및 지원	_____만원
(7) 기타()	_____만원
계	(D22의 응답값)

D23) 다음은 창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느꼈던 어려움의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쉬움	매우 쉬움
(1) 충분한 자금의 확보	1	2	3	4	5
(2) 기술의 확보	1	2	3	4	5
(3) 적당한 인력의 확보	1	2	3	4	5
(4) 행정적인 절차 (인허가, 창업지원)	1	2	3	4	5
(5) 업종 선정	1	2	3	4	5
(6) 사업장 위치 선정	1	2	3	4	5
(7) 창업관련정보의 수집	1	2	3	4	5

D24) 다음 항목들이 첫 일자리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해당 사항 (경험) 없음
(1) 전공자식	1	2	3	4	5	X
(2) 이전 직장(일자리) 경험	1	2	3	4	5	8
(3) 동아리 또는 동호회 활동 경험	1	2	3	4	5	8
(4)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1	2	3	4	5	8
(5) 민간 창업 컨설팅	1	2	3	4	5	8
(6)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의 창업보육과정	1	2	3	4	5	8

D25) 첫 일자리의 주된 근무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1. 사업장(건물 등)
2. 나의 집(나의 집에서 과외 지도 등)
3. 남의 집(방문 과외 등)
4. 거리(노점, 행상, 방문.이동판매 등)
5. 야외 작업현장(논, 밭, 건설 및 토목공사 현장 등)
6. 운송수단(자동차, 트럭, 고깃배 등)
7. 기타(_____)

D26) 비임금근로를 선택한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 가족 사업에 참여하거나 물려받아서
2. 더 많은 소득이 가능해서
3. 회사에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4. 유연한 근로시간
5.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6. 재택근무가 가능해서
7. 더 많은 독립성과 자율성, 자기 결정권
8. 스트레스가 적어서
9. 직업적 특성에 의해서 (통.번역사 등)
10. 기타 (_____)

D27) 첫 일자리에서 비임금근로자로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1. 유연한 시간 활용
2. 보다 높은 소득
3. 독립적이고 자율적임
4. 창의적인 일에 도전
5. 적은 스트레스
6. 원하는 때(나이)까지 일할 수 있음
7. 기타(_____)

D28) 첫 일자리에서 비임금근로자로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1. 사업의 불확실성
2. 불안정한 수입
3. 낮은 수입
4. 세금 부담
5. 은행대출의 어려움
6. 복리후생의 부족
7. 과도한 책임감
8. 긴 영업시간, 휴일부족
9. 홀로 일하는 고립감
10. 기타(_____)

※ 다음은 취업자(첫 일자리가 있었던 모든 응답자) 공통 문항입니다.

D29) 첫 일자리에서 주당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는 며칠이었습니까?

※ 첫 일자리를 그만두기 전 3개월 평균을, 첫 일자리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실제 근무기간의 평균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주당 정규 근로일 :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정규 근로일로 1시간이라도 근무하였으면 1일로 간주합니다. 토요일 격주휴무제인 경우는 주당정규근무일수를 5.5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주당 정규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이내로 사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정상근로일에서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근로한 시간

※ 자영자 등 정규·초과 근로시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정규 근로시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주당 초과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월평균 휴일근로 : 사업체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의 정상근무일 이외의 휴일(주휴일, 취업규칙상 휴일) 및 휴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일수를 기재합니다.

주당 정규 근로일	_____ 일
주당 정규 근로시간	평균 _____ 시간
주당 초과 근로시간	평균 _____ 시간
월평균 휴일근로	_____ 일

D30) 첫 일자리에서 근로소득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먼저 자신의 급여형태에 맞게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월 평균 근로소득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첫 일자리를 그만두기 전 3개월 평균을, 첫 일자리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실제 근무기간의 평균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임금근로자는 세금·상여금을 포함하고, 비임금근로자는 운영비는 제외하고, 세금을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 프로젝트별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급여형태별	1. 연봉 _____ 만원 또는
	2. 월평균 _____ 만원 또는
	3. 주당 _____ 만원 또는
	4. 일당 _____ 만원 또는
	5. 시간당 _____ 원
월평균	_____ 만원

**D30-1) 첫 일자리에 입사했던 당시에 받았던 월평균
초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먼저 자신의
급여형태에 맞게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월평균 초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임금근로자는 세금·상여금을 포함하고,
비임금근로자는 운영비는 제외하고, 세금을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 프로젝트별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급여형태별	1. 연봉 _____ 만원 또는
	2. 월평균 _____ 만원 또는
	3. 주당 _____ 만원 또는
	4. 일당 _____ 만원 또는
	5. 시간당 _____ 원
월평균초임	_____ 만원

**D31) 첫 일자리와 관련하여 아래 항목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임금 또는 소득	1	2	3	4	5
(2) 고용의 안정성	1	2	3	4	5
(3) 근무환경시설 안전 위생상태 등	1	2	3	4	5
(4) 일하는 시간(근로시간 근무일수)	1	2	3	4	5
(5) 개인의 발전가능성	1	2	3	4	5
(6) 인간관계	1	2	3	4	5
(7) 복리후생제도(사회보험 및 부가급부)	1	2	3	4	5
(8) 인사체계(승진제도)	1	2	3	4	5
(9)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	1	2	3	4	5
(10) 하고 있는 일의 자율성과 권한	1	2	3	4	5
(11)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평판	1	2	3	4	5
(12) 하는 일과 자신의 적성·흥미의 일치	1	2	3	4	5
(13) 직무관련 교육 또는 훈련	1	2	3	4	5

**D31-1) 첫 일자리(직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D31-2) 주된 일(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D32) 첫 일자리에서 하셨던 일의 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어떠하였습니까?**

1. 일의 수준이 매우 낮았다
2. 일의 수준이 낮았다
3. 일의 수준이 알맞았다
4. 일의 수준이 높았다
5. 일의 수준이 매우 높았다

**D33) 첫 일자리에서 하셨던 일의 기술(기능) 수준이
자신의 기술(기능) 수준과 비교하여
어떠하였습니까?**

1. 일의 기술(기능) 수준이 매우 낮았다
2. 일의 기술(기능) 수준이 낮았다
3. 일의 기술(기능) 수준이 알맞았다
4. 일의 기술(기능) 수준이 높았다
5. 일의 기술(기능) 수준이 매우 높았다

**D34) 첫 일자리에서 하셨던 일의 내용이 자신의 (편)입학 시
전공(주전공)과 어느 정도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맞지 않았다
2. 잘 맞지 않았다
3. 보통이었다
4. 잘 맞았다
5. 매우 잘 맞았다

**D34-1) 첫 일자리에서 하셨던 일의 내용이 자신의
복수전공과 어느 정도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수전공은 2중 전공, 다전공 등 이수 후 추가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1. 전혀 맞지 않았다
2. 잘 맞지 않았다
3. 보통이었다
4. 잘 맞았다
5. 매우 잘 맞았다
6. 복수전공을 하지 않았다

D35) 대학에서 배운 전공 지식이 첫 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1.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2.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3. 보통이었다
4.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5. 매우 도움이 되었다

→ **D36)으로 이동**

D35-1) 대학에서 배운 전공 지식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전공 지식이 경쟁력이 없어서
2. 지원한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서
3. 실제업무와 관련은 있지만, 활용도가 떨어져서
4. 전공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적어서
5. 기타 ()

D36) 첫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대학 재학 시 배웠으면 업무에 가장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능력은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1. 의사소통능력
2. 수리통계능력
3. 문제해결능력
4.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5. 자원활용능력
6. 대인관계능력
7.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
8. 기술이해 및 활용능력
9. 조직이해
10. 국제감각
11. 기타()

D37) 첫 일자리에서 귀하는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까?

-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할 경우 지역가입여부에 대하여 주십시오.
- ※ 직장 내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가족 이름으로 건강보험혜택을 받았던 경우 지역 가입 여부에 '가입되어 있었다'에 체크해 주십시오.
- ※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 이외의 별도의 연금제도로서 공무원, 군인, 사학 연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은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 ※ 4대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함.

	직장 내 가입 여부			지역 가입 여부 (직장 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만)		
	가입되어 있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	모른다	가입되어 있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	모른다
(1) 국민연금	1	2	3	1	2	3
(2) 특수직역연금	1	2	3			
(3) 건강보험	1	2	3	1	2	3
(4) 고용보험	1	2	3			
(5) 산재보험	1	2	3			

D38) 첫 직장엔 노동조합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 직장 내 유무 여부에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 본인가입 여부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직장에서 유무여부			본인의 가입여부		
있었다	없었다	모른다	가입하였다	가입하지 않았다	가입대상자가 아니다
1	2	3	1	2	3

D38-1) 귀하는 첫 직장 재직 시, 첫 직장 이외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습니까?

※ 예) 지역노조, 산별노조 등

1. 가입하였다
2. 가입하지 않았다.

D39) 첫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 창업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도 구직활동에 포함됩니다.

1. 예
2. 아니오

D40) 첫 일자리에 들어가게 된 주된 경로는 무엇이었습니까?

1. (정시 및 수시) 공개 채용전형에 합격하여
2. 회사 측의 특별채용(스카우트)에 의하여(헤드헌터)
3. 학교(학원) 선생님이 나를 회사에 소개/추천해서
4. 가족, 친지 및 지인이 나를 회사에 소개/추천해서
5. 그 직장엔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나를 회사에 소개/추천해서
6. 이력서를 등록한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보고 회사측에서 연락 후 면접을 통해서
7. 개인사업 시작(가족사업 참여)
8. 취업박람회를 통하여
9. 현 직장에서의 과거 업무경험(아라바이트, 인턴, 산학협력, 레지던트 등)
10. 공무원시험 혹은 교원시험 등에 합격하여→ **D42)로 이동**
11. 군복무대체(산업기능요원복무, 방위산업체 등)
12. 기타()

D41) 첫 일자리의 정보를 얻은 주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1. 학교 취업정보실
2. 교수님(과사무실 포함)
3. 부모 또는 친척
4. 친구, 선후배 등 지인
5. 신문, TV 등 언론매체
6. 생활정보지
7.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8. 사설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등)
9. 인터넷(취업사이트/카페 등)
10. 회사에 직접 연락(회사홈페이지 포함)
11. 직업 및 취업박람회
12. 학원
13. 현장실습/인턴십
14. 헤드헌터(서치 컨설턴트)
15. 기타()

D42) 첫 일자리에 취업하는데 있어서 다음 사항들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근로소득	9. 직장(고용) 안정성
2. 근로시간	10. 근무환경
3. 자신의 적성·흥미	11. 복리후생
4. 전공분야와의 관련성	12. 회사규모
5. 업무내용의 난이도	13. 출퇴근거리
6. 업무량	14.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평판
7. 개인의 발전가능성	15.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
8. 직업 자체의 미래 전망	

D43) 첫 일자리에서 일하는 동안 일자리 제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일자리 제의란 구직활동을 통한 일자리 제의뿐 아니라 헤드헌터, 스카우트 등에 의한 일자리 제의를 포함합니다.

- 예
- 아니오 → **D44)로 이동**

D43-1) 받은 적이 있다면, 일자리 제의 횟수는 총 몇 번이었습니까?

■ _____회

D44) 첫 일자리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 예
- 아니오 → **D45)로 이동**

D44-1)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업무내용습득
- 상사·동료와의 관계
- 적성·흥미와 불일치
- 기대했던 수준(임금, 복지, 근로시간 등)과의 격차
- 차별(성, 학력, 지역 등)
-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 고용 또는 직장의 불안정성
- 육체적 건강 또는 체력의 문제
- 기타(_____)

D45) 첫 일자리를 그만둔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계약기간이 끝나서(또는 임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일이 완료되어)
- 직장의 휴·폐업 등으로(또는 일거리가 없거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 권고사직, 정리해고,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 보수가 낮아서
- 보수 이외의 근로여건(근로시간, 승진, 장래전망, 근무환경 등) 불만족
- 차별을 받아서(성차별, 고용형태 차별 등)
- 전공, 지식, 기술, 적성 등이 맞지 않아서
- 학업의 계속이나 재취업 준비

- 육아(출산), 결혼, 가족과 연관된 이유로
- 상사 또는 동료와의 갈등 때문에
- 보다 나은 직장으로서의 전직(이직)을 위하여
- 건강이 좋지 않아서
- 회사이전이나 이사 등으로 거리가 멀어져서
- 기타(_____)

다음은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 ※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에겐 현재 일자리와 첫 일자리를 제외하고, 과외 등의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대학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경우도 일자리에 포함됩니다.
- ※ 1주일 이상 다니신 일자리에 한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 ※ 현재 일자리와 첫 일자리를 제외하고 4개 이상의 다른 일자리를 다닌 경험이 있는 경우, 일한 기간이 길었던 경험 3개를 시간순서대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1) 현재 일자리와 첫 일자리를 제외하고 다른 일자리를 다닌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F1로 이동

E1-1) 총 몇 개의 일자리에서 일하셨습니까?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를 제외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_____ 개

※ 일자리 경험 1

E2) 근무 시기는 언제입니까?

■ _____ 년 _____ 월 ~ _____ 년 _____ 월

E3) 하셨던 일은 아르바이트입니까?

※ 아르바이트: 수입을 목적으로 임시로 하는 일

1. 예
2. 아니오

E4) 일하셨던 곳(사업체)은 주로 무엇을 하는 곳이었습니까?

- ※ 기업체는 하나 이상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는 기업체, ○○전자의 ○○공장, ○○영업소, ○○서비스센터 등은 사업체에 해당합니다.
- ※ 사업체명은 급여를 받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파견근로 내지 사내하청근로의 경우 응답자가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업체명	
사업체명	
사업체의 주 생산품목(활동)	
주 생산품 원료	
추가질문사항	
추가질문답변	

CODE

E4-1) 일하셨던 곳(사업체)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사업체 자체가 공장인 생산업체는 "1. 단독사업체"에 응답하여 주시고, 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는 "4. 기타"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독사업체
2. 분사
3. 지점·공장
4. 기타(_____)

E5) 귀하가 주로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서명	
직 급	
직무내용	
사용 장비나 도구	
추가질문사항	
추가질문답변	

CODE

E6) 일하셨던 곳의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 E4)에서 응답하신 기업체명과 사업체명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와 사업체가 동일한 경우(중소기업, 자영업 등)는 기업체와 사업체 종사자 수를 동일하게 기입하시면 됩니다.

기업체	사업체
1. 1~4명	6. 100~299명
2. 5~9명	7. 300~499명
3. 10~29명	8. 500~999명
4. 30~49명	9. 1,000명 이상
5. 50~99명	

E7) 일하셨던 곳(사업체)은 어디에 있습니까?

- 국내: _____ 특별시/광역시/도 _____ 구/시/군
■ 국외(국가명): _____

E8) 일하셨던 곳(사업체)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1.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2. 외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에 위치하는 외국인 회사
3.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
4. (재단, 사단) 법인단체
5.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6. 교육기관(대학, 초/중/고 등)
7. 연구기관(국립/사립)
8.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
9. 기타(_____)

E9) 그 일자리에서 종사상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1. 상용근로자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E19)로 이동
2. 임시근로자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E19)로 이동
3. 일용근로자	6. 무급가족종사자 → E20)으로 이동

※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

※ **임시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고용계약이 정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 **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 **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조사대상주간에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

※ 임금근로자만 응답하는 항목입니다.

E10) 그 일자리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었습니까?

※ 정년제인 경우는 '정해져 있지 않음'에 해당합니다.

1. 정해져 있다
2. 정해져 있지 않다 → **E10-3)으로 이동**

E10-1) 정해져 있었다면, 계약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1. 1개월 미만
2. 1개월 이상~1년 미만
3. 1년
4. 1년 초과~2년 미만
5. 2년
6. 2년 초과~3년 미만
7. 3년 이상

E10-2) 계약(기간)은 반복·갱신된 것이었습니까?

※ 최초 계약인 경우는 '2. 아니오'에 해당합니다.

1. 예
2. 아니오

→ **E10-4)로 이동**

E10-3) 그 일자리는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였습니까?

(건설일용근로자,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1. 예 → **E10-7)로 이동**
2. 아니오

E10-4) 회사가 아주 어려워져서 폐업 또는 고용조정을 하거나 귀하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원하는 한 계속 일자리에 다닐 수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E10-6)으로 이동**

E10-5) 계속 다닐 수 있었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하였으므로
2.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고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3. 묵시적인 고용관행에 의해
→ **E10-7)로 이동**

E10-6) 계속 다닐 수 없었다고 응답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2. 묵시적·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3. 사업주가 그만두려만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4. 하던 업무(프로젝트)가 끝났기 때문에
5.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하였기 때문에
6. 특정 계절 동안만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7. 적성·근로조건·능력 등의 이유로 다른 일자리를 찾을 예정이었으므로
8. 규정·관행상 퇴직하는 연령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9. 학업·가족부양·건강 등의 이유로
10. 직장의 경영상 이유 때문에
11. 기타()

E10-7) 그 일자리에서의 근로시간은 어떤 형태였습니까?

※ 시간제 근로는 파트타임·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간제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 전일제 근로에 해당합니다.

※ 전일제 일자리(full-time job)이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규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정규적인 업무개시 시각과 종료시각과의 사이의 근로시간)과 동일한 시간 동안 근무하도록 정해진 근로형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 09:00~18:00인 일자리를 의미함.

1. 전일제 근로
2. 시간제 근로

E10-8) 실제 일하시는 곳과 임금(급여)을 주는 곳이 동일하였습니까?

1. 예 → **E10-10)으로 이동**
2. 아니오

E10-9) 그렇다면, 임금(급여)은 다음 중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1. 파견업체
2. 용역업체

E10-10) 그 일자리는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에 해당되었습니까?

※ 예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 방송작가 등

1. 예
2. 아니오

E10-11) 평소 주로 어디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 가사도우미, 입주보모, 입주 가정교사 등은 2에 해당됩니다.

1. 가정에서
2. 사업장 내 또는 사무실 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E11) 그 일자리 종류 당시 귀하는 정규직이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다음은 인턴경험에 관한 문항입니다.

E12) 그 일자리에서 인턴으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E20)으로 이동

E13) 다음 중 어떤 인턴제에 참여한 것입니까?

1.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취업인턴, 창직인턴)에 참여
2. 행정인턴제(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참여
3. 글로벌(해외) 인턴제에 참여
4. 기업 자체 운영 인턴제에 참여

E14) 그 일자리는 인턴에 대한 내부 평가시스템이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E15) 그 일자리는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되는 제도가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E16) 그 일자리는 인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E17)로 이동

E16-1) 그 일자리 인턴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였습니까?

■ _____년 _____월

E17) 그 일자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 되었습니까?

※ E11) 문항의 정규직 여부를 참고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1. 예
2. 아니오 → E18)로 이동

E17-1) 정규직으로 채용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 _____년 _____월

E17-2) 정규직 채용 후 업무가 변경 되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E18)로 이동

E17-3) 정규직 채용 전(인턴 근무 시) 일자리에서 주로 하신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서명	
직 급	
직무내용	
사용 장비나 도구	
추가질문사항	
추가질문답변	

CODE

--	--	--	--

E18) 그 일자리에서의 인턴제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도움이 안 된다
2. 별로 도움이 안 된다
3. 보통이다 → E20)으로 이동
4. 대체로 도움이 된다 → E20)으로 이동
5. 매우 도움이 된다 → E20)으로 이동

E18-1) 인턴제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단순 보조일에 그쳐서
2. 기간이 짧아서
3. 전공과 맞지 않아서
4. 향후 취업하고자 하는 일자리와 맞지 않아서
5. 기타()

→ E20)으로 이동

E19) 비임금근로를 선택한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 가족 사업에 참여하거나 물려받아서
2. 더 많은 소득이 가능해서
3. 회사에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4. 유연한 근로시간
5.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6. 재택근무가 가능해서
7. 더 많은 독립성과 자율성, 자기 결정권
8. 스트레스가 적어서
9. 직업적 특성에 의해서 (통·번역사 등)
10. 기타 ()

E20) 그 일자리에서 주당 근로시간 및 근로 일수는 며칠입니까?

- ※ 일하셨던 직장을 그만두기 전 3개월 평균을, 직장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실제 근무기간의 평균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주당 정규 근로일 :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정규 근로일로 1시간이라도 근무하였으면 1일로 간주합니다. 토요일 격주휴무제인 경우는 주당정규근무일수를 5.5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주당 정규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이내로 사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정상근로일에서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근로한 시간
- ※ 자영자 등 정규·초과 근로시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정규 근로시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주당 초과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월평균 휴일근로 : 사업체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의 정상근무일 이외의 휴일(주휴일, 취업규칙상 휴일) 및 휴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일수를 기재합니다.

주당 정규 근로일	_____ 일
주당 정규 근로시간	평균 _____ 시간
주당 초과 근로시간	평균 _____ 시간
월평균 휴일근로	_____ 일

E21) 그 일자리에서 근로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먼저 자신의 급여형태에 맞게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월 평균 근로소득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일하셨던 일자리를 그만두기 전 3개월 평균을,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실제 근로기간의 평균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임금근로자는 세금·상여금을 포함하고, 비임금근로자는 운임비는 제외하고, 세금은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 ※ 프로젝트별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급여형태별	1. 연봉 _____ 만원 또는
	2. 월평균 _____ 만원 또는
	3. 주당 _____ 만원 또는
	4. 일당 _____ 만원 또는
	5. 시간당 _____ 원
월평균	_____ 만원

E21-1) 그 일자리에 입사했던 당시에 받았던 월평균 초임은 얼마나 됩니까? 먼저 자신의 급여형태에 맞게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월평균 초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임금근로자는 세금·상여금을 포함하고, 비임금근로자는 운임비는 제외하고, 세금은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 ※ 프로젝트별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급여형태별	1. 연봉 _____ 만원 또는
	2. 월평균 _____ 만원 또는
	3. 주당 _____ 만원 또는
	4. 일당 _____ 만원 또는
	5. 시간당 _____ 원 또는
	6. 무급가족종사자
월평균 초임	_____ 만원

E22) 그 일자리(직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셨습니다습니까?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E23) 담당하셨던 일(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다습니까?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E24) 그 일자리에서 하셨던 일의 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어떠하였습니까?

1. 일의 수준이 매우 낮았다
2. 일의 수준이 낮았다
3. 일의 수준이 알맞았다
4. 일의 수준이 높았다
5. 일의 수준이 매우 높았다

E25) 그 일자리에서 하셨던 일의 기술(기능) 수준이 자신의 기술(기능)수준과 비교하여 어떠하였습니까?

1. 일의 기술(기능) 수준이 매우 낮았다
2. 일의 기술(기능) 수준이 낮았다
3. 일의 기술(기능) 수준이 알맞았다
4. 일의 기술(기능) 수준이 높았다
5. 일의 기술(기능) 수준이 매우 높았다

E26) 그 일자리에서 하셨던 일의 내용이 자신의 (편)입학 시 전공(주전공)과 어느 정도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전혀 맞지 않았다 | 4. 잘 맞았다 |
| 2. 맞지 않았다 | 5. 매우 잘 맞았다 |
| 3. 그런대로 맞았다 | |

E26-1) 그 일자리에서 하셨던 일의 내용이 자신의 복수전공과 어느 정도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수전공은 2중 전공, 다전공 등 이수 후 추가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 | |
|--------------|-----------------|
| 1. 전혀 맞지 않았다 | 4. 잘 맞았다 |
| 2. 맞지 않았다 | 5. 매우 잘 맞았다 |
| 3. 그런대로 맞았다 | 6. 복수전공을 하지 않았다 |

E27) 그 일자리를 그만둔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계약기간이 끝나서(또는 임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일이 완료되어)
- 직장의 휴.폐업 등(또는 일거리가 없거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 권고사직, 정리해고,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 보수가 낮아서
- 보수 이외의 근로여건(근로시간, 승진, 장래전망, 근로환경 등) 불만족
- 차별을 받아서(성차별, 고용형태 차별 등)
- 전공, 지식, 기술, 적성 등이 맞지 않아서
- 학업의 계속이나 재취업 준비
- 육아(출산), 결혼, 가족과 연관된 이유로
- 상사 또는 동료와의 갈등 때문에
- 보다 나은 직장으로의 전직(이직)을 위하여
- 건강이 좋지 않아서
- 회사이전이나 이사 등으로 거리가 멀어져서
- 기타()

→ 두 번째 일자리가 없는 경우는 F1)로 이동

※ 일자리 경험 2**E28) 근무 시기는 언제입니까?**

■ _____ 년 _____ 월 ~ _____ 년 _____ 월

E29) 하셨던 일은 아르바이트입니까?

※ 아르바이트: 수입을 목적으로 임시로 하는 일

- 예
- 아니오

E30) 일하셨던 곳(사업체)은 주로 무엇을 하는 곳이었습니까?

※ 기업체는 하나 이상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는 기업체, ○○전자의 ○○공장, ○○영업소, ○○서비스센터 등은 사업체에 해당합니다.

※ 사업체명은 급여를 받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파견근로 내지 사내하청근로의 경우 응답자가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업체명	
사업체명	
사업체의 주 생산품목(활동)	
주 생산품 원료	
추가질문사항	
추가질문답변	

CODE

E30-1) 일하셨던 곳(사업체)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사업체 자체가 공장인 생산업체는 "1. 단독사업체"에 응답하여 주시고, 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는 "4. 기타"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독사업체
- 본사
- 지점·공장
- 기타()

E31) 귀하가 주로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서명	
직 급	
직무내용	
사용 장비나 도구	
추가질문사항	
추가질문답변	

CODE

E32) 일하셨던 곳의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 E30)에서 응답하신 기업체명과 사업체명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와 사업체가 동일한 경우(중소기업, 자영업 등)는 기업체와 사업체 종사자 수를 동일하게 기입하시면 됩니다.

기업체	사업체
-----	-----

- | | |
|-------------|---------------|
| 1. 1~4명 | 6. 100 ~ 299명 |
| 2. 5~9명 | 7. 300 ~ 499명 |
| 3. 10 ~ 29명 | 8. 500 ~ 999명 |
| 4. 30 ~ 49명 | 9. 1,000명 이상 |
| 5. 50 ~ 99명 | |

E33) 일하셨던 곳(사업체)은 어디에 있습니까?

- 국내: _____ 특별시/광역시/도 _____ 구/시/군
- 국외(국가명) : _____

E34) 일하셨던 곳(사업체)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1.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2. 외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에 위치하는 외국인 회사
3.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
4. (재단, 사단) 법인단체
5.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6. 교육기관(대학, 초/중/고 등)
7. 연구기관(국립/사립)
8.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
9. 기타(_____)

E35) 그 일자리에서 종사자 지위는 무엇이었습니다?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1. 상용근로자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E45)로 이동
2. 임시근로자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E45)로 이동
3. 일용근로자	6. 무급가족종사자 → E46)으로 이동

- ※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
- ※ **임시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고용계약이 정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 ※ **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 ※ **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조사대상주간에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

※ 임금근로자만 응답하는 항목입니다.

E36) 그 일자리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었습니까?

- ※ 정년제인 경우는 '정해져 있지 않음'에 해당합니다.
1. 정해져 있다
 2. 정해져 있지 않다 → E36-3)으로 이동

E36-1) 정해져 있었다면, 계약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 | |
|-----------------|----------------|
| 1. 1개월 미만 | 5. 2년 |
| 2. 1개월 이상~1년 미만 | 6. 2년 초과~3년 미만 |
| 3. 1년 | 7. 3년 이상 |
| 4. 1년 초과~2년 미만 | |

E36-2) 계약(기간)은 반복,갱신된 것이었습니다?

- ※ 최초 계약인 경우는 '2. 아니요'에 해당합니다.
1. 예
 2. 아니요
- E36-4)로 이동

E36-3) 그 일자리는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였습니다?

(간헐일용근로자,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1. 예 → E36-7)로 이동
2. 아니요

E36-4) 회사가 아주 어려워져서 폐업 또는 고용조정을 하거나 귀하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원하는 한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요 → E36-6)으로 이동

E36-5) 계속 다닐 수 있었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하였으므로
2.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고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3. 묵시적인 고용관행에 의해

→ E36-7)로 이동

E36-6) 계속 다닐 수 없었다고 응답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2. 묵시적,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3. 사업주가 그만두라던 연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 (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4. 하던 업무(프로젝트)가 끝났기 때문에
5.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하였기 때문에
6. 특정 계절 동안만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7. 적성,근로조건,능력 등의 이유로 다른 일자리를 찾을 예정이었으므로
8. 규정,관행상 퇴직하는 연령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9. 학업,가족부양,건강 등의 이유로
10. 직장의 경영상 이유 때문에
11. 기타(_____)

E36-7) 그 일자리에서의 근로시간은 어떤 형태였습니다?

- ※ 시간제 근로는 파트타임·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간제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 전일제 근로에 해당합니다.
- ※ 전일제 일자리(full-time job)이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규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정규적인 업무개시 시각과 종료시각과의 사이의 근로시간)과 동일한 시간 동안 근무하도록 정해진 근로형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 09:00~18:00인 일자리를 의미함.

1. 전일제 근로
2. 시간제 근로

E36-8) 실제 일하시는 곳과 임금(급여)을 주는 곳이 동일하였습니까?

1. 예 → E36-10)으로 이동
2. 아니오

E36-9) 그렇다면, 임금(급여)은 다음 중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1. 파견업체
2. 용역업체

E36-10) 그 일자리는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에
해당되었습니까?

※ 예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운전기사, 쿼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 방송작가 등

1. 예
2. 아니오

E36-11) 평소 주로 어디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 가사도우미, 입주보모, 입주 가정교사 등은 2에 해당됩니다.

1. 가정에서
2. 사업장 내 또는 사무실 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E37) 그 일자리 종료 당시 귀하는 정규직이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다음은 인턴경험에 관한 문항입니다.

E38) 그 일자리에서 인턴이었습니까?

- 예
- 아니오 → E46)으로 이동

E39) 다음 중 어떤 인터넷에 참여한 것입니까?

1.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취업인턴, 창직인턴)에 참여
2. 행정인턴제(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참여
3. 글로벌(해외) 인턴제에 참여
4. 기업 자체 운영 인턴제에 참여

E40) 그 일자리는 인턴에 대한 내부 평가시스템이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E41) 그 일자리는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되는 제도가 있었습니까?

- 예
- 아니오

E42) 그 일자리는 인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 예
- 아니오 → E43)으로 이동

E42-1) 그 일자리 인턴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였습니까?

- _____ 15 _____ 10

E43) 그 일자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
되었습니까?

※ E37) 문항의 정규직 여부를 참고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1. 예
2. 아니오 → E44)로 이동

E43-1) 정규직으로 채용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 _____ 750 _____ 0711

E43-2) 정규직 채용 후 업무가 변경 되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E44)로 이동

E43-3) 정규직 채용 전(인턴 근무 시) 주로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서명	
직 급	
직무내용	
사용 장비나 도구	
추가질문사항	
추가질문답변	

CODE				
------	--	--	--	--

E44) 그 일자리에서의 인턴제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도움이 안 된다
2. 별로 도움이 안 된다
3. 보통이다 → E46)으로 이동
4. 대체로 도움이 된다 → E46)으로 이동
5. 매우 도움이 된다 → E46)으로 이동

E44-1) 인턴제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단순 보조일에 그쳐서
2. 기간이 짧아서
3. 전공과 맞지 않아서
4. 향후 취업하고자 하는 일자리와 맞지 않아서
5. 기타()

→ E46)으로 이동

E45) 비임금근로를 선택한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 가족 사업에 참여하거나 물려받아서
2. 더 많은 소득이 가능해서
3. 회사에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4. 유연한 근로시간
5.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6. 재택근무가 가능해서
7. 더 많은 독립성과 자율성, 자기 결정권
8. 스트레스가 적어서
9. 직업적 특성에 의해서 (통·번역사 등)
10. 기타 ()

E46) 그 일자리에서 통상 일주일 근로시간 및 근로 일수는 며칠입니까?

- ※ 일하셨던 직장을 그만두기 전 3개월 평균을, 직장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실제 근무기간의 평균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주당 정규 근로일 :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정규 근로일로 1시간이라도 근무하였으면 1일로 간주합니다. 토요일 격주휴무제인 경우는 주당정규근무일수를 5.5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주당 정규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이내로 사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정상근로일에서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근로한 시간
- ※ 자영자 등 정규·초과 근로시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정규 근로시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주당 초과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월평균 휴일근로 : 사업체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의 정상근무일 이외의 휴일(주휴일, 취업규칙상 휴일) 및 휴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일수를 기재합니다.

주당 정규 근로일	_____ 일
주당 정규 근로시간	평균 _____ 시간
주당 초과 근로시간	평균 _____ 시간
월평균 휴일근로	_____ 일

E47) 그 일자리에서 근로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먼저 자신의 급여형태에 맞게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월 평균 근로소득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일하셨던 일자리를 그만두기 전 3개월 평균을,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실제 근로기간의 평균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임금근로자는 세금·상여금을 포함하고, 비임금근로자는 운영비는 제외하고, 세금은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 ※ 프로젝트별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급여형태별	1. 연봉 _____ 만원 또는
	2. 월평균 _____ 만원 또는
	3. 주당 _____ 만원 또는
	4. 일당 _____ 만원 또는
	5. 시간당 _____ 원
월평균 초임	_____ 만원

E47-1) 그 일자리에 입사했던 당시에 받았던 월평균 초임은 얼마나 됩니까? 먼저 자신의 급여형태에 맞게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월평균 초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임금근로자는 세금·상여금을 포함하고, 비임금근로자는 운영비는 제외하고, 세금은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 프로젝트별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급여형태별	1. 연봉 _____ 만원 또는
	2. 월평균 _____ 만원 또는
	3. 주당 _____ 만원 또는
	4. 일당 _____ 만원 또는
	5. 시간당 _____ 원
월평균 초임	_____ 만원

E48) 그 일자리(직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E49) 담당하셨던 일(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E50) 그 일자리에서 하셨던 일의 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어떠하였습니까?

1. 일의 수준이 매우 낮았다
2. 일의 수준이 낮았다
3. 일의 수준이 알맞았다
4. 일의 수준이 높았다
5. 일의 수준이 매우 높았다

E51) 그 일자리에서 하셨던 일의 기술(기능) 수준이 자신의 기술(기능)수준과 비교하여 어떠하였습니까?

1. 일의 기술(기능) 수준이 매우 낮았다
2. 일의 기술(기능) 수준이 낮았다
3. 일의 기술(기능) 수준이 알맞았다
4. 일의 기술(기능) 수준이 높았다
5. 일의 기술(기능) 수준이 매우 높았다

E52) 그 일자리에서 하셨던 일의 내용이 자신의 (편)입학 시 전공(주전공)과 어느 정도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전혀 맞지 않았다 | 4. 잘 맞았다 |
| 2. 맞지 않았다 | 5. 매우 잘 맞았다 |
| 3. 그런대로 맞았다 | |

E52-1) 그 일자리에서 하셨던 일의 내용이 자신의 복수전공과 어느 정도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수전공은 2중 전공, 다전공 등 이수 후 추가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 | |
|--------------|-----------------|
| 1. 전혀 맞지 않았다 | 4. 잘 맞았다 |
| 2. 맞지 않았다 | 5. 매우 잘 맞았다 |
| 3. 그런대로 맞았다 | 6. 복수전공을 하지 않았다 |

E53) 그 일자리를 그만둔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계약기간이 끝나서(또는 임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일이 완료되어)
- 직장의 휴.폐업 등(또는 일거리가 없거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 권고사직, 정리해고,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 보수가 낮아서
- 보수 이외의 근로여건(근로시간, 승진, 장래전망, 근로환경 등) 불만족
- 차별을 받아서(성차별, 고용형태 차별 등)
- 전공, 지식, 기술, 적성 등이 맞지 않아서
- 학업의 계속이나 재취업 준비
- 육아(출산), 결혼, 가족과 연관된 이유로
- 상사 또는 동료와의 갈등 때문에
- 보다 나은 직장으로서의 전직(이직)을 위하여
- 건강이 좋지 않아서
- 회사이전이나 이사 등으로 거리가 멀어져서
- 기타()

→ 세 번째 일자리가 없는 경우는 F1로 이동

※ 일자리 경험 3**E54) 근무 시기는 언제입니까?**

■ _____ 년 _____ 월 ~ _____ 년 _____ 월

E55) 하셨던 일은 아르바이트입니까?

※ 아르바이트: 수입을 목적으로 임시로 하는 일

- 예
- 아니오

E56) 일하셨던 곳(사업체)은 주로 무엇을 하는 곳이었습니까?

※ 기업체는 하나 이상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는 기업체, ○○전자의 ○○공장, ○○영업소, ○○서비스센터 등은 사업체에 해당합니다.

※ 사업체명은 급여를 받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파견근로 내지 사내하청근로의 경우 응답자가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업체명	
사업체명	
사업체의 주 생산품목(활동)	
주 생산품 원료	
추가질문사항	
추가질문답변	

CODE

E56-1) 일하셨던 곳(사업체)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사업체 자체가 공장인 생산업체는 "1. 단독사업체"에 응답하여 주시고, 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는 "4. 기타"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독사업체
- 본사
- 지점.공장
- 기타()

E57) 귀하가 주로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서명	
직 급	
직무내용	
사용 장비나 도구	
추가질문사항	
추가질문답변	

CODE

E58) 일하셨던 곳의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 E56)에서 응답하신 기업체명과 사업체명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와 사업체가 동일한 경우(총소기업, 자영업 등)는 기업체와 사업체 종사자 수를 동일하게 기업하시면 됩니다.

기업체	사업체
1. 1~4명	6. 100 ~ 299명
2. 5~9명	7. 300 ~ 499명
3. 10 ~ 29명	8. 500 ~ 999명
4. 30 ~ 49명	9. 1,000명 이상
5. 50 ~ 99명	

E59) 일하셨던 곳(사업체)은 어디에 있습니까?

- 국내: _____ 특별시/광역시/도 _____ 구/시/군
- 국외(국가명) : _____

E60) 일하셨던 곳(사업체)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1.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2. 외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에 위치하는 외국인 회사
3.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
4. (재단, 사단) 법인단체
5.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6. 교육기관(대학, 초/중/고 등)
7. 연구기관(국립/사립)
8.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
9. 기타(_____)

E61) 그 일자리에서 종사자 지위는 무엇이었습니다?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1. 상용근로자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 임시근로자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 일용근로자	6. 무급가족종사자

※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

※ **임시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고용계약이 정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사업(한 달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 **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 **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조사대상주간에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

※ 임금근로자만 응답하는 항목입니다.

E62) 그 일자리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었습니까?

※ 정년제인 경우는 '정해져 있지 않음'에 해당합니다.

1. 정해져 있다
2. 정해져 있지 않다 → **E62-3)으로 이동**

E62-1) 정해져 있었다면, 계약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1. 1개월 미만
2. 1개월 이상~1년 미만
3. 1년
4. 1년 초과~2년 미만
5. 2년
6. 2년 초과~3년 미만
7. 3년 이상

E62-2) 계약(기간)은 반복·갱신된 것이었습니다?

※ 최초 계약인 경우는 '2. 아니요'에 해당합니다.

1. 예
 2. 아니요
- **E62-4)로 이동**

E62-3) 그 일자리는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였습니까? (건설일용근로자,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1. 예 → **E62-7)로 이동**
2. 아니요

E62-4) 회사가 아주 어려워져서 폐업 또는 고용조정을 하거나 귀하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원하는 한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요 → **E62-6)으로 이동**

E62-5) 계속 다닐 수 있었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하였으므로
 2.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고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3. 묵시적인 고용관행에 의해
- **E62-7)로 이동**

E62-6) 계속 다닐 수 없었다고 응답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2. 묵시적·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3. 사업주가 그만두려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4. 하던 업무(프로젝트)가 끝났기 때문에
5.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하였기 때문에
6. 특정 계절 동안만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7. 적성·근로조건·능력 등의 이유로 다른 일자리를 찾을 예정이었으므로
8. 규정·관행상 퇴직하는 연령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9. 학업·가족부양·건강 등의 이유로
10. 직장의 경영상 이유 때문에
11. 기타(_____)

E62-7) 그 일자리에서의 근로시간은 어떤 형태였습니까?

※ 시간제 근로는 파트타임·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간제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 전일제 근로에 해당합니다.

※ 전일제 일자리(full-time job)이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규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정규적인 업무개시 시각과 종료시각과의 사이의 근로시간)과 동일한 시간 동안 근무하도록 정해진 근로형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 09:00~18:00인 일자리를 의미함.

1. 전일제 근로
2. 시간제 근로

E62-8) 실제 일하시는 곳과 임금(급여)을 주는 곳이 동일하였습니까?

1. 예 → **E62-10)으로 이동**
2. 아니요

E62-9) 그렇다면, 임금(급여)은 다음 중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1. 파견업체
2. 용역업체

E62-10) 그 일자리는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에 해당되었습니까?

※ 예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운전기사, 쿼서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 방송작가 등

1. 예
2. 아니오

E62-11) 평소 주로 어디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 가사도우미, 입주보모, 입주 가정교사 등은 2에 해당됩니다.

1. 가정에서
2. 사업장 내 또는 사무실 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E63) 그 일자리 종류 당시 귀하는 정규직이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다음은 인턴경험에 관한 문항입니다.

E64) 그 일자리에서 인턴이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E72로 이동

E65) 다음 중 어떤 인턴제에 참여한 것입니까?

1.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취업인턴, 창직인턴)에 참여
2. 행정인턴제(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참여
3. 글로벌(해외) 인턴제에 참여
4. 기업 자체 운영 인턴제에 참여

E66) 그 일자리는 인턴에 대한 내부 평가시스템이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E67) 그 일자리는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되는 제도가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E68) 그 일자리는 인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E69로 이동

E68-1) 그 일자리 인턴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였습니까?

■ _____년 _____월

E69) 그 일자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 되었습니까?

※ E63) 문항의 정규직 여부를 참고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1. 예
2. 아니오 → E70으로 이동

E69-1) 정규직으로 채용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 _____년 _____월

E69-2) 정규직 채용 후 업무가 변경 되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E70으로 이동

E69-3) 정규직 채용 전(인턴 근무 시) 주로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서명	
직 급	
직무내용	
사용 장비나 도구	
추가질문사항	
추가질문답변	

CODE

E70) 그 일자리에서의 인턴제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도움이 안 된다
2. 별로 도움이 안 된다
3. 보통이다 → E72로 이동
4. 대체로 도움이 된다 → E72로 이동
5. 매우 도움이 된다 → E72로 이동

E70-1) 인턴제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단순 보조일에 그쳐서
2. 기간이 짧아서
3. 전공과 맞지 않아서
4. 향후 취업하고자 하는 일자리와 맞지 않아서
5. 기타()

→ E72로 이동

E71) 비임금근로를 선택한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 가족 사업에 참여하거나 물려받아서
2. 더 많은 소득이 가능해서
3. 회사에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4. 유연한 근로시간
5.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6. 재택근무가 가능해서
7. 더 많은 독립성과 자율성, 자기 결정권
8. 스트레스가 적어서
9. 직업적 특성에 의해서 (통·번역사 등)
10. 기타 ()

E72) 그 일자리에서 통상 일주일 근로시간 및 근로 일수는 며칠입니까?

- ※ 일하셨던 직장을 그만두기 전 3개월 평균을, 직장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실제 근무기간의 평균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주당 정규 근로일 :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정규 근로일로 1시간이라도 근무하였으면 1일로 간주합니다. 토요일 격주휴무제인 경우는 주당정규근로일수를 5.5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주당 정규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이내로 사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정상근로일에서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근로한 시간
- ※ 자영자 등 정규·초과 근로시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정규 근로시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주당 초과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월평균 휴일근로 : 사업체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의 정상근로일 이외의 휴일(주휴일, 취업규칙상 휴일) 및 휴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일수를 기재합니다.

주당 정규 근로일	_____ 일
주당 정규 근로시간	평균 _____ 시간
주당 초과 근로시간	평균 _____ 시간
월평균 휴일근로	_____ 일

E73) 그 일자리에서 근로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먼저 자신의 급여형태에 맞게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월 평균 근로소득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일하셨던 일자리를 그만두기 전 3개월 평균을,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실제 근로기간의 평균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임금근로자는 세금·상여금을 포함하고, 비임금근로자는 운영비는 제외하고, 세금은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 ※ 프로젝트별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급여형태별	1. 연봉 _____ 만원 또는
	2. 월평균 _____ 만원 또는
	3. 주당 _____ 만원 또는
	4. 일당 _____ 만원 또는
	5. 시간당 _____ 원
월평균	_____ 만원

E73-1) 그 일자리에 입사했던 당시에 받았던 월평균 초임은 얼마나 됩니까?

먼저 자신의 급여형태에 맞게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월평균 초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임금근로자는 세금·상여금을 포함하고, 비임금근로자는 운영비는 제외하고, 세금은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 ※ 프로젝트별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급여형태별	1. 연봉 _____ 만원 또는
	2. 월평균 _____ 만원 또는
	3. 주당 _____ 만원 또는
	4. 일당 _____ 만원 또는
	5. 시간당 _____ 원
월평균 초임	_____ 만원

E74) 그 일자리(직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E75) 담당하셨던 일(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E76) 그 일자리에서 하셨던 일의 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어떠하였습니까?

1. 일의 수준이 매우 낮았다
2. 일의 수준이 낮았다
3. 일의 수준이 알맞았다
4. 일의 수준이 높았다
5. 일의 수준이 매우 높았다

E77) 그 일자리에서 하셨던 일의 기술(기능) 수준이 자신의 기술(기능)수준과 비교하여 어떠하였습니까?

1. 일의 기술(기능) 수준이 매우 낮았다
2. 일의 기술(기능) 수준이 낮았다
3. 일의 기술(기능) 수준이 알맞았다
4. 일의 기술(기능) 수준이 높았다
5. 일의 기술(기능) 수준이 매우 높았다

E78) 그 일자리에서 하셨던 일의 내용이 자신의 (편)입학 시 전공(주전공)과 어느 정도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맞지 않았다
2. 맞지 않았다
3. 그런대로 맞았다
4. 잘 맞았다
5. 매우 잘 맞았다

E78-1) 그 일자리에서 하셨던 일의 내용이 자신의 복수전공과 어느 정도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수전공은 2중 전공, 다전공 등 이수 후 추가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1. 전혀 맞지 않았다
2. 맞지 않았다
3. 그런대로 맞았다
4. 잘 맞았다
5. 매우 잘 맞았다
6. 복수전공을 하지 않았다

E79) 그 일자리를 그만둔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 계약기간이 끝나서(또는 임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일이 완료되어)
2. 직장의 휴.폐업 등으로(또는 일거리가 없거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3. 권고사직, 정리해고,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4. 보수가 낮아서
5. 보수 이외의 근로여건(근로시간, 승진, 장래전망, 근로환경 등)불만족
6. 차별을 받아서(성차별, 고용형태 차별 등)
7. 전공, 지식, 기술, 적성 등이 맞지 않아서
8. 학업의 계속이나 재취업 준비
9. 육아(출산), 결혼, 가족과 연관된 이유로
10. 상사 또는 동료와의 갈등 때문에
11. 보다 나은 직장으로서의 전직(이직)을 위하여
12. 건강이 좋지 않아서
13. 회사이전이나 이사 등으로 거리가 멀어져서
14. 기타()

다음은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출신 고등학교 관련****F1) 언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 검정고시 출신의 경우 시험 합격일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_____ 년 _____ 월

F2) 고등학교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 검정고시 출신의 경우 당시 거주지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1. _____ 시(도) _____ 시구(군)
2. 외국(국가명 : _____) → **F4)로 이동**

F3) 고등학교명은 무엇입니까?

1. _____ 고등학교
2. 검정고시 → **F5)로 이동**

F4) 고등학교의 계열은 무엇입니까?

1. 일반계고(문과)
2. 일반계고(이과)
3. 특수목적고(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4. 특수목적고(예술고, 체육고)
5. 마이스터고등학교
6. 특성화고(상업·정보계)
7. 특성화고(공업계)
8. 특성화고(농생명, 수산, 해양고 등)
9. 자율 고등학교(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10. 기타(방송통신고등학교, 대안학교 등)

※ 출신 대학교 관련

2014년 8월 및 2015년 2월 졸업한 대학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5) 졸업한 대학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1. 입학 _____ 년 _____ 월
2. 편입 _____ 년 _____ 월

※ 전공심화과정의 경우 "2. 편입"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6) 대학에 입학한 모집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 편입한 경우는 편입 전 대학의 입학전형방법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1. 정시모집
2. 수시모집
3. 기타()

F6-1) 대학에 입학한 전형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 편입한 경우는 편입 전 대학의 입학전형방법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정원 외 특별 전형 제도는 전문계고교졸업자 특별전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재외국민 및 외국인 대상전형, 기회균형 특별전형 등이 해당됩니다.

- | | |
|---------------|--------------------|
| 1. 일반전형 | 2. 입학사정관제(학생부종합전형) |
| 3. 정원 내 특별 전형 | 4. 정원 외 특별 전형 |
| 5. 기타() | |

F7) 졸업한 대학에 입학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요소는 무엇이었습니까?

- | | |
|------------|----------------|
| 1. 내신성적 | 6. 봉사활동 |
| 2. 수능성적 | 7. 동아리활동 |
| 3. 논술시험 | 8. 추천서 (학교장 등) |
| 4. 외국어구사능력 | 9. 직장 재직 |
| 5. 수상실적 | 10. 기타() |

F8) 졸업한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수능 및 학교)성적에 맞춰서
- 원하는 전공 혹은 업무관련 분야를 공부할 수 있어서
-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
- 친구나 선배의 권유로
- 통학거리가 가까워서
- 학교의 사회적 인지도(명성)가 높아서
- 졸업 후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
- 야간수업이 가능해서
- 학비가 저렴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서)
- 기타()

F9) 해당 대학의 (편)입학 시 전공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직업 및 취업전망이 밝아서
- (수능 및 학교)성적에 맞춰서
- 학문적 흥미 및 적성을 고려해서
-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
- 친구나 선배의 권유로
- 사회적 인식이나 명성 때문에
- 기타()

F10) 전공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동일 전공학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 예 → **F11)으로 이동**
- 아니오

F10-1) 동일 전공학과를 선택하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적성에 맞지 않아서
- 취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 취업 후 임금이 타전공학과 졸업생에 비해 낮아서
- 관련 직업의 전망이 좋지 않아서(장래성, 고용의 기간 등)
-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학업의 내용, 시간 등)
- 관심분야가 바뀌어서
- 기타()

F10-2) 그렇다면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 시 전공 선택의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기이해를 위한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 학년별 지속적인 진로상담 및 피드백
- 대학 전공 정보 및 전공 관련 직업정보 제공
- 진학할 전공 선택 및 교수와의 만남
- 진로 관련 다양한 체험 활동 제공
- 기타()

F11) 졸업한 대학에서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을 하셨습니다? 그 전공은 무엇입니까?

- 복수(부, 연계)전공 안함 → **F13)으로 이동**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2. (code:)	(code:)	(code:)

F12) 복수전공(부전공, 연계전공)이 취업 또는 업무수행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F13)으로 이동**
- 도움이 되지 않음 → **F13)으로 이동**
- 보통 → **F13)으로 이동**
- 도움이 됨
- 매우 도움이 됨

F12-1) 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전공보다 복수전공(부전공, 연계전공) 분야를 더 많이 채용해서
- 복수전공(부전공, 연계전공)이 내 적성과 더 잘 맞아서
- 전공 간 발생하는 긍정적 시너지효과 때문
- 기타()

F13) 귀하는 졸업한 대학 재학 중 다음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여한 프로그램은 진로선택 및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진로, 취업 관련 교과목이란,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행에 도움을 주는 내용의 교과목(현장실습 포함)으로 진로 관련 내용이지만, 학점이 인정됨. (예: 진로와 직업, 직업선택과 취업준비, 리더십과 진로개발 등)

※ 각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경험에 대하여 1. 있음 2. 없음으로 답하여 주십시오.

※ 각 프로그램별 참여여부에서 '1. 있음'인 경우만 참여횟수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취업에의 도움정도는 참여한 적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각 항목에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5. 매우 도움이 되었다 로 답하여 주십시오.

※ 동일 프로그램에 여러 번 참여한 경우 가장 최근의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선택 및 취업준비	참여 여부	참여 횟수	도움 정도
(1) 진로 취업 관련 교과목			
(2) 직장체험프로그램(인턴 포함)			
(3) 인 . 작성검사 등 직업심리검사			
(4) 교내 취업박람회			
(5) 진로 관련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6) 면접기술&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7) 취업캠프			
(8) 기업 채용설명회			
(9) 기타()			

**F14) 졸업한 대학과 관련하여 아래 항목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교육지원 시설	1	2	3	4	5
(2) 학생복지 시설	1	2	3	4	5
(3) 학생지원제도 (장학금 해외연수 등)	1	2	3	4	5
(4) 진로관련 상담 및 지원 제도	1	2	3	4	5
(5) 전공 커리큘럼 및 내용	1	2	3	4	5
(6) 전공 교수진의 능력 및 열의	1	2	3	4	5
(7) 수업의 방식 및 질	1	2	3	4	5
(8) 전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수준	1	2	3	4	5
(9)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수준	1	2	3	4	5

F15) 귀하의 졸업 평점은 몇 점입니까?

※ 4.0점, 4.3점, 4.5점 중 한 가지만 기재

- 4.0만점 시 (/4.0)
- 4.3만점 시 (/4.3)
- 4.5만점 시 (/4.5)

**F16) 귀하는 졸업한 대학에서 총 몇 학기를
이수하셨습니다?
졸업기준학과와 실제 이수학기를 함께 응답해주세요**

※ 휴학한 학기 및 졸업유예 학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졸업기준학기 _____학기
- 실제이수학기 _____학기

F17) 졸업한 대학의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 전체의 합계가 100%이 되도록 응답하여 주십시오.

※ 장학금은 성적장학금, 근로장학금, 국가장학금,
(부모)회사 장학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조달방법	비율
(1) 부모	_____ %
(2) 학자금 대출	_____ %
(3) 본인	_____ %
(4) 장학금	_____ %
(5) 배우자	_____ %
(6) 형제, 자매 등 친인척	_____ %
(7) 기타()	_____ %
계	100%

**F18) 귀하는 대학 재학 중 학자금대출(등록금 대출 및
생활비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F25)로 이동**

**F19) 귀하가 받으신 학자금대출(등록금 대출 및 생활비
대출)의 총금액은 얼마입니까?**

■ 총 _____만원

**F20) 귀하가 받으신 대출 조건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 취업 후 일정소득 발생부터 상환
[등돈학자금(생활비) 대출]
2. 특정 기간 경과 후 상환(일반상환대출)
3. 취업 후 일정소득 발생부터 상환 + 특정 기간 경과 후 상환
4. 기타()

F21) 귀하는 현재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까?

1. 원금상환을 완료함 → **F23)으로 이동**
2.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 중
3.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상환 중
4.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하지 않고 있음

**F22) 귀하가 앞으로 상환해야 할 대출액은 모두
얼마입니까?**

■ 총 _____만원

**F23) 대출의 원금이나 이자를 주로 누가 상환하였거나
상환하고 있습니까?**

1. 본인
2. 배우자
3. 부모님
4. 부모님 이외의 가족 또는 친지
5. 기타()

F24) 귀하는 대졸금 상환이 얼마나 부담될니까?
(부담되었습니까?)

1.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않았다)
2.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않았다)
3. 보통이다
4. 조금 부담된다(되었다)
5. 매우 부담된다(되었다)

※ 휴학경험 관련

F25) 졸업한 대학에서 휴학경험이 있으십니까?
군입대를 위한 휴학도 포함하여 말씀해 주세요.

1. 있다
2. 없다 → **F28로 이동**

F26) 졸업한 대학에서 총 몇 번 휴학을 하셨습니까?

■ _____회

F27) 휴학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언제 휴학을 하였으며, 휴학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휴학경험이 6회 이상인 경우는 휴학기간이 긴 것 5개를 입력해주시시오.

	이유	시작시기	기간
첫 번째 휴학		____ 학년 ____ 학기	____ 학기
두 번째 휴학		____ 학년 ____ 학기	____ 학기
세 번째 휴학		____ 학년 ____ 학기	____ 학기
네 번째 휴학		____ 학년 ____ 학기	____ 학기
다섯 번째 휴학		____ 학년 ____ 학기	____ 학기

※ 휴학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 어학연수
2. 편입학(및 재수) 준비
3. 자격증 및 고시준비
4. 군입대
5. 대학원(유학) 준비
6. 취업 및 취업준비
7. 경제적인 이유로
8. 건강상의 이유로
9. 해외여행
10. 기타(_____)

※ 다음은 졸업유예에 관련 문항입니다.

※ 졸업유예란 졸업 시점을 늦추기 위한 방법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졸업유예 제도를 신청한 경우뿐만 아니라, 졸업에 필요한 조건을 의도적으로 채우지 않은 경우(졸업논문 미제출, 졸업시험 미응시, 필수과목 미이수 등)도 해당합니다.

F28) 귀하는 졸업한 대학에서 졸업유예 경험이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 **F33으로 이동**

F29) 졸업한 대학에서 총 몇 번 졸업유예를 하셨습니까?

■ _____회

※ 이후부터는 각 유예 경험별로 응답표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유예 경험에 4회 이상인 경우는 기간이 긴 것 기준으로 3개 응답해주시시오.

F30) 어떤 방식으로 졸업유예를 하셨습니까?

1. 졸업조건을 채우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졸업유예 제도를 이용
2. 졸업을 미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졸업요건(학점, 졸업시험, 영어성적 등)을 채우지 않음
3. 기타(_____)

F31) 졸업유예를 하신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일자리 지원 기회를 더욱 갖기 위해서
(특정년도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선발하므로)
2. 스펙을 쌓기 위해서
3. 취업공백기를 줄이기 위해서
4. 취업 및 진로 목표 미설정
5. 군입대를 미루기 위해서
6. 기타(_____)

F32) 몇 학기동안 유예를 하셨습니까?

■ _____ 학기

<F30~F32) 응답표>

	F30)방식	F31)이유	F32)기간
첫 번째 졸업유예			____ 학기
두 번째 졸업유예			____ 학기
세 번째 졸업유예			____ 학기

※ 이전 학교 관련

F33) 최종 졸업한 대학 이전에 다른 대학에 다닌 적이 있습니까?

※ F5)에서 '2.편입'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 예'를 응답해야 합니다.

1. 예
2. 아니요 → **G1로 이동**

F34) 이전에 다닌 학교의 학교명, 소재지, 입학년월, 전공은 무엇입니까?

※ 이수 학기 응답 시 휴학한 학기 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학교명	_____
소재지	_____시(도) _____(구시군)
(편)입학년월	_____년_____월
졸업(그만둔) 시기	_____년_____월
이수 학기 수	_____
전공	(code: _____)

다음은 졸업 후 진학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G1) 2015년 2월(2014년 8월) 대학 졸업 이후, 학교(대학/대학원)에 다닌 경험이 있습니까?

※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폴리텍대학, 학점은행 등도 포함합니다.

1. 예
2. 아니오 → **H1)로 이동**

G1-1) 대학 졸업 이후 학교(대학/대학원) 진학을 몇 번 하셨습니까?

※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1번으로 기입하여 주시고, 석사와 박사를 동일한 학교로 진학하였다 하더라도 석박사 통합과정이 아닌 경우에는 2번으로 계산하여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점은행, 독학사 등으로 1개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관을 다닌 경우에는 1번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_____ 번

※ G2~G9)는 응답표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G2) 대학 졸업 후 진학한 대학(원)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 학점은행, 독학사 등은 입학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1. 입학
2. 편입

G3) 진학한 대학(원)의 학교명, 소재지, 입학년월은 무엇입니까?

학교명	
소재지	_____시(도) _____(구시군)
(편)입학년월	_____년 _____월

G4) 진학한 대학(원)의 학교유형 및 학위과정은 무엇입니까?

대학	대학원
1. 일반4년제 대학 2. 2-3년제 대학 3. 산업대학 4. 교육대학 5. 방송통신대학 6. 한국폴리텍대학 7. 기타 (사이버대, 학점은행 등)	1. 일반대학원 2. 특수대학원 3. 전문대학원 4. 기타
주야구분	학위과정
1. 주간과정 2. 야간과정	1. 석사과정 2. 박사과정 3. 석·박사 통합과정 4. 기타

G4-1) 진학한 대학(원)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전공	(code: _____)
----	---------------

G5) 대학(원)으로 진학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전공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2. 전공 영역을 바꾸어 계속 공부
3. 2~3년제 대학에서 4년제 또는 대학교에서 대학원으로의 학력 상승
4. 졸업한 대학보다 사회적 평판이 좋은 대학(원)에 가기 위해
5. 졸업 당시의 취업난 때문에
6. 대학(원)을 졸업한 후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7. 주변(부모/친지 등)의 권유
8. 기타(_____)

G6) 진학한 대학(원)의 학과(전공)는 졸업하신 대학에서의 전공과 어느 정도 일치합니까?

1. 완전히 상이하다
 2. 조금 상이하다
 3. 연관성이 조금 있다
 4. 많이 유사하다
 5. 완전히 동일하다
- **G7)로 이동**

G6-1) 졸업한 학교에서와 동일 전공을 선택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기존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2. 발전가능성이 없어서
3. 기존 전공으로는 취업이 어려워서
4.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 때문에
5. 직업을 바꾸기 위해
6. 주변(부모/친지 등)의 권유
7. 기타(_____)

G7) 현재도 대학(원)에 재학 중입니까?

※ '휴학'도 '재학 중'에 해당됩니다.

1. 예 → **H1)로 이동**
2. 아니오

G8) 대학(원)에 재학 중이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졸업하였다
2. 수료하였다 → **H1)로 이동**
3. 그만두었다 → **H1)로 이동**

G9) 언제 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 _____년 _____월

〈G2)~G9) 응답표〉

	1	2
G2) 진학방법		
G3) 학교명, 소재지, 입학년월	학교명: _____ 소재지: _____ (편)입학년월: ____년 ____월	학교명: _____ 소재지: _____ (편)입학년월: ____년 ____월
G4) 학위과정	대학 대학원 주야	대학 대학원 주야
G4-1) 전공	(code: _____)	(code: _____)
G5) 진학이유		
G6) 전공일치		
G6-1) 타전공 선택이유		
G7) 재학여부		
G8) 비재학 사유		
G9) 졸업시기	____년 ____월	____년 ____월

다음은 재학 중 경험한 일자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한 학교 이전의 학교 경험이 있다면, 이전 학교경험 시기를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 대학 졸업 이전에 일하기 시작하였으나 졸업 이후까지 계속 일한 경우는 졸업 후 일자리 경험이나 현 직장 또는 첫 직장에 포함되므로 여기에서는 제외됩니다.
- 재학 중 경험한 일자리는 1주일 이상 다니신 일자리에 한하여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1) 대학 재학 중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르바이트를 포함해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학 및 방학기간 동안의 일자리 경험도 포함됩니다.

1. 있다
2. 없다 → II로 이동

H1-1) 총 몇 개의 일자리에서 일하셨습니까?

■ _____ 개

※ H2)~H11)은 응답표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경험한 일자리가 4개 이상인 경우, 대학 졸업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순서대로 3개까지만 응답표에 기입합니다. 단, 인턴경험이 있는 경우는 인턴경험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2)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업체명	
직무내용	
사용 장비나 도구	

CODE

H3) 일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____년 ____월 ~ ____년 ____월

H4) 인턴으로 일하셨습니까?

1. 예
2. 아니오

H5) 재학 중 경험한 일자리의 종사상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1. 상용근로자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 임시근로자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 일용근로자	6. 무급가족종사자

※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

※ **임시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

우 또는 고용계약이 정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 **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 **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조사대상주간에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

H6) 주당 평균 근로일수는 며칠입니까?

■ 주당 평균 _____ 일간

H7)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 하루 평균 _____ 시간

H8) 그 일자리에서의 소득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세금 및 상여금을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1. 월평균 _____ 만원
2. 주당 _____ 만원
3. 일당 _____ 만원
4. 시간당 _____ 원
5. 무급가족종사자

H9) 일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 생활비를 벌려고
2. 학비를 벌려고
3. 용돈이 필요해서
4.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와 살고 싶어서
5.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6.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
7. 주위(부모님 혹은 친지 등)에서 시켜서
8. 주위 친구들이 하니깐
9. 기타(_____)

H10) 졸업한 대학 재학 중 취업한 일자리의 업무 내용이 자신의 전공과 어느 정도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수전공이나 연계전공으로 전공을 두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는 주전공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1. 전혀 맞지 않았다
2. 잘 맞지 않았다
3. 그럭저럭 맞았다
4. 잘 맞았다
5. 매우 잘 맞았다

H11) 경험한 일자리 경험이 졸업 후 취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1.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2.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3. 보통이었다
4.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5. 매우 도움이 되었다

〈H2)~H11) 응답표〉

	1	2	3
H2) 일자리내용			
H3) 일한기간	____년 ____월 ~ ____년 ____월	____년 ____월 ~ ____년 ____월	____년 ____월 ~ ____년 ____월
H4) 인턴여부			
H5) 종사상자위			
H6) 근로일수	주당 평균 _____ 일간	주당 평균 _____ 일간	주당 평균 _____ 일간
H7) 근로시간	하루 평균 _____ 시간	하루 평균 _____ 시간	하루 평균 _____ 시간
H8) 소득	1.월평균 _____ 만원 2.주당 _____ 만원 3.일당 _____ 만원 4.시간당 _____ 원	1.월평균 _____ 만원 2.주당 _____ 만원 3.일당 _____ 만원 4.시간당 _____ 원	1.월평균 _____ 만원 2.주당 _____ 만원 3.일당 _____ 만원 4.시간당 _____ 원
H9) 일한이유			
H10) 전공일치도			
H11) 도움여부			

다음은 어학연수 경험 및 외국어 시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 어학연수 경험

I1) 대학교 입학 이후 어학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 단순한 해외여행 및 교환학생 경험은 제외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 등에서 이루어지는 해외교환파견 근무, 해외직무연수 등은 제외됩니다.

※ 졸업한 학교 이전의 학교 경험이 있다면, 이전 학교 경험 시기를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1. 예
2. 아니오 → **I6)으로 이동**

I2) 어학연수 경험은 몇 회입니까?

■ _____ 회

※ I3~I5)는 응답표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어학연수 경험이 4회 이상인 경우는 **채류기간이 긴 순으로 3개까지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I3) 어학연수 간 나라는 어디입니까?

1. 미국
2. 캐나다
3. 호주/뉴질랜드
4. 영국 등 유럽지역
5. 일본
6. 중국
7.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8. 러시아
9. 기타(_____)

I4) 어학연수를 위해 해당 국가에 체류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_____개월

I5) 어학연수를 위해 직접 지출한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 국가, 학교 등에서 지원한 금액을 제외한 본인(가구)가 지출한 비용으로 학비 및 체류에 소요된 생활비 등을 포함하여 주십시오.

■ _____만원

<I3~I5) 응답표>

	1	2	3
I3) 나라			
I4) 체류기간	_____개월	_____개월	_____개월
I5) 총 비용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 외국어 시험

I6) 귀하는 대학입학 후 공식기관을 통해서 영어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까?

※ 영어시험에는 토익(TOEIC), 영어 Verbal Test(TOEIC SPEAKING, OPIC), 토플(TOEFL - PBT, CBT, IBT), 텡스(TEPS) 등이 있습니다.

1. 있다
2. 없다 → **I7)로 이동**

I6-1) 귀하가 대학입학 후 공식기관을 통해서 취득한 가장 좋은 영어점수는 몇 점(또는 레벨)입니까?

※ 해당사항에 대하여 모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등급(레벨)
토익(TOEIC)		
영어 Verbal Test	TOEIC speaking	
	OPIC	
	기타 (_____)	
토플(TOEFL)	PBT	
	CBT	
	IBT	
텡스(TEPS)		
기타(_____)		

I7) 귀하는 대학입학 후 공식기관을 통해서 영어 외의 외국어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까?

※ 영어 외 외국어시험에는 일본어(JPT, JLPT), 중국어(HSK, CPT, BCT) 등이 있습니다.

1. 있다
2. 없다 → **I7-1)로 이동**

I7-1) 귀하가 대학입학 후 공식기관을 통해서 취득한 영어 외의 외국어점수는 몇 점(또는 등급)입니까?

※ 해당사항에 대하여 모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등급(급수)
일본어	JPT	
	JLPT	
중국어	HSK	
	CPT	
	BCT	
기타 (_____)		

다음은 졸업 전 취업목표에 관한 질문입니다.

J1) 졸업 이전에 설정했던 취업목표가 있으셨습니까?

※ 취업목표는 대학을 졸업하기 이전에 희망한 미래의 일자리 또는 직업을 말합니다. 단순히 희망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목표에 대한 정보탐색 이상의 최소한의 노력을 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 예
- 아니오 → **J7로 이동**

※ 졸업 이전 설정했던 취업목표가 여러 개 있었던 경우, J2) ~ J6)까지 가장 오래 준비한 취업목표 한 가지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J2) 취업목표를 설정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_____학년 _____학기

J3) 위 취업목표로 계획했던 직업이 있습니까?

- 예 (직업명 또는 직업내용 : _____)
- 아니오

CODE

J4) 취업 목표로 다음 중 어떤 형태의 직장(일자리)에 취업하기를 원하셨습니까?

-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 외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에 위치하는 외국인 회사
-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
- (재단, 사단)법인단체
-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 교육기관(대학, 초/중/고 등)
- 연구기관(국립/사립)
-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형태의 근무
- 기타(_____)
-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J5) 위에서 응답한 직업(J3) 및 직장(J4)의 취업목표를 이루셨습니까?

직업	직장
----	----

- 예
- 아니오
-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

⇒ **직업 및 직장 취업목표를 하나라도 이루지 못한 경우 J6)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 **목표로 설정한 직업 및 직장의 취업목표를 모두 이룬 경우 J7)로 이동해 주십시오.**

J6) 목표를 이루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
- 관련 정보의 부족

- 경제적 여유의 부족
-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한 목표상실
- 준비시간의 부족
- 자질의 부족
- 최종 졸업한 학교의 취업지원 부족
- 일자리 부족
- 학업의 계속(대학(원), 공무원 시험 준비 등)
- 기타(_____)

J7)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 귀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 연봉은 얼마였습니까?

※ 연평균 소득(연봉)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 또는 개인 사업을 준비하셨던 경우는 생각하셨던 최저 연평균 순수입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연봉 _____만원

다음은 직업능력 향상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질문입니다.

○ 대학 입학 후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 직업능력 향상 교육 및 훈련은 취업 전후 실시한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말합니다.

※ 직장연수, 학원수강 등이 포함되며, 통신 강좌와 교양강좌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것이라면 포함됩니다.

※ 자신의 교양이나 평생학습차원에서 받은 교육 및 훈련은 제외되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과 학점 인정되는 교과목(교생실습포함)도 제외되며, 정규학교교육의 학업과 관련한 학원수강 및 과외도 제외됩니다.

※ 고시, 공무원 공채(공민) 등의 시험 준비와 인턴경험은 제외됩니다.

※ 졸업한 학교 이전의 학교 경험이 있다면, 이전 학교경력 시기를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L1) 귀하는 대학 입학 후 지금까지 직업능력 향상 교육 또는 훈련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받은 경험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다 → **L2)로 이동**
- 받아본 적이 없다

L1-1) 직업능력 향상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 바빠서/시간이 없어서
- 훈련을 받은 만큼 수입이 감소하므로
- 수강하고 싶은 교육훈련 과정이 없어서
- 훈련비가 부담되어서
- 교육훈련 참여자격이 되지 않아서
- 회사(교용주)가 싫어해서
- 교육훈련과정의 시간이 맞지 않아서
- 필요한 교육훈련 정보를 얻지 못해서
- 기타 (_____)

→ **L2)로 이동**

L2) 직업능력 향상 교육 또는 훈련을 총 몇 번 받으셨습니까?

■ _____ 회

※ L3)~L12-1)은 응답표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현재 수강중인 교육 또는 훈련을 포함하여 직업능력향상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훈련을 3개까지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L3) 교육 또는 훈련의 과정명은 무엇입니까?

■ 교육 또는 훈련명 : _____

L4) 교육 또는 훈련은 다음 중 어떤 분야에 해당합니까?

- | | |
|------------------|------------------|
| 1. 농림·어업분야 | 13. 서비스분야 |
| 2. 식품분야 | 14. 경영·사무분야 |
| 3. 섬유·의복분야 | 15. 금융·보험분야 |
| 4. 화학분야 | 16. 보건·의료분야 |
| 5. 금속·비금속분야 | 17. 환경·비파괴·안전분야 |
| 6. 기계분야 | 18. 교육·법률·사회복지분야 |
| 7. 건설분야 | 19. 판매·영업분야 |
| 8. 전기분야 | 20. 운전분야 |
| 9. 전자분야 | 21. 계층별교육분야 |
| 10. 컴퓨터분야 | 22. 어학분야 |
| 11. 인쇄·출판·디자인분야 | 23. 문화·예술분야 |
| 12. 목재·펄프·가구공예분야 | 24. 기타 () |

L5)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____년 ____월 ~ 1) ____년 ____월
2) 현재 받고 있다

L6) 교육 또는 훈련은 총 몇 시간 과정입니까?

■ 총 _____시간

L7) 교육 또는 훈련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회사가 시행하는 업무능력 향상 훈련
- 정부지원훈련
- 개인선택의 교육훈련
- 대학교 현장 실습
- 기타(_____)

L8) 이 교육 또는 훈련은 업무 시간 중에 진행이 되었습니까?

- 업무 시간 중에 진행
- 업무 시간 외에 진행
- 해당사항 없음(교육을 받을 때 미취업자 또는 비임금근로자였음)

L9)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더 나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 취업을 위해서
- 더 좋은 직장이나 다른 직업을 갖기 위해서
- 인사고과에 도움이 되어서
- 훈련비가 무료이고 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어서
- 자기 발전을 위한 일반적인 목적으로
- 언젠가는 활용할 수 있어서
- 기타 ()

L10) 귀하가 받은 교육 또는 훈련이 위의 주된 목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 보통이었다
-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 매우 도움이 되었다

L11) 받으신 직업능력향상 훈련 및 교육을 위해 지출한 자기부담비용은 얼마입니까?

※ 직업훈련을 위한 부담 비용은 도서구입비, 교통비, 숙박비, 수강료, 실험실습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 자기부담비용은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 등 가족이 부담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 자기부담이 전혀 없는 경우는 '0'으로 표기합니다.

■ 자기부담비용: _____만원

<L3)~L11) 응답표>

	1	2	3
L3) 교육 또는 훈련명			
L4) 분야			
L5) 기간	1) ____년 ____월 ~ ____년 ____월 2) 현재 수강	1) ____년 ____월 ~ ____년 ____월 2) 현재 수강	1) ____년 ____월 ~ ____년 ____월 2) 현재 수강
L6) 시간	총 ____시간	총 ____시간	총 ____시간
L7) 교육유형			
L8) 상태			
L9) 목적			
L10) 도움정도			
L11) 자기부담비용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L12) 귀하는 향후 1년 이내에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또는 훈련을 희망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M1)로 이동

L13) 그렇다면 다음 중 어떤 분야의 교육 또는 훈련을 희망하십니까?

- | | |
|------------------|------------------|
| 1. 농림·어업분야 | 13. 서비스분야 |
| 2. 식품분야 | 14. 경영·사무분야 |
| 3. 섬유·의복분야 | 15. 금융·보험분야 |
| 4. 화학분야 | 16. 보건·의료분야 |
| 5. 금속·비금속분야 | 17. 환경·비파괴·안전분야 |
| 6. 기계분야 | 18. 교육·법률·사회복지분야 |
| 7. 건설분야 | 19. 판매·영업분야 |
| 8. 전기분야 | 20. 운전분야 |
| 9. 전자분야 | 21. 계층별교육분야 |
| 10. 컴퓨터분야 | 22. 어학분야 |
| 11. 인쇄·출판·디자인분야 | 23. 문화·예술분야 |
| 12. 목재·펄프·가구공예분야 | 24. 기타 () |

다음은 취득 자격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M1) 귀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 운전면허의 경우는 1종 대형 및 특수차량 면허만 포함되고 1종 보통과 2종은 자격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예
2. 아니오 → **N1)로 이동**

M2) 소지하신 자격증은 총 몇 개입니까?

■ _____개

※ M3)~M9)는 응답표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귀하가 소지한 자격증 중 중요한 순서대로 3개만 적어 주십시오.

M3) 귀하가 소지한 자격증 명은 무엇입니까?

■ 자격증명: _____(code: _____)

M4) 귀하가 소지하신 자격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면접원: 자격증명과 코드북에 기재된 자격증 유형 분류가 맞는지 확인할 것

※ 국가전문자격은 주로 전문서비스분야(의료, 법률 등)의 자격으로 개별부처의 필요에 의해 신설, 운영되며 각 부처별로 법적근거가 있으며 면허적 성격을 가진 자격이 대부분입니다.

※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하여 특수한 목적으로 국가기술의 발전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자격입니다.

※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자격으로 교과부에서 관할하고 직능원에서 관리합니다.

※ 외국자격은 운영, 시행주체가 외국인 경우를 말합니다.

1. 국가전문자격
2. 국가기술자격
3. 민간자격
4. 외국자격

M5) 자격증 취득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1. 취업
2. 창업
3. 승진
4. 이직(전직)
5. 자격수당
6. 업무관련성
7. 자기개발
8. 교육이수평가
9. 진학
10. 졸업
11. 기타(_____)

M6) 귀하가 취득한 자격증이 위의 주된 목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1.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2.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3. 보통이었다
4.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5. 매우 도움이 되었다

M7) 자격증 취득을 위해 부담한 자기부담비용은 얼마입니까?

※ 자격증 취득 비용은 도서구입비, 교통비, 숙박비, 수강료, 실험실습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 자기부담비용은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 등 가족이 부담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 자기부담이 전혀 없는 경우는 '0'으로 표기합니다.

■ 자기부담비용: _____만원

M8) 자격증 취득시기는 언제입니까?

■ _____년 _____월

M9)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_____년 _____월 ~ _____년 _____월

<M3)~M9) 응답표>

	1	2	3
M3) 자격증명			
M4) 자격증 유형			
M5) 취득목적			
M6) 도움정도			
M7) 자기부담비용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M8) 취득시기			
M9) 준비시기			

다음은 시험준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 시험준비 항목은 대학 재학 시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시험 준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 '시험준비'란 행정고시, 사법고시, 교원임용시험 등 공무원 및 공단(사) 시험과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시험과 취업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졸업한 학교 이전의 학교 경험이 있다면, 이전 학교경험 시기를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N1) 현재까지 공무원 또는 공단(사), 교원임용 시험 또는 회계사, 법무사 등 전문자격시험이나 언론사 시험준비 경험이 있습니까?

※ 공단(공사) 내부의 진급시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있다
2. 없다 → **K1)로 이동**

※ N2)~N8)은 응답표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N2) 준비한 시험은 무엇입니까?

※ 준비기간이 긴 순서대로 3개까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공무원 또는 공단(사), 교원임용 시험	회계사, 법무사 등 전문자격 시험이나 언론사 시험
1. 행정고시	11. 공인회계사
2. 사법시험	12. 세무사
3. 외무고시	13. 법무사
4. 기술고시	14. 공인노무사
5. 7급 공무원시험	15. 변리사
6. 9급 공무원시험	16. 공인중개사
7. 교원임용시험	17. 감정평가사
8. 공단·공사시험	18. 보험계리인
9. 8급 간호직 공무원시험	19. 언론사 시험
10. 10급 기능직 공무원시험	40. 기타()
30. 기타()	

N3) 시험을 위해 준비한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_____년 _____월 ~ _____년 _____월

N4) 시험에 응시한 횟수는 몇 회입니까?

※ 시험준비를 시작하고, 실제로 시험을 본 적이 없는 경우는 0회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조사 당시에 시험에 접수한 상태도 0회에 해당합니다.

■ _____회

**N5) 시험준비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1. 학원수강
2. TV 방송
3. 인터넷 강의
4. 학교 내 특강수강
5. 그룹 스터디
6. 혼자 공부
7. 기타()

N6) 시험준비를 위해 소요한 비용(책값, 학원 수강료, 고시원 비용 등)은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 월평균 _____만원

N7) 준비하신 시험에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1. 예 → **K1)로 이동**
2. 아니오

N8) 현재도 계속 준비하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N2)~N8) 응답표〉

	1	2	3
N2) 시험종류			
N3) 준비기간	____년 ____월~ ____년 ____월	____년 ____월~ ____년 ____월	____년 ____월~ ____년 ____월
N4) 응시횟수	____회	____회	____회
N5) 준비방법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N6) 준비비용	월평균 _____만원	월평균 _____만원	월평균 _____만원
N7) 합격여부			
N8) 계속준비			

다음은 취업준비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 먼저 취업준비활동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대학 입학 이후의 경험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1) 귀하는 대학 입학 이후 다음의 각 취업 준비활동의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각 항목은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각 취업준비활동 경험에 대하여 1. 있음 2. 없음으로 답하여 주십시오.

※ 기업체 직무적성검사는 특정 기업체(사업체)의 채용과정 중 실시하고 있는 검사로 공무원, 공단, 교원임용 시험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취업에의 도움정도는 참여한 적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각 항목에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5. 매우 도움이 되었다 로 답하여 주십시오.

취업준비활동	경험 여부	도움 정도
1. 기업체 직무적성검사(GSAT 등) 공부		
2. 영어 등 외국어 공부		
3. 봉사활동		
4. 공모전 수상		
5. 자격증 준비		
6. 대외활동(체험단, 마케터, 서포터즈 등)		
7. 외도관리(다이어트, 시술, 수술 등)		
8.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교육		
9. (모의)면접훈련		

⇒ 모든 준비활동에 “2.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 K4)로 이동해 주십시오.

K2) 처음 취업준비를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1. 재학 중 → _____학년 _____학기
2. 졸업 후

K3) 취업준비 과정 중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1. 스펙 쌓기
2. 사회의 고정관념(출신 지역, 학교 등) 극복
3. 취업준비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
4. 준비 기간 동안의 경제적 어려움
5.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의 기대/관심
6. 친구 등 지인과의 만남으로 인한 시간소비
7. 기타()

K4) 취업을 위하여 가장 처음 일자리 정보를 얻은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학교 취업정보실	9. 인터넷(취업사이트/7매 등)
2. 교수님/교사무실 포함	10. 회사에 직접 연락 (회사홈페이지 포함)
3. 부모 또는 친척	11. 직업 및 취업박람회
4. 친구, 선배 등 지인	12. 학원
5. 신문, TV 등 언론매체	13. 현장실습/인턴십
6. 생활정보지	14. 헤드헌터(사지 컨설턴트)
7. 공공취업알선기관 (고용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등)	15. 기타()
8. 사설취업알선기관 (직업소개소 등)	16. 일자리 정보를 구해보지 않음

K5) 귀하는 대학 입학 이후 최저임금 이하 또는 무급으로 일 한 경험이 있습니까?

※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최저임금 이하 또는 무급으로 일한 경험은 제외됩니다.

1. 예
2. 아니오 → **K14)로 이동**

K6) 이와 같은 경험의 횟수는 총 몇 번입니까?

■ _____번

※ 이후부터는 최저임금 이하 또는 무급으로 일한 경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험의 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는 최근 경험을 기준으로 3회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K7) 그 경험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인턴
2. 현장실습
3. 인턴 및 현장실습이 아닌 일자리
4. 기타()

K8) 그 일자리에서 일하기 전에 최저임금 이하 또는 무급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1. 예
2. 아니오 → **K10)으로 이동**

K9) 최저임금 이하 또는 무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취업경력을 쌓으려고
2. 자격증 취득을 위해 그 일자리 경험이 필요해서
3. 교육 혹은 훈련이수를 위해 그 일자리 경험이 필요해서
4. 일정 기간 후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5. 일정 기간 후 임금이 올라갈 것 같아서
6. 그보다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7. 기타()

K10) 해당 일자리에서 일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1. 재학 중
2. 재학 중 + 졸업 후
3. 졸업 후

K11) 해당 일자리에서 일한 시기는 몇 개월입니까?

■ _____ 개월

K12) 계약 종료 후 해당 업체에 채용되었습니까?

1. 정규직으로 채용됨
2. 비정규직으로 채용됨
3. 채용되지 않음

K13) 해당 일자리에서의 경험은 취업 또는 경력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5. 매우 도움이 되었다

<K7)~K13) 응답표>

	1	2	3
K7) 경험유형			
K8) 사전인식			
K9) 일한이유			
K10) 일한시기			
K11) 일한기간			
K12) 채용여부			
K13) 경력형성			

K14) 귀하는 채용공고와 다른 고용조건(근무시간, 급여, 고용형태 등)으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K15) 향후 1년간 귀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된 계획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우 "9. 구체적인 계획 없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1. 직장 옮김
2. 취업
3. 국내 학교로의 진학(대학 및 대학원)
4. 외국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
5. 시험 및 자격증 준비
6. 개인사업 또는 창업
7. 휴식 및 여행
8. 결혼, 육아 또는 가사
9. 구체적인 계획 없음
10. 기타()

**K16) 다음은 일자리에서 고려하는 항목들입니다.
각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치 않음	중요치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근로소득	1	2	3	4	5
(2) 근로시간	1	2	3	4	5
(3) 자신의 적성 흥미	1	2	3	4	5
(4) 전공분야와의 관련성	1	2	3	4	5
(5) 업무내용의 난이도	1	2	3	4	5
(6) 업무량	1	2	3	4	5
(7) 개인 발전가능성	1	2	3	4	5
(8) 직업 자체의 미래 전망	1	2	3	4	5
(9) 직장(고용) 안정성	1	2	3	4	5
(10) 근무환경	1	2	3	4	5
(11) 복리후생	1	2	3	4	5
(12) 회사규모	1	2	3	4	5
(13) 출퇴근거리	1	2	3	4	5
(14)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평판	1	2	3	4	5
(15)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	1	2	3	4	5

※ 다음은 행복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K17) 다음질문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매우 그렇다

질문	응답
1. 나는 내 삶의 개인적 측면(개인의 성취, 성격, 건강 등)에 대해 만족한다.	
2. 나는 낸 삶의 관계적 측면(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 만족한다.	
3.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해 만족한다.	

K18) 지난 한 달 동안 다음에 제시된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꼈습니까? 전혀 느끼지 않았다(1점)부터 항상 느꼈다(7점)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감정	전혀 느끼지 않았다	→	항상 느꼈다
4. 즐거운	1	2	3 4 5 6 7
5. 행복한	1	2	3 4 5 6 7
6. 편안한	1	2	3 4 5 6 7
7. 짜증나는	1	2	3 4 5 6 7
8. 부정적인	1	2	3 4 5 6 7
9. 무기력한	1	2	3 4 5 6 7

다음은 청년고용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01) 다음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각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각 청년 고용 정책의 들어본 경험에 대하여 1. 있음 2. 없음으로 답하여 주십시오.
- ※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관심도와 참여경험에 응답하시고,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도움정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 관심정도는 각 항목에 대하여 1. 전혀 관심없다 2. 관심없다 3. 보통이다 4. 관심이 있다 5. 매우 관심있다 로 답하여 주십시오.
- ※ 참여경험은 각 항목에 대하여 1. 있다 2. 없다 로 답하여 주십시오.
- ※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 참여 횟수와 참여 시기를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청년고용정책에 여러 번 참여한 경우 시작시기 및 취업예의 도움정도를 가장 최근의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취업예의 도움정도는 참여한 적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각 항목에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5. 매우 도움이 되었다 로 답하여 주십시오.

청년고용정책	들어본 경험	관심 정도	참여 경험	참여 횟수
중소기업청년인턴				
공공기관청년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	청년강소기업채용 프로그램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대학청년고용센터			
	취업지원관			
직업능력 개발지원	내일배움카드제 (구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청년취업아카데미			
	일학습병행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훈련 교육과정 특강 등			
창업지원	창업아카데미 창업대학 창업인턴 등			
해외 취업지원	K-MOVE(해외인턴 해외연수) 등			

청년고용정책	시작년월	종료년월	취업 예의 도움 정도
중소기업청년인턴			
공공기관청년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	청년강소기업채용 프로그램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대학청년고용센터		
	취업지원관		
직업능력 개발지원	내일배움카드제 (구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청년취업아카데미		
	일학습병행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훈련 교육과정 특강 등		
창업지원	창업아카데미 창업대학 창업인턴 등		
해외 취업지원	K-MOVE(해외인턴 해외연수) 등		

다음은 건강에 관한 질문입니다.

Q1) 귀하는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건강하지 않다
2.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건강한 편이다
5. 매우 건강하다

Q2)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정도 운동을 하십니까?

■ _____ 시간

Q3)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_____ 시간

Q4) 귀하는 담배를 피우십니까?

1. 예
2. 아니오 → Q5로 이동

Q4-1) 하루 평균 흡연량은 얼마나 됩니까?

■ _____ 개비

Q5) 귀하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1. 전혀 마시지 않음
2. 일 년에 1~2회
3. 한 달에 1~2회
4. 일주일에 1~2회
5. 일주일에 3~4회
6. 거의 매일

Q6) 귀하는 다음과 같은 장기간 지속되는(6개월 이상) 장애나 육체적 제약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시각, 청각, 언어장애 등 감각기관의 장애가 있다.	1	2
2. 걷기, 계단오르기, 물건을 들거나 운반하기 등의 육체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1	2

Q7) 귀하는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조건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에 지속적으로(6개월 이상)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	아니오
1.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에 어려움을 느낀다.	1	2
2. 옷 입기, 목욕하기 등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1	2
3. 쇼핑하기, 병원가기 등 집밖을 돌아다니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1	2
4. 직업활동을 하는 것에(일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1	2

Q8) 귀하의 키는 몇 cm입니까?

■ _____ cm

Q9) 귀하의 몸무게는 몇 kg입니까?

■ _____ kg

다음은 인적사항 및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P1) 귀하의 혼인상태는 무엇입니까? (2016년 9월 1일 기준)

1. 미혼 → P4로 이동
2. 기혼
3. 이혼 → P3으로 이동
4. 사별 → P3으로 이동

P1-1) 언제 결혼 하셨습니까?

■ _____ 년 _____ 월

P2) 배우자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1. 무학
2. 초등학교 졸업
3. 중학교 졸업
4. 고등학교 졸업
5. 전문대 졸업
6. 대학 졸업
7. 대학원 졸업

P2-1) 배우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관리직
2. 경영 · 회계 · 사무 관련직
3. 금융 · 보험 관련직
4. 교육 및 자연과학 ·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5. 법률 · 경찰 · 소방 · 교도 관련직
6. 보건 · 의료 관련직
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8. 문화 · 예술 · 디자인 · 방송 관련직
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2. 미용 · 숙박 · 여행 · 오락 · 스포츠 관련직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4. 건설 관련직
15. 기계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금속 · 유리 · 점토 · 시멘트)
17. 화학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19. 전기 · 전자 관련직
20. 정보통신 관련직
21. 식품가공 관련직
22. 환경 · 인쇄 · 목재 · 가구 · 공예 및 생산단순직
23. 농림어업 관련직
24. 군인
25. 무직(학생, 주부 등)

P2-2)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 | |
|-----------------|-------------------|
| 1. 100만원 미만 | 5. 400~500만원 미만 |
| 2. 100~200만원 미만 | 6. 500~700만원 미만 |
| 3. 200~300만원 미만 | 7. 700~1,000만원 미만 |
| 4. 300~400만원 미만 | 8. 1,000만원 이상 |
| | 9. 소득 없음 |

P3)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습니까?

1. 예 ()명
2. 아니오

→ P7로 이동

P4) 귀하는 결혼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1. 결혼 할 생각이 있음
2.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음 → P6으로 이동
3.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음 → P6으로 이동
4. 생각해 본 적 없음 → P7으로 이동
5. 아직 결정하지 못했음(모르겠음) → P7으로 이동

P5) 귀하가 결혼한다면 몇 살쯤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만 세

→ P7로 이동

P6) 귀하가 현재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1. 경제적 여유의 부족(실업, 고용불안 등 포함)
2. 결혼생활로 인해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3.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에
4. 상대방에게 구속되기 싫어서
5.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6. 가부장적인 결혼제도가 싫어서
7. 외모가 자신이 없어서
8. 건강·장애 때문에
9. 기타()

P7) 귀하는 현재(2016년 9월1일)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P8) 가구주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1. 가구주 본인
2. 가구주의 배우자
3. 가구주의 자녀(또는 가구주 자녀의 배우자)
4. 가구주의 형제자매(또는 가구주 형제자매의 배우자)
5. 가구주의 기타 친인척
6. 인척관계 아닌 동거인
7. 기타()

P9)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수는 몇 명입니까?
본인을 포함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는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수로 포함합니다.

예) 부모님(및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면: 부모님+형제·자매+본인
부모님(및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본인(1명)

■ 명

P10) 귀하의 출생지역은 어디입니까?

- 국내: 특별시/광역시/도 구/시/군
■ 외국(국가명):

P11) 귀하의 현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 특별시/광역시/도 구/시/군

P12)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학력	이수여부
아버님	1. 무학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전문대(초급대) 6. 대학 7. 대학원	1. 졸업 2. 재학 3. 중퇴 4. 휴학
어머님	1. 무학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전문대(초급대) 6. 대학 7. 대학원	1. 졸업 2. 재학 3. 중퇴 4. 휴학

P13) 졸업한 대학을 입학(편입)할 당시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님	어머님
-----	-----

1. 관리직
2.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3. 금융·보험 관련직
4.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관련직
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6. 보건·의료 관련직
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2.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4. 건설 관련직
15. 기계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금속 · 유리 · 점토 · 시멘트)
17. 화학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19. 전기 · 전자 관련직
20. 정보통신 관련직
21. 식품가공 관련직
22. 환경 · 인쇄 · 목재 · 가구 · 공예 및 생산단순직
23. 농림어업 관련직
24. 군인
25. 무직(은퇴, 주부 등)
26. 안 계심(사망)

P14) 졸업한 대학입학(편입) 당시와 현재(2016년 9월 1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세금을 포함한 소득을 표기해 주십시오.

대학입학당시	현재
--------	----

- | | |
|-----------------|-------------------|
| 1. 100만원 미만 | 6. 500~700만원 미만 |
| 2. 100~200만원 미만 | 7. 700~1,000만원 미만 |
| 3. 200~300만원 미만 | 8. 1,000만원 이상 |
| 4. 300~400만원 미만 | 9. 소득없음 |
| 5. 400~500만원 미만 | 10. 안계심(사망) |

P14-1) 현재 부모님의 자산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건물, 토지, 자동차 등 실물자산과 예금, 주식, 저축성 보험 등 금융 자산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1. 5천만 원 미만
2.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미만
3. 1억 5천만 원 ~ 3억 원 미만
4. 3억 원 ~ 5억 원 미만
5. 5억 원 ~ 10억 원 미만
6. 10억 원 이상
7. 안계심(사망)

P15) 지난 한 해(2015년) 귀하의 개인 소득 총액은 얼마입니까?

※ 세금이나 공제 전의 모든 소득액을 합산하여 기재해 주십시오.

■ 총 _____만원

P16)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현재 부모, 형제를 포함하여 가족으로부터 매달 고정적으로 생활비(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배우자 간의 생활비 및 용돈의 제공 등은 제외하고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월평균 총 _____만원)
2. 아니오

P17)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 현재 부모, 형제를 포함하여 가족에게 매달 고정적으로 생활비(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배우자 간의 생활비 및 용돈의 제공 등은 제외하고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월평균 총 _____만원)
2. 아니오

P18) 군복무 경험이 있습니까?

1. 비대상(여자 또는 외국 국적자)
2. 현역제대
3. 보충역제대(공익근무요원)
4. 병역특례제대(방위산업체 포함)
5. 의가사제대
6. 면제
7. 미필
8. 직업군인(부사관 이상)으로 복무 중
9. 대체복무 중(공중보건의, 방위산업체 등)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 날짜	2016년 ____월 ____일
응답 시간	____시간 ____분 동안
조사장소	

연구책임 신 종 각 (고용패널조사팀 연구위원)
공동연구 이 주 현 (고용패널조사팀 책임연구원)
오 세 미 (고용패널조사팀 연구원)
김 주 희 (고용패널조사팀 인턴)

2016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인 쇄 2017년 12월 30일
발 행 2017년 12월 30일
발 행 인 이재흥
발 행 처 한국고용정보원
27740 충북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 1577-7114
홈페이지 www.keis.or.kr
조판 및 인쇄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드림사업단
☎ 031-421-8418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재 및 역재할 수 없습니다.
ISBN : 978-89-6331-816-5

